

제22회  
재외동포문학상  
수상작품집



2020

재외동포  
문학의  
창





## 발간사

750만 재외동포의 삶의 궤적을 담은 '재외동포 문학의 창'이 어느덧 스물두 돌을 맞았습니다.

우리 재단은 재외동포들이 마음껏 문학적 재능을 발휘하고, '문학'이라는 공통분모를 통해 내외동포 간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1999년부터 매년 '재외동포문학상'을 시행해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의 시련 속에서도 전 세계 59개국으로부터 1천 3백여 편의 작품이 접수되어 그 어느 때보다 열띤 공모전을 치렀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소중한 이야기들을 들려준 우리 동포들의 모국어 창작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올해는 입양수기 부문을 신설하여 입양동포의 목소리를 여러분께 들려드릴 수 있게 되어 의미가 각별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다채로워지는 '재외동포문학상'을 통해 동포들은 모국어의 울림을, 내국민들은 동포들의 삶을 기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책에 담긴 서른세 편의 이야기들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오래오래 남아 재외동포들이 더 이상 타자(他者)가 아니라 한민족 구성원으로 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작품을 출판해주신 재외동포 문학인 여러분들과 공정한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심사위원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며, '재외동포문학상'이 내외동포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공감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한 우 성



# CONTENTS

심사평 007



<b>대상</b>	“왜지”나무 • 황 연 (중국)	026
<b>우수상</b>	깜보자 꽃 • 서 미 숙 (인도네시아)	028
	수국 여행 • 김 백 현 (미국)	030
<b>가작</b>	오늘 • 김 인 옥 (호주)	032
	우리 아버지 • 강 정 희 (독일)	034
	가족상봉 • 박 시 드 니 (덴마크)	036



<b>대상</b>	혜선의 집 • 김 수 연 (캐나다)	040
<b>우수상</b>	이본을 모르면서 • 양 해 숙 (독일)	058
	달리는 마카우 • 황 소 라 (케냐)	077
<b>가작</b>	노를란드의 송이버섯 • 김 미 영 (스웨덴)	099
	어서스턴트 • 황 모 과 (일본)	119
	내가 차버린 공 • 리 동 렬 (중국)	140



<b>대상</b>	슬기로운 이방인 생활 • 김 진 아 (프랑스)	162
<b>우수상</b>	한국 햄버그 • 방 종 석 (아르헨티나)	171
	시베리아 찬바람속에서 11년 인생살이 • 리 삼 민 (중국)	185
<b>가작</b>	자아 정체성, 동포3세 이야기 • 차 바 실 리 (카자흐스탄)	197
	나의 이름은 태양 • 류 모 니 카 (미국)	211
	아이들과 독일에서 산다는 것 • 박 에 스 터 (독일)	227



중·고등 부문

<b>최우수상</b>	가을비의 사랑법 • 김 미 혜 (중국)	242
<b>우수상</b>	아이단 + 라만 = 나 • 홍 찬 양 (아제르바이잔)	247
	꿈꾸는 디아스포라 • 김 다 윤 (오스트리아)	255
<b>장려상</b>	주름살에 핀 웃음 꽃 • 유 다 은 (태국)	259
	집은 내 마음 속에 있다 • 윤 에 스 터 (감비아)	266
	내가 영어를 못해도 되는 이유 • 표 현 규 (캐나다)	270

<b>최우수상</b>	<b>별</b>	276
	• 신 울 (중국)	
<b>우수상</b>	<b>뼈약이의 탄생</b>	280
	• 박 재 윤 (케냐)	
	<b>아주 특별한 산책</b>	282
	• 장 하 진 (미국)	
<b>장려상</b>	<b>난 꿈이 있어</b>	286
	• 이 윤 서 (중국)	
	<b>내 인생의 첫 술</b>	289
	• 김 동 현 (미국)	
	<b>먹어봐요 김치를, 함께 줘요 K-Pop을~</b>	292
	• 박 지 후 (뉴질랜드)	

<b>대상</b>	<b>Mother, Lost and Found 잃어버린 어머니와의 재회</b>	298
	• Hana Crisp (호주)	
<b>가작</b>	<b>Add More Salt If Necessary 필요시 소금을 추가할 것</b>	330
	• Ann-Kathrin Moon (독일)	
	<b>Dear Eomma 친애하는 엄마에게</b>	361
	• 김 난 이 (미국)	

수상소감 380

# 심사평



## 시 부문



신 달 자 심사위원



유 자 호 심사위원



정 호 승 심사위원



문 태 준 심사위원

‘제22회 재외동포문학상’ 시 부문에 응모한 작품들을 꼼꼼하게 읽었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 스웨덴, 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에 거주하면서 모국어로 창작한 작품들이었다. 창작한 분들의 이주 기간을 보니 짧게는 수년부터 길게는 50년이 넘는 분들이었다. 모국어에 대한 언어 감각과 활용이 예민하고 높아 놀라웠다. 예년보다 점점 더 다양한 나라에서 ‘재외동포문학상’을 응모하는 경향이 뚜렷해졌고, 또 작품의 수준도 훨씬 높아졌다는 것이 심사위원들 공통의 의견이었다.

가족사에 대한 기억, 유년의 경험, 고향의 공간 등을 통해 모국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는 작품들도 많았지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시공간에서 느낀 시적 감흥을 창작의 재료로 삼은 작품들도 많았다. 특히 현재 살고 있는 시공간에서 느낀 시상(詩想)을 쓴 작품들 가운데에는 여러 편의 수작(秀作)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작품들은 번역가의 도움 없이 창작자가 곧바로 그곳의 언어로 바꿔서 발표한다면 그곳 문단에서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마지막까지 대상작 선정을 놓고 경합을 벌인 작품들은 「“왜지”나무」, 「깜보자 꽃」, 「수국 여행」이었다. 미국에 거주하는 동포가 쓴 시 「수국 여행」은

수국, 쓰레기통, 밤하늘, 저녁 하늘, 화자로 연이어 이어지는 질문의 연쇄를 보여 준다. 그 질문은 가고 옴, 이동과 멈춤, 신속과 느림 등에 관한 것이다. 이런 질문들은 이 시대 우리들 삶의 상태를 반성하게 하고, 또 우리 삶을 이루는 관계에 대해 사유하게 했다.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동포가 보내온 시 「깜보자 꽃」은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었다. 화자는 깜보자 꽃을 보면서 시골 담장에 늘어서 꽃을 피우던 봉선화 생각을 한다. 그리고 그 봉선화를 고향에 두고 온 사람으로 의인화한다. “쪼그려 앉아 바라보다/떨어진 꽃잎을 고무신에 주워 담던”이라는 대목은 특별한 교감을 선물했는데, 어린 시절에 경험한 동화적 아름다움이 이 시구에 남아있었다. 오랜 고심 끝에 대상작은 「“왜지”나무」로 결정했다. 중국에 23년째 살고 있는 동포가 보내온 이 작품은 낡은 집을 수리하고 나무를 기르는 아버지의 노동에 관한 시이다. 물론 이때의 ‘집’은 가족이 함께 주거하던 경험과 시간의 집이다. 아버지의 노역을 통해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잔잔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모국어의 미감을 잘 살렸고, 또 묘사와 비유 등이 빼어난 작품이었다.

모국을 떠나 살면서도 우리의 동포들이 이처럼 풍성한 시편들을 창작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 문학의 축복이다. 재외동포 문학의 분화된 양상은 한국 문학의 외연 확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더 좋은 작품들의 창작을 고대한다. 수상자분들께는 축하의 인사를, 응모한 모든 분들에게는 격려의 인사를 올린다.

## 단편소설 부문



오 정 희 심사위원



구 호 서 심사위원



우 한 응 심사위원

매해 심사에 임하면서 매번 놀라게 되는데 응모작의 수준이 갈수록 매우 가파르게 향상한다는 점 때문이다. ‘재외동포문학상’의 위상이 새삼스럽다. 더불어 재외동포 문학의 저변 확대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재외동포문학상’이 아니었다면 국외에 살고 있는 동포들의 모국어 표현 욕구와 창작 열망은 경쟁과 격려의 여건 없이 진행된 자족적 글쓰기에서 멈추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글쓰기의 동기를 제공하고, 제출된 작품이 선정 과정을 거쳐 모국의 독자들과 만날 수 있도록 출간된다는 사실이 재외동포들로 하여금 창작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이토록 놀라울 만한 수준 향상을 이끌어낸 것이라면,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재외동포의 우수한 문학작품이 국내의 다양한 잡지 등 출판매체를 통하여 활발히 발표되고 평가받는 기회를 마련하는 데 보다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본다.

올해도 많은 응모작이 괄목할 만한 솜씨를 보여 주었다. 그중 주목할 만한 작품들을 거론하자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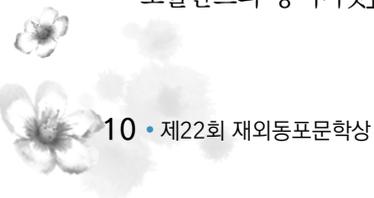
‘노를란드의 송이버섯’은 22년째 스웨덴에 살고 있는 동포의 작품이다.

지금 서울에 살며 쓴 소설이라고 해도 꿈이들릴 만큼 시공간적으로 지금/여기 이야기다. 물론 노를란드로 송이버섯을 따러 가는 이야기지만 한국어의 언어적 감수성이 지금/여기라는 말이다. 희숙이 노를란드에 송이버섯을 따러 가는 동기라든가 그곳에 인혁이라는 인물이 있게 되는 이유 등을 설명하지 않으면서도 독자에게 작의를 암시할 줄 아는 매우 절제된 서사를 솜씨 있게 진행시킨다. 하지만 과유불급일까. 절제가 지나치면 인색하게 보이는 법. 독자는 최소한의 친절까지 요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어시스턴트」는 생생하다. 만화 작가 어시스턴트의 일본 생활. 실제 경험담이라고 할 만큼 전문 분야에 대한 세부가 살아있고 김 작가라는 인물도 당장 작품 밖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리얼하다. 경험담 같아서 생생하다는 말은 아니다. 인물과 사건과 배경을 묘사하는 기술이 뛰어나서 생생하다는 말이다. 결말부에서 문장이 갑자기 수필류나 칼럼류로 둔갑하면서 급히 일반 사회론을 펼치지만 않았더라면 훨씬 좋은 점수를 받았을 것이다.

「내가 차버린 공」은 슬프다. 행복하기 위해 시작한 일들이 결국 행복하지 못한 결말을 향해 갈 때 슬픈 것인데, 이 작품에서는 가족을 위한 일이 가족 해체의 결과로 이어져서 그렇다. 노모와 어린 아들을 중국에 남겨 두고 한국으로 돈 벌러 떠난 부부는 현지에서 이혼하여 각자 다른 배우자와 사는데, 병약한 할머니를 혼자 두고 아들마저 서울로 왔으나 사정은 달라질 게 없다. 결국 노모와 부부와 아들자식 모두 가족으로서의 연대는 흩어지고, 원하던 행복은 노모가 죽으면서 더욱 요원해지는데, 가족 3대의 슬픈 현실 앞에 작가가 던지는 질문은 먹먹하고 묵직하다.

「달리는 마카우」는 케냐에서 온 작품이다. 대개의 작품들이 타국(거주국)에서의 나 혹은 한국인 이야기지만 이 작품은 케냐의 한 부족 혹은 마카우라는 이름의 청년 운전기사 이야기다. 물론 나이로비에 거주하는 한국인 두 가족이 등장하고 총격 테러 사건 현장에서 마카우가 몸을 다치면서까지 생명을 보호해 준 아이들도 한국인이다. 말하자면 이 이야기는 캄바족인 마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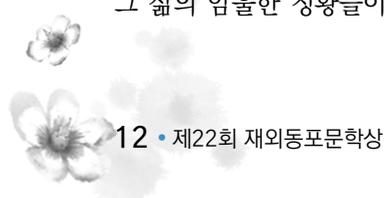
우와 마카우의 어머니 그리고 그의 외할머니와 외삼촌 이야기지만 기본적으로는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며 그것을 16년 넘게 케냐에 거주한 필자가 특정 부족의 가족사를 통해 현장감 있게 서술해 낸다는 점이 특색이다. 산다는 건 '나'의 눈으로 '그들'을 보는 일이지만 소설을 쓴다는 건 '그들'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게 하는 문학 행위라는 걸 이 소설만큼 모범적으로 보여 주는 작품도 드물다.

「이분을 모르면서」는 은근하고 과묵하면서도 그 어떤 응모작보다도 날렵하게 사람의 가슴을 치고 들어온다. 소영이 어쩌서 잘 알지도 못하는 이분을 따라 아이 둘을 데리고 암스테르담으로 향하는지, 무슨 이유로 시어머니 우즐라와 남편 라스의 만류를 뿌리치고 긴 여정에 함께하여 마침내는 보덴호에 다다르는지, 직접적으로 말하지도 않거니와 이야기를 사정과 형편 따위를 설명하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러하기 때문에 독일에서 독일 남자와 결혼해 아이 둘을 갖게 된 소영의 내면 풍경이 읽는 이의 마음에 더 잘 소슬하게 다가온다. 유럽의 역사 속에서 암스테르담이라는 도시가 차지하는 사회적인 의미, 그리고 여러 나라와 국경을 공유하여 그 어느 나라의 영토라고도 할 수 없는 보덴호의 상징 또한 설명하지 않는다 하여 그 의도마저 전달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혜선의 집」은 당장 국내 우수 문학잡지에 발표해도 손색이 없는 작품이다. 이 작품의 제목은 '혜선의 집'이지만 정작 집에 대한 내용은 없다. 늙고 병들어 가며 가족과 부딪히는 혜선의 일상이 펼쳐질 뿐이다. 그러니 알겠다. 혜선의 집이란 그의 정신과 영혼, 의지와 감성이 거주하는 몸인 것이다. 몸뿐 아니라, 병들고 늙어가면서 조금씩 늘어나는 정신과 영혼의 혈극穴隙 즉, 아귀가 맞지 않아 혈겁고 피폐해 가는 마음도 오래된 집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그 세밀한 균열의 틈새들을 긴장감 도는 상황 묘사와 감성적인 문장으로 날날이 돋을새김하는 솜씨가 매우 뛰어나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삶의 암울한 정황들이 특별히 나아지지 않으면서도 더 참담해지지도 않

게 소설의 말미를 절묘하게 아우른다는 점이다.

이 밖에도 「여기에 없는 사람」, 「바이러스」, 「홍이」, 「은하수로 날아간 종이학」, 「증명 프로젝트」, 「적정」, 「맨발의 여자 제인」, 「겨울새」, 「석기시대」 등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수상자에게는 축하를, 아쉽게도 입상에 들지 못한 응모자에게는 격려를 보낸다.



## 체험수기 부문



이 경 자 심사위원



박 인 기 심사위원



은 희 경 심사위원

‘재외동포문학상’ 응모작에는 다양한 이야기거리가 있고 또 경험에서 오는 실감이 있다. 그러나 체험을 글로 옮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심사에 임하는 세 심사위원의 기준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1. 체험수기 장르의 특질로서 코리안 디아스포라로서의 삶의 구체성과 총체성이 잘 드러나는 글. 그래서 체험의 역동성이 느껴지는 글.
2. 주인공이 몸으로 감당하는 시간과 공간의 변이가 의미 있게 드러나는 글. 그를 통해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글.
3. 본인 개인과 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소망, 비전을 독자와 더불어 공유하게 하는 글. 그러나 작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글.

위의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면 체험수기인 만큼 1. 진실하게 쓰고 2. 환경과 조건에 굴복하지 않고 뿌리내린 그 과정을 진솔하게 서술하며 3. 재외동포는 물론 한국에 살고 있는 독자들에게도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글.

위와 같이 간단하게 기준을 논의한 다음 심사에 들어갔고, 별다른 이견 없이 쉽게 수상작들을 뽑을 수 있었다.

「나의 이름은 태양」은 자신의 정체성을 거부하는 입양아 출신 암 환자의 이야기이다. 만남과 작별까지의 과정을 의사의 시점에서 소설처럼 짜임새 있게 풀어나갔다. 문장에 군더더기가 없으며 서술도 과장되지 않고 차분하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적대적인 말기 암 환자에게 태양이란 이름을 주고 스스로의 존재를 찾게 만들어서 평온한 죽음으로 이끄는 점이 깊은 울림을 준다. 객관적이면서도 따뜻하고 사유가 담긴 글이다.

「아이들과 독일에서 산다는 것」에는 세 아이를 키우며 한국과 독일 사이에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민에 얽힌 고생담에서 나아가 개인의 내면에 일어나는 사소한 갈등을 통해 뿌리내리기의 이면을 보여준다. 또한 생활의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재치 있는 문장으로 흥미롭게 재구성했다. 삶과 가족과 집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들어준다.

「자아 정체성, 동포 3세 이야기」는 카자흐스탄 교민 3세가 3대에 걸친 가족사를 되새기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내용이다. 성인이 되어서야 한국어를 배우고 자기 성씨를 찾는 과정, 또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는 동안 겪었던 재외동포에 대한 편견들이 구체적이고 실감나게 펼쳐진다. 고려인과 소련과 카자흐스탄에 얽힌 역사와 힘의 역학관계 속에서 자신의 좌표를 찾아가는 과정이 흥미롭고 설득력이 있다. 이 세 작품을 가작으로 결정했다.

「한국 햄버그」는 22년에 걸친 아르헨티나 정착기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응모작 중에는 더 긴 세월에 걸친, 더욱 드라마틱한 고생담과 성공담도 많았지만 이 작품이 돋보인 것은 정돈된 생각과 균형 감각 덕분이다. 적지 않은 사건들을 담고 있는데도 글의 몰입을 방해하는 사족이나 늘어짐이 없이 긴장을 잘 유지하고 있는 글이다.

## 청소년글짓기 부문



박 상 우 심사위원



서 하 진 심사위원



권 지 예 심사위원

「시베리아 찬바람속에서 11년 인생살이」는 중국 교민이 러시아에 가서 생존을 위한 사업에 뛰어들었던 일종의 모험담이다. ‘재외동포문학상’에 자주 보이는 소재이지만 이 작품은 특히 무협지 같은 긴박감에 다채로운 현장감이 더해져 흥미를 자아낸다. 사람 사이의 신뢰와 온정이라는 주된 메시지도 잘 담아냈다. 이 두 작품을 우수상으로 뽑았다.

대상은 「슬기로운 이방인 생활」이다. 커다란 사건 없이도 디아스포라에 대한 여러 가지 담론을 깊이 있고 개성적으로 그려냈다. 죽은 한국인 아내의 책을 나눠주는 프랑스 노인과 그 오래된 책에서 발견하는 이방인의 시간이라는 연결도 자연스럽다. ‘외국인의 삶은 증명의 연속이다’ 같은 문장과 그에 어우러지는 냉철한 상황 묘사에서 글의 내공이 엿보인다. 오랜만에 돌아온 한국이 낯설게 여겨지는 순간, 그리고 다시 돌아간 프랑스의 집에 인사하는 마무리 또한 여운을 남긴다. 만장일치로 쉽게 당선작으로 결정되었다.

당선권 안에는 들지 못했지만 아쉬운 작품도 많았다. 문장력은 있지만 이야기가 뻘한 경우, 사연은 절절하지만 장황한 글, 사유가 깊고 문장도 정돈돼 있지만 너무 평범한 내용, 자기 과시가 지나치게 드러난 점 등이 단점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글을 쓰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작품을 완성한 모든 분들께 격려를 보낸다.

당선 소식을 듣는 응모자들에게 축하를 전한다.

2020년 청소년(글짓기) 부문 응모작들은 예상대로 COVID-19로 인한 갖가지 어려움에 관한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팬데믹 상황에 대처하느라 우왕좌왕하는 형국이니 나이 어린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모든 것이 너무 낯설고 당황스럽고 힘겹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을 터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출입 제한에 의해 학교도 가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책상 앞으로 등교해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상황, 외출이 어려워진 여건 속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나아가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눈총을 받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까지 열거되어 심사를 하는 내내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워 여러 번 한숨을 내쉬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재외동포 청소년들이 COVID-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 일들도 자주 거론되어 일견 대견하게 여겨지기도 했다. 초기 한국에서의 폭발적 확진 사태에 관한 뉴스를 접하며 걱정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치밀하고 치열한 방역 시스템이 작동되어 확진자 숫자가 안정적으로 줄어들어 세계를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의료 여건이 어려운 나라들에 마스크와 진단 키트까지 보내주는 뉴스를 접하

면서는 한국인이라는 걸 온 가족과 함께 자랑스러워했다는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선진적 의료 시스템과 방역 시스템에 대한 뉴스가 해외에 자주 보도됨으로써 힘겹고 어려운 시기에 큰 위안과 힘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경험담이 참으로 짙게 와닿았다. 세월이 흐른 뒤일지라도 이 시기의 값진 경험들이 기억에 오래오래 남아 저마다의 인생 노정에 큰 밑거름이 되리라 믿는다. 코로나를 제하고 공통적인 소재로 눈길을 끈 것은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들이었다. 그것은 육아와 돌봄의 문제로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와 함께 지낸 시간이 많았던 청소년들의 경험이 반영된 때문일 것이다. 그들에게 할머니는 생업에 종사하느라 바쁜 엄마 아빠 대신 일거수일투족을 거두어 주고 사랑과 정을 나누어 주는 존재였을 터이니 그 기억은 오래오래 스러지지 않을 것이다. 초등부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별」도 할머니의 사랑으로부터 얻어진 대범한 자각을 보여 주고 있어 큰 공감을 자아냈다. ‘할머니의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랐던 나는 어느덧 하나의 나무가 되었고 그 나무는 이미 예전처럼 보호할 필요가 없지만, 그 안에는 항상 할머니와의 첫 번째 기억이 남아있다’는 마음 새김으로부터 할머니의 존재성은 은하계 속의 별처럼 우주적인 의미로 확장되고 또한 심화된다.

중·고등부의 글짓기에는 아픈 사연이 꽤 많았다. 성장하면서 인생의 진면목을 접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고 그것이 자신의 삶과 직결되니 아픔을 받아들이는 심도가 깊어지고 또한 심각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부모님의 이별, 아버지 사업 실패, 부적응과 방황 등등. 아픔을 아픔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내적 성장의 동기로 삼아 더욱 굳건하게 성장하는 자세를 보여 준 글들이 많아 참으로 다행스럽고 대견하게 여겨졌다. 그 모든 시련을 압축하고 승화시킨 정신적 자세를 높이 사 심사위원들은 중·고등부의 최우수상으로 「가을비의 사랑법」을 가려냈다. 시련과 아픔이 가득한 내용임에도 그것을 수용하고 극복하고 이겨나가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자세가 이를 데 없이 넉넉하고 믿음직스러웠기 때문이다.

2020년 ‘재외동포문학상’은 그 어느 해보다도 소중하고 각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COVID-19의 시련 속에서 재외동포 청소년들이 하늘의 별처럼 다채롭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슬기롭고 끈기있게 현명하고 대범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재외동포 청소년들이 더 멀리, 더 오래, 더 높이 날아오르길 빌며 심사평을 마친다.



## 입양수기 부문



부 경 숙 심사위원



정 경 아 심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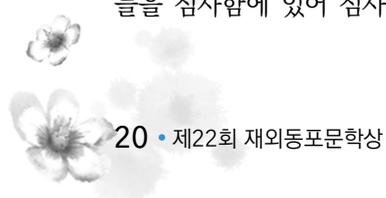
재외동포들에게 모국어로 쓴 시, 소설, 체험수기 등의 글을 통하여 고국과의 연과 현재 삶의 터전에서의 소회를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는 재외동포문학상이 올해로 22회를 맞이하면서 입양수기 부문을 새로이 포함한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다. 한국으로 연결된 한인 세계의 품을 넓혀주고 깊이를 더해주며 다양하게 살아가는 한국계 디아스포라의 모습을 더 잘 반영하도록 거듭난 제22회 재외동포문학상은 특히 상대적으로 모국어를 배울 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었던 해외입양동포들에게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로도 자신의 경험과 감정 그리고 생각을 정리하여 나누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고 소중한 문학상이다.

올해 처음 재외동포문학상에 포함된 입양수기 부문에 총 24편이 투고되었다. 투고작 하나하나가 각기 매우 다른 경험과 목소리를 담고 있지만 또한 공통된 입양이라는 경험에서 비롯되는 많은 아픔, 생각 및 감정의 여러 차례에 걸친 다양한 여과, 그리고 때로는 찡추듯 때로는 씨름하듯 복잡하게 선이 만나기도 겹치기도 포용하기도 밀어내기도 하며 그어지는 세상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의 정체성 형성이 담겨진 글들이었다. 이러한 귀중한 수기들을 심사함에 있어 심사진은 문학적으로 글이 다듬어진 완성도도 살펴보

았지만, 입양동포들에게 중요한 소재와 주제의 반영, 그리고 그러한 소재나 주제들 중에서 대중문화나 언론매체 등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이야기들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주기, 오랜 시간 곰곰이 되짚어보고 여과하여 정제된 감정의 힘 못지않게 아직 날이 서있는 생생한 감정 역시 유의미함 등을 골고루 고려하여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대상으로 선정된 「Mother, Lost and Found」는 호주로 입양되었던 분이 한국에 와서 낳아주신 어머니, 외할머니, 외삼촌과 외숙모, 이모들을 찾고 그 이후에 여러 번 한국을 방문하며 만나는 이야기를 통하여 정체성, 가족의 의미, 상실, 용서, 사랑, 정 등의 주제를 담백하고 진솔하게 다루고 있다. 영어로 'Omma'라고 쓴 어머니를 좀 더 친근하게 지칭하는 호칭과 우리말로 '친구 같은 딸'이라고 쓴 표현을 통하여 잃어버렸던 가족과 앞으로 함께 만들어나가고자 하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드러낸 이 글은 엄마와 대중목욕탕에 가서 20년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닮은 몸매를 통해 느끼는 익숙함으로 떨어져 살아온 세월의 낯설음을 극복해보고자 하는 마음, 호주에서 서울로 이사 오면서까지 가까워지고자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머니와 좁힐 수 없는 거리가 느껴짐으로 인한 서운함과 좌절감을 담담하면서도 따뜻하게 풀어나간다.

다른 가족에 비해 오히려 가장 곁을 내주지 않는 어머니를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한국의 입양사라는 문맥 속에서 자신과 어머니의 삶이 영향을 받았음을 감안하여 어머니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려 노력도 하고 소소한 일을 통해서도 어머니의 속마음과 소통해보려 애써보고 대면하여 솔직하게 이야기해보기도 하며 10년간을 어머니를 되찾고자 한다. 그리고 어머니와 딸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애쓰는 과정에서 슬픔, 분노, 원망, 실망, 상실감, 좌절감을 삭이고 희망을 다시 품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하면서 딸인 자신에게 엄마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입장과 그렇게 해주지 못하는 엄마를 오히려 품어주는 입장 사이를 오가는 이 글은 첫상봉이 상징했던 희망과 기쁨의 끈을



놓지는 않되 현실적인 어려움과 한계를 성숙하게 수용하는 작가의 모습을 보여준다. 재차 상처를 받고 어머니를 찾았다가 다시 잃어버린 듯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있는 열린 모습으로 맺는 이 글은 오랜 기간 여과되고 정제된 감정들과 생각이 정리된 수기로 한 개인의 여정을 조근조근 들려주면서도 많은 입양동포들이 나누는 여정을 유의미하게 보여준다.

우수상으로 선정된 「I Do Not Remember Wanting to Forget」는 미국 흑인문학 전통에서 노예사를 다룰 때 Toni Morrison이라는 작가가 상실과 트라우마의 기억이란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이고 과거에 한정되지 않고 현재와 꾸준히 협상과 재협상 과정을 겪는 것임을 포괄하여 사용한 “rememory”의 개념을 연상시키는 제목의 글귀를 주기적으로 반복하며 입양으로 인한 상실과 트라우마를 일상에서 겪고 많은 사람들이 당연시하는 추억이라는 기억장치를 당연시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재차 겪게 되는 상실과 트라우마를 다루고 있다. 재난인 화재, 유품을 태우듯 정화시키기 위한 불, 화상을 입히는 불, 상실을 가시화시키는 잿더미, 불사조의 가능성을 품은 잿더미 등의 상징을 사용하여 기억장치와 정체성의 관계를 다루는 이 글은 수상자의 요청으로 작품집에 실리지 않게 되어 아쉽다.

공동 가작으로 스웨덴에서 투고된 「Add More Salt if Necessary: A Memoir of Adoption, Finding Home, and Learning to Make Kimchi」와 미국에서 투고된 「Dear Eomma」가 선정되었다. 전자는 김치 담그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을 토대로 독일로 입양되어 자라면서 겪었던 갈등, 특히 주변 대부분의 사람들과 피부색이 다름으로 인하여 겪게 되었던 혼란을 다루고 있다. 주변 사람들 중 백인들의 얼굴에서는 익숙함과 소속감이 보이되 자신은 절대 그 익숙함과 소속감을 온전하게 나눌 수 없다는 것이 보이고 한인들의 얼굴에서는 강한 이질감과 낯섦이 느껴지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볼 때 보이는 바로 그 모습이라는 점 사이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힘겹게 겪은 과정을 풀어나간 이 글은 김치 담그기를 통하여 입양동포로서의 자

신의 정체성, 가족, 그리고 역사와 계속 생채기를 내는 갈등적인 관계가 아닌 편안할 수 있는 관계를 정리하고 쌓아가는 과정을 솔직하게 보여준다. 후자는 아직 찾지 못한 친모에게 쓰는 편지 형태로, 동양계 미국인들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플로리다에서 직장 다닐 때 비 오는 날 김치찌개와 파전이 생각나곤 했던 일화, 다른 미국인들과 동양음식점에 가서 밥 먹는 이야기, 밥을 지을 때 쌀을 먼저 씻어야 한다는 것을 뒤늦게 배우게 된 일화 등을 통하여 백인주류사회에서 한국계 입양인으로서 자라고 살면서 겪었던 정체성 갈등, 낳아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궁금증, 그러한 어머니가 상징하는 한국동포로서의 연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다.

어머니라는 호칭이 대변하는 가족과 고향, 낳아준 가족을 찾는 고난과 상봉이 가져다주는 기쁨과 또 다른 상실의 양면, 사진이나 음식이나 특정 냄새 등으로 대표되는 기억의 문제, 한국음식이나 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찾아가는 동포로서의 정체성, 얼굴선이나 키 또는 몸매 등의 닮음에서 찾아보는 연결고리와 피부색으로 인한 이질성 문제, 머리칼의 색이나 끈게 뺨은 정도 또는 곱슬거림 정도로 상징되는 정체성 문제, 주변 공간 및 사람들의 구성에 따른 정체성이나 소속감 변화 등등 입양동포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들을 다양하게 담아낸 소중한 투고작 모두에 감사와 박수를 보내며 재외동포문학상이 계속해서 입양동포들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줄기를 기대한다.

# 2020 재외동포 문학의 창



## 대 상

“왜지”나무

• 황 연 (중국)

## 우수상

깜보자 꽃

• 서 미 숙 (인도네시아)

수국 여행

• 김 백 현 (미국)

## 가 작

오늘

• 김 인 옥 (호주)

우리 아버지

• 강 정 희 (독일)

가족상봉

• 박 시 드 니 (덴마크)





## “왜지”나무

- 황연 (중국) -

주말 오전이면 아버지는 판사람이 된다.  
 평생 빨랫감은 뒤집은 채 산더미처럼 쌓아놓으시고  
 설거지 한 번 도와주신 적 없던 아버지가 판사람이 된다  
 자차로 반 시간이 걸려서 도시와 한참 떨어진 외진 마을에는  
 간혹 지나가는 누군가의 자동차 타이어에 깔려 터지고 말라붙은  
 산 구렁이 껍데기가 한여름의 길바닥 복판에 종종 널려 있다  
 돌길을 지나 작은 강을 건너 조금 걸어가면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지으셨고 아버지가 태어나신 낡은 벽돌집이 보인다.  
 그곳엔 해가 들지 않는 앞마당과  
 오래도록 잡초만 무성했던 뒷마당이 있고  
 함경도에선 “왜지”나무라고 부르는  
 몇십 년 전의 이 계절 할아버지께서 심으신 자두나무가 있다  
 아버지는 앞뒤 마당에서 무너진 담장을 다시 쌓고  
 작은 밭에 파를 심고 오이 모종을 고정하고 무 싹을 솟아낸다  
 잔디를 다듬고 잡초를 뽑는 긴 시간 동안 별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  
 아버지네 세 형제자매가 그 집을 떠나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거의 이십 년 동안 비워진 집 마당에서  
 아버지는 대가 없는 노동을 사명감을 안은 듯이 열중하신다  
 그저 티셔츠가 흥건해질 정도로 그렇게 땀을 흘리시며  
 당신의 아버지께서 그러셨듯 수격수격 농사일에 열중하신다  
 별에 데어 별계진 팔뚝에 찬 수건 하나 올리시고  
 새참도 드시지 않으시는 아버지가 나는 늘 생경하다  
 집에서나 엄마 일 좀 그렇게 열심히 도와주시라  
 야채는 사 먹으면 되니 몸 혹사시키지 마시라 철없이 굴면  
 아버지는 그저 늘어난 옷걸이를 만지며 웃는다  
 시골 동네와도 한참 떨어진 외진 그곳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심고 키우신 “왜지”나무 밑에서  
 과거 당신의 아버지께서 당신께 그러셨듯이  
 탐스럽게 달린 열매 하나를 따 내게 건네신다



## 감보자 꽃

- 서미숙 (인도네시아) -

아파트 정원에 붉은 감보자 꽃잎  
외할머니 댁 시골 담장에 둘러서 있던  
봉선화 생각이 난다

사과 과수원 한쪽 귀퉁이에서  
부끄러운 듯 수줍은 입술로  
방긋방긋 나를 맞아주던

짜리 올타리 아래 줄지어 서있던 너를  
쫓그려 앉아 바라보다  
떨어진 꽃잎을 고무신에 주워 담던

행여 비바람에 꺾일까  
밤새 뒤척이던 마음을  
늦게 온 애인처럼 너는 알았는지

귀뚜라미 밤새워 울던 날  
빨갭게 연등을 켜고  
서울내기인 나를 배웅하던 너

지금은 먼 나라로 떠나와  
올타리 아래 서있던 너를 생각하며  
감보자 꽃잎을 만지고 있다



## 수국 여행

- 김백현 (미국) -

우선 멈추는 데 쓸지  
한 다발로 묶이는 데 쓸지  
일단을 어디에 쓰면 좋을지 몰라

꽃병을 쓰고 있는 수국에게 물어본다  
수국은 쓰레기통을 건너다본다  
멈췄다 가시든지  
묶였다 가시든지

수국을 쓰고 있는 쓰레기통에게 물어본다  
쓰레기통은 밤하늘을 올려다본다  
멈췄다 오르든지  
묶였다 오르든지

별꽃을 쓰고 있는 밤하늘에게 물어본다  
밤하늘은 저녁 하늘을 내려다본다

멈췄다 돌아가시든지  
묶였다 돌아가시든지

노을을 쓰고 있는 저녁 하늘에게 물어본다  
저녁 하늘은 나를 가리킨다  
나는 일단을 가리킨다  
일단은, 노을보다 꽃병에 쓰이겠다고 하신다



# 오늘

- 김 인 옥 (호주) -

또 한 명 사망자가 늘었다

시드니 날씨는 비가 오고 방금 어깨를 적신 뉴스  
죽음이 따라붙을까 실업이 옮겨 붙을까  
뒷걸음치는 지역만리

하릴없이 묶여 있는 식당 문  
초만원 한글 메뉴에 얽힌 영어 발음과 살아온 땀  
세어보는 밥알 수가 그토록 일품이었다니  
시드니 날씨는 어제와 비 이럴 때 이 많은 하강이라니

호주머니에 빗 다발 안은 포즈로 찾아 나선 센터링크\*  
키가 한 뼘 줄어든 청년 등이 한 줌 굵은 중년  
사이에 생략된 모닝커피  
줄 밖에 서있는데 어느새 거기도 줄이 되어버린  
줄 앞에 새우잠 쪼그리고 앉은 네가 있고

줄 뒤에 내가 서있다  
뻘한 새벽  
센터럴 역 한복판에서 바빠 내리고 타는 사람들  
다 여기 서있다

센터링크는 아직 열릴 시간 아니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지구 언저리  
햇살 한 자락 추임새로 넣어보지만  
고국과 이국이 다시 그 안과 밖에서 어느 곳이나  
들리는 건 침방울  
오전 중으로 접수창구에 다다를 수 있을지  
시비를 걸어보고 싶은

폭우가 잠시 끊어졌다  
비의 뿌리에 섞여 무지갯빛 차례가 왔다면  
함께 살아갈 익명의 날들을 위해선 그 사이에

오늘, 우리 앞에 놓인 2미터 거리가 있다는 것을

\* 사회복지 지원센터



## 우리 아버지

- 강 정 희 (독일) -

장손의 무건 지게 묵묵히 짊어지고  
매운 눈물 알알이 소리 없이 젖는 밤  
모래땅 단봉낙타의 터덕터덕 발걸음

아버지 목마 타고 어둥둥 바닷가에  
물팔매 멀리멀리 수제비 물결 모양  
보고픈 얼굴 그린다. 동그라미 속에서

퍼렇게 질린 언니 대담히 달려들어  
빨아낸 독사 독에 까무러진 아버지  
포기는 절대로 안 돼! 이제야 난 알겠다.

문고리를 흔드는 해묵은 기침 소리  
가등 홀로 지키며 서러움 토하시던  
문풍지 쉼게 우는 밤 아버지 등을 본다.

‘울곧은 헤아림은 인생의 길잡이야’  
마음의 소리 되어 날 키운 평생 보배  
고마운 그 목소리는 이어간다. 대대로

성실한 허수아비 수없이 많은 날을  
울곧은 이식하여 쓰임을 다하셨다.  
빈 마음 하늘 닮으며 그리움을 좇는다.

잔말을 아끼시며 기본에 충실하신  
마음속에 각인된 영원한 나의 스승  
슬픔을 먹고 웃으며 쉼게 사신 한평생

무너지는 마음을 오래도 버티시며  
대쪽의 꽃꽂함을 안고 사신 아버지  
황소의 슬픈 눈동자 별이 되어 빛난다.

냄새 났 가죽 가방 손때 죽 반들반들  
숨 죽은 초지일관 스며드는 그림자  
영혼을 흔드는 기억 쓰리도록 그림다.

늦아침 수저 놓고 돌연히 멈춘 심장  
감나무 주렁주렁 그 뉘도 못 한 배웅  
가슴에 웅 매듭 하나 돌덩이 안고 산다.

봄이 오는 길췌에 아버지의 기일이  
지금껏 들려오는 뚜벅뚜벅 그 소리  
이렇게 문득문득 날 울리는 울 아버지!

한 아름 꽃을 안고 해당화 개천 따라  
애써 눈물 감추며 어버이를 찾는다.  
말끔히 별초 끝내고 큰절을 올립니다.



## 가족상봉

- 박 시 드 니 (덴마크) -

숨을 쉴 수 없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물이 너무 무서웠다.  
 어른이 되어 첫 직장에서 월급을 받았을 때쯤  
 퇴근 후 취미 활동이란 걸 찾아봤다.  
 푸하 푸하 숨 내쉬기와 팔다리 동작을 배우며  
 자유형 배형 평형 접영을 배웠다.  
 그중 내 몸은 겨우 자유형만을 고집했다.

검푸른 남태평양의 바다는 광활한 우주가 되어 나를 단번에 삼켰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숨이 막혔다.  
 우주복 없이 맨몸으로 은하계를 떠도는 듯 거대한 공포가 나의 심장을 한없이  
 짓눌렀다.  
 죽어도 좋다고 스스로를 타일렀다. 이를 악물었다.  
 소원하던 바를 이루고 죽는다면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행복하게 죽을 수 있다고  
 바닥이 보이지 않는 3천 미터의 심해가 아니라  
 동네 2미터 깊이 수영장에 들어와 있는 거라 설득을 시작했다.  
 집채만 한 흑등고래가 으르렁거리며 노래를 불렀다.  
 심해에서 그 노랫소리는 만 배로 증폭되어 내 심장을 울렸다.  
 그 애절한 소리가 몸속으로 녹아 퍼져 눈물이 되었다.

천사의 하얀 날개처럼 긴 지느러미를 휘날리며  
 아기 고래가 서있는 자세로 물 위로 날아 올라가 얼굴을 빼꼼하게 내밀어 숨을  
 들이쉰다.  
 호기심 가득한 아기 고래는 잦은 호흡을 위해 5분마다 물 위로 올라가야 한다.  
 때문에 고래잡이배들은 우선 잡기 쉬운 아기 고래를 잡아 배편에 묶어 미끼로  
 사용했다.  
 아기를 구하려고 목숨 걸고 따라오는 어미 고래를 잡기 위해서  
 평화롭고 아름다운 생명들이 무참히 살해되었던 시절이다.  
 호롱불을 밝히는 기름을 짜내기 위해서  
 대형 고래들이 거의 멸종을 했었다.  
 피바다 속으로 거품이 되어 사라졌었다.  
 하지만 식용을 위해서 아직도 고래 사냥을 하는 파렴치한 나라들이 있다.

다행하게도 이제 고래잡이배를 고래 관광선이 대신하고  
 드문 곳에선 고래와 수영도 가능하다.  
 나는 어미 고래가 되어 사랑을 머금은 눈동자로 아기의 움직임을 따라간다.  
 팔을 길게 뻗어 손을 내밀면 손끝에 닿을 듯 말 듯 아기 고래가 다가왔다 멀어  
 졌다 숨바꼭질을 한다.  
 여전히 나는 깊은 바다를 무서워한다.  
 하지만 바다는 아직도 나를 잊지 못하고 어서 들어오라 손짓한다.  
 바닷속으로 뛰어들고픈 충동을 참은 지 오래였다.  
 죽어도 좋다는 배짱 두둑이 삼켜 먹고  
 드디어 백만 년 동안 그리움에 애타우던 가족의 상봉 시간이다.  
 지금은 사람의 모습이지만 오래전 나는 고래였고  
 영겁의 시간 동안 꿈에 그리던 나의 고래 가족을 만나고 있다.  
 우주같이 드넓고 검푸른 남태평양 속에서



# 2020 재외동포 문학의 창



## 대 상

혜선의 집

• 김수연 (캐나다)

## 우수상

이분을 모르면서

• 양해숙 (독일)

달리는 마카우

• 황소라 (캐나다)

## 가 작

노를란드의 송이버섯

• 김미영 (스웨덴)

어시스턴트

• 황모과 (일본)

내가 차버린 공

• 리동렬 (중국)





## 혜선의 집

- 김수연 (캐나다) -

확자한 웃음소리에 잠이 깬 것 같은데 눈을 떠보니 사방은 정적이었다. 혜선은 한기를 느끼며 잠결에 밀어낸 이불을 끌어당겼다. 손마디에 힘이 실리지 않아 이불이 툭 떨어져 나갔다.

“여보, 여보.”

혜선은 진석을 불렀다. 방 밖으로 밀고 나가지 못하는 소리가 공허했다. 이 사람이 어딜 나갔나. 혜선은 몸을 옆으로 돌려 누우며 진석을 기다렸다. 아래층에서 인기척이 들렸지만 소리가 가까워지지는 않았다. 혜선은 팔을 짚고 일어났다. 통증이 팔을 타고 가슴까지 이어졌다.

간밤에도 두어 번 통증에 눈을 떴다. 젖꼭지의 끝과 위장의 끝, 심장의 끝과 자궁의 끝, 모든 장기의 끝부분에 몰려드는 통증은 날카롭고 악의적이었다. 혜선은 종종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자신을 깨운 것이 통증이었는지, 통증을 느끼는 꿈이었는지를 생각했다. 잠옷 속으로 손을 넣어 배를 이리저리 문질러보며 통증의 실체를 찾았다. 몸의 정중앙에 길게 그어진 오돌토돌하고 불규칙한 돌기들을 하나하나 만져보며 그것들이 단단히 단혀 있는지를 확인하곤 했다.

계단이 아득했다. 혜선은 손때로 반들반들해진 핸드레일을 잡고 발을 아래로 내딛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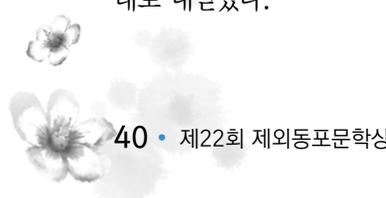
‘이 집은 계단이 현관을 향해 일직선으로 뻗어 복이 고이질 않을 거다.’

친정어머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미국 생활 십 년 만에 산 첫 번째 집이었고, 어머니가 미국을 방문한 것도 처음이었다. 어머니의 표정은 말보다 더 불길했다. 그럼에도 성에 차지 않는 듯 온몸으로 혜선의 불안을 자극했다.

일이 풀리지 않을 때마다 그 말이 떠올랐다. 고등학생이던 둘째가 계단에서 미끄러져 발목뼈가 몇 조각으로 깨졌을 때도, 진석이 앞마당 잔디를 깎다가 돌이 튀어 옆집 할머니의 머리를 다치게 했을 때도, 그 일로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도, 이 층 안방의 비데가 터져 아래층이 물바다가 되었을 때도, 큰 아이가 의사고시를 두 번이나 떨어졌을 때도 어머니의 예언은 저주가 되어 불쑥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런 날이면 집은 들판의 천막같이 허술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혜선은 그 집을 떠나지 않았다. 대신 가파른 계단에 우두커니 앉아 현관문 위에 뚫린 창으로 해가 기우는 것을 보며 가족 중 누군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아이들은 이 집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했으며, 직장을 찾아 멀리 떠나거나 결혼을 했다. 뿔뿔이 흩어진 아이들은 크리스마스가 오면 어김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가져온 선물을 트리 아래에 놓고, 등과 오너먼트를 트리에 매달았다. 오너먼트는 아이들이 유치원 때 만든 조잡한 장식부터 어른이 되어 혜선에게 선물한 값나가는 크리스털 엔젤까지 혜선의 시간이 집약적으로 담겨 있었다. 혜선은 오너먼트를 트리에 매다는 시간이 일 년 중 제일 좋았다. 한 해가 저무는 시간이었고, 새해가 시작되기 직전의 시간이기도 했다. 벽난로에 불을 지피고 트리 앞에 모여 카드놀이를 하며 달콤한 코코아를 나눠 마시다 보면, 문득 이 모든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곤 했다.

혜선은 계단의 중간쯤에 멈춰 서서 계단과 현관을 비추는 시시티브이 카메라를 쳐다보았다. 아이들 중 누군가는 이 모습을 보고 있을지도 몰랐다. 이들은 환자를 진료하는 사이사이 짬이 날 때마다 그것을 들여다본다고 말했다. 어쩌면 딸은 뉴욕의 번잡한 거리를 피해 사무실에서 혼자 샌드위치를



먹으며, 혜선이 느리게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몰랐다. 혜선은 한때 아이들의 우주였던 자신이 이제는 아이들의 아이가 되어가는 것이 아닐까 의심했다. 만약 그런 시간이 온다면 이 계단을 굴러서라도 생을 마치고 말리라는 의지가 있었지만, 이즈음 혜선은 순한 아이처럼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남은 가족에 대한 도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했다.

현관에는 끈이 없는 하얀 남자 운동화와 굽이 낮고 밝은 페라가모 구두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진석과 여자의 신발이었다. 어제든 그제든 현관에는 둘의 신발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혜선의 신발은 모두 신발장에 있을 것이었다. 혜선은 지난 봄 퇴원을 한 후로, 한 달에 한 번 병원에 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외출을 하지 않았다. 자신의 모습을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다. 허물어져 가는 것보다, 허물어져 가는 것을 보이는 게 더 견딜 수 없었다. 친구는 물론 목사님이나 권사님의 기도 방문도 거절했다.

혜선은 많은 시간을 혼자서 방에 머물렀다. 양털 실내화를 신고 방에 딸린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전부인 날도 많았다. 몇 주 전부터는 아이들의 성화에 못 이겨 하루에 한 번 계단을 내려와 우두커니 식탁에 앉아있거나, 뒤뜰에 난 창을 열고 마당을 바라보기도 했다. 햇살이 좋은 날에는 데크에 앉아 진석이 정원 일을 하는 걸 지켜보기도 했지만, 옆집 마당에서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면 다시 방으로 돌아갔다.

혜선은 침대에 누워 잠을 자거나, 잠을 청했다. 방안을 느리게 걸어 다니기도 했다.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지만 열망도 나란히 사그라들어 그리 아쉬울 것도 없었다. 진석과 혜선은 하루 종일 한집에 있었으나 정작 함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았다. 혜선은 침대에서 시시티브이의 화면을 통해 진석이 식탁에서 혼자 밥을 먹는 것과 거실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것, 드라마를 보다가 꾸벅꾸벅 조는 것을 보았다. 자다 깨서 시간을 확인하고 혜선의 약을 챙겨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을 볼 때도 있었다. 혜선은 간혹 화면 속 진

석을 보다가 눈에는 보이지만 손에는 닿지 않는 강한 단절감을 느끼곤 했는데, 죽음 이후의 세계가 그럴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다.

혜선은 현관을 지나 화장실 옆 세탁실로 들어갔다. 속옷을 세탁기에 던져 넣고, 반쯤 채워진 세탁기의 버튼을 눌렀다. 짙은 새는 소변 때문에 팬티는 자주 젖었다. 여자는, 혜선이 시도 때도 없이 세탁기를 돌리는 바람에 하루에도 몇 번씩 세탁을 해야 한다며 툭툭거렸다. 그러거나 말거나 혜선은 여자에게 사정을 설명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여자가 상황을 모르고 있으리라 생각하지도 않았다.

부엌 식탁에서 진석이 삶아낸 돼지고기와 갓 무쳐낸 곁절이를 먹고 있었다. 여자는 고무장갑을 낀 채 고춧가루를 뿌려가며 갓과 무채를 섞어 김치를 버무렸다. 아일랜드 위에는 혜선이 수년 전 선창가 어선에서 사서 식인 새우젓이 통째 나와 있었다. 한동안 혜선의 눈에조차 보이지 않던 새우젓을 여자는 어떻게 찾아냈을까, 혜선은 의아했다.

“내려왔어? 좀 앉아.”

진석이 입가에 묻은 붉은 고춧물을 손으로 훔치며 의자를 빼냈다.

“물 좀 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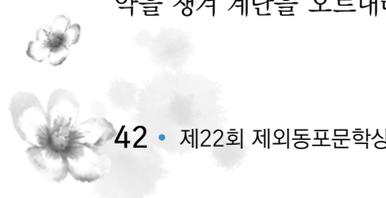
혜선은 여자가 버티고 선 부엌 쪽을 보며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말했다. 진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여자의 살찐 엉덩이 뒤쪽으로 돌아가서 커피포트에 정수기 물을 받았다.

“미지근은 해야지? 너무 차가우면 안 되니까.”

진석은 아직도 입에 남아있는 음식을 짹짹 소리 나게 씹으며 말했다.

“입 좀 닦아. 더럽게.”

김치를 통에 옮겨 담던 여자는 혜선과 눈이 부딪히자, 급히 고개를 숙였다. 혜선은 신경질적으로 갈라진 자신의 목소리가 거슬렸다. 기운 없고 고집센 노인의 목소리. 혜선은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눕고 싶었다. 하지만 당장은 계단을 밟고 올라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혜선은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뒤뜰에는 여름이 고요하게 저물고 있었다. 진석이 여름 내내 뜰을 기어 다니며 토끼풀을 뜯어내고, 민들레를 파냈다. 좁고 깊게 내린 뿌리를 파내기 위해 낡은 포크를 구부려 작은 갈퀴를 만들었다. 손톱 아래는 늘 시커먼 풀물이 들어있었다. 덕분에 잔디는 잡초 없이 새파랬다. 작약이 진 자리 옆으로 노란 국화가 피고 있었다. 사과나무에는 제법 튼실한 사과가 매달렸다. 이사를 들어오던 그해 진석이 라일락과 함께 심은 나무였다.

“지난봄에 라일락이 피었던가?”

혜선은 데크 한쪽에 포개져 있는 빈 화분들을 쳐다보며 말했다.

“이번에는 안 피었어. 겨울이 춥지 않으면 꽃이 잘 안 핀다지 않았나, 당신이지?”

혜선은 선뜻 그런 말한 기억이 나지 않았다. 지난겨울이라. 혜선은 지난겨울이 까마득했다.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식사 마저 하세요, 사장님.”

포트 옆에 서서 물이 끓기를 기다리는 진석을 돌아보며 여자가 말했다. 여자의 소리가 사뭇 다정했다. 혜선은 빨간 김치에 눈길을 주다 거웠다. 보기만 해도 속이 쓰려왔다.

“사모님 드실 건 백김치로 준비해 뒀어요.”

여자가 혜선의 속을 읽은 것처럼 말했다. 혜선은 여자가 예사내기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다.

여자가 가져다준 물은 너무 뜨거웠다. 혜선은 물이 식기를 기다려 한 모금 마셨다. 물이 마른 식도를 타고 내려갔다. 진석이 고기에 김치를 둘둘 말아 우적우적 씹더니 맥주를 들이켰다. 그는 여전히 젊은 남자처럼 먹고 마셨다. 혜선은 그의 에너지가 경이로웠다. 몇 해 전 그는 가벼운 뇌졸중을 앓았다. 그 후유증으로 왼쪽에 미미한 마비가 왔다. 혜선이 앓아눕자 그에게 새삼 생기가 감돌았다. 목소리가 커졌고, 몸놀림은 더 활기찼다. 혜선은 그의

생기가 묘하게 거슬렸다. 그녀는 종종 그 생기의 정체에 대해 생각했다. 혜선이 병들기 전 그는 집안의 환자였고 이제는 환자를 돌보는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했다.

혜선은 진석 앞에 놓인 접시를 보다 얼굴을 찡그렸다. 푸른 바탕에 금테가 둘러린 웨지우드 접시에 돼지기름이 엉겨 붙고 있었다. 김치에서 흘러나온 붉은 물이 허연 기름에 섞여 영롱한 푸른빛을 엉망으로 더럽혔다. 혜선은 자신이 아끼던 접시가 싸구려 접시가 된 것만 같았다.

“그럼 사용하지 말라고 하지 그랬어요? 내가 해요?”

영상통화 속의 딸은 그래서 용건이 뭐냐는 투였다. 전화기에 대고 말을 하면서도 눈은 컴퓨터 모니터를 향해 있고 손으로 연신 뭔가 타이핑했다. 뉴욕은 밤 열 시는 되었을 텐데 딸은 아직 사무실인 모양이었다.

“지금이 몇 신데 아직 집에 안 갔어? 저녁은 먹고 하는 거야?”

“난 엄마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았으면 좋겠지만요.”

“무슨 말이니 그게? 엄마가 그것도 못 물어?”

“아니 아니, 내 말은.”

딸은 한숨을 내뿔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접시 말이야. 엄마가 정 싫으면 내가 이야기할게. 근데요. 엄마! 엄마!”

딸은 정색을 하고 혜선을 불렀다.

“듣고 있다.”

“알죠? 더 이상은 안 돼요. 나 좀 살려줘 엄마. 사람 구하기가 얼마나 어렵다고요.”

“내 말은, 그 여자가 요리하는 사람 맞냐는 거지. 요리연구가라는 사람이 접시 사용도 제대로 못한다는 게 넌 이상하지 않아? 한국에서 뭘 했다는 거, 그거 다 믿으면 못 써.”

화면 속에서 사라진 딸아이가 커피 잔을 들고 다시 나타났다.

“밥이 맛있어서 살이 오른다던데, 아빠는.”

“늙어서 무슨 맛이나 알까.”

“엄마, 이번이 네 번째야. 남이 엄마 마음 같을 수가 있나 어디. 그러니 빨리 기운 차려서 예전처럼 엄마가 해. 그럼 되지. 자꾸 이상한 데다 기운 빠지 말라니까. 웨지우드든, 로얄 코펜하겐이든 이제 그런 것들 얻다 써요? 난 안 가질 거야. 머느리 주려고?”

혜선은 종로 버튼을 꼭 눌렀다. 화면은 다시 검어졌다. 혜선은 손으로 얼굴 만져보다가 손거울에 얼굴을 비춰보았다. 움푹 팬 볼과 광대뼈까지 내려 온 다크서클. 누가 봐도 확연한 환자의 얼굴이었다.

“말기만 아니면 요즘 암은 불치병이 아니에요. 기저질환도 없고, 전이도 없고, 예후도 좋고.”

아들은 의사라는 것을 앞세워 자신 있게 말했다. 가족들은 혜선을 설득하려다 스스로 최면에 걸린 것처럼 확고하게 혜선의 완치를 단언했다. 하지만 혜선은 그 최면에 합류할 수가 없었다. 하루하루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몸과 마음으로 느꼈다. 근육이 다 빠져 헐거워진 살가죽이,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힘겨운 체력이 그것을 증명했다.

“지금 몇 시간이야?”

혜선은 다섯 살 딸아이의 문장을 떠올렸다. 한쪽 눈을 안대로 가린 아이는 눈을 찡그리고 몸을 앞뒤로 흔들며 그렇게 묻곤 했다. 대답 대신 빙그레 웃기만 하는 혜선의 손을 잡아끌고 시계 앞으로 가 손가락으로 시계를 가리켰다. 지금이 몇 시냐고 묻는 것이기도 하고, 몇 시간이나 남았냐고 묻는 것이기도 했다. 아이는 시계를 볼 줄 몰랐고, 시간의 개념도 없었다. 어쩌면 아이는 대답하는 엄마의 표정에서 견뎌야 할 시간의 양을 가늠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의사는 잘 움직이지 않는 아이의 한쪽 눈을 레이저 아이(lazy eye)라고 불렀다. 아이의 두 눈은 같은 곳으로 향하지 않았다. 움직이지 않는 눈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 잘 보이는 눈은 안대로 가려야 했다. 아이는 움직이지 않는 한쪽 눈으로 티브이를 보다가 지치면 두 눈을 모두 꼭 감고 잠들어 버렸다. 두 눈을 모두 감아버리면 안대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혜선은 알았지만, 깊은 수면 속으로 도망가 버린 아이를 보면 이상하게 안도감이 들었다.

몸의 모든 것이 가늘어지고 얇아졌지만 발톱은 두꺼워졌다. 혜선은 화석처럼 단단해진 발톱을 잘라내려 손톱깎이에 힘을 주었다. 두 손으로 짝 눌러도 팔만 파르르 떨릴 뿐, 손톱깎이의 입은 다물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제대로 굽어지지 않는 허리 때문에 발까지의 거리가 더 멀어졌다. 혜선은 세 번째 여자를 떠올렸다. 세 번째 여자는 혜선의 손발톱을 세심하게 관리했다. 여자가 떠난 후 발톱을 자를 엄두가 나지 않아 내버려 두었더니, 발톱이 길어 나면서 휘어져 이불은 물론 제 살도 할퀴었다.

혜선은 손톱깎이에 힘을 주면서, 오후 내내 떠오르지 않는 주민번호 뒷자리를 기억해 내려 애를 쓰고 있었다. 노래를 부르듯 리듬을 타며 숫자를 하나씩 불렀다. 사, 팔, 공, 삼, 일, 칠, 이, 팔. 거기서 덜컥, 깜깜해졌다. 아주 오랫동안 사용할 일이 없었지만, 혜선은 주문을 외듯 자신의 주민번호를 떠올려보곤 했었다. 그게 하루아침에 기억나지 않았다. 어쩌나 깜깜한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지워진 것 같았다. 지워진 것 같은 느낌을 기억나지 않을 때와는 다른 종류의 두려움을 느끼게 했다. 결코 복원되지 않을, 완전한 파괴의 느낌. 혜선은 거기서 벗어나려 기를 쓰고 숫자들을 떠올렸다.

지난밤에는 자다 깨서 현관 번호를 외워보았다. 왜 하필 그때 그게 떠올랐는지는 알 수 없었다. 외출에서 돌아오는 꿈을 꾸었을 수도 있었다. 현관문을 열지 못해 안달하다가 잠에서 깬 건지도 몰랐다. 현관 번호는 고작 네 자리인데 1334인지 1344인지 자신이 없었다. 확인하지 않고서는 다시 잠들

수가 없을 것 같았다. 혜선은 잠옷 바람에 슬금슬금 계단을 내려갔다. 옆방에서 진석이 코 고는 소리가 새어 나왔다. 지하의 여자는 죽은 듯 기척이 없었다. 혜선은 현관문을 열어둔 채 문밖으로 나갔다. 가로등에 의지해 뻐, 뻐, 뻐, 뻐, 숫자를 눌렀다. 키패드에 번호를 입력하는 소리가 깊은 밤 동네에 짹 짹 울리는 듯했지만 잠금장치는 쉬이 풀리지가 않았다. 혜선은 다리에 힘을 주고 서서 몇 번이고 번호를 눌렀다. 이것저것 더 눌러보다가 1134를 눌렀을 때, 삐리리, 경쾌한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풀렸다. 그제야 혜선은 어둠 속에서 빙그레 웃었다.

혜선은 발톱 깎기를 포기하고 옷을 입은 채 화장실 변기 위에 앉았다. 휴지통에 발을 올리고 뜨거운 수건으로 발마사지를 했다. 세 번째 여자가 그랬듯이 발가락 관절을 살살 주물러 풀고 발바닥을 꼭꼭 눌러보았다. 손끝의 힘이 좀처럼 발에 닿지 않았다. 혜선은 휴지통을 밀어 두고 세숫대야에 뜨거운 물을 받아 발을 담갔다. 아들이 데려온 세 번째 여자는 베트남 출신이었다. 여자의 손톱에는 짙은 선홍색의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고 그 위로 반짝이는 보석이 여러 개 박혀 있었다. 혜선은 불안한 눈빛으로 여자의 손톱을 쳐다보았다.

“손톱을 칠하지 않으면 빨가벗은 것 같다니까 어떡해. 엄마가 좀 이해해 줘요.”

아들은 혜선의 손을 잡고 달래듯 말했다.

“너무 화려하지 않니? 남의 집 드나들 사람이.”

“두 번째 아주머니는 음흉하고 어두워서 싫다 하셨잖아요, 어머니.”

아들은 이 상황에 대한 혜선의 책임을 환기시키려는 듯 매몰쳤다.

그 이야기라면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혜선은 아들의 시선을 피해 얼굴을 돌렸다. 살아온 경험과 몸에 축적된 예감을 간단히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아이들이 자신의 말을 병든 늙은이의 앙탈쯤으로 치부하는 것을 알았지만, 그렇다고 이미 죽은 사람처럼

림 입을 꼭 닫고 있을 수는 없었다. 무엇보다 이것은 아직 남아있는 자신의 삶에 관한 일이었다.

“이번에는 너무 밝아서 싫다는 말인가요?”

“환자는 나야. 함께 지내야 하는 사람도 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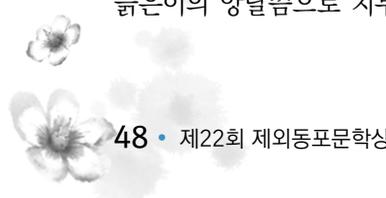
“어머니! 아버지 생각도 하셔야죠. 저희들 생각은 왜 안 하시나요?”

아들은 그 말을 끝으로 행하니 제 집으로 떠났다.

세 번째 여자는 밝고 씩씩했다. 중학생 아들을 혼자 키우며 사는 씩씩한 여자이기도 했다. 화학약품 알레르기 때문에 십 년을 일했던 네일샵을 그만두고 전업을 준비하는 중이라고 여자는 말했다. 여자는 연신 관절이 비틀어진 오른손 검지와 약지를 왼손으로 꼭꼭 눌렀다. 매니큐어가 지워진 여자의 손은 나이에 비해 힘했다. 콧소리가 많이 섞인 베트남 억양의 영어는 알아듣기 쉽지 않았지만, 여자의 손은 많은 것을 말했다.

여자의 손끝은 다부졌다. 여자는 제 집으로 돌아가기 전 뜨거운 수건을 몇 개씩 갈아가며 혜선의 발을 닦아주었다. 자신의 허벅지에 혜선의 발을 올려놓고 부드러운 크림을 발라가며 종아리를 밀듯 닦아내듯 위아래로 문질렀다. 밤마다 아리던 종아리 속 깊은 근육에도 그녀의 손끝은 정확히 가 닿았다. 발바닥의 어느 부분을 한동안 꼭 누르고 있으면 전류가 흐르듯 등까지 따뜻해졌다. 혜선은 오랫동안 있고 있던 편안하고 관능적인 손길 아래서 짧고 깊은 단잠에 빠지곤 했다.

요리연구가였다는 네 번째 여자는 기어이 중국 마트까지 가서 냉동 전복을 사 왔다. 재료 욕심이 많은 여자였다. 여자는 마트에 가기 위해 혜선의 차를 운전했다. 혜선은 여자에게 자동차 열쇠를 내어 주었다. 아들 내외나 딸을 귀찮게 하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었다. 여자의 차가 차고로 들어오면 진석이 자동차 트렁크를 열고 여자가 사 온 식료품을 부엌으로 옮겼다. 혜선은 소리로 그것을 짐작했고, 때론 시시티브이로 그 광경을 지켜보기도 했다.



안방 침대로 죽을 들고 온 여자는 재료가 한국 거랑 달라 맛이 잘 나지 않는다며, 혜선의 표정을 살폈다.

“어때? 괜찮지? 먹을 만하지?”

혜선이 죽을 삼키기도 전에 진석이 먼저 설레발을 쳤다. 죽에서는 비린내가 진동을 했다. 혜선은 얼굴을 찌푸리지 않으려 애를 썼다.

“수고했어요. 맛있어요.”

“따로 멸치 육수를 진하게 내서 끓였어요. 동치미 국물이랑 같이 드세요.”

비린내가 목젖을 건드렸다.

“이제 내려가 보세요. 당신도 내려가. 성가셔.”

바다에서 건진 건 예외 없이 비린내가, 고기에서는 피 냄새가, 곰탕에서는 고약한 기름 냄새가 났다. 산 것들의 감칠맛 뒤에 가려져 있던 역한 냄새가 일제히 튀어나왔다. 건강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맛이었고, 건강한 이들은 이해하지 못할 맛이였다. 혜선은 호흡을 참으며 천천히 죽을 씹고 삼켰다. 죽 그릇을 비운 후에는 먹은 걸 토해 내지 않으려 생강 캔디를 꺼내 물었다.

진석이 빈 그릇을 아래로 가져다 놓고 돌아왔다. 몇 걸음이라도 같이 걷자고 혜선을 일으켜 세웠다. 혜선은 기운이 없다며 손사래를 치다가 진석의 팔을 잡고 일어나 방 안을 걷기 시작했다. 진석이 왼쪽을 짚을 때마다 나무 막대가 바닥에 부딪히듯, 둔탁한 반동이 혜선에게로 전해졌다. 혜선은 진석의 팔을 쓰다듬었다. 긴장했던 진석의 몸은 전체가 균등하게 쪼그라들었다. 오십 년을 함께 살았는데 남편의 늙은 몸이 생경했다. 의심 없이 기대고 산 지난 시간들을 되새기다 보면 늙는다는 것이 갑자기 들이닥친 사고 같았다.

“사장님, 식사 준비 다 됐어요.”

여자가 노크를 했다.

“내려가서 저녁 먹어요.”

혜선은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당신 좋아하는 거 할 시간이네.”

진석이 라디오 채널을 클래식으로 맞춰두고, 마치 멀리 떠나는 사람처럼 혜선의 뺨을 손으로 어루만지더니 방을 나갔다. 음악 사이사이 여자의 웃음 소리가 섞여 들었다. 웃음소리는 사각사각 신경을 긁었다. 진석과 여자는 혜선의 방 바로 아래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이 층과 일 층 사이의 간극이 혜선을 천 리 밖으로 밀어냈다. 혜선은 밀려나지 않으려 음악에 집중했다. 하지만 어느새 음악을 놓치고 여자의 목소리만을 찾고 있었다. 라디오의 볼륨을 더 높이고 눈을 감았다. 지금 몇 시간이야. 다섯 살 딸아이의 질문이 또 떠올랐다. 어린 딸을 안고 계단을 쿵쿵 오르내리던, 거짓말처럼 젊고 바빴던 그녀도 떠올랐다.

세 번째 여자가 엎드려 진석의 발을 씻어줄 때, 소파에 기대 입을 해죽 벌리고 널브러져 있던 진석의 표정. 미끌거리던 생기와 불안정한 관능에 취해 어수선했던 사타구니를 혜선은 분명히 보았다. 여자는 진석의 가랑이 사이에서 고개를 숙이고 발가락 하나하나의 관절을 손가락으로 비비고, 혀로 핏뚱 발바닥을 쓸었다. 그때 진석은 눈을 감고 있었던가. 그의 닫힌 눈 속에는 뭐가 있었을까. 연민과 배신감이 너울처럼 넘실거렸다. 네 번째 여자의 웃음 소리가 그 너울에 실려 왔다.

아들은 지낼 데가 마땅치 않다는 네 번째 여자에게 오히려 잘됐다며 지하에 욕실 딸린 방을 내주었다. 밤늦게라도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돕겠다는 여자는 혜선이 보기에든 믿음직한 구석이 있었다. 하지만 혜선이 더 이상 토를 달 수 없었던 것은 그 여자가 흡족해서는 아니었다. 세 번째 여자를 보내며 벌어진 소동에 다들 얼마간 마음이 다쳐있었고, 혜선이 더 이상 까다롭게 굴다간 아들도 딸도 모두 멀어져 버릴 것 같아 조바심이 났다.

‘엄마가 그 여자에게 물을 뿌린 건 고소를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야.’

딸은 혜선의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짓이었는지 두고두고 말했다. 이런 엄

마가 너무 낯설어 제 엄마 같지 않다는 말도 했다. 딸아이에게 그런 말을 듣고 있는 혜선도 스스로가 낯설었다. 혜선은 그날, 마시다 만 컵의 물을 진석과 여자에게 뿌렸다. 할 수만 있다면 한 동이의 물이라도 쏟아붓고 싶었다. 혜선은 그 길로 이 층 안방으로 올라가 옷장 이불 사이로 팔을 휘저어 가며 보석 주머니를 찾았다. 새파랗게 젊은 여자가 다 늙은 남자를 구워삶을 때에는 재물 말고 다른 동기가 뭐가 있을까. 그나마 있는 것 다 퍼주고 나면 저 어리숙한 늙은이 혼자 어떻게 살까. 딸보다도 더 어린년을. 혜선의 양다운 이빨 사이로 신음이 흘러나왔다.

혜선은 이불 더미에서 찾아낸 보석 주머니를 바닥에 탈탈 털었다. 이제는 헐거워져 끼지 못하는 것들이지만, 젊었을 때는 아까워 보기만 했던 것들이었다. 결혼반지와 웨딩 밴드는 그대로였다. 친정어머니가 물려준 바둑알만한 산호 목걸이도 있었다. 나머지는 보석이랄 것도 없는 액세서리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다가 사파이어 반지를 떠올렸다. 딸 셸리를 낳고 만들었던 셸리의 탄생석. 바닷속 같은 푸른 사파이어의 사각 테두리에 다이아몬드가 촘촘히 박혀 있던 반지였다. 그 반지가 감쪽같이 사라졌다. 혜선은 자신의 예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쾌감과 닥쳐올 것에 대한 불길함을 동시에 느꼈다.

“아무래도 치매가 온 것 같다. 네 아버지 말이야.”

소동을 듣고 아들은 한걸음에 달려왔다.

“어머니, 정말 노망이라도 나셨어요?”

“요즘 네 아버지가 이상해.”

“발마사지는 제가 부탁한 거예요. 발에 자극을 주면 아버지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요즘 부쩍 마비가 더 심해진 거 안 보이세요?”

“치매 검사를 해봐라.”

“아버지의 인지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제가 의사예요.”

“사파이어 반지가 없어졌어. 그걸 여자에게 줬지 싶다. 그걸 준 이유야 짐작이 간다만 입에 담고 싶지 않다. 치매가 아니라면 네 아버지가 미친

거야?”

“사파이어 반지요? 엄마가 그런 게 있었어요?”

“오래되긴 했지만 멀쩡한 반지야.”

“글쎄요. 값나가는 패물은 이민 초기에 다 팔아치웠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그건 팔지 않았다.”

“그렇다고 아버지가 그 반지를 여자에게 줬다고 어떻게 확실하죠? 어머니가 기억을 못 하고 계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반지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네 아버지 건강에 대한 이야기다.”

“어머니, 이렇게 아버지 몰아붙이시면 정말 나빠질 수도 있어요.”

“돈도 많이 없앤 눈치야. 얼마 잊지도 않은 재산을 그렇게 탕진하고 나면 그게 다 네 짐이 될 거야. 나야 가면 그만이지만.”

“신경안정제는 챙겨 드시고 계시죠?”

“난 우울하지 않아. 생각이 많을 뿐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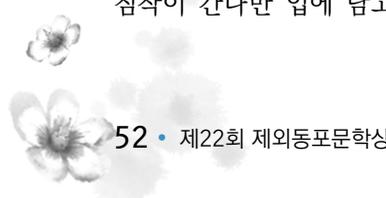
자신도 사파이어 반지를 본 적이 없다는 딸은 정 그렇게 의심이 되면 경찰에 신고를 해주겠냐고 오히려 되물었다. 진석이 절대로 그럴 리 없다는 전제가 깔린 말이었다.

“저에게 물려주려 했던 반지라면서요. 그럼 제가 받은 셈 칠게요.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딸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딸의 울음을 보자 그토록 확고했던 사파이어 반지에 대한 기억이 흔들렸다.

세 번째 여자가 떠나고 한동안 사람을 구하지 못했다. 딸은 뉴욕에서 온라인으로 시애틀의 음식점에 배달을 시켜 진석의 끼니를 챙겼고, 며느리는 죽상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 집에 들러 가져온 식료품을 냉장고에 넣고 문을 탁, 소리 나게 닫았다.

“이 사람도 싫다, 저 사람도 싫다 하시면 두 분 다 요양 병원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알렉스도 요즘 말이 아니에요. 매일 술을 마셔요. 애들도 슬금슬금 아빠 눈치를 봐요. 불쌍한 내 아이들! 알렉스가 어떤 사람인가요? 그건 어머니가 더 잘 알지 않나요? 그에게는 가족이 전부예요. 그런데 지금 집안 꼴 좀 보세요. 옛그제 아버님은 여섯 시간씩이나 걸어서 옛날에 살던 도시로 가 길을 잃었어요. 지쳐서 벤치에서 잠이 들었다고요. 경찰한테 그 전화를 받고 알렉스가…….”

“그러니 치매가 온 거라고 몇 번을 말했니? 그건 치매의 흔한 증세야. 알만 한 애가 왜 그래?”

“알렉스는 아버님이 쇼크 상태라고 하더군요.”

“내가 아버지한테 못할 짓이라도 한 듯 말하는구나.”

“그 여자는 자격증을 가진 발마사지사예요. 손발을 만지는 게 그 사람 직업이라고요.”

며느리의 얼굴에는 짜증과 실망이 숨김없이 드러났다. 이제 그녀에게 혜선은 그런 것들을 굳이 숨길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된 것이었다. 며느리는 곧 격멸과 무시를 노골적으로 드러낼 태세였다. 그것만은 쥐고 싶지 않았다. 혜선은 방으로 돌아와 문을 꼭 닫아걸었다.

백인 며느리를 얻게 되었다고 했을 때 혜선을 애석하게 바라보던 친구들도 있었다. 하지만 혜선은 정말 괜찮았다. 며느리와 쓸데없는 기 싸움하지 않아도 되니 더 좋다고 농담처럼 말하기도 했다. 크게 보태주진 않았지만 짐을 지운 적도 없었다. 혈육처럼 애뜻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남이라고 여겨본 적도 없었다. 자신의 고단함을 훈장처럼 흔들며 그들에게 보상을 요구한 적도 없었다. 혜선은 지금껏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냈듯, 남은 시간을 자신이 알고 있는 안전한 방식으로 견디어내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 누구도 위협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느새 모두를 위협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인가. 혜선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안을 서성였다.

들릴 듯 말 듯 속삭이는 소리, 커졌다 작아지는 웃음소리, 딸그락딸그락

수저가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싱크대에 물이 흐르는 소리까지 유난히 많은 소리가 벽을 타고 혜선의 방으로 올라오는 날이 있었다. 그런 날이면 혜선은 전화기를 켜서 화면 속 그들을 봤다.

진석이 밥을 먹는 식탁에 여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이 닿는 곳에 여자가 있을 것이었다. 여자가 테이블에 국그릇을 가져다 놓고 맞은편에 앉았다. 그릇 속에는 붉은 고깃국물이 가득했다. 진석의 말에 여자가 고개를 젓히고 깔깔 웃었다. 페로몬을 뿜어내는 과잉된 몸짓과 웃음. 그는 혜선의 식탁에서 그러했듯, 부지런히 젓가락질을 하며 여자의 수고에 답했다. 나물을 집어 먹고, 국을 떠먹었다. 찬사도 아끼지 않을 것이었다. 여자는 이미 반쯤 먹어버린 가자미를 뒤집어 가시를 발랐다. 발라낸 생선살을 진석이 입으로 가져갔다. 진석이 위층에 누워 있는 혜선을 완전히 잊어버린 듯했다. 혜선은 소리라도 질러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진석이 다른 여자가 만든 음식을 이렇게 잘 먹는 것이 이상했다. 둘은 이전부터 이미 아는 사이가 아니었을까. 혜선이 잠든 사이 진석은 조용조용 계단을 밟고 지하로 내려가 숨겨둔 사파이어 반지를 제물로 바치고, 저 포동포동하고 탄력 있는 젓가슴에 얼굴을 묻은 건 아닐까. 신경안정제를 삼키고 잠든 날은 모든 것이 깜깜해졌는데, 혜선이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알 수가 없었을 것인데. 혜선은 폭주하는 상상을 멈출 수가 없었다. 한편에서는 망상이라고 스스로를 꾸짖고,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하게 들어맞는다고 부추겼다. 혜선은 생각을 멈추기 위해 머리를 흔들었지만 오히려 생각은 혜선의 머리를 벗어나 목을 조여왔다. 혜선은 분열을 견딜 수가 없었다. 침대에서 내려와 손으로 화장실 물을 받아 약을 삼켰다. 거울에 비춰진 자신을 낮설게 바라보다 흐트러진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겼다. 어서 빨리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고 싶었다. 혜선은 약을 한 알 더 삼켰다.

혜선이 열 시가 넘어 잠에서 깨어났다. 전날 밤 약을 두 알이나 먹어서인

지 정신이 맑지 않았고 머리가 무거웠다. 혜선은 약간의 어지러움을 느끼며 방을 나왔다. 그때 여자는 진석의 방에서 나오고 있었다.

“사장님 방 청소 좀 하느라고요.”

여자의 손에 물수건이 들려 있긴 했지만 혜선은 그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사모님 내려가 있는 동안 방 정리할게요. 화장실도 치워야 하고.”

혜선은 여자를 말리고 싶었지만 적당한 말을 찾지 못했다.

“여보! 여보!”

혜선은 몸을 돌려 진석을 찾았다.

“사장님 없어요.”

여자의 얼굴에 묘한 웃음기가 스쳤다. 혜선의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여자는 몸을 돌려 혜선이 방금 나온 방으로 향했다. 혜선이 여자를 돌아보며 계단을 밟았을 때 중심을 잃고 휘청하며 주저앉았다. 여자가 혜선에게로 급히 뛰어왔다. 혜선은 돌진하는 여자가 자신을 계단 아래로 밀어버릴 것만 같았다. 혜선은 몸을 움츠리고 핸드레일을 꼭 잡았다.

“제가 잡아드릴게요 사모님.”

“노! 노! 난 괜찮아요.”

혜선의 말이 너무 단호해서인지 여자가 멈칫했다.

“여보! 여보!”

혜선은 다시 진석을 불렀다.

“사장님 병원에 갔잖아요. 집에 아무도 없어요.”

진석이 없다면 집에는 여자와 혜선뿐일 것이다. 그 당연한 사실을 여자는 혜선에게 다시 한 번 주지시켰다. 혜선은 구조를 요청하듯 시시티브이를 쳐다보았다.

“혼자 할 수 있어요. 다가오지 말아요.”

혜선은 중얼거렸다. 여자는 꿈쩍 않고 혜선의 옆에 버티고 서있었다.

“무슨 고집이 그리 세요. 이리다 넘어지면 어쩌려고요. 여럿 고생시키지 말고 제발 날 잡아요.”

여자는 혜선의 팔을 잡았다.

“이러지 마. 저리 비켜! 돈 터치 미. 오케이? 돈 터치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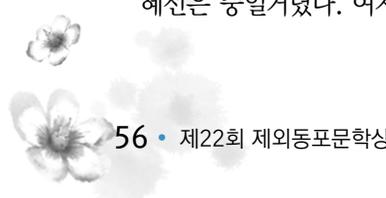
혜선이 소리치며 거칠게 몸을 흔들었다. 혜선의 기세에 여자가 몇 계단을 뒷걸음치더니 그대로 뒤로 꼬꾸라졌다. 비명과 동시에 계단이 무너질 듯 울렸다. 혜선이 고개를 들어 보니 여자는 현관 신발 옆에 널브러져 있었다. 혜선은 계단을 내려와 여자에게 몇 걸음 다가갔다. 여자는 얼굴을 찡그리고 얇은 신음 소리를 냈다. 피가 나거나 하지는 않았다. 혜선은 다가가지도 물러서지도 못하고 여자를 쳐다보다가 잠옷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냈다. 팔이 부들부들 떨렸다.

깊은 밤 집 앞에 자동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혜선은 시시티브이 화면을 쬐다. 검정 BMW 운전석에서 아들이 내려 뒷좌석 문을 열었다. 여자가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차에서 내렸다. 여자는 목발을 짚고 느리게 걸었다. 목발을 짚은 품이 어설프지만 상태가 그리 나빠 보이지는 않았다. 현관문의 키패드가 뼉, 뼉, 뼉, 뼉 울렸다.

혜선은 전화기를 끄고 진석의 옆에 누웠다. 둘이 나란히 누운 게 얼마 만인가. 혜선이 많이 놀랐을 거라며 진석은 저녁 내내 혜선의 방을 떠나지 않았다. 진석은 늦은 밤까지 혜선이 잠이 들기를 기다리다, 침대 끝에 몸을 누이더니 먼저 잠이 들어버렸다. 혜선은 돌아누운 그의 등에 가만히 손을 올렸다. 진석이 잠결에 몸을 돌려 혜선을 팔로 감았다. 그의 가슴이 혜선의 얼굴에 닿았다. 그의 심장 소리가 쪼쪼 혜선의 귀에 울렸다.

“여보, 여보. 지금 몇 시나 되었을까. 밤이 아주 깊은 것 같은데.”

혜선은 들릴 듯 말 듯 진석을 부르다, 입을 크게 벌리고 하품을 했다. 자동차가 아득히 멀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혜선은 눈을 꼭 감았다.





## 이본을 모르면서

- 양해숙 (독일) -

이본과 만나기로 한 곳은 은행의 표식이 가득한 프랑크푸르트 금융지구  
의 한 건물이었다.

반차를 쓴다더니 여기가 이본이 일하는 덴가 보네.

나는 두 아이와 로비에서 이본을 기다리고 있었다. 점심시간 로비는 회사  
원으로 붐볐다. 옆으로, 앞으로 사람들이 스쳐갔다. 세련되고 당당한 젊은  
사람들. 청바지와 패딩 점퍼의 내 차림이 불편했다. 다른 데서 만나자고 할  
걸 그랬나. 아이들과 맞잡은 손이 축축했다. 건물 안쪽에서 이본이 엘리베이  
터에서 내려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우리를 보곤 반갑게 손을 흔드는 이본에  
게 우리도 손을 흔들어 인사했다.

내가 이본을 처음 만난 건 2주 전, 고흐 특별전이 열리는 슈테델 미술관  
앞이었다. 관람에 동행한 미사모(미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들  
사이에 낯선 얼굴이 있었다. 나는 호기심이 들어 먼저 인사했다. 전 정소영이  
예요. 만나서 반가워요. 전 이본이에요. 우리는 가볍게 인사했고, 사람이 여  
럿 모인 자리인 만큼, 서로에게 집중하지 않았다. 나는 새살대는 이들 사이  
에서 이본이 드물게 말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온언순사에 여유 있는 태도가  
또래의 젊은이와 달랐다. 호감을 사려 호들갑을 떨지도, 불필요한 긴장감을  
내보이며 상대를 탐색하려는 모습도 아니었다. 그녀에겐 자연스러운 편안함

이 있었다. 그런 건 조금 부러웠다.

수다로 추위를 녹이며 줄을 선 지 한 시간가량 되었을 때, 가방 속 핸드  
폰이 울렸다. 우줄라였다. 번개 문자에 갑작스레 집을 나온 터라 전화를 받  
는 것이 꺼려졌다. 망설이다 결국엔 통화 버튼을 눌렀다.

노엘이 계속 운다. 루이는 계속 짜증을 내네. 엄마가 보고 싶다고. 관심을  
돌리려 해봐도 쉽지가 않아. 아이들 마음에 큰 상실감이 남을 것 같다. 가끔  
적 빨리…… 집에 오라는 소리였다.

13시 50분. 집을 나선 지 두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았다. 먼저 같게요. 나는  
평정을 가장하고, 꼭 누군가가 아닌, 허공에 말했다. 아직 입장도 못 했는  
데, 애들이 올 수도 있지, 아빠는 뭐 한데, 소영 씨가 육아를 전담하고 살았  
구나, 애들 버릇이 잘못 들었네, 오랜만에 외출한 사람에게 전화는 왜 했담,  
그것도 시어머니가. 위로인지 질책인지 모를 말에 얼굴이 달아올랐다.

“커피 한잔하실래요?”

이본이었다.

나는 그렇게 만난 지 한 시간 된 이본의 집에 가게 되었다. 집은 말 그대  
로 엮어지면 코 닿을 데였다. 나는 주방 구석에 놓인 작은 탁자에 앉아, 이  
본이 커피콩을 갈고 전기 포트로 물을 끓이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향긋한  
커피 두 잔이 식탁에 놓였다.

“우유 있어요? 전 진한 커피는 잘 못 마셔서요.”

“두유하고 라이스 밀크만 있는데 괜찮아요?”

“좋아요. 그런데 이본 썬 베지테리언인가 봐요?”

“네. 식물인간이에요.”

하마터면 마시던 커피를 뿜을 뻔했다. 다행히 뿜지는 않고 사례만 걸렸다.

“어머! 괜찮으세요?”

나는 객객했다. 이본이 나의 등을 두드려주었다.

“네……이제……괜찮아요. 흐……흠. 그런데 식물인간……이세요?”

“네.”

우려와 의문이 교차된 눈을 하고 이본이 말했다. 한국인의 얼굴을 가졌다 해서 모두 한국인인 건 아닌데, 잠깐 헛갈렸다.

“식물인간이 채식주의자가 되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나는 설명했다, 이본은 주의 깊게 들었다.

“어릴 때부터 독일에 살아서 한국말이 서투려요.”

이본은 일곱 살 때 아버지를 따라 독일에 온 이래, 줄곧 베를린에서 성장했다고 했다. 아버지는 아, 베, 체부터 시작해 생명공학을 전공으로 박사까지 마친 분인데, 공부하는 아버지를 둔 탓에 생활은 소박했지만 나름 행복했다고. 가족들은 모두 베를린에 살고 있으며, 본인은 석사를 마치고 오래 전부터 눈여겨 봐두었던 회사에 자리를 얻어 6개월 전에 프랑크푸르트로 이사를 왔다고 했다. 독일에 사는 한국인의 경우의 수를 카테고리별로 나눈다면 이, 삼 위에 오를 전형적인 젊은 교포 이야기였다.

이본은 많이 배운 아빠를 두었구나. 이런 애들이 대체로 인성도 좋더라고.

나의 오랜 믿음이었다.

“고흐 특별전 말고 다음엔 암스테르담의 반 고흐 미술관에 가보는 건 어때요?”

자리에서 일어나는 나에게 이본이 물었을 때, 나는 그러자고 애매하게 약속했는데, 그때 나는 그녀가 빈말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잘 몰랐다.

이삼일이 지나기도 전에, 암스테르담 따위는 내 기억에서 까맣게 사라지고 없었다. 아니, 이본이 여행을 제안했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했으니, 기억할 대상 자체가 없었다고 말하는 편이 더 옳으려나.

「저는 21일 또는 29일에 가능한데, 혹시 시간이 되시나요?」

밥숟가락을 놓고 이본의 메시지를 들여다보았다. 무슨 말이지? 한참을 골똘한 후에야 암스테르담 운운했던 것이 떠올랐다. 얼굴만 한 번 봤을 뿐인 낯선 사람과 여행이라고?, 이본이라면 못할 것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번갈아 들었다. 나는 선뜻 답장하지 못하고, 밥을 마저 먹었다.

그나저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본 적이 언제였더라? 도스토옙스키는 수용소에라도 갔으니 몇 년 동안이나 혼자 있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절망했다지만, 나는 죽음의 집에 살지도 않는데, 왜 혼자일 수 없는 거야? 독박 육아도 안 해본 도스토옙스키가 뭘 안다고!

요즘 종종 울컥한다. 나는 이본에게 문자를 보냈다. 남편과 일정을 조율해서 확답을 주겠노라고, 꼭 같이 가자고.

늦저녁에 나는 라스에게 이본과 여행에 대해 이야기했다.

“여행 좋지. 애들 봐주곤 싶은데 내가 시간이 안 돼서 말이야.”

라스는 언제나 돕고 싶지만, 시간이 없었다. 사정이 많았다. 우리의 대화는 주제는 다를지언정 결론은 동일했다. 결국엔 내가 포기하는 것이다.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나는 듣기가 싫었다.

“여하간…… 안 된다는 거잖아? 알아들었어. 나 먼저 잘게.”

침대에 누워 이본에게 문자를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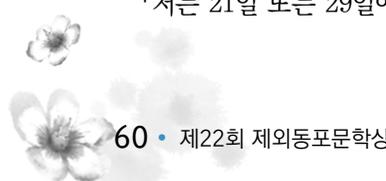
「미술관 여행은 어려울 듯.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네. 미안해요.」

바로 답장이 왔다.

「아이들과 같이 눈썰매장에 가는 건 어때요? 올겨울이 지나기 전에.」

아이들과 같이? 그렇다면 어디든 갈 수 있지. 나는 그녀의 제안이 반갑고 고마웠다. 뜻이 맞은 나와 이본은 문자를 주고받으며 숙소와 눈썰매장 등을 예약했다. 오랜만의 여행이라 신이 났다. 우줄라의 문자를 받기 전까지는.

「일기예보를 보았니? 이 주에 큰 눈이 온다던데. 폭설에 덮인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건 현명하지 못한 생각이야.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여행을 취소



한다면, 내가 몇 시간 정도 아이들을 봐줄 수 있어. 슈바르츠발트…… 별로 야。」

부엌에서 물을 한 잔 따라 마셨다. 폭설, 사고, 현명, 별로 등의 단어가 머릿속에 되풀이되었다. 어릴 적 엄마가 하던 말, ‘내 속에 천불이 난다’는 뜻을 알 것만 같았다. 만일 그녀의 계획이, 처음부터 내 기분을 망치게 해 궁극적으로 여행을 취소하게 하려는 거였다면, 반은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다른 건 몰라도 기분 하나는 확실히 더러웠다.

내가 가고 만다. 기필코.

이본과 아이들을 태우고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붉은 선을 따라 남쪽으로 차를 몰았다. 하늘은 먹구름으로 찌뿌둥하다, 사나운 비를 내리다, 흠여지는 눈으로 가득하다, 다시 빗줄기를 뿌리는 등 야단을 떨었다. 슈투트가르트를 지날 즈음에는 앞차가 튕겨내는 빗물이 얼마나 센지 와이퍼는 하나 마나일 정도였다. 변화무쌍한 날씨에 내 마음도 걱정과 안도 사이에서 널을 뛰었다. 백미러로 훑어 보니 아이들은 어느새 잠이 들어있었다, 이본은 메일을 쓰는지 손가락을 바빠 움직이다 잠깐 골똘하더니 곧이어 다시 뭔가를 적고는 한참이 지난 뒤에야 핸드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바쁘네요. 우리 만난 데가 이본 씨 일하는 곳이에요? 대개 좋아 보이던데.”

“네, M 은행이요.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개인 고객은 없는 은행이라 생소하실 거예요.”

“이본 씨는 거기서 무슨 일을 하세요?”

“음… 회사 정보도 모으고, 투자 상품도 만들고 파는, 뭐 그런 재미없는 일어요.”

피차 재미없는 일투성이구나.

“그렇군요. 그렇게 좋은 회사도 다니시고 공부를 잘했나 봐요.”

“글쎄요. 공부는 잘할 때도, 못할 때도 있었죠. 그런데 잘했다 한들 그게 자랑거리인지는 모르겠어요. 동양인이 공부 잘하면 열등감 때문이라고, 그저 내세울 게 공부 하나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심상한 말투.

“차별…… 뭐 그런 건가요?”

“열등감도 있고,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인 것도 맞고,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살아보려 노력한 것도 있고. 그래서 차별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제대로 본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웃는다. 그녀가 웃으니까, 열등감도 없어 보이고, 내세울 것도 많은데 겸손해 보이기까지 한다.

다시 이본의 핸드폰이 울렸다. 그녀는 전화로도 뭔가를 만들고 파나 보다. 나는 다시 운전 집중했다.

독일로 이주하기 전 한국에 있을 땐 나도 직장에 다녔다. 일과 여가, 익숙한 친구와 가족에 둘러싸인 편안한 시절이었다. 균형 잡힌 생활은 다소 무료(無聊)하다. 그래서 변화를 원했다. 교환 연구원으로 한국을 방문한 라스가 과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와 나에게 서류를 내밀었을 때, 행정실 앞 복도에서 커피 한잔하자는 제안해 왔을 때, 나는 나의 삶에 찾아온 변화를 직관했고, 그것이 그리 달갑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일 년 남짓의 연애 후 결혼했다. 그리고 또 일 년 남짓의 한국에서의 신혼 생활을 마치고 라스를 따라 독일로 왔다. 이국에서의 결혼 생활은 나에게 별로 재미가 없다. 독일에 막 정착했을 땐 유라시아 대륙의 맞은편 끝자락에 자리한 나의 소도시와는 판이한 북유럽의 판타지에 살짝 취하기도 했지만, 첫아이가 태어나 육아에 치인 이후론 이마저도 나와 무관한 세상이 되어버렸다. 라스와 나는 공통점이 거의 없다. 우리는 여전히 누구의 모국어도 아닌 영어로 대화를 하고, 공

유하는 친구도 없으며, 서로의 음식은 싫어하고, 책에서 찾아낸 좋은 구절을 나누지 못해 찢찢맨다. 흥미도 열정도 없는 수업에 앉아있던 학생이 결국엔 책상에 엎드려 자버리는 것과 꼭 같은 모양으로, 나는 독일에서 엎드린 채로 이 수업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목적지를 10Km 정도 앞두고 슈바르츠발트에 들어섰다. 길은 구불구불했고, 도로 옆은 침엽수로 빼곡했다. 한참을 미끄러져 내리다 폭이 좁은 샛길로 빠졌다. 오가는 차는 드물어졌고, 구부러진 전나무가 만들어내는 음영으로 길은 어두웠다.

주차장은 텅 비어있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맑고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훑 들어왔다. 흰색과 푸른색의 페인트가 발라진 목재 건물이 있었다. 낡았지만, 항시 관리하는 듯 깨끗하고 단정했다. 숲속 어딘가에서 시작되었을 개울은 가로등 불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며 건물의 한 곁을 지났다. 격자 무늬의 텃밭 안에서 흘러나오는 노란 불빛이 보였다. 얼른 그 속에 들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따듯하고 포근한 색이었다. 우리는 서둘러 현관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백발을 양 갈래로 곱게 땀아 늘인 주인 할머니가 숙소를 안내해 주었다. 아파트형 숙소엔 방이 두 개나 되었는데, 큰 방에는 더블 침대와 폭이 좁은 옷장이, 작은 방에는 두 개의 이층 침대와 아까 본 것과 같은 모양의 옷장이 있었다. 아이들은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다, ㄱ자로 놓인 이층 침대를 발견하고는, 상하좌우로 뛰어다녔다. 주방에는 타원형의 식탁과 붙박이 벤치가 있었다. 주인 할머니와 이본이 이야기하는 동안, 나는 벤치에 앉았다. 따듯했다. 돌아보니, 벤치 뒤에 숨은 라디에이터가 훈훈한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이 식탁에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쌓여 있을까? 나는 이곳에 앉아 각자의 방식대로 특별한 시간을 보냈을 이들을 생각하며, 반질반질한 식탁의 얼굴을 살며시 쓰다듬어보았다.

주인 할머니에게서 넉넉한 양의 이불보와 베갯잇을 받았다. 이본이 이불보를 씌웠고, 나는 짐을 날랐다. 저녁은 간편식으로 때웠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사위가 어두워졌다. 장시간 운전으로 피곤하기도 했던 터라, 우리는 내일을 기약하기로 하고,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었다.

커튼 틈 사이로 스며든 여명에 눈이 떠졌다. 아이들은 곤히 자고 있었다. 나는 커튼을 조금 열었다. 이토록 하얀 세상이라니! 밤새 내린 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지워버렸다. 어디가 어디인지 분간하기 힘들 정도였다. 하늘엔 이 모든 일의 주범이었을 눈보라는 자취를 감추고, 대신 눈송이만 폴폴땀다.

부엌으로 나와 커피를 끓였다. 커피를 마시며 눈 덮인 나무를 보았다. 가는 나뭇가지에 혼연히 앉아있던 까마귀 한 마리가 푸드덕하며 눈을 털고 날아갔다.

“엄마. 여기 있었어?”

암막이 없어서인지 예상외로 아이들이 일찍 일어났다. 내가 코코아를 끓이는 동안, 아이들은 창에 코를 대고 하얗게 변해 버린 세상을 구경했다. 잠시 후, 이본이 긴 머리를 틀어 올린 모습으로 방에서 나왔다.

“구텐 모르겐. 다들 일찍 일어났네요.”

“이본, 봤어? 눈이 엄청 많아.”

“그러네. 눈이 정말 많다. 눈사람 여러 개 만들 수 있겠는걸.”

우리는 코코아와 커피를 마시며 한담을 나누었다. 일정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다. 이런 날씨에 눈썰매장은 개장하지 않을 것 같아. 아이들은 실망했지만, 이본은 꼭 가보고 싶다고 말했던 것과 다르게, 별 관심이 없었다. 나는 이본이 실망할까 봐 노심초사했는데, 의연한 이본을 보고 마음이 편해졌다. 우리는 설국이 된 슈바르츠발트를 배경 삼아 사진을 찍었다. 아이들의 장난스러운 얼굴과 너무 웃어 감긴 듯 보이는 내 눈과 이본의 자연스럽게 올라간 입꼬리가 사진에 담겼다. 핸드폰 속의 사진을 들여다보던 루이가 입으로

‘스으읍’ 소리를 냈다.

“왜?”

루이가 사진 속 이본을 가리키며 말했다.

“어젠…… 예뻐는데.”

호텔 뒷마당의 눈밭을 밟았다. 발밑에서 뽀드득뽀드득 소리가 났다. 하얀 이불 같은 눈 위에 모양과 크기가 다른 발자국이 만들어졌다. 제대로 된 눈을 보는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신이 난 두 아이가 아무 데나 주저앉아 눈을 모으기 시작했다. 노엘이 제법 큰 눈덩이를 던지며 먼저 눈싸움을 걸어왔다. 성심성의껏 대응해줬다. 눈썰매장에 못 가는 게 꼭 내 잘못은 아니지만 나는 눈덩이를 던지고 소리를 지르며 어그러진 여행을 만회하려 노력했다. 아이들은 눈덩이를 맞으면서도 깔깔댔다. 웃음이 고향으로 바뀐 건 순간이었다. 루이가 ‘깍’, ‘악’ 하며 울고불고했다. 눈덩이로 뺨을 맞은 것이다. 귀에도 눈이 들어갔는지 손가락을 귀에 집어넣으려 야단이었다.

“엄마! 이본이 내 얼굴에 눈 던졌어! 이본 나빠!”

루이가 고자질했다. 나는 아이의 빨개진 귤볼을 덤쳐 주었다.

“미안해. 근데 원래 눈싸움은 얼굴에 던지는 거야……예요.”

이본이 루이와 날 번갈아 쳐다보며 말했다. 당황한 듯했다.

“애들하고 눈싸움할 땐 얼굴에 눈 던지면 안 되죠.”

나는 우는 루이를 달래며 충고했다.

“아니…… 눈싸움은 원래 얼굴에 맞는 거죠.”

“괜찮아요. 이본 씨한테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실수할 수도 있죠. 근데 애들하고 눈싸움할 땐 얼굴 맞추는 거 아니라고. 기억해 뒀요. 나중에 또 실수하면 안 되니까.”

“아니…… 눈싸움은 원래 어린애들이 하죠. 원래 얼굴에 맞추는 거고.”

“아이, 이본 씨. 괜찮아요, 괜찮아. 나 애들이 운다고 속 좁게 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정말 얼굴에 맞추는 게 눈싸움인데……”

“아이, 괜찮다니까.”

이본은 루이가 헛간 옆 따리를 들고 앉은 고양이를 발견하곤 눈싸움 따위는 잊어버린 지 한참이 지난 때까지도 계속 중얼거렸다.

“축구는 축구 골대에, 농구는 농구 골대에 공을 넣어야 하듯이, 눈싸움은 얼굴에 눈을 맞추는 게임인 거. 진짠데.”

이 친구 참 근성 있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니, 그게 아니라’, ‘괜찮아요, 괜찮아’를 돌림노래 부르듯 했다.

나는 벤치에 앉아 화기에애해 보이는 사진을 골라, 「바로 지금 슈바르츠 발트에서」라는 캡션을 덧붙여 라스에게 보냈다. ‘읽음’ 표시가 나타났고, 곧이어 라스의 전화가 걸려왔다. 요지는, 눈이 너무 많이 온 것 같으니 눈썰매장은 가지 마라, 애당초 운전대를 잡을 생각도 마라, 아이들을 잘 봐야 한다, 아니, 그러지 말고, 내일부터 당분간 강의가 없으니 직접 가겠다, 숙소에서 꼼짝 말고 기다리고 있으라는 것이었다. 나는 이것이 남편의 관심과 사랑인가, 불신과 간섭인가를 헤아려보았다. 불쑥불쑥 고개를 내미는 이 갑갑한 기분은 옳은가, 그른가.

“아직 이른 시간이라 제설이 되지 않은 것뿐이야. 곧 좋아지겠지. 알았어…… 나도 잘해…… 알아서 잘한다고. 쓸데없는 걱정할 거면 전화 끊어.”

나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말이 길어질수록 기분은 반드시 나빠지니까.

호텔 뒤편 개울 길을 따라 걷다 숲으로 향하는 오솔길을 찾았다. 길이 넓고 경사도 적당해, 걷는 데 무리가 없어 보였다.

“멀리 가는 게 아니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한번 가볼까요?”

어차피 달리 갈 데도 없다. 혼자라면 아이 둘을 데리고 절대 저런 데에 가지 않겠지만, 이본도 있으니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의 오산이었다.

이 날씬한 젊은 아가씨는 운동신경이 많이 부족했는데, 특히 하체가 여간 부실한 게 아니었다. 아이들도 수월히 오르는 길인데, 왜 그리 혼자 미끄러지는지. 똑딱. 이본의 몸의 절반이 눈 깜짝할 사이에 내려왔다 다시 올라온다. 발목을 접질린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이본이 시치미를 뚝 떴다. 민망해하는 것 같아 못 본 체하고 걸음을 옮기는데 얼마 가지 않아 프리포즈라도 하려는지 한쪽 무릎을 땅에 꿇고 한 손으론 덤불을 잡고 있다. 머리카락엔 덤불에서 날아온 눈가루가 얹혀 있다. 너의 칭혼을 받아줄게. 나는 이본의 손을 잡아 그녀를 일으켜주었다. 다시 이본이 큰 돌을 밟아 미끄러졌다. 보다 못한 노엘이 나섰다.

“정말 안 되겠네. 나 잡아.”

잘난 척 해봤자 꼬맹이. 나는 루이를 노엘에게 맡기고, 이본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다. 어른이 되어, 이렇게 친구의 손을 잡고 걸어본 적이 있었던가? 영 어색하고 쑥스러운 것을 보니, 확실히 흔치 않은 경험이었다. 나는 걸으면서, 우리 그때 그랬지, 정말 웃겼지, 하며 수다를 떠는 일을 상상해 보았다. 우리의 우정이 길게 갔으면 하는 소원을 담은 그런 생각을.

얼마쯤 오르자 너른 터가 나왔다. 산행객을 위한 벤치도 있었다.

“앞에 길은 좁고 가파른 것 같으니,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내려가요.”

“그럼 여기에서 주먹밥 먹고 갈까요?”

이본이 벤치에 엉덩이 끝만 걸쳐 앉더니 가방에서 루이 얼굴만큼 큰 주먹밥을 꺼냈다.

“주먹밥이 있어요?”

“간식으로 먹으려고 숙소에서 나오기 전에 햇반 데워서 몇 개 만들어 왔어요.”

아침부터 눈 탓에 배가 고팠다.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주먹밥을 손에 들었다.

“맛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맛있게 드세요. 구텐 아페티트.”

“구텐 아페티트.”

먹어본 중에 제일 맛있는 주먹밥이었다. 우리는 너나없이 모두 엄지를 들어 이본의 공을 치하했다. 산속의 피크닉이 한창인데, 아직 몇 입 베어 먹지 않은 주먹밥 위에 하얀 소금이 떨어졌다. 고개를 들어보니 눈이었다.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얼른 가방을 고쳐 메고 산에서 내려갔다. 내가 루이의, 이본이 노엘의 손을 잡았다. 내리막길에서 조심하느라 속도가 나지 않았다. 반면에 눈의 걸음은 신속하고 맹렬했다. 눈은 곧 눈보라로 바뀌었다.

“으기 내 여프에 깎 바터.”

이본의 목소리에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이본은 한 손엔 노엘을 다른 한 손엔 주먹밥을 쥐고, 입에는 주먹밥을 양껏 밀어 넣은 모습이었다. 이본이 노엘을 살뜰하게도 챙겼다.

“이기 음마 으페 딱 브터 가자.”

그래, 눈보라가 몰아쳐도 밥은 먹을 수 있지. 나는 주머니에 넣어뒀던 주먹밥을 꺼냈다. 입으로 랩을 조금 벗기고 주먹밥을 한입 크게 베어 먹었다. 루이도 한입 먹었다.

“이폰 씨. 근이 뜯 마자스요.”

내가 소리쳤다.

“프라고요?”

이본이 되물었다. 그녀의 얼굴엔 머리카락이 젖은 미역처럼 달라붙어 있었다. 나는 한 입 더 먹었다.

“즈먹븍이 느무 마시따고요.”

밤이 다 되도록 눈은 계속됐다. 더는 낭만적이라고 할 수 없는 풍경이었다. 정상적인 여행은 끝났다. 이곳에서 나가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았다. 나는

오래 생각했지만, 차마 밖으로 꺼내지 못한 그 말을 꺼냈다.

“이본 씨만 괜찮다면, 라스를 불러도 될까요?”

라스는 14시 25분에 토트나우 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본이 주인 할머니에게 부탁했다. 주인 할머니는 고개를 몇 번 끄덕이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30분 후, 낡은 픽업트럭이 호텔 뒷마당으로 들어왔다. 바퀴엔 일전에 헬싱키 근방의 한갓진 마을을 지날 때 보았던 스파이크가 달린 스노체인이 감겨 있었다. 말총머리에 검은 티셔츠를 입은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우리는 주인 할머니를 따라 응접실로 들어갔다. 따뜻한 과일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다. 나는 실례하다는 표정을 지어 보이고 아이들의 뒤를 쫓아가, 이건 만지는 거 아니야, 달리면 안 돼, 조용히 말해야지, 등의 잔소리를 하며 어른들의 대화에서 슬며시 빠졌다. 비단 독일어 때문이 아니라, 나는 낯선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이 여간 불편하지 않았다. 그에 반해 이본은 누구와도 자연스럽게 어울렸다. 나는 그녀가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며 사람들을 웃게 만들고,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이본이 할머니의 작은 주방에서 끓인 물을 가져와 찻주전자에 물을 붓는 걸 보면서 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그녀는 진짜 어른이구나.

내가 아이들과 숙소에 남고, 이본이 말총머리 아저씨와 기차역에 라스를 마중하기로 했다. 이곳에서 그리 멀지 않음에도 눈길이라 운행이 쉽지 않은 모양이다. 픽업트럭이 떠난 지 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은 것을 보고 나는 그렇게 추측했다. 두 시간이 지났다. 노엘과 루이는 만화영화를 보느라 여념이 없었다. 나는 초조한 마음으로 창밖을 넘어 보았다. 설마 사고가 난 건 아니겠지? 말총머리는 여기 토박인데, 무슨 일이 있으리라고? 라스를 못 만났나? 나는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리다 음성안내 메시지가 나와 핸드폰을 껐다. ‘딩동’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라스와 이본이 나타났다. 아이들이 ‘아빠!’ 하며 라스에게 뛰어들었다. 환영 인사 한번 요란했다. 짧고 충분한 반가움을 표시한 아이들이 라스를 현관에 남겨두고 만화영화 앞으로 되돌아갔다.

“소영, 잘 지냈어?”

라스가 희미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그 미소가 조금만 더했다면 나를 비웃는다 생각했을 것이다.

“보시다시피.”

라스와 나는 가볍게 서로의 목을 안아 인사했다. 이본이 라스의 등 뒤에 멀뚱히 서있었다. 나는 서둘러 서로를 소개하려 했지만, 둘은 기차역에서 이미 인사를 나누었다며 사양했다. 라스가 현관 밖에 놓아둔 커다란 장바구니를 부엌으로 들었다. 호텔로 들어오는 샛길만 빼고, 큰길은 이미 제설이 되어 주행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시간이 지체된 건 슈퍼마켓에 들렀다 왔기 때문이라고 이본이 설명했다. 나는 수납장에 식료품을 정리했다. 통밀빵, 알고이산(産) 저지방 우유, 유기비료만 먹여 만든 고다 치즈, 할랄 표식이 붙은 깡통 음식들, 안남미가 있었다. 채식주의자를 위한 슬라이스 햄을 발견했을 땐, 세상에 이런 것도 있구나 싶어 신기했다. 귀리 뮤즐리를 찬장에 넣을 땐 내가 좋아하는 콘플레이크는 왜 안 사 왔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콘플레이크보다 건강 염려증이 몸에 더 해로운 거 아닌가? 하나같이 입맛이 돌지 않는 음식뿐이다. 슈퍼마켓에는 이본도 같이 갔으니 대놓고 라스를 타박할 수는 없다. 나는 짜증이 새어 나오지 않게 노력하며 최대한 온유한 목소리로 말했다.

“간식이 없네? 아이들 먹을 것도 사 왔어야지.”

라스에게 한 말인데, 이본이 곁다리를 들었다.

“애들 간식은 여기 있어요.”

이본이 냉장고 속에 밀어 넣었던 머리를 꺼내 들며 봉지 두 개를 흔들어 보였다.

“짜잔! 어린이를 위한 미니 당근과 미니 오이!”

이본이 생긱 웃었다. 노엘과 루이가 만화영화에서 눈을 떴고 이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나이스’라고 말하는 라스의 목소리가 들렸다.

빵과 치즈, 햄과 과일 슬라이스를 식탁에 올리고, 커피와 우유를 따랐다. 오랜만에 풍성한 식탁이 차려졌다. 점심도 저녁도 아닌 애매한 시간이었지만, 모두 맛있게 먹었다. 라스와 이본의 대화는 제법 활기찼다. 그들이 대화를 즐기는 것이 나에게서는 다행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내가 나의 친구들과 있을 때, 라스는 대화에서 시나브로 소외되곤 했다. 라스가 그의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나 또한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타인과 대화를 하며, 서로의 눈치를 봤다. 그것은 언제나 우리를 피곤하게 했고, 가끔은 정체가 애매한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켜 공연한 말싸움을 하기도 했다. 나의 지인인 이본이 라스와 대화를 하니, 나는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어 마음이 편했다. 열띤 목소리에 비해 표정은 심각하지 않은 걸 보니, 둘은 무겁지 않은 주제를 놓고 토론 중인 듯했다. 식탁 위 할로젠램프가 만들어낸 노란 불빛이 그들의 얼굴 위에서 일렁였다. 그 명암을 가만히 바라보는데 라스가 문득 나에게 눈썹을 들어 올려 보였다. 나는 미소로 대꾸했다.

Aller in Ordnung. Everything is fine. 모든 게 나쁘지 않은 저녁이다.

다음 날엔 눈이 내리지 않았다. 라스가 운전을 하고, 차로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다. 호텔 앞 셋길은 여전히 눈으로 덮여 있었다. 여러 차를 시도한 후 우리는 한길로 접어들었다. 노엘이 며칠 만에 밖에 나오는 거냐며 손가락을 꼽았다. 나는 가만히 노엘의 손을 잡았다. 300미터 앞 왼쪽에 티티호(湖)가 있음을 알리는 표지판이 나왔다. 며칠 동안 숲만 봤으니, 호수도 좀 보자는 어설픈 나의 주장에 모두가 순순히 동의했다. 주차장에 차를 대고 호수 공원으로 들어갔다. 호수는 확 트인 데다, 아무도 없어, 서늘한 분위기

가 났다. 우리는 연안을 따라 걸었다. 노엘이 작은 돌멩이 하나를 호수에 던졌다. 돌멩이는 연안에서 멀지 않은 수면에 떨어져 여러 개의 작은 동심원을 만들고 물속으로 사라졌다. 루이는 자갈을 한 주먹 쥐어 던졌다. 자갈이 호수 표면에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나도 동그란 돌멩이 하나를 던졌다. 나의 돌멩이는 조금 더 먼 곳에 떨어져 그만큼 더 큰 지름을 갖는 동심원들을 만들어냈다. 조금씩 커지던 원들은 물가에 닿아서 이내 사라졌다.

아이들이 눈 덮인 기구 몇 개가 놓인 놀이터를 발견했다. 노엘이 시소에 올랐고, 루이는 키보다 높은 시소에 오르지 못해 킁킁댔다. 이본이 루이를 시소에 앉혀 주었다. 나와 라스는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벤치에 앉았다.

“이본이 혼자서 아이들을 보는 것 같아 눈치가 보여. 내가 가봐야 하지 않을까?”

“내버려 둬. 아이들이 좋아하는데.”

나는 엉덩이를 다시 벤치 끝에 놓으며, 눈으로만 아이들을 쫓았다.

“학교는 어떻게 하고 온 거야?”

“시험 기간이라 주말까진 강의가 없어. 대신 다음 주부터 바빠지겠지.”

다음 주가 영영 오지 않았으면 좋겠네, 라는 말을 나는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내일 집으로 갈 계획이었는데. 괜찮아? 라스, 넌 어제야 왔잖아.”

“아, 그렇지 않아도 내일 가는 길에 보덴호(湖)에 들릴까 하는데. 이본이랑은 얘기했어. 소영, 너도 괜찮지?”

“어…… 그래, 좋아.”

어제 그런 얘기도 했구나. 내 허락이 필요한 일도 아니니, 까맣게 잊었나 보다. 라스는 내가 연관된 일을 나에게 알려주지 않을 때가 많다. 나는 라스의 그런 습관이 싫다. 나는 나 자신이 내일 어디에 있게 될지도 모르는 채로 살기는 싫은 것이다. 어디를 갈 땐 미리 말해 주면 좋을 텐데. 한소리를 하려다 나는 이내 입을 다물어버리고 만다. 나는 내가 하게 될 말과 라스가

하게 될 말을 모두 알고 있고, 그건 라스도 마찬가지로 거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스와 나 사이에 짧은 정적이 흘렀다. 이본이 멀리서 우리를 보고 빙그레 웃었다. 그때, 루이가 높이 뜬 시소에서 일어섰다. 나는 깜짝 놀라 벤치에서 일어났다. 라스가 내 손을 잡아끌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 이본이 실수 없이 애들을 볼 거야.”

라스는 자세도, 표정도 편안했다. 나는 여전히 미심쩍었다.

“애도 안 키워 본 아가씨가 하면 뭘 얼마나 잘하겠어?”

“딱 보면 알아. 뭘 하든 철두철미할 스타일이야.”

그는 확신했다.

그날 밤, 마침 잠도 오지 않는 그 밤에 나는 라스의 말을 곱씹었다. 딱 보면 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저런 애들’의 ‘애들’은 대체 어떤 애를 말하는 걸까? 라스는 나를 두고도 딱 보고 알았을까? 어찌면, 우리는 딱 보고 알지 못한 탓에 아직도 서로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사는 건 아닐까. 나는 남편의 간섭과 잔소리가 그가 나를 충분히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었다. 수년간 노력했지만 나는 얻을 수 없었던 그 신뢰를 이본은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 라스의 코 고는 소리가 오늘 밤 유난히 야속하다.

다음 날은 청명했다. 우리는 길을 떠나기 위해 아침 일찍 짐을 꾸렸다. 주인 할머니에게 이본이 작은 선물을, 라스가 감사 인사를 건넸다. 나는 ‘뽕큐’라고 말했다.

동쪽으로 향했다. 겨울의 알프스를 배경으로 한 보덴호를 보기는 나도 처음이다. 햇살이 좋으니, 도톰한 무릎 담요를 덮고 야외의 테라스에 앉아 평화로운 경관과 향긋한 커피를 즐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 따뜻한 커피가 차가운 몸을 녹이며 기분까지 나른해지는 상상을 하다 설핏 잠이 들었다. 라

디오에선 알지 못할 전문가들의 대답이 한창이었다. 단조의 목소리가 자장가가 따로 없었다. 드문드문 남편과 친구의 목소리도 들렸다. 전문가 못지 않은 베이스 소리.

“아…… 이 독일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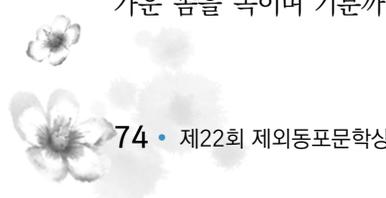
나는 중얼거리며 다시 잠에 빠졌다.

뻑뻑해진 눈을 비비며 잠에서 깰 때, 나는 호수 한가운데 있었다. 사방에 차들이 줄과 열을 맞춰 선 것이 보였다. 우리는 모두 여객선에 실려 보덴호의 서편에서 동편으로 넘어가는 중이었다. 나는 안전띠를 풀고 황급히 차에서 내렸다. 이리저리 미로 속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나는 2층으로 올라갔다. 라스가 난간에 기댄 채로 의자에 앉아있고, 두 아이는 그의 다리 위에 하나씩 걸쳐있었다. 이본은 그 앞에 서있었다. 등을 돌리고 선 탓에 이본의 표정은 보이지 않지만, 라스는 이본을 보고, 웃고, 고개를 끄덕이고, 말하고 있었다. 아이들도 거들 말이 있는지 톤을 높여 떠들어댔다. 나는 그들의 시간을 방해하지 않도록, 멀찍이 떨어진 곳에 앉았다. 고개를 외틀어 보덴호 너머를 바라보았다. 햇빛을 받은 알프스의 설봉이 반짝반짝 빛났다.

산란하는 빛이 가득한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그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다. 익숙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편안한 분위기의 사진이 핸드폰 속으로 들어왔다. 나는 멋진 사진을 남편과 친구와 공유했다. 채팅창에 덩그러니 놓인 사진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니, 부끄러워졌다. 사진을 지웠지만, 「사진이 삭제됨」이라는 흔적이 남았다.

방송이 나오자, 사람들이 차로, 갑판으로 돌아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섰다. 라스가 멀리서 나를 보고, ‘와이피’ 하는 입 모양을 해 보였다. 아이들이 나에게 달려왔다. 기분이 좋아 보여, 다행이었다.

늦겨울 보덴호는 산책하고 커피와 맥주를 즐기고 따스한 햇볕을 즐기는 이들로 북적였다. 우리는 비교적 한산해 보이는 카페에 앉았다. 주위를 뒀





## 달리는 마카우

- 황 소 라 (케냐) -

어다니던 아이들이 내 소매를 잡아끌었다. 도착한 곳은 길 한쪽에 놓인 팝콘을 뽑는 자판기였다. 우리는 팝콘을 하나 뽑아 들고 갈매기가 모여 있는 데크에 섰다. 난간 앞에 ‘보덴호의 생물’이라는 안내 표지판이 있었다.

「미소갈매기. 보덴호에 서식. 붉은 부리. 그 울음이 사람이 웃는 소리와 비슷해 웃는 갈매기로 불린다.」

루이가 팝콘을 든 손을 길게 뻗자 수 마리의 갈매기가 몰려들었다. 새들은 선뜻 달려들지 못하고 손끝에서 파닥거린다. 가까이, 좀 더 가까이 와봐. 엄마, 갈매기는 겁쟁이들이야. 기다림에 지친 아이들이 팝콘을 공중으로 던져주자, 소심한 갈매기들이 그제야 공중에 뜬 먹이를 낚아채 간다. 그들은 우아하거나 노련하지 않다. 새들은 찰나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여러 번 부리를 움직이고 나서야 그것을 간신히 입에 문다. 그리고 다시 주위를 맴돌아 친다. 사방엔 웃는 갈매기의 울음소리가 가득했다.

마카우(Makau Mutua)가 26살이 되던 해에 그에게 운전면허를 딸 기회가 찾아왔다. 외할머니와 함께 마차코스(Machakos) 변두리에서 20년 넘게 살면서 하릴없이 시간을 보내던 그에게 나이로비에 살고 있다던 한 번도 본 적 없던 삼촌이 찾아온 것이다. 키오코 삼촌은 어느 회사에서 운전을 한다고 했는데 제법 깔끔한 입성을 하고 있었고 집에 며칠 머물면서 외할머니의 얇고 해져서 바닥이 다 느껴지던 폼 매트를 사방이 잘 마감된 두툼한 스프링 매트리스로 바꾸어 주기까지 했다. 그리고는 그에게 운전을 배워보면 어떻겠냐고 권한 것이다. “마차코스 시내에 있는 운전 학원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운전면허가 있으면 어디서든 취직해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나중에 나이로비로 올라와도 되고.” 그 길로 마카우는 운전 학원을 등록하고 삼촌은 그곳의 아는 사람이라는 여자와 몇 마디 인사를 나눈 뒤 곧바로 나이로비로 돌아갔다.

운전이라는 것은 쉽지 않았다. 도대체 클러치라는 것은 무엇이며 손과 발이 어떻게 필요에 맞춰 따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열심히 배웠다. 첫 수업부터 다짜고짜 나간 도로에서는 몇 번이고 시동을 꺼트렸는데, 트럭과 버스 사이에 끼여 또 한 번 시동을 꺼트리자 참다못한 운전 선생님은 자신이 차를 몰고 학원으로 돌

아가 버렸다.

그렇게 한 달 가량 수업이 끝나고 면허 시험 날이 되었다. 놀랍게도 그는 몇 번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 만에 면허를 딸 수 있었다. 만사 좋은 게 좋다는 생각으로 그는 시험 시작 전 담당 시험관에게 상냥하게 인사를 했고, 잘 부탁한다고 악수까지 청하며 고개를 숙였다. 시험관은 부드러운 사람이었다. 걱정 말라고 말을 건네며 다른 손으로 툭툭 마카우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는데 악수를 마치고 내리는 시험관의 손에는 곱게 접힌 천 실링짜리 지폐가 들려 있었다.

문제는 면허증을 따고 난 뒤였다. 학원을 다닐 때와는 달리 어디서 차를 몰아볼 기회조차 없었고, 주변에서 초짜 운전사를 구하는 사람도 찾을 수 없었다. 기껏 들인 돈과 시간이-물론 돈은 삼촌이 냈지만-아무 쓸모가 없어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더욱 큰 문제는 운전 그 자체에 대한 것이었다. 안 그래도 간당간당하게 시험을 통과했는데, 그나마 몰아보던 자동차를 구경조차 못 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지나면 일자리를 준대도 과연 차를 몰 수 있을지 스스로도 의심이 들었다.

마카우는 고민하던 끝에 삼촌에게 전화를 했다. 자신의 고민이 이러이러하니 도와줄 사람은 삼촌밖에 없다, 삼촌이 따라고 했으니 내 일자리를 구해 달라 등등 구구절절 읊는 그의 말을 키오코 삼촌은 별다른 말 없이 묵묵히 듣더니 “일단 나이로비로 와라.” 짧게 대답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한바탕 잔소리를 들을 줄 알았던 그는 뜻밖의 상쾌한 답변에 바로 짐을 싸서 나이로비로 향했다.

키오코(Kioko) 삼촌은 마카우의 엄마와 함께 지낸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고 했다. 아니 가족 중 그 누구와도 그다지 오랜 시간을 같이 지낸 적이 없었다. 캄바(Kamba)족이 모여 살던 키투이(Kitui)의 한 시골 동네에서 외할머니의 첫째 아이로 태어난 그는 말수가 적고 과묵한 소년

이었다. 그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외할머니는 마차코스의 같은 캄바족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키오코 삼촌은 아버지가 다르게 태어난 대부분의 아이들과 같이 그의 외가 고향 집에 남겨졌다. 그 뒤에 그가 어떤 생활을 했는지는 잘 알지 못한다. 외할머니와 그녀의 정식 ‘남편’ 사이에서 마카우의 엄마가 태어나 자라는 동안 키오코 삼촌은 키투이에서 수확이나 배달 일을 좀 돕다가 어느새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당시의 외할머니 역시 키오코 삼촌에게 신경 쓸 상황이 아니었다. 딸이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 그녀의 남편은 나이로비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갔다. 물론 모든 가족은 집에 남겨둔 채 말이다. 그것 역시 흔한 일이었다. 지방 소도시인 마차코스에서는 일자리가 그다지 많지 않았고, 많은 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 나이로비로 떠나갔다. 이런 시골 동네에서는 노인들과 몇몇의 젊은이를 제외하고는 어린아이와 그들을 키우는 여인들이 끊임없는 기다림 속에서 삶을 이고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오랜 시간 흘러온 새삼스러울 것 없는 삶의 풍경이었다. 외할머니는 삶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고된 노동과 부족한 금전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는 나름 평온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다. 나이로비로 떠난 남자는-아마도 그들의 정착 역시 쉽지 않았을 터이므로-고향을 생각하며 돈을 보내오거나 연락을 하는 일이 없었다. 외할머니는 어린 아기를 들쳐 업고 닥치는 대로 일했다. 얼마 안 되는 옥수수밭에서 삼모작 추수를 하고 물을 길고 농작물을 팔았다. 그러던 어느 날, 우기가 찾아왔다.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진 폭우는 이곳의 붉은 흙 무른 땅을 모조리 쓸어버려 밭을 형체도 없이 감아 내렸다. 집도 무사하지는 못했다. 집 안 가득 차올랐던 물이 빠져나갔을 때 흙벽은 무너져 있었고 살림들도 어디론가 다 떠내려가고 보이지 않았다. 그 한가운데 서서 업은 등에 오줌을 싸며 악을 쓰고 우는 아이를 추스르던 외할머니는 친절에 두고 온 아들을 더 이상 자신이 돌봐야 되는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게 되었다.

소문에는 키오코 삼촌은 물건을 떼서 파는 무리들과 함께 나이로비로 올라갔다고 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지냈는지 모르겠지만, 소식이 끊긴 후 5~6년 뒤쯤 그는 갑자기 마차코스로 그의 엄마를 찾아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외할머니 역시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렇게 약 2년 정도 시간 동안 키오코 삼촌은 농사일을 도우며 마차코스에서 그의 엄마와 어린 누이와 시간을 함께 보냈다. 마카우의 엄마는 가끔씩 그 시절을 떠올리며, 키오코 삼촌과 그가 사주던 사탕수수나 콜라에 대해 이야기 해주곤 했었다.

키오코 삼촌이 다시 나이로비로 떠나고 몇 년 뒤, 마차코스의 집으로 나이로비에 살고 있는 먼 친척 집에서 자신의 어린 아들과 집안일을 돌봐줄 사람을 찾는다는 연락이 왔다. 가끔씩 시골 친척 아이들을 데려다가 자신의 더 어린 아이들을 돌봐주는 일을 맡기는 도시의 부잣집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에게 따로 임금을 지불하진 않지만, 먹여 주고 입혀 주고 또 어떤 이는 학교에 보내주기도 한다고 했다. 주변에서 그러한 친구들을 부러운 마음으로 본 적이 있던 엄마는 자신에게 찾아온 '특별한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나이로비로 올라갔던 그녀는 2년 뒤, 마카우를 낳았다.

마카우는 나이로비에서의 어린 시절은 잘 기억하지 못한다. 그가 어렸을 때 엄마가 해주던 이야기나 음식 냄새가 전부이다. 기억이 시간의 형태를 갖추고 존재하는 순간부터 그는 이미 외할머니와 마차코스의 작은 시골 흙벽 집에서 살고 있었고, 그의 엄마에 대한 기억은 단편의 조각들로 남아있을 뿐, 어릴 때 외할머니 집으로 자신을 데리고 왔었다던 외삼촌 역시도 자신에게는 단지 외할머니의 새 매트리스와 운전면허 학원으로 기억될 뿐이다.

'디링' 하고 전화 알림이 울렸다. 키오코 삼촌으로부터 약간의 돈이 송금되었다는 메시지였다. 기대하지 않았던 삼촌의 세심한 배려로 차비까지 전해 받은 마카우는 지체하지 않고 바로 당일 출발하는 나이로비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

흔들리는 버스에서 머리를 박으며 2시간 정도 지나자 버스는 드디어 나이로비 시내에 도착했다. 바빠 움직이는 사람들로 정신없이 봄비는 톰 음보야(Tom Mboya) 거리에 처음 내려섰을 때, 발 디딜 틈 없이 꽉 들어찬 공간 속에 무언가가 훑 뜨거운 바람을 뿜으며 다가왔다. 소란함이 귀를 웅웅 때렸다. 순간 그는 머쓱한 느낌과 함께 귀밀이 간지러워져 목 뒤를 빙빙 긁었다. 높은 빌딩들 아래로 촘촘히 늘어붙은 가게들. 그 엉켜 붙은 길 위로 차들이 지나거나 세워져 있었고, 또 그 사이를 복잡하게도 각종 노점 좌판들과 음코코테니(짐수레)들이 채우고 있었다. 온갖 물건들로 가득 찬 짐수레를 밀고 당기며 번들거리는 검은 근육들이 길가에 땀방울을 흘뜨렸다. 복적거리는 노동의 존재감. 그들의 세계로 드디어 그도 들어오게 되었다.

마침 운이 좋았다. 누군가 키오코 삼촌에게 운전사를 찾아봐 달라고 요청이 온 것이다.

"한국인 집이야. 일은 어렵지 않을 거야. 개인 기사니까 보통은 마트나 쇼핑 정도……" 일을 소개해 준 무레이티는 한국 업체에서 12년 가까이 운전을 하고 있는 나이 지긋한 키쿠유(Kikuyu) 남자로 오랫동안 교회 일에 헌신해 온 점잖은 사람이었다. "경력도 괜찮고 키오코의 조카니까 잘하겠지."

마카우의 눈길이 흘깃 키오코 삼촌에게 닿았다. 키오코 삼촌은 덤덤히 "이틀 뒤에 4시까지 가면 된다는 거지? 이력서 들고 갈 거야. 고맙네 친구."라고 인사를 하고는 주변 키오스크에서 소다를 3병 사서 각각 한 병

씩 나누어 주었다. 정오의 따가운 햇살이 제법 큰 벤자민 나무에 막혀 키 오스크 주변을 감싸 안듯 그들이 만들어져 있었다. 그늘 아래에 선 세 남자는 별다른 말없이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팔꿈치를 기대고 서서 소다를 비웠다. 부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사이로 햇빛이 잘랑거리며 조용히 흩어져 내리고 있었다.

삼촌의 단칸방 집 안은 해가 잘 들어오지 않았다. 킁킁한 식탁 곁 책상에서 줄공책 한 장을 떼어내어 인생의 첫 이력서를 쓰기 시작했다. 사진은 운전면허증을 만들고 남은 여분의 것을 첨부했다. 마카우는 삼촌이 알려주는 대로 펜을 푹푹 눌러 생년월일, 학력 등을 적어나갔다.

“마차코스에 있는 교회와 회사 한 군데에서 일했다고 말해 놓았으니까 그렇게 적고, 교회 추천장은 받아놓은 게 하나 있으니까 가져가고.”

이력서 쓰는 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일을 얻을 수 있게 필요한 조건들을 나열해서 적으면 된다. 마카우는 주변의 도움이 있어 더욱 수월한 편이었다. 물론 혼자서라도 어떻게든 다 채워서 냈을 테지만, 이렇게 경험자의 손을 통하는 게 좀 더 프로다워 보일 것이다.

다음 날 경찰서로 범죄사실증명을 떼러 가면서 삼촌은 면접에 대한 충고를 더해주었다. “면접을 가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대답해. 그리고 외국인들은 크리스천인 경우가 많으니까 열심히 믿는다고 말하고. 신을 이야기하면 마음이 약해지지. 월급은 제시하는 금액은 일단 적다고 좀 더 달라고 하고, 아니더라도 ○○○실링보다 적지 않으면 됐어.” 키오코 삼촌이 이렇게 많은 말을 한 적이 있던가. 마카우는 주옥같은 면접 방법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도록 고개를 주억거리며 성실히 들었다. 웬지 느낌이 좋았다. 운전하는 방법이 잘 생각나지 않는다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었다. 일단 일자리를 얻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 뒤는 또 어떻게 될 것이다.

면접을 보기 위해 찾아간 카렌(Karen)의 주택은 크고 조용했다. 전기 펜스가 둘러쳐진 게이트에서 오렌지 나무의 두터운 잎에 가려진 현관문까지 천천히 걸어가면서 그는 붉은 먼지바람이 불던 마차코스의 작은 삼바를 떠올렸다.

그를 기다리던 사람은 뜻밖에도 상당히 어린 동양 여자였다. 한국인이라고 했지. 웬지 긴장하고 있던 마음이 조금은 풀어졌다. 준비해 간 서류를 건네주니 획 훑어보는데, 마카우가 공들여 적은 이력의 내용이나 자신만만하게 내민 추천장은 건성으로 쓱 지나쳐 버리고 오히려 경찰서에서 받아온 범죄사실증명만 꼼꼼히 읽어본다. 슬쩍 머쓱한 기분에 휩싸여 본인을 미세스 강이라고 소개한 여자가 제시한 금액에 별다른 반대를 말하지 못하고 뒤늦게 웅얼거렸다. “그래도 수습 기간 뒤에는 좀 더 올려줘야 되는데…”

여자는 먼저 테스트 운전을 나가보자고 했다. “지금 바로 결정된 건 아니고. 일단 정션 몰(Junction Mall)까지 가보고 생각해 봐요. 괜찮아요?” 순간 만만하게 보이던 여자에 대한 뼈딱한 마음이 한 번에 사라졌다. 당장 직면한 문제는 금액 협상 따위가 아니었다. 눈앞에 세워진 차는 출고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듯한 은회색 중형차. 차의 오른쪽 운전석으로 천천히 걸어가면서 손바닥을 째악 폈다가 바지 뒤춤에 쓱쓱 문질렀다. ‘괜찮아. 어떻게든 되겠지.’

뒷좌석 왼쪽에 앉아 무심히 안전벨트를 매는 여자를 룸미러로 슬쩍 쳐다보면서 입술을 적셨다. 2개월 만에 다시 잡은 운전대였다. 벨트를 당겨 매고, 열쇠를 꽂고… 어디 보자 달각달각.

‘쿠르르르릉’

걸렸다! 세 번의 시도 끝에 시동이 걸리자 마카우는 조용히 소리 없는 휘파람을 내쉬었다. 차는 부드럽게 앞으로 나아갔다. 조심스럽게 게이트

를 빠져나가 커브를 틀어 골목길에 합류를 시도했다. 길 주변은 풀들이 수북이 자라 있는 독이었고 지나다니는 사람은 없었다. 커브를 틀 때 어딘가 축이 흔들려 휘청하는 느낌이 났다. 재빨리 핸들을 감았지만 속도가 부족했다. 차는 그대로 갓길 풀숲에 폭 처박혔다.

“노 프라브렘(no problem), 노 프라브렘.”

얼른 자세를 수습하고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게 중얼거렸다. 뒷좌석의 여자는 눈을 뚱그랗게 뜬 채로 두 손으로 안전손잡이를 파악 틀어지고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떨리는 새된 소리로 여자가 물었다. “운전은 할 줄 아는 거예요?” 여차하면 차에서 뛰어내릴 태세였다.

“마담, 노 프라브렘. 그냥 작은 실수일 뿐이에요.” 여자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마카우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실수일 뿐인 일을 수습하며 차를 다시 길 위로 올려놓았다. 천천히 골목길을 달려 잠시 뒤 큰 도로 위로 차가 올라가자 안정적인 느낌이 들었다. 감이 잡혔다. 마카우는 서서히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다행히 도로에는 차량이 많지 않았고 속도는 순조롭게 올라갔다. 눈을 치켜뜨고 있던 미세스 강도 차츰 마음의 안정을 찾은 듯 그를 쳐다보는 것을 관두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이대로만 가면 아까의 해프닝은 정말 작은 실수로 끝날 것이다. 느긋해진 마음에 천천히 창문을 열었다. 바깥바람이 얼굴에 닿자 심지어 약간의 흥까지 올라왔다. ‘나중에 월급은 다시 확실히 이야기해야지.’ 그때였다. 차가 갑자기 덜덜거리기 시작했다. 얼른 뒷자리를 쳐다봤다. 여자는 다시 고개를 돌려 불안한 표정으로 무슨 일인지 살폈다.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길은 아무 문제없이 매끈했고 차도 똑바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시침을 똑 떼고 앞만 보고 운전 계속했다. 차는 계속 심하게 덜덜거리고 차체도 심하게 흔들렸다.

“왜 그래요? 차가 많이 흔들리잖아요.” 불안한 여자의 목소리가 울렸

다. 두 손은 다시 벨트를 꼭 쥐고 있었다. “아무 일 아니에요, 아마 도로 때문인가 봐요.” 도로는 당연히 아무 이상이 없었다. 여자는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다. “도로는 아무렇지 않잖아요. 어제도 왔었어요. 지금 차 조작이 잘못된 것 같은데… 기어를 잘못 든 거 아니에요?” 기어는 ‘D’에 제대로 가있었다. “분명 뭔가 차 조작이 잘못된 거예요. 일단 속도를 줄여 봐요.” 마카우는 그녀의 요구대로 속도를 천천히 내리기 시작했다. 무언가 덜컹거리는 느낌이 남아있지만 덜덜거림은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다가 속도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다시 차체가 흔들거리기 시작했다. 결국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자고 하고는, 급하게 어디로 전화를 걸었다. 한국말로 빠르게 무언가를 떠들던 여자는 집에 도착할 때까지 안전손잡이를 놓지 않았고 창백해진 얼굴로 입술을 꼭 깨물고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그녀의 집 게이트를 통과하자 동양인 남자 하나가 택시에서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이었다. “헬로우. 반가워요. 당신이 오늘 면접 보러 온 사람인가요?” 그 남자는 보통 동양인들과는 다르게 덩치가 있고 키가 아주 컸다. 어쩐지 긴장이 되어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 하던데” 마카우가 뭐라도 설명을 하려고 막 입을 떼는데 그보다 빨리 여자는 한국말로 자신의 남편을 향해 다다닥 이야기를 시작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흥분해서 쏘아대는 모습을 보니 다소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왜 자신의 남편에게 저렇게 화를 내고 있는 건지. 그는 지금 도착했고, 잘못된 것은 그가 아닌데 말이다.

물론 그는 한국말을 전혀 몰랐지만, 남편의 말 중에서 ‘사이드 브레이크’라는 단어는 알 수 있었다. ‘아, 사이드 브레이크’ 아까 운전할 때 사이드 브레이크를 푼 기억이 없다. 아니 그 존재를 방금 전까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것이 문제였구나. 잠시 뒤 남편이 마카우 쪽으로 다

가왔다. 그는 천천히 조용한 목소리로 “당신은 운전을 잘 못하는 것 같네요. 자동차를 어떻게 다루는지도 잘 모르고. 안됐지만 우리랑 일은 못하겠어요.”라고 또박또박 말했다. 그의 끊어서 꼭꼭 눌러 말하는 악센트가 더 이상 흥정할 여지가 없음을 보여 주는 듯했다. 마카우는 조그만 목소리로 웅얼거리며 변명 아닌 변명을 했다. “당신 차가 너무 신형이라서 뭐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서 그래요. 자꾸 타다 보면…” 부부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단칼에 “노우”로 답했다. 차비로 쓰라며 200실링을 쥐어주고 그를 돌려보내는데 약간의 오기가 돌아났다. 오늘 어쨌든 일을 하지 않았는가. 거기에 대한 돈을 더 쥐야 한다고 말을 흘려 보았지만, 남편 쪽은 그를 흘깃 쳐다보며 웃는 듯 마는 듯 그냥 게이트를 닫아버렸다.

마카우는 한숨이 났다. 게이트 밖에서 서성이던 그는 키오코 삼촌이 알려 주던 여러 가지 면접 방법들을 떠올렸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남겨진 저들의 번호로 메시지를 보냈다. 그들의 집은 대로에서도 두어 번 정도 굽이굽이 꺾여 들어가 있었고 울창한 나무들이 둘러싸여 잘 보이지도 않는 카렌의 주거 지구 외곽에 있다. 인적은 드물고 수풀은 깊었다.

‘나는 지금 이 어둠 속에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혼자 집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가다가 수풀 속에서 강도를 만나 죽을지도 모르지. 당신들이 나를 가엽게 여겼다면 집으로 돌아갈 택시비라도 줬을 것이다. 오늘 내가 무사히 살아서 집에 갈 수 있을지는 오직 신만이 아시겠지.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고, 그 대가를 받지 못했지만 당신을 원망하진 않을 거야. 오직 신께서 나와 함께하실 거다.’

문자를 다 써서 보내고 난 마카우는 바닥에 침을 탁 뱉고 게이트를 한 번 쳐다본 뒤 돌아서서 느릿하게 삼촌의 집을 향해 걸어갔다. 저들이 돈을 더 보내줄 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마음 편하지는 않겠지. 어쨌든,

그는 삼촌의 충고를 잘 활용했다.

요란한 음악을 흘리며 14인승 승합차는 짙은 녹음이 가득한 언덕 위로 난 키암부(Kiambu)의 도로를 달려가고 있었다. 햇빛이 잘게 부서지는 화창한 아침이었다. 과거에 숲이었던 장소를 뚫어 낸 도로 아래는 비스듬히 깎아져 내린 낭떠러지가 나무들에 둘러싸여 발랄한 푸르름을 발하며 펼쳐져 있었다. 창 앞의 운전사 옆 좌석에 앉아있던 마카우는 그가 건네주는 미라 한 줄기를 받아 입에 물고 질경질경 씹기 시작했다.

“마타투(Matatu) 운전이요?”

“응. 키암부 쪽을 운행하는 노선인데, 요즘 사람을 구한다는군.”

그날 면접이 끝난 후 그냥 집으로 돌아온 마카우에게 얼마 뒤 무레이티 아저씨가 찾아왔다. 문자를 보낸 후 한국인 부부는 돈을 더 주겠다고 하진 않았지만, 무레이티에게는 바로 연락을 했었던 모양이다. 이력서의 경력, 추천장이 다 거짓말인 것 같다. 운전을 거의 해본 적이 없는 사람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무레이티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하고는 입을 다물었다고 한다. 이야기를 전해 준 뒤 그는 마카우에게도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단지 또 다른 일자리를 소개 해주며 연락처를 건네줄 뿐이었다. 마카우는 이력서를 읽어보던 한국 여자를 떠올렸다. 처음부터 이력서의 내용보다는 범죄 기록이 없는 것을 더 신경 쓰고 있었다. 어려 보이던 그녀도 누군가 작성해 온 이력서와 추천장이 그다지 믿을 만한 것은 아니라는 정도의 경험은 있는 것이다.

“마타투 운전은 경력도 실력도 좀 있어야 된다던데, 할 수 있을까요?”

정해진 시간 내에 승객을 승하차시키고 루트를 돌아야 되는 마타투 운전은 결코 쉽지 않다. 거기다가 고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힘들기만

한 헛고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번 해봐. 요즘 그쪽 루트로 무슨 일이 있는지 사람이 좀 빈다고 하더라고.” 말을 마치고 무레이티는 슬쩍 고개를 들어 마카우를 바라보았다. “…… 넌 키쿠유가 아니니까 괜찮을 거야.” 갑자기 종족 타령은 왜 하는 건지 알 수 없어 물어보려는 찰나 무레이티는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이제 가봐야겠다. 곧 점심시간이 되니까 들어가 봐야 돼.” 두 손을 마주 잡고 쓱쓱 소리를 내며 비비더니 한 손을 들어 마카우의 어깨를 툭 툭 쳤다. “꼭 연락해 봐.”

저녁에 키오코 삼촌이 집에 왔을 때 마카우는 무레이티가 다녀간 일을 알렸다. 키쿠유가 아니라서 괜찮을 거라는 말도 빠지지 않고 전했다. 키오코 삼촌도 딱히 의미를 알진 못했지만, 마타투 회사에 전화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은 생각 같다고 했다. 마카우에게는 경험이 필요하고 돈을 벌 직장이 필요했으니 이것저것 가릴 때가 아니다.

마카우도 이에 고개를 끄덕거리며 동의했다. 다음 날 아침 받은 번호로 연락을 했더니 바로 회사로 나와 보라는 말을 들었다. 또 회사에 가서 별다른 확인 없이 해당 루트의 마타투에 길도 익힐 겸 한번 탑승해 보라고 밀어 넣는 것이었다. 일사천리로 상황이 진행되자 어리둥절하면서 기분은 나쁘지 않았다. 어쨌든 그는 일자리가 필요했으니까.

신나는 음악과 함께 좋은 날씨 속을 뽕뽕 달리다 보니 의욕이 솟아났다. 나이로비 도로는 항상 꽉 막혀 있다고 들었는데, 그가 지금 달리고 있는 이 길은 평소에도 한산한 편이라고 했다. 같은 길로 두 번째 회선을 했을 때 마카우는 다시는 못 만날 좋은 조건의 직장을 찾았다는 느낌까지 들었다. 그렇게 마치 소풍이라도 나온 듯 드라이브를 즐기며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었다.

그때 100미터쯤 앞에 경찰차와 함께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서있는 모습이 보였다. 아까 올 때만 하더라도 아무 일도 없던 곳이었다. 함께 탄 마타투의 운전사도 궁금한 듯 서행으로 천천히 다가가 몰려 있는 사람들 옆으로 차를 붙였다. “헤이, 이봐요, 무슨 일이에요?” 물어보는 운전사의 목소리가 많이 떨리고 있었다. 마카우는 흘깃 그를 쳐다보고는 다시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다들 웅성거리며 경찰들이 서있는 곳을 보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중 뒤에 서있던 사내 한 명이 마타투를 향해 입을 열었다. “또 죽은 사람이 발견됐대요. 뭉기끼(Mungiki) 짓인가 본데… 목이 없다는 얘기도 있고.” 그는 이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여전히 경찰 쪽을 향해 목을 쪽 빼고 기웃거리며 말했다.

“뭉기끼? 그 갱들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요즘에 이 근처에서 키쿠유들 목 없는 시체가 몇 나왔잖아요. 다 뭉기끼가 그런 거라고.” 그 말을 함께 듣고 있던 운전사의 얼굴이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트릴 듯 일그러졌다. 서둘러 갓길에 세웠던 차의 시동을 걸고 그 장소를 벗어났다. 좀 전까지만 해도 흥겹게만 들리던 고성요의 가요가 누군가의 비명처럼 찢어지는 소리로 울려 퍼졌다.

그 뒤로 두어 시간 더, 별 말없이 운행을 마친 뒤, 마카우는 연락드릴겠다는 말을 남긴 채 집으로 돌아왔다. 자꾸 아까의 사람들이 몰려 있던 모습이 눈앞에 떠올라 두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다. 어둑해질 무렵 키오코 삼촌이 집으로 돌아왔다. 삼촌에게 아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려 하는데 그가 먼저 “그 마타투 운전 일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며 말을 꺼냈다.

“오늘 가서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요즘 그쪽으로 키쿠유족 마타투 운전수들이 뭉기끼 테러 대상이 되고 있다잖아. 이미 여럿 죽었다던데. 어디에는 목만 남겨 놓은 데도 있고. 곧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저쪽에서 키쿠유들을 대상으로 경고하는 거라더군.”

마카우는 아까 보았던 것이 무슨 일이었는지 알 수 있었다. 일그러진 운전사의 얼굴도 떠올랐다. 5년 전 대통령 선거 때도 다른 후보자를 내세운 부족들이 서로를 공격하며 수백 명이 죽었다. 키쿠유 타운의 교회에서 산 채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불태워진 일은 당시 마차코스에 있던 그에게도 충격적인 사건으로 남아있다. 그때 마카우의 휴대폰이 ‘딩동’ 하고 울렸다. 버스 회사에서 등록을 위한 서류를 가지고 오라는 메시지였다. 마카우는 고개를 젓고는 단호히 일하지 않겠다는 답장을 보냈다. 멀리서 보면 그도 키쿠유로 보일지 누가 알겠는가. 돈이 필요하지만 먹을 입을 잃어버리면 의미가 없다. 시작 전에 먼저 알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키오코 삼촌이 또 다른 일자리를 알아왔을 때 그는 여기저기 개인택시 운전사들의 땀질 역할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아 할부로 개인택시를 해볼까도 잠시 생각을 했지만,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도 문제였다. 역시 누군가 혹은 회사의 운전사로 고정 취직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마음을 굳히고 있을 때 키오코 삼촌의 회사 판매담당 시니어가 집에서 개인적으로 일할 기사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가지고 온 것이다.

“응, 한국 사람. 미스터 리라고 하는데 그 집 차를 운전하면 돼. 애들이 둘인데 학교 등하교길 태워주고, 어디 갈 때 태워주고.” 한국 사람이라니 몇 달 전 일이 떠올랐다.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는데 키오코 삼촌은 달래듯 그를 쳐다보며 말했다. “내 조카라고 말도 했고, 너도 이제 여기 길도 많이 아니까 잘해 봐. 계약은 회사 계약서로 할 거라 조건은 괜찮은 편이야.” 확실히 삼촌은 좋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월급이 밀리는 적도 없고 의료보험도 회사에서 내주고 있다. 근무 시간 이외에는 추가 수당도 확실히 계산해서 주니, 애매한 개인 기사보

다도 추가 수입이 좀 더 있는 편이었다. 삼촌은 그 흔한 주차비나 쇼핑 영수증으로 장난을 쳐서 비용 더 뜯어내는 일조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는 비교적 정직한 편에 속했으며 담백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의 회사는 그런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생활을 지지해 주었다.

며칠 뒤, 마카우는 집 근처 중고 시장에서 마련한 품이 큰 회색 양복을 챙겨 입고 미스터 리의 집으로 갔다. 미세스 리로 보이는 키가 작고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여자가 문을 열어주었다. 그녀는 무뚝뚝한 편이었는데 인상과는 달리 면접에서는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았다. 단지 가져온 서류들을 회사에서 검토해 볼 것이라고 따로 갈무리해 두고, 근처 테스트 운전 때도 별말 없이 앉아있다가 집으로 돌아오자 일단 세 달간 수습 기간을 가지고 일을 해보라고 말했다. “내일부터 올 수 있죠? 아침 7시까지 오면 돼요.” 싱겁게 취직이 결정되자 마카우는 얼떨떨하게 “그럼요. 하쿠나 마타타(Hakuna matata). 문제없어요. 내일 올게요.” 대답하고 혹시나 취소할까 얼른 밖으로 나갔다. 그때 닫히는 문틈으로 여자의 무뚝뚝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7시예요. 절대 늦지 마세요.”

사실 서둘렀으면 시간에 맞춰 도착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새로운 고용주 번호가 뜬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을 때에도 마카우는 자신이 늦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 전화를 받자 어디냐 라는 낮게 지르는 듯한 냉랭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마카우는 “거의 다 왔어요.”라고 대답했다. “거의 다라니 정확히 몇 분 뒤를 말하는 거예요?” “거의 다요, 거의 다.”

짧은 정적 후 작은 한숨 소리가 흘러나왔다. “아이들은 지금부터 10분 안에 학교로 출발해야 늦지 않을 수 있어요. 당신이 못 오면 택시라도 불러 가야 되니까 정확히 언제 도착하는지 알려줘요.” 순간 울컥한 마음이 들었다. 별것도 아닌 일로 이렇게 면박을 주다니. “금방이요, 금

방.” 삐로웃 전화가 끊어졌다. 삐죽해진 기분으로 집에 도착해 벨을 누르자 아무 응답이 없었다.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한 마카우는 대문 앞을 서성대며 누군가가 오기를 기다렸다. 20분쯤 뒤, 무뚝뚝한 표정의 미세스 리가 종종걸음으로 돌아왔다. 지갑을 든 손으로 팔짱을 끼고 긴 카디건을 걸친 여자는 문 앞에 서있는 그를 보고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종종거린 탓인지 코끝까지 내려온 안경을 쓱 올리며 “첫날부터 늦게 왔네요”라고 냉랭하게 내뱉었다.

마카우는 씩씩 숨을 들이키며 “길이 험갈려 되돌아오면서 헤매느라 늦었어요. 내일부터 정시에 올게요”라고 재빨리 대답했다. 갑자기 아침공기가 차갑게 느껴져 자신도 모르게 부르르 몸을 떨었다.

첫날의 지각을 제외하고 이후의 날들은 순탄하게 흘러갔다. 미세스 리는 꽤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고 시간 약속만 잘 지키면 별 탈 없이 지낼 수 있었다. 단지 냄새에 상당히 예민한 터라 옷을 조금만 빨지 않고 입거나 씻지 않거나 하면 바로 인상을 찌푸리곤 해서 신경 써서 꼬박꼬박 몸을 씻었다. 단수가 잦았고 물도 길어다 써야 했지만 키오코 삼촌도 씻는 데 쓰는 물을 아까워하지 않았다. 하루 일과는 단순했다. 아침에는 아이들을 학교로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에 미세스 리는 장을 본다. 가끔씩은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도 있고 외식을 하러 가기도 하지만 그 외에는 별달리 할 일이 없었다. 오후 3시가 되면 아이들을 데리러 가고, 돌아오면 퇴근 시간이 된다. 이 한국 여자는 그다지 많은 외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카우는 집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많았다.

9월이 되자 나이로비에 짧은 우기가 찾아왔다. 오랜 건기 끝에 찾아온 단비에 세상은 온통 여린 초록빛 물을 머금고 싱그러운 공기를 뿜어냈다. 그날은 리의 두 아이들이 교회 친구들과 영화를 보러 간다고 했

다. 토요일 오전 마카우는 아이들을 태우고 웨스트게이트몰(Westgate Mall)로 향했다. 주말인 탓인지 아직 이른 시간인데도 주변은 쇼핑몰 안으로 들어가려는 차들로 붐볐다. 마카우는 영화관 입구와 가까운 2층 지상 주차장으로 차를 천천히 몰고 올라갔다. 부드러운 반원을 그리며 차가 움직이는 동안 아이들은 자신의 친구들이 탄 차량을 발견하고 얼른 창문을 열어 손을 흔들었다.

“여기서 내릴게요. 영화는 12시쯤에 끝나니까 그때쯤에 전화할게요.” 소년들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휙 차에서 내려 친구들에게 뛰어갔다. 까르륵거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맑게 퍼져 나간다.

어차피 일이 일찍 끝나는 토요일이다. 오늘 오전에 마담은 차를 따로 쓰지 않는다고 했으니 마카우는 이곳에서 영화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바로 퇴근하기로 마음먹었다. 쇼핑몰 입구에서 옥수수를 구워 팔던 게 떠올라, 그는 천천히 다시 게이트 쪽으로 걸어 내려갔다. 경비들은 여전히 몰려오는 차들을 일일이 열어 검사하는 데 여념이 없었고 그 열린 차 트렁크 너머로 숯불에 옥수수를 굽고 있는 이가 눈에 들어왔다.

“헤이 브와나(Bwana), 소프트한 걸로 소금, 라임 뿌려서 하나 주세요.”

옥수수를 굽는 청년은 무심히 커다란 알이 꽉 찬 녀석을 골라 보드랍고 깨끗한 옥수수 속이파리에 잘 싸서 마카우에게 건넸다. 마카우는 반 잘린 라임을 들어 소금과 고춧가루를 찍은 뒤 방금 구운 옥수수를 앞뒤로 굴러가며 골고루 문질렀다. 딱딱한 표면을 깨물어 씹자 라임의 시큼한 맛과 고춧가루 향이 고소함과 버무려져 입안 가득 침이 돌아 나온다. 그는 옥수수를 들고 천천히 건물 주차장 쪽으로 걸어 올라갔다. 어디선가 보라색 꽃봉오리 하나가 날려 와 그의 코끝에 닿았다.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니 아름답리 자카란다 나무가 여린 새 가지 위로 가득 꽃을 달

고 주변에 연보라색 꽃바람을 날리고 있었다. 그 아래로 아까 보지 못한 천막이 보였다. 행사가 있는 듯 주차 공간을 나눠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무리 지어 있었고 아이들의 가득 찬 웃음이 공기를 환하게 물들이고 있었다. 하얀색 레이스 원피스를 입은 여자아이 하나가 그의 옆으로 팔랑거리며 뛰어왔다. 아이의 머리끝에 달린 수십 개의 색색이 구슬을 보며 마카우는 슬그머니 미소를 머금었다. 어디선가 방울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마카우의 엄마가 나이로비에 올라갔을 때 그녀는 함께 살게 된 친척과 함께 매주 교회에 나갔다고 했다. 그때마다 불과 배가 동그랗고 통통한 친척 집 여자아이는 항상 레이스가 가득 달린 원피스를 입었다.

나이로비의 세계는 그녀가 머물던 시골과는 많이 달랐다. 집 안을 가득 채운 가전제품들부터 그 속에 연결된 전기, 수도, 샤워기 달린 욕실까지. 그들은 화장실을 다른 집과 공유하지 않았으며 벽으로 둘러싸여진 그들의 공간을 단단하게 확보하고 있었다. 그래서인지도 모른다. 이 세계에 속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그녀는 누군가 내민 손을 쉽게 잡았고, 마음을 내어 주었다. 아이를 가져서 그를 붙잡고, 이곳에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생각하던 거랑은 달랐지. 그 사람이 살던 곳은 창도 나지 않은 좁고 컴컴한 방이었고 그런 냄새나는 양철집들 몇 백 개가 다닥다닥 붙어있었어. 무엇보다도 그곳엔 햇빛과 바람이 없었거든.” 생각해 보면 그의 엄마는 마차코스를 그리워했던 것 같다. 그곳에는 도란도란한 고요함과 옥수수 잎 사이를 서걱대는 바람이 있었다.

그녀가 원했던 도시의 세계가 전부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그녀는 그 세계의 외곽으로 밀려났다. 임신이 알려지자 친척은 신속하게 그녀를 자신들의 집에서 내보냈다. 옷가지가 든 작은 가방 하

나를 들고 어느 흐린 날 그녀는 키베라(Kibera)의 컴컴한 양철집으로 옮겨 갔다. 얇은 관계로 붙잡고 있던 그와는 친척 집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말을 전한 순간부터 완전한 남이 되었다. 오물과 진흙이 섞여 흐르는 양철집 사이를 걸으면서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뻣뻣하게 붙어있는 슬레이트 지붕 길 아래로는 햇빛이 들지 않는다. 왜 그때 마차코스로 돌아가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녀의 삶이 매우 힘겨웠을 거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마카우(Makau)-그녀가 아들에게 지어준 이름이다. 캄바(Kamba)족은 전쟁의 시기에 태어난 아이에게 ‘마카우’라는 이름을 붙인다.

‘과과광!’

갑자기 땅이 내려앉는 듯한 엄청난 충격이 마카우를 때렸다. 후두둑 바위가 부서지는 소리에 이어 따가닥거리는 연발음이 들려왔다. 마카우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었다. 차창 밖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주차장의 한쪽이 완전히 내려앉아 몇 대의 차들은 그 아래로 처박혀 있었고 찢어지는 듯한 비명 소리가 세상을 가득 채웠다. 연이어 들려오는 따다닥 소리에 마카우는 차 바닥으로 낮게 몸을 숙였다. 이윽고 주변이 조용해지자 그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바깥을 바라보았다. 얼마 전까지 떠들고 웃던 사람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다시 폭발음이 연달아 들려왔다. 시커먼 연기가 사막의 폭풍처럼 하늘을 가득 채우며 올라갔다. 마치 세상의 마지막 날이 온 것 같았다. 그때 그의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깜짝 놀라 열린 전화기를 무음으로 바꾸고 자신도 모르게 주변을 둘러보았다. 바깥에는 살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메시지는 리의 아이들이 보낸 것이었다. ‘도와주세요. 영화관 의자 밑에 있어요. 밖에서 총소리가 들려요.’ 순간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다. 잠시 기다렸다가 우선 차에서 내

려 몸을 잔뜩 구부리고 천천히 건물 쪽으로 다가갔다. 안쪽에서는 계속 총소리가 울리고 있었고 사람들의 비명도 함께 울려 퍼졌다. 그의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손을 몇 번이고 바지에 문질렀다. 상영관 입구 쪽으로 고개를 돌려 상황을 살피는데 몇 명의 동양 아이들이 재빠른 걸음으로 발소리를 내지 않고 나오는 것이 보였다.

“헤이 리” 속삭이듯 그들을 불렀다. 의외로 아이들은 대답했다. 마카우는 우선 건물을 빠져나갈 요량으로 아이들을 모아 다시 입구 쪽으로 조심스레 몸을 틀었다. 그때 가운데가 뚫려 있는 건물의 중앙 난간을 통해 아래층 슈퍼 앞에서 무기를 온몸에 두르고 커다란 장총을 든 사내가 보였다. 그는 사람들을 일렬로 세워 놓고 그들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었다. 그의 독특한 억양의 목소리가 들렸다.

“위대한 무함마드 어머니의 이름은 무엇인가?”

무슨 말인지 의미가 잘 파악되지 않았다. 마카우는 몸을 돌려 다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려고 움직였다. 그때 ‘타탕!’ 짹고 날카로운 총성이 울렸다. 아이들은 입을 틀어막고 걸음을 멈추었다. 총구 앞에 있던 사람이 바닥에 누워있었다. 마카우는 눈을 질끈 감고 계속 바깥쪽으로 뛰어갔다. 아래쪽에서는 몇 발의 총성이 더 울렸다.

직접 누군가 총에 맞아 죽는 모습을 본 충격은 대단했다. 계속 머리가 울리고 정신을 차리기 힘들었다. 2층 주차장 쪽에선 계속 연기가 오르고 있었고 우르릉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들은 차를 포기하고 〇층 카페테리아 테라스 바깥쪽으로 나가기로 했다. 곳곳에서 총성이 계속 들려오고 있었다. 숨다가 이동하다가 제법 오랜 시간이 걸려 드디어 테라스로 연결된 문까지 도착할 수 있었다. 먼저 아이들을 테라스 밖으로 뛰어나가게 한 마카우는 그 뒤를 이어 자신도 나가기 위해 문을 그러쥐었다. 아까 총을 쏘았던 남자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반복되고 있었다.

“위대한 무함마드 어머니의 이름은 무엇인가?”

그때 둔탁한 충격이 그의 왼쪽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총소리를 들은 것도 같았다. 휘청 다리가 휘고 귀는 웅웅거리며 소리가 멀어졌다.

‘……어머니, ……어머니의 이름은 무엇인가?!’ 사내의 외침은 계속되었다. 그는 억지로 어깨를 밀어 테라스 밖으로 몸을 내던졌다.

“어머니……의 이름은……”

주르륵 끈적하고 뜨거운 무언가가 왼쪽 귀를 타고 어깨에 흘러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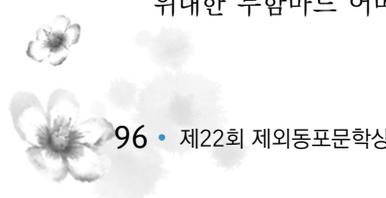
‘내 어머니의 이름은, 카쇼카(Kasyoka-가족의 환생).’

이윽고 정신이 아득히 멀어졌다.

캄바의 영혼은 그들의 가족으로 끊임없이 되돌아온다고 했다. 먼 과거의 시간을 거쳐 돌아온 캄바 여인의 영혼, 그 이름은 카쇼카이다. 기억도 잘 나지 않는 어린 시절 마카우의 머리를 쓰다듬던 거친 손길의 어머니도 언젠가는 그의 곁으로 다시 돌아오는 걸까.

뉴스에서는 하루 종일 웨스트게이트 테러 현장에 대해 보도했다. 사흘간의 진압작전 끝에 테러를 저질렀던 알 샤바브(Al-shabab) 일당 몇은 죽고, 몇은 잡혔으며 또 몇은 도망가는 것으로 끝이 났다. 쇼핑몰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지만, 방송에서는 축소된 인원만 발표했다. 시신이 수습된 병원은 아비규환이었다. 그러나 마카우는 살아있었고, 다행히 일상으로 돌아왔다. 고맙게도 그의 고용주는 병원 입원 치료비까지 모두 대신 납부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한 달이라는 치료 기간에도 그를 해고하지 않았다. 걱정했던 차량도 회사 소속으로 보험 처리가 되어 그야말로 돈 걱정 없이 마카우는 병원에 누워있을 수 있었다.

그가 튕겨 나갔던 난간 밖으로는 이미 경찰이 진입을 위해 사람들을





## 노를란드의 송이버섯

- 김 미 영 (스웨덴) -

수습하고 있었다. 먼저 빠져나간 아이들은 바로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었고, 단숨에 현장으로 달려온 그들의 품에서 안전하게 보호되었다.

아이들의 보고로 마카우는 한동안 리의 가족들로부터 영웅과 같은 대우를 받았다. 그의 휴식이 유급 휴가로 처리된 것도 그중 하나였다.

소란 속에서 며칠이 지났다.

8개의 침상이 칸막이 커튼으로 나뉘어있는 병실은 그 말고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고요했다. 마치 다른 세상에서 일어났던 일처럼, 종말과도 같던 폭음의 시간은 지나갔지만 이방인의 어머니의 이름을 묻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을 뚫고 그의 귀를 울렸다. 그때 과묵한 발걸음으로 누군가 병상 커튼으로 다가왔다.

키오코 삼촌이 병실에 들어섰을 때, 그리고 그가 민트 사탕 하나를 건네주었을 때, 마카우는 문득 삼촌과 함께 흔들리던 버스를 타고 시골길을 달리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때도 이렇게 삼촌은 어린 그에게 사탕을 건네주었던 것 같다. 마카우의 엄마, 카쇼카는 아이를 낳고 몇 년 지나지 않아 사고로 짧은 인생을 잃었다. 그러나 어린 마카우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다. 지금까지 기억나지도 않던, 묵묵히 내밀어 준 손을 잡고 마차코스에서 계속 이어졌던 것이다.

병상 침대 위로 선선한 바람 한줄기가 흘러 들어왔다. 이제 곧 삼촌과 함께 나이로비의 집으로 돌아갈 터이다.

어디선가 달리는 자동차가 일으키는 붉은 흙먼지 냄새가 날려 오는 듯했다.

신영은 잠동사니들 사이에 가까스로 발을 디디고 서서 절반만 모습을 드러낸 배낭을 한 손으로 움켜쥐었다. 손아귀에 힘을 주고 콩 소리를 내며 잡아당겨 보았지만 쉼 없이 내리누르는 짐들의 무게에 눌러 배낭은 꼼짝달짝 하지 않았다. 천천히 한 발을 옮겨 몸의 균형을 잡고 다시 허리를 숙인 다음 두 손으로 손잡이를 거칠게 흔들 때야 배낭 위의 물건들이 꿈틀대기 시작했고 마침내 납작하게 눌러 볼품없는 모습의 배낭이 쑥 빠져 올라왔다.

“배낭은 왜?”

동진이 다가오며 물었다.

“쓸 일이 있을 것 같아.”

신영은 바닥에 어수선하게 흐트러져 있는 물건들을 대충 발로 들이밀며 창고 방의 문을 닫고 베란다로 향했다. 이사 온 날부터 착실하게 쌓여 온 먼지가 탁탁 소리와 함께 이른 아침의 대기 속으로 흩어졌다. 동진이 미심쩍은 표정으로 물었다.

“정말 가는 거야?”

신영이 배낭을 여행 가방 옆에 내려놓고 콘센트에 꽂혀 있던 배터리를 휴대폰과 연결한 채로 빼내어 작은 가방 안에 넣으며 말했다.

“금요일 저녁까지는 돌아올게. 전화해도 안 받을 테니까 전화하지 말고 잘 지내고 있어.”



“당신이 결근을 다 하겠다고? 그것도 삼 일씩이나?”

신영이 여행 가방을 일으켜 세웠다.

“휴가 낸다고 새벽에 메일도 보내 놔어.”

어디론가 떠나겠다고 이른 아침부터 짐을 챙기는 동안 설마 하는 시선으로 신영의 움직임을 바라보던 동진이 휴가를 냈다는 말에 허둥대기 시작했다.

“어디 가고 싶었으면 진작 말을 했어야지. 얼른 씻고 나와서 내 짐도 챙길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동진이 갈아입을 옷을 챙겨 들고 안방에서 나와 급히 욕실로 들어서는 동안 제자리에 가만히 서있던 신영은 샤워기에서 물 쏟아지는 소리가 들리자 재빨리 배낭을 어깨에 메고 여행 가방을 달랑 들어 올리고는 가만가만 현관으로 걸어가 문 앞에 놓여 있는 구두를 신었다. 그리고 신발장에서 등산화물을 꺼내 쇼핑백에 넣은 다음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다.

신영은 동진의 무딘 성격을 한심스러워할 때가 더러 있었다. 어젯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노를란드에 대해 말했고 바로 다음 날 계획에도 없던 여행을 가겠다고 한다면 목적지는 노를란드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었다. 신영은 호밀을 베고 밀동만 남은 들판 위로 새들이 날아드는 광경을 내다보며, 그렇지 않아?라고 중얼거렸다. 숲으로 연결되는 벌판 끝에는 노루 서너 마리가 고개를 숙이고 들판에 흩어진 낱알을 훑고 있었다. 신영은 지난 몇 년 동안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동진이 심정적으로 비교적 편안하게 지내온 것은 그의 느긋하고 무딘 성격 덕분이라는 생각을 자주 했다. 신영이 다시 중얼거렸다. 그래도 그렇지 혼자만 느긋하면 다야?

신영은 벌판의 끝자락에 덩그러니 서있는 주유소에 차를 세웠다. 주유구에 노즐을 꽂고 서서 노를란드까지 가려면 도중에 한 번 더 기름을 채워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국도를 타고 달리면 저녁 무렵에는 노를란드

의 한 마을에 도착하고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에는 인혁을 만날 것이었다. 신영은 노즐을 주유기에 정착하고 주유기 옆에 붙어있는 화장지 통에서 화장지를 한 장 뽑아 손을 닦은 다음 휴대폰의 전원을 켜고 오늘 저녁에 마을에 도착할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인혁에게 보냈다. 동진에게서 여러 통의 문자가 와있었지만 읽지 않기로 했다. 공연히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를 하다 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이고 그러면 한 시간 남짓 달려온 길을 되돌아갈지도 모를 일이었다.

국도는 끝이 없는 침엽수림을 가로지르는 길이었다. 간혹 노랗게 물들기 시작하는 자작나무 숲과 넓은 벌판을 지나칠 때도 있었지만 곧이어 곧게 뻗은 소나무와 전나무들이 다시 나타나곤 했다. 차창 밖으로 지나치는 나무들은 그들끼리 대열을 이루며 자동차보다 빠른 속도로 달려들었고 신영은 수시로 나무들의 행렬에 포위되어 버린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히곤 했다. 일렬로 뻗어있는 도로의 끝 지점이 아무리 달려도 도달할 수 없는 거리를 유지하며 달아나기만 하는 것 같아 신영은 현기증을 느끼며 갓길에 차를 세웠다.

“인혁 씨가 스웨덴 노를란드라는 곳에 있대.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봐 줄 수 있어?”

“노를란드가 무척 넓은 곳이야. 아마 한반도보다 더 넓을걸.”

“그래서 안 돼?”

“너 그동안 계속 인혁 씨 생각하며 살았던 거야? 왜?”

“그런 게 아니라 한동안 텔레비전에 나왔었거든. 그냥 걱정이 돼서 그래.”

신영은 회숙과의 통화를 마치자마자 인혁의 페이스북을 찾아 친구 신청을 했고 몇 분 만에 인혁으로부터 친구 수락을 받았다. 신영은 인혁의 프로필 사진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다. 사진에는 스웨덴 버섯 책에서 자주 보았

지만 그동안 한 번도 발견하지 못했던, 자루와 연결되어 있는 둥근 갓에 진한 갈색 비늘로 덮인 듯한 버섯 하나가 올라와 있었다. 신영은 간단한 인사말을 인혁에게 보낸 후에 대뜸 프로필에 올려놓은 버섯을 아느냐고 물었다. 인혁이 ‘그럼요, 한국에서는 송이버섯이라고 합니다.’라고 답을 보내왔다. 신영은 인터넷에서 한국의 자연산 송이버섯의 사진을 찾아 스웨덴 버섯 책의 버섯과 비교해 보았다. 그리고 혼자서 큰 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지금까지 이걸 몰랐지?”

‘그곳에 송이버섯이 많은가요?’

인혁에게서 즉시 답이 왔다.

‘네. 올해 많이 보았다고 들었습니다.’

신영은 잠자리에 드는 대신 인터넷에서 노를란드의 송이버섯에 관련된 내용을 검색해 보았다. 송이버섯에 대한 기사가 있기는 했지만 책에 소개된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고, 대신 한 블로그가 신영의 눈길을 끌었다. 노를란드에 살고 있다는 블로거는 숲에 갔다가 너무 많은 양의 송이버섯을 따게 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는 질문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놓았다. 건조하라거나 냉동실에 넣으라는 댓글들이 수두룩하게 이어졌고 그런 댓글들 끝에 스톡홀름에 내다 팔면 제법 큰돈을 벌 것이라는 글이 하나 달려 있었다. 신영이 스웨덴어로 송이버섯의 가격을 두드렸을 때 ‘숲 속의 황금’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떴고 신영은 기사에 나와 있는 송이버섯의 가격을 믿을 수 없어 눈을 깜빡이며 한 번 더 숫자를 확인해 보았다. 책에 따르면 송이버섯의 채취기는 바로 지금이었다. 신영은 갑자기 노를란드의 송이버섯이 무지막지한 힘으로 자신을 끌어당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동진이 늦은 시간 침실로 들어왔을 때 신영이 침대에 누운 채 동진에게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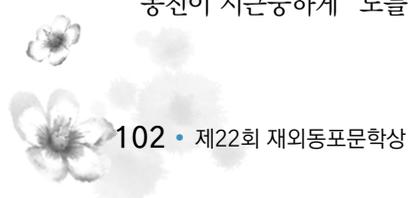
“노를란드에 송이버섯이 꼭 깔려있대.”

동진이 시큰둥하게 “노를란드 어디?”라고 물었다.

“아무튼 노를란드에 꼭 깔렸는데 그게 스톡홀름에서는 무척 비싸게 팔린대.”

동진은 기복 없는 목소리로 단지, “그래?”라고 대꾸하고는 침실의 전등 스위치를 눌렀다. 신영은 노를란드에 사는 사람들은 송이버섯의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사업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는 말을 동진에게 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런 말을 꺼내기에는 어쩐지 좀 민망한 구석이 있었다. 비록 동진이 몇 년째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고 해도 그는 송이버섯 같은 것이 자신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절대로 하지 않을 사람이었다. 신영은 침대에 누운 동진에게서 등을 돌리며 이불을 끌어당겼다.

길과 나무와 별판만 바라보며 오랜 시간을 달린 후에 도로가에 세워져 있는 식당 안내 표지판을 발견했을 때 신영은 이제야 살았다는 기분이 되어 주저 없이 식당 방향으로 핸들을 돌렸다. 식당은 비교적 도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다. 신영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덩치 큰 남자 하나가 천천히 앞치마를 두르며 카운터에 섰다. 음식 냄새보다 방금 잘라낸 진하고 향긋한 나무 냄새가 천장과 벽 그리고 식탁과 의자에서 퍼져 나와 식당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신영은 메뉴판에 적혀 있는 세 개의 메뉴 중에 하나를 골라 주문하고 나서 식당 내부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웅장한 식당은 벽에 걸린 커다란 곰 사진과 늑대 머리로 인해 다소 황량한 느낌을 주었다. 신영은 늑대 머리를 애써 외면하며 사진이 걸려 있는 카운터 맞은편의 벽 쪽을 향했다. 사진 속에는 땅과 바위를 뒤덮은 두터운 이끼 위로 제멋대로 솟아 오른 전나무들 사이에 두 발을 들고 우뚝 서있는 곰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신영은 얼굴을 사진 앞으로 좀 더 내밀고 곰을 들여다보았다. 붉은 갈색의 털은 비에 젖은 듯 늘어져 있었고 야생의 얼굴에 감정 따위는 담겨 있지 않았다. 거대한 몸에서 상대를 제압하는 불가항력의 힘이 뿜어져 나왔지만 곰은 살아간다는 것 한 가지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않는 듯



이 보였다. 신영은 숲에서 이런 꿈과 마주치게 될 때에 느낄 두려움의 정도를 가늠해 보았다. 혼자 이곳까지 오는 동안 무수히 많은 잠냄들이 불쑥불쑥 떠올랐다 사라지곤 했다. 감언이설로 동진에게 부실한 회사를 넘겨 동진의 회사까지 문 닫게 만들었던 김과, 어쩌다 마주칠 때면 어쩔 건데?라는 식으로 턱을 치켜들어 보이는 김의 부인, 신영 부부의 사정이 달라지자 태도를 바꿔버린 사람들에 대한 불편한 감정, 그리고 아무리 애써도 해결되지 않는 생활의 많은 문제들. 사람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일상적인 상처와 두려움도 저 곱 한 마리 앞에서는 한낱 깃털처럼 가벼운 것으로 전락하고 말 것 같았다. 식당 남자가 팬케이크와 링곤잼이 담긴 쟁반을 들고 주방에서 나왔을 때 신영은 목에 오소소 돌아난 소름을 손으로 쓱 문지르며 카운터 쪽을 향해 몸을 돌렸다.

세 차례 휴게소를 더 거친 후에야 신영은 숲길에서 벗어나 인혁이 알려 준 마을로 들어설 수 있었다. 나지막하고 작은 건물들이 양쪽으로 늘어서 있는 도로를 따라 얼마간 지나자 빈자리가 넉넉한 넓은 주차장이 나타났다. 신영은 도로에서 가까운 자리에 차를 세우고 트렁크에서 짐을 내렸다. 호텔이 있는 광장까지는 약간의 오르막길이었지만 걸어서 가기에 별 어려움이 없었다. 다양한 색상의 다알리아들이 아무렇게나 뒤섞여 키를 재고 있는 커다란 돌 화분을 가운데 두고 분홍빛이 감도는 정사각형 모양의 작은 돌들이 바닥에 빈틈없이 깔려 있는 광장은 왕래하는 사람들이 적어 대체로 한산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광장을 중심으로 동그렇게 둘러선 이삼 층짜리 건물들 속에서 호텔 간판은 금방 눈에 띄었다. 신영은 창틀마다 붉은 제라늄을 내건 호텔을 향해 걸으며 저녁 시간에도 여전히 푸르기만 한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하늘과 땅 사이에 티끌 하나 떠있지 않은 원시적인 푸르름이 광장을 시원하고 넉넉하게 감싸고 있었다.

도착하자마자 방을 구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숙박료를 지불하기 위해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계산기에 넣는 순간 신영은 절로 한숨이 나

왔다. 나홀 휴가를 냈으니 휴가 첫날의 전액과 나머지 이틀 급료의 이십 퍼센트가 다음 달 월급에서 제하여질 것이었다. 거기에 기름값과 숙박비 그리고 식사 비용까지 계산하면 월초에 생각하지 않았던 지출이 너무 많아진 셈이었다. 만약 빈손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이 여행은 그저 피곤하고 지루하며 소모적일 뿐이었다.

호텔 방 침대에 걸터앉아 광장을 내다보면서 신영은 이 시간 동진이 무엇을 하고 있을까 생각했다. 신영은 외투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전원을 켜고는 잘 도착해서 쉬고 있으니 걱정 말라는 내용의 문자를 써서 동진에게 보낸 다음 다시 전원을 껐다. 오늘 남편의 애를 태웠던 대신 가족이 모두 모이는 금요일 저녁에는 캐리멜 향 같기도 하고 소나무 향 같기도 하다는 송이버섯을 식탁에 올릴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에 광고를 내 남은 송이버섯을 모두 팔 것이다. 버섯만 많다면 파고 파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지. 신영은 여전히 찌그러진 모양으로 바닥에 놓인 배낭을 내려다보았다.

인터폰이 울렸을 때 신영은 침대에서 벌떡 몸을 일으켰다. 잠시만 쉬자고 누웠던 것인데 창밖은 어느새 붉은 노을로 물들어 있었다. 신영이 수화기를 들자 호텔 직원이 아래층에서 친구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신영은 가방을 뒤적거리며 머리끈을 꺼내 들고 어수선하게 흐트러져 있는 머리카락을 대강 손으로 쓸어 올렸다.

희끗희끗한 머리에 비해 얼굴에는 여전히 윤기가 남아있는 인혁이 신영을 보자 웃음을 띠며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이게 얼마만입니까? 신영 씨는 조금도 변한 것이 없어 보이네요. 우연히 마주쳤어도 바로 알아보았겠어요.”

많이 변한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옛 모습과 분위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인혁의 얼굴을 보며 신영은 환하게 웃었다.

“제가 여기 묵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이 마을에 호텔이 여기 하나밖에 없거든요.”

인혁이 공연히 크게 소리 내어 웃었다.

“정말 송이버섯 때문에 오셨어요? 아니면 저처럼…”

신영이 잠시 주저하다가, “네, 송이버섯 때문에 왔어요.”라고 말했다.

“저녁 식사는 하셨어요? 호텔 맞은편에 친구가 일하는 피자 가게가 있는데 그리로 가실래요? 그 집 파스타가 맛있거든요.”

인혁의 말을 듣는 동안 신영의 얼굴에 살짝 안도의 빛이 스쳤다.

“친구요? 아, 인혁 씨는 친구를 찾아서 이곳까지 오신 거군요?”

“아니요. 여기 머문 지 두 달이나 됐으니 친구가 생길 만도 하죠. 하하.”

신영은 인혁이 예전에 비해 자주 웃는다고 생각했다.

광장을 가로지르는 동안 신영은 입고 있던 스웨터의 앞자락을 두 손으로 모아 쥐었다. 구월 중순의 저녁 바람이 신영의 목덜미를 선뜻선뜻 스쳤다. 피자 가게 앞에는 편백나무 한 그루가 가지마다 매달린 열매들이 버거운지 바람에 느리게 일렁거렸다. 인혁이 가게로 들어서자 아랍 지역에서 온 듯한 젊은 남자가 인혁에게 다가와 인혁을 역세게 안았다. 남자가 신영을 보자 슬쩍 눈짓을 하며 물었다.

“부인? 여자 친구?”

신영이 재빨리 스웨텐어로 말했다.

“아니요, 난 기혼이고 인혁은…… 오래전에 알던 사람이예요.”

남자는 여전히 유쾌한 표정으로 두 팔을 앞으로 죽 내밀었다.

“오우, 웰컴 웰컴!”

인혁이 카운터에 서서 남자와 영어로 몇 마디 주고받은 후 스파게티 까르보나라와 스페셜 파스타를 주문하고 나서 신영의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저 친구 스웨텐어 잘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난민 심사 과정에 있다는데 항상 이렇게 밝아요.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 난 그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식사를 마친 후에 두 사람은 말린 순록 고기와 맥주를 들고 광장 쪽으로 내놓은 테이블로 옮겨 앉았다. 신영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별문제 없이 살아왔던 사람처럼 인혁이 말하는 그의 학업과 성취, 그리고 성공과 실패에 대한 긴 이야기를 들었다. 피자 가게가 문을 닫아야 하는 시간이 되었을 때 인혁이 광장을 지나 호텔까지 신영을 배려해주었다. 신영은 호텔 문을 열고 들어서며 두 사람이 희숙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인혁은 신영에 대해서도 묻지 않았다. 신영 씨는 잘 사셨던 것 같네요. 그것이 전부였다. 인혁은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혐의는 벗은 상태지만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일과 사람들을 피해 스웨텐의 숲으로 숨어든 셈이라고 말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마치고 광장으로 나섰을 때 피자 가게 앞 테이블에 축구복을 입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앉아있다가 신영을 보고 손짓했다. 그 무리들 속에 인혁도 있었다. 신영이 피자 가게를 향해 걸었다. 열 명이 조금 넘는 사람들은 신영이 그들 앞에 서자 한 명씩 악수를 청하며 자신들의 이름을 말했다. 신영이 빈자리를 찾아 앉자 자신을 피자 가게 주인이라고 소개한 남자가 말했다.

“인혁의 오래전 친구라고 들었어요. 스톡홀름에 살고 있다면서요?”

“네, 이곳에 송이버섯을 따러 왔어요.”

신영의 말이 사람들에게 활기를 불어넣었는지 사람들이 갑자기 웅성대기 시작했고 신영의 옆자리에 앉은 남자가 신영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말했다.

“정말 용감하네요. 버섯 때문에 이렇게 멀리까지 오다니…… 예전에 송이버섯은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는 그냥 버려지는 버섯이었어요. 그 버섯은 사실 맛있는 버섯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2000년도였나. 일본에서 식물학자들과 장사꾼들이 이곳에 들어와서는 마치 보물섬을 발견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었죠.”

음료수를 마시는 사람들 틈에서 혼자 에스프레소를 훌쩍이던 남자가 수줍은 듯 입가에 웃음을 띠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남자는 축구 셔츠를 어깨까지 끌어올려 팔뚝에 새겨진 버섯 문신을 드러내 보였다.

“그때 내가 무려 삼십 킬로를 땀만 뺐단 말이에요. 일본 상인이 그 자리에서 모두 샀는데 뜻밖에 정말 큰돈을 벌었었죠. 이걸 그날을 기념해서 새긴 송이버섯 문신이에요.”

남자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여자가 이 동네에서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고 남자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속에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슬그머니 자리에 앉았다.

여자가 말했다.

“요즘은 이곳까지 송이버섯을 사러 오는 사람이 없어서 버섯을 따면 이걸 세상에서 제일 비싼 버섯이다 생각하면서 우리끼리 그냥 먹어요. 이것으로 실제로 수익을 얻지는 못하니까요.”

영어로 천천히 말하던 사람들이 송이버섯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가 없는가를 놓고 빠른 스웨덴어로 대화를 시작했고 그 틈에 인혁이 신영 쪽으로 상체를 기울이며 물었다.

“정말 숲으로 들어갈 건가요?”

“그럼요. 여기까지 왔는데요. 인혁 씨는 어때세요?”

“물론 좋지요. 제가 신영 씨를 이곳으로 부른 셈이니 숲은 제가 안내해야죠.”

인혁이 부른 것도 아니었고 안내 같은 것은 필요 없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아무래도 이 지역의 숲은 신영이 혼자서도 몇 시간씩 돌아다니곤 하는 동네 숲보다 깊을 것 같아 신영은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인혁은 세들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주인이 수리 때문에 방문할 것이라 열두 시까지는 집에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들은 각자 점심을 해결하고 열두 시 삼십분에 광장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자리에서 일

어나 숙소로 향했다.

신영은 도톰한 조끼를 걸친 등산복 차림에 발목까지 올라오는 등산화를 신고 다알리아 화분 앞에 서있었다. 얇은 잠바를 걸치고 중간 크기의 백팩을 멘 인혁이 신영의 앞에 서자 웃음을 터트렸다.

“덥지 않으세요? 그리고 등에 메고 있는 그 큰 배낭은 뭐예요?”

신영이 입가에 빙그레 웃음을 띠며 말했다.

“스톡홀름에는 송이를 살 사람들이 아주 많을 거예요.”

신영의 말이 끝나자 인혁이 갑자기 웃음기가 사라진 얼굴로 가만히 신영을 들여다보았다.

“진담이에요? 이걸 완전히 반전인데요. 예전엔 얌전하기만 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신영은 대꾸 없이 자신의 등산화를 내려다보며 신발 끈이 단단히 묶여 있는지 확인했다.

잠시 뜬눈을 두고 인혁이 물었다.

“그 사람은 요즘 뭐 합니까?”

인혁이 말하는 그 사람이 희숙을 말하는 것인지 수십 년 전 한두 번 마주친 적이 있는 동진을 말하는 것인지 몰라 신영은 얼른 대답하지 못했다.

“그때 그 친구랑 결혼하신 거 맞죠? 신영 씨를 고생 많이 시켰나 보네요. 예전에는 진정한 공주과였는데.”

신영이 고개를 살짝 돌려 화분의 다알리아를 물끄러미 보다가 다시 인혁을 바라보았다.

“그런 얘기를 최근에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만 출발합시다.”

마을 사람들의 말대로라면 숲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송이버섯이 눈

앞에 펼쳐져야 했다. 하지만 오랫동안 걸으면서 두 사람은 단 하나의 송이버섯도 발견하지 못했다. 대신 신영의 집 근처 숲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능이버섯과 그물버섯이 어찌다 한 번씩 눈에 들어왔다. 신영이 노란 버섯을 발견했을 때 손끝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피꼬리버섯이에요. 얼마나 좋아하는가 하면 아이들 노래에도 있거든요.”

‘피꼬리버섯을 본 적이 있나요 얼마나 예쁘다고요.’

신영이 고개를 까딱이며 노래를 부르자 인혁이 하하 웃었다.

“내가 대학 때 잠깐 휴학하고 강원도 산속에 들어가 살았던 적이 있어요. 약초꾼들과 함께 버섯을 따러 다니기도 했는데 그때 보았던 버섯 같네요. 워낙 샛노란 버섯인데다 이름도 특이해서 기억에 남아요.”

신영은 희숙하고만 붙어 다녔던 그때를 떠올렸다.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에 동진은 신영의 배웅을 받으며 군대에 갔고 인혁은 희숙에게 작별을 고하고 산으로 갔었다.

“그때 왜 떠났어요?”

“현실도피였죠.”

“그때도?”

신영이 아차 싶어서 인혁의 표정을 살폈지만 인혁은 개의치 않아 했다.

“그때 아버지가 한창 잘나가다 사고를 치는 바람에 고소를 당했어요. 그 일은 결국 아버지가 여자의 남편에게 거액의 돈을 물어주는 것으로 끝났지만 그 상황이 아버지에게도 너무 힘들었는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더라구요. 아버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살다 보면 인생에 함정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숲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쓰러진 나무와 크고 작은 개울들 그리고 울퉁불퉁한 바위들이 여기저기에서 길을 막았고 날벌레들이 옷과 모자 위로 날

아올랐다. 큰 날벌레들은 모자를 뚫고 머리를 쏘기도 해서 신영은 가끔 모자를 벗어 들고 날벌레를 쫓아야 했다. 성가신 것은 벌레만이 아니었다. 나무와 나무 사이에 촘촘히 쳐져 있는 거미줄이 수시로 얼굴과 옷에 달라붙어 끈적하게 따라다녔다. 신영은 노를란드의 숲이 동네 숲처럼 만만할 것이라 여겼던 자신의 안이함을 자책했다. 신영이 불안한 마음으로 주변의 형세를 둘러보고 등산복 주머니 안의 나침반을 만지작거리며 이제 그만 돌아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던 중에 거짓말처럼 느닷없이 드넓고 평평한 소나무 숲이 눈앞에 펼쳐졌다. 소나무 숲 입구에 선 신영의 코끝으로 설핏 바람결에 어떤 향이 실려 왔는데 그것은 소나무의 향기 같기도 하고 흙의 냄새 같기도 하면서 그것들과는 구별되는 두 가지의 향기를 적당한 비율로 섞어놓은 것 같은 독특한 향이었다. 송이버섯을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신영은 직감적으로 그것이 송이버섯의 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신영은 허리를 숙이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며 천천히 소나무 밑동들을 훑어 나갔다. 그렇게 걷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흙 밖으로 뻗어 나온 뿌리들 틈으로 이끼를 살짝 밀어 올리고 있는 무엇인가가 신영의 눈에 들어왔다. 가슴이 뛰었지만 신영은 서두르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뿌리 주변을 덮고 있는 이끼와 마른 솔잎을 걷어냈을 때 드디어 사진으로 보았던 작은 송이버섯이 앙증맞은 모습을 드러냈다. 신영은 무릎을 꿇고 앉아 조심스럽게 버섯을 뽑아 올렸다. 오십 미터쯤 떨어진 곳에 있던 인혁이 소리쳤다.

“뭐가 보여요?”

신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송이버섯을 치켜들어 보였다. 인혁이 잔가지들을 넘으며 빠른 걸음으로 소나무 숲을 향해 왔다.

“오늘따라 그렇게 숨어있어서 내가 다 미안하더니. 정말 축하합니다.”

신영은 배낭에서 휴대폰을 꺼내 송이버섯과 주변의 풍경을 찍었다. 신영은 혹시라도 모르는 사이에 송이버섯을 밟게 될까 봐 조심조심 발을 옮기며 버섯들을 찾아냈고 뽑아낸 버섯들은 그 자리에서 손질해 배낭 안에 차곡차

꼭 담았다. 인혁은 자신의 백팩이 가득 차자 나머지 버섯들을 신영의 배낭에 넣기 시작했다. 자루를 몇 개 들고 왔더라도 그것들을 다 채울 수 있을 만큼의 송이버섯이 드넓은 소나무 숲에 퍼져있는 것 같았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 지 알 수 없었다. 신영이 블록해진 배낭을 짊어지고 일어섰을 때 배낭의 무게가 어깨를 무겁게 내리눌렀다. 인혁이 서로의 짐을 바꾸자고 했지만 신영은 고집을 부렸다.

숲에서는 해가 빨리 진다는 것을 감안해도 해 지는 때까지 네 시간이 남아 있었고 숲을 벗어나는 데에는 빠른 걸음으로 두 시간이면 충분할 것 같았다. 그리고 나침반이 가리키는 쪽으로만 가면 안전하게 숲을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길이라는 것이 없는 숲을 빠져나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배낭의 무게에 눌려 점차 무릎과 허리가 아파오기 시작했다. 신영의 걸음이 자꾸 느려지자 인혁이 신영의 배낭과 자신의 백팩을 바꾸자고 했고 신영은 하는 수 없이 어깨에서 배낭을 내려 인혁에게 건네주고 인혁의 백팩을 받아 들었다. 나침반을 계속 보며 걸었는데도 웬일인지 숲의 입구는 나타나지 않았다.

인혁은 나무로 가려진 하늘을 수시로 올려다보았다. 그러나 어느 방향의 하늘에서 해가 지는지 도무지 구분할 수 없었다. 아무리 걸어도 마냥 그 길이 그 길인 것 같아 같은 길을 반복해서 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했다. 높이 올라가면 멀리 마을이 보일까 싶어 풀숲을 헤치고 높은 지대로 올라가 보았지만 하얗게 말라버린 이끼들과 여기저기 뒹구는 짐승의 뼈만 눈에 띌 뿐 사면은 오직 나무들뿐이었다. 두 사람은 다시 낮은 지대로 내려가 나침반을 수시로 들여다보며 한참 동안 걸었다. 숲속에 어둠이 성큼성큼 내려앉았다. 여기저기 쓰러진 나무의 뿌리가 우뚝우뚝 서있는 짐승의 모습처럼 보이기 시작하더니 숲은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말았다.

신영은 넓적한 바위 앞에 쪼그리고 앉아 등산복의 지퍼를 내리고 목에 걸린 호루라기를 꺼내 들었다. 짧게 호루라기를 불자 어둠 속에서 새들이 푸드덕거리며 날아올랐고 짐승들이 땅을 두드리며 빠르게 움직였다.

“소용없어요. 그냥 조용히 있는 편이 나아요.”

신영이 어둠 속에서 몇 번이고 미안하다고 말했다. 신영의 사과에 아무 대꾸가 없던 인혁이 한참 만에 입을 열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곳으로 도망쳐 이렇게 지내고 있는 자신을 부끄럽게 여긴다고 말했다. 숲에 갇힌 두려움과 인혁에 대한 미안함으로 잔뜩 주눅이 든 신영이 젖은 목소리로 띄엄 띄엄 말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난다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도망도 한 방법이었을 텐데… 너무 그러지 않았으면 해요.”

허기와 무서움이 시간의 흐름과 함께 점점 더 강도 높게 신영의 몸과 정신을 짓눌렀다. 신영은 배낭을 끌고 옆걸음을 쳐서 인혁의 곁으로 바짝 다가갔다. 인혁의 어깨가 떨리는 것이 느껴져 신영은 더듬거리며 배낭을 열어 호텔에서 들고 나온 지역신문을 꺼내 인혁에게 건네주었다. 이따금 검게 치솟은 나무들 사이로 뭔가가 빠르게 이동했고 곤충들이 팔과 무릎 위로 기어올랐다. 밤이 깊어지면서 숲의 여기저기에서 흐르는 개울물 소리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신영은 우렁우렁한 물소리 속에서도 꿈이나 늑대가 금방 나타날 것처럼 주변의 소리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인혁이 자주 자리에서 일어나 한참 동안 팔다리를 움직이고 나서 다시 신영 옆에 바짝 붙어 신문으로 어깨를 덮고 몸을 잔뜩 웅크렸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어둠 속에서 밀려드는 졸음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다 싶을 때 숲속에 푸르스름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 푸른빛이 희뿌옇게 변할 때 인혁이 다소 느긋해진 자세로 기지개를 켜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기온이 조금만 더 내려갔으면 구월 중순에 얼어 죽을 뻔했네요.”

신영이 차곡차곡 접은 신문을 배낭에 끼워 넣으며 말했다.

“제가 너무 무모한 짓을 하는 바람에……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봐 주겠다고 해 놓고는 인혁 씨만 힘들게 만들었어요.”

인혁이 움직임을 멈추고 신영을 내려다보았다.

“누구한테 뭘 알아봐 줘요?”

“아니 그냥…… 모르는 사이에 인혁 씨 걱정해 주고 힘내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짧은 순간 인혁의 눈빛에 반갑고 당혹스러운 기색이 스치고 지나갔다.

“어이 참…… 좋은 일로 유명했어야 했는데…… 잘 지내고 있죠?”

“그럼요. 한가하게 남 걱정이나 하면서 잘 지내고 있지요.”

두 사람은 칠혹 속에 밤을 새운 사람들 같지 않게 서로를 마주 보며 소리 내어 웃었다.

신영이 허리를 숙여 배낭을 들어 올리려 할 때 인혁이 말했다.

“미안하지만…… 송이버섯은 그냥 버리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몇 시간을 걸어야 마을을 찾을지 알 수 없거든요. 그걸 메고 출발해 봤자 얼마 걷지 못해 포기하게 될 거예요”

지난밤의 공포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지금의 뻘뻘해진 몸과 극심한 허기, 그리고 밀려드는 졸음을 생각한다면 인혁의 말대로 송이버섯은 모두 포기해야 했다. 하지만 신영은 그럴 수 없었다.

“걷다가 정 힘들면 그때 버릴게요. 당분간은 견딜 만한 것 같거든요.”

“우와, 정말 지독하시네.”

인혁이 배낭을 자신에게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

며 돌아섰다.

빛이 점점 더 환하게 숲을 밝혔고 풀과 나뭇가지에 맺혀 있는 물기 위로 해가 비치자 눈이 닿는 모든 곳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신영은 얼마 걷지 않아 배낭을 텨름 속에 내려놓고 말했다. 어깨가 부서지고 발목이 뒤틀릴 것 같았다. 신영이 덩그러니 놓여 있는 튼실한 배낭을 몇 번이나 돌아보며 한참 동안 걸었을 때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인혁이 제멋대로 뻘어있는 낮은 가지들을 성큼성큼 뛰어넘으며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달렸고 신영은 등산복 안에서 호루라기를 꺼내 입에 물고 있는 힘을 다해 불었다. 아침 산책을 나온 사람을 따라 마을로 들어섰을 때 신영은 마을 입구까지 불과 십오 분 거리를 두고 밤새 추위와 공포에 시달렸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호텔 레스토랑에는 소금에 절인 연어와 삶은 계란, 베이컨, 소시지, 요구르트, 오믈렛, 빵 등이 놓여 있었지만 신영은 허기보다 졸음을 더 견딜 수 없어 우유 한 잔에 빵 한 조각을 뜯어 먹고는 비척비척 계단을 올라갔다. 그리고 객실 문을 열자마자 침대에 쓰러지듯 몸을 던졌다. 얼마쯤 시간이 지나 잠에서 깨어났을 때 목 안이 따끔거리고 몸의 마디마디가 끊어질 듯 아프고 쑤셔왔다. 신영은 여행 가방을 열고 얇은 스카프를 꺼내 목에 둘렀다. 그리고 침대 위에 팽개쳐져 있는 등산복을 집어 들고 주머니 속에서 전화기를 꺼낸 다음 충전기에 연결해 콘센트에 꽂고 다시 침대 위로 올라갔다. 전화벨이 계속해서 울렸을 때 잠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데까지 얼마 동안의 시간이 걸려야 했다.

“응……”

“당신 목소리가 왜 그래?”

“몸살”

동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니 왜 또 몸살에는 걸리고 그래? 아침부터 그렇게 가버리더니 기껏 혼자 가서 앓고 있는 거야? 사람 걱정하는 것도 생각해야지. 전화기는 내내 꺼 놓고 말이야.”

신영은 뭐라고 대꾸를 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목 안이 바늘로 찢리는 듯 따끔거렸다.

“그래서 지금 어디 있어?”

“노를란드”

“뭐? 거기까지 차를 몰고 갔단 말이야? 대체 거긴 왜 갔는데?”

신영은 웃고 싶었지만 잠긴 목에서 웃음소리 대신 킁킁 소리가 났다.

“송이버섯”

“그걸 왜?”

동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동진이 다시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내가 여러 가지로 참 미안하네……”

신영이 목의 통증 때문에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뭐가……”

동진은 전화를 끊은 잠시 후 다시 전화를 걸어 오후 두 시 기차를 예약했다고 했고 신영은 한 손에 휴대폰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허리를 받치며 천천히 화장대로 걸어가 화장대 위에 놓인 호텔 안내 책자를 찍어 송이버섯 사진과 함께 동진에게 전송했다. 그리고 인혁의 페이스북으로 들어가 오늘 밤에 동진이 도착할 것이고 내일 아침에는 스톡홀름으로 출발할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인혁이 자신은 예정보다 일찍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했으며 한국과 연락할 일이 많아 내일 나와 보지 못할 것 같다고 답을 보내왔다.

신영은 동진이 호텔에 도착할 때까지 내내 침대에 누워있었다. 잠이 든 건

지 깨어있는 건지 구분이 되지 않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아무렇게나 쓰러져 있는 나무뿌리들과 사진 속에서 걸어 나오는 붉은 갈색의 곰, 그리고 날카롭게 쏘아보는 늑대의 눈동자를 어지럽게 보았다. 그리고 우렁찬 개울물 소리와 함께 소나무 뿌리 틈에서 일제히 이끼를 뚫고 몸을 일으키는 수백수천의 송이버섯들을 보았다.

동진이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하고 나서 신영의 여행 가방과 배낭 등을 들고 내려오는 동안 신영은 천천히 광장을 가로질러 피자 가게 앞에 모여 앉은 사람들에게 다가갔다. 사람들이 신영을 보자 손을 흔들거나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어 보였다. 전날 송이버섯의 수익에 대해 말했던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제 버섯 판 얘기 들었어요.”

신영이 간신히 목소리를 내었다.

“길도 잃어버렸었죠. 이제 스톡홀름으로 가야 해서요…… 모두 건강하세요.”

팔뚝에 버섯 문신을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빨리 회복되기 바라며 내년에는 함께 숲에 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앉아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저마다 짧은 인사말을 건넸다. 자동차에 짐을 싣고 돌아오던 동진이 그에게 천천히 다가오는 신영을 지켜보았다.

“저 사람들과 숲에 같이 갔었어? 그럼 나도 인사를 해야지.”

신영은 이 마을에서 인혁을 만나 송이버섯을 함께 따으며 어둠과 두려움을 함께 버티고 마침내 동네 사람에게 발견되어 숲에서 나왔다는 말을 동진에게 하지 않았다. 그 얘기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이어서 부어오른 목이 가라앉은 다음에 하는 편이 나올 것 같았다.

“내년에 해.”

동진이 눈을 커다랗게 뜨고 신영을 바라보았다.





## 어시스턴트

- 황 모 과 (일본) -

“내년에 또 오겠다고?”

신영이 고개를 숙이며 웃었다.

“응, 또 오라잖아.”

주차장을 빠져나간 자동차는 몇 분 지나지 않아 국도로 들어설 수 있었다. 여전히 어깨가 옥신거리고 다리가 빠근했지만 신영은 운전하는 동진의 옆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자리에 등을 기대었다. 끊임없이 자동차 옆으로 다가왔다 사라지는 나무들 사이로, 언제나 그만큼의 거리를 유지하는 길의 끝 자락을 바라보며 달리다 보면 마침내 집이 가까워질 것이었다. 신영은 돌아가는 길에도 야생 곰의 사진과 늑대 머리를 보며 점심을 먹게 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시 보는 순간에는 처음 그랬던 것처럼 소름 돋는 두려움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었다. 배낭 안에 가득한 송이버섯의 향기가 배낭의 틈새를 비집고 나와 자동차 안에 은은하게 퍼지기 시작했다.

1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지옥을 착실하게 견딘다. 성실한 사람만이 암순응되지 않는 어둠 속에서 환하게 적응한다. 시차는 없지만 서울보다 한 시간 먼저 해가 저무는 곳 도쿄. 바깥 시간이 체감되지 않았던 그 도시의 골방에서 배운 이야기다.

아침마다 만성 빈혈에 시달리고 있었다. 나는 빼격거리는 계단을 소리 죽여 밟으며 2층 숙소에서 1층 화실로 내려왔다. 2층짜리 단독주택이지만 땅콩집 같은 구조다. 호러 영화 속 효과음처럼 매번 계단이 빼격거렸다.

“호민 씨,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요.”

호민 씨가 아침부터 자리에서 우산을 펼친 채, 우비를 입고 우산 안에 들어가 일하고 있었다. 우산 속에서 이어폰까지 끼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아늑하게 일에 집중할 수 있어 보였다. 그를 일부러 칭찬했다. 만화가 화실로 쓰는 다다미 여덟 장 크기 거실 겸 부엌이 세 사람이 일하기에 사무치게 좁다는 점만 무시할 수 있다면 말이다.

“야, 어깨 찢리잖아. 접어.”

호민 씨와 나보다 한 살 많은 경모 님이 신경질을 냈다. 어젯밤 선생님의 히스테리 때문에 영혼이 갈기갈기 찢긴 뒤, 그의 이성애 간신히 매달려 있던

안전핀이 빠진 상태였다. 오늘 아침, 경모 님은 시한폭탄이 달린 조끼를 입고 담배를 입에 문 형국이었다. 그러자 호민 씨가 평소답지 않게 고음을 뱉곤었다.

“폭우가 온다고요!”

호민 씨의 이성이 유체이탈을 선언했다. 북향으로 난 창문을 통해서도 해가 떠오른 사실을 알 수 있는 법이다. 심신 건전한 인생과 일찍이 단교한 처지이다 보니 나는 그에게 다가가 뜨겁게 환영 인사를 건네며 포옹해 주고 싶을 지경이었다.

원고를 들고 작업실로 내려온 김 선생님이 호민 씨를 보더니 깔보듯 말했다.

“호민 씨, 자기 스토리 주인공 코스프레하는 거예요? 작가가 자기 스토리에 너무 심취하면 객관성을 잃어요. 조심해요.”

호민 씨 콘티를 본 적이 있다. 콘티란 만화 원고에 착수하기 전, 장면 배치와 말 칸 및 대사를 적어놓는 만화 제작용 스토리보드를 말한다. 편집자와 함께 콘티를 보며 작업 내용을 조율한다. 그의 만화에는 비현실적인 이미지가 넘쳤다. 전반적으로 우울한 분위기가 풍풍 흘러나오는 만화였다. 김 선생님은 그의 기행을 통상적인 걸로 취급했다. 독창성 예술성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마음의 병 따위 작가성이라고 거뜰히 포장될 수 있다.

나도 화실 분위기를 부드럽게 할 생각으로 한마디 보탤다.

“원래 그런 건 세상에 발표한 뒤에 팬이 해줘야 제맛이잖아요. 호민 씨가 그 콘티로 신인상 받으면 제가 시상식에서 우비 보이 코스프레하고 꽃다발 건넬게요.”

그러자 호민 씨가 물 풍선 던지듯 울분을 폭발시켰다.

“도대체 다들 무슨 소릴 하는 거죠? 이렇게 비가 내리는데 원고가 다 젖잖아요!”

고슴도치 가지 같은 그의 적의가 사방에 튀었다. 경모 님이 이어폰으로 귀를 틀어막았다. 선생님은 얼마 전부터 어시스턴트 셋이 빚어내고 있는 화실의 기이한 풍경을 남 일처럼 구경만 하고 있었다. 그는 콧방귀를 끼며 말했다.

“작가라면 이상한 환상을 볼 감양은 있어야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게 작가니까. 칭송합니다.”

그는 자기 방으로 올라가면서 나직이 말했다.

“미친놈들.”

애써 위로하려던 말이 호민 씨 마음에 가닿지 못하고 튕겨 나왔다. 일그려진 것을 보고 반듯한 것인 양 둘러봤는데, 맥없이 쪼그라들고 말았다. 민망함을 감추며 세 명은 서로 얼굴을 피했다.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겠다는 듯, 조용히 이어폰을 낀 경모 님의 옆얼굴이 변변찮아 보였다. 이 아침에 소속된 세 사람이 기어이 외로운 그림자 속으로 고개를 파묻었다. 눈물이 똑 떨어졌다. 실내가 물속에 잠긴 것처럼 보였다. 호민 씨의 우산을 빌리고 싶었다.

## 2

10년 전, 일본에 대해 몇 가지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편견이기도 했고 기대이기도 했으며 이미 패배한 한국에서의 삶을 잊고 싶어 한국 아닌 것에 대한 막연한 긍정이기도 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사전 조사가 부족했던 탓에 오해한 것이었다. 시작이 반절쯤의 완성이라는 잠언을 믿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 착각은 다음과 같다.

1. 최저임금을 받아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2. 개인의 삶과 프라이버시가 보장된다.

3. 평생을 걸고 파시즘과 싸워온 양식 있는 윗물이 있다.
4. 폴뿌리 수준에서의 예술과 문학, 패러디와 제멋이 있다.

이 전제가 모두 오해였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 잠언은 다음과 같이 바뀌었다.

1. 전 세계 어디서 살든 최저임금만 받아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
2. 집단과 유리된 채 프라이버시만 보장된 삶은 사회적 죽음에 가깝다.
3. 그나마 옳은 말이라도 하던 분들은 이미 돌아가셨거나 곧 돌아가실 예정이다.
4. 제멋이 항상 예술인 것은 아니다.

어쨌든 자기 비하와 불합리를 삼키려다 소화불량에 걸린 삶은 10년쯤 지나니 난치병이 되고 있었다. 예술가의 자질은 아직도 꿈속에서만 생기로울 뿐이었다.

딱 10년 전이었다. 한국의 중견 만화가 김 모 작가가 일본에서 만화가로 새 출발한다며 도쿄 화실에서 함께 일할 동지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올렸다. 우연히 공고를 본 게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 나는 자존감이 높고 이성적이고 아픈 걸 못 견디는 성미라, 췌조각 같은 불합리가 뱃속에서 염증을 일으켜도 기도하며 참아내는 인간인 줄 그때는 몰랐다.

나는 스무 살이었고 김 작가는 서른 살이었다. 나이 60과 70의 노인의 차이를 구분하기는 힘들지만, 사회에서 이미 실적을 이룬 사람과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은 천지 차이였다. 그는 하느님처럼 보였다.

“아무 발자국이 없는 길, 가장 먼저 걷겠습니다. 그 길을 함께할 전우를 찾습니다.”

그의 구인 광고 글엔 힘이 있었다. 정치가나 혁명가의 문장과 비슷했다. 나

같은 평범한 소시민이 보아도 마음이 뜨거워지는 명문이었다.

“멋지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상상하며 눈부신 희망에 아득해지는 것, 그게 이야기가 가진 힘이었다. 그리고 작가는 때로 그 힘을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 거침 없이 휘두르곤 한다. 그땐 미처 몰랐다.

나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바람에 그의 일본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이 무급이라는 것과 체류 비자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에 의문을 품지 않았다. 식사와 주거 문제 등 새록새록 샘솟는 의문점도 모두 미시적인 일로 취급하고 말았다. 공고를 작성한 자의 의도대로였다.

당시 나는 보습 학원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아껴 모은 돈으로 일본 어학연수를 떠나려 준비 중이었다. 나는 그에게 메일을 보냈다. 도쿄에서 어학원을 다니면서 그의 사무실에서 어시스턴트로 일하고 싶다고, 오전 시간에는 학업 때문에 근무하진 못하지만, 꼭 받아달라고 사정했다. 만화가가 되는 건 고등학교 시절부터 품었던 꿈이었다. 메일을 쓰며 나는 그 어떤 고생도 각오했다.

그리고 면접을 보러 간 날, 하느님처럼 보이던 그는 묵시록 보여 주듯 자신의 원고를 보여 줬다. 그러더니 말했다.

“내 선에는 조금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약간의 트릭이지요. 선의 강약과 사람의 시선을 연구했어요. 페이지에서 가장 도드라지게 보이는 메인 선에 시선의 흐름을 계산해 넣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기술입니다. 우리 씨가 나와 함께 딱 1년만 동지로 일한다면 스스로 터득하게 될 거예요.”

그의 원고는 엄청나게 밀도가 높았다. 독자들은 땅바닥을 파듯 ‘들이판’ 원고라고 표현하곤 했는데, 선의 개수만 세어봐도 도대체 공들인 시간이 짐작 가지 않을 정도였다.

트릭을 이야기하는 그의 말은 허풍임이 분명했지만, 매력적인 거짓말이었

다. 하느님인지 마법사인지는 그의 등 뒤를 아우라가 에워싸는 것 같았다.

“서브프리미널인가요?”

나의 물음에 그는 대답 없이 빙긋 웃었다. 애매한 미소는 그를 신비하게 만들었고 그 미소는 10년의 내 삶까지 바보로 만들고 말았다.

3

도쿄 다이토구에서 보낸 첫 3개월은 아주 바빴다. 낯선 곳에서 완벽하게 문맹이 되었다. 눈앞에 간판을 보고도 정보를 인지하지 못했다. 현지인의 당연지사 앞에서 몰상식한 존재가 되자 신분마저 격하된 기분이었다. 한국에서 살 때도 존중받는 삶은 아니었지만, 일본인들이 아시아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조금 당황했다. 일본인은 예의 바른 줄로만 알았는데 예상치 못했던 각종 멸시 속에서 지냈다. 외국어는 현지에서 차근차근 배우면 된다고 여겼고 밑바닥을 경험하는 것도 작가로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첫 한 달을 더럽고 좁고 비싼 기숙사에서 머물렀다. 그다음엔 다다미 닻 장 반 크기의 방(약 2.25평)에서 다른 유학생과 함께 지냈다. 노숙자가 아닌 게 어디냐고 생각했다. 이 정도 고난은 어릴 때 봤던 위인전에선 한두 줄 묘사에 불과한 광경이라 여겼다.

당시 호민 씨와 경민 님은 상황이 더 나빴다. 입국 후 사업자등록을 낸 뒤 노동 비자를 처리해 주겠다는 김 작가의 말만 믿고 관광 비자로 입국했다. 하지만, 3개월마다 한 번씩 한국에 다녀와야 했다. 자격 외 노동, 즉 불법 노동이었고 그들의 여행에는 강제 추방 리스크가 항상 따라다녔다. 법적으로 우리의 업무는 노동이 아니라 교육(문화생)이었기에 김 작가 입장에서선 위법 행위는 아니었다. 그 덕에 구두로 약속되었던 체류 보장 등은 깡그리 무시되었고, 두 사람은 비자 때문에 김 작가의 작업실 밖을 벗어나는 것 자체를 상상하지 못하게 되었다. 수익이 없기에 외출도 삼갔고 결국, 작업실은 세계의 전부가 되어버렸다.

내겐 1년짜리 취학 비자(학생 비자 전 단계이며 자격 외 활동 허가라는 이름으로 주 28시간의 아르바이트 수입이 허용된다)가 있었고 1년 후에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취득했기 때문에 호민 씨, 경민 님보다는 자유로울 수 있었다. 비자에 관심 없는 고용주인 김 작가 화실에서 일할 때 이걸 정말 중요한 문제였다. 하지만 나도 돌과 똑같이 김 작가의 골방에 머물렀다. 부득이함보다 자발성이 더 부끄러운 선택이 되기도 한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다.

김 작가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보수를 일절 지급하지 않았다. 우리에게 당연한 권리였던 거주(집단생활)를 보장했다는 것과 부실한 식사, 그러니까 숙식 제공이란 경비가 김 작가에게는 우리에게 이미 지급한 월급이었다. 경제적으로 나락에 떨어지는 것은 순간이었다. 정서적 고립도 심각했다. 그보다 매일 닳치는 절실한 문제는 배고픔이었다.

호민 씨가 몰래 감춰둔 초코바를 경민 님이 훔쳐 먹은 게 들통난 이후로, 둘은 말도 섞지 않았다. 초코바를 숨겨 놓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호민 씨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배신감을 느꼈다.

미식 문화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 일본에 와서 배고픔에 시달리다니. 한국에서 살 때, 나는 먹는 것을 찾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떡볶이 김밥 컵밥 같은 것으로 때웠다. 양질의 식사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그나마 한국에선 엄마의 김치가 있었고 값싼 식사가 있었다. 안일했던 습관 때문에 뒤늦게 도쿄 한복판에서 무인도 서바이벌 같은 생존법을 체득해야 했다. 한국의 친구에게 연락해 몇 번 송금도 받았다. 돈이 들어오면 싸구려 ‘하나마루’ 우동 곱빼기를 허겁지겁 먹고, 배가 부르고 난 뒤에야 내 신세가 처량해 울었다. 식욕이 없다는 표현을 지금도 싫어한다. 굶어본 사람은 절대로 말하지 않는 표현이다.

2년 동안 나는 만화 원고에 톤만 붙였다. 선은 만지지도 못했다. 김 작가가 말했던 서브프리미널 효과를 일으키는 선의 정체는 영영 알 수 없었다.

배고픔과 함께 견딜 수 없는 건 그의 폭언이었다. 그는 말로 상대를 폭행했다. 무례하고 폭압적이었다.

그는 프로 선배로서 우리의 스토리를 봐주었고, 그때마다 문학생들의 작업물과 인생을 싸잡아 모욕했다. 그게 그에겐 지독한 희열을 주는 것 같았다.

“내가 이런 내용을 몇 개나 봤을 것 같아? 넌 네가 무척 특별하다고 착각하며 살아왔겠지. 그러니 자기가 싸놓은 똥을 보고도 특별한 똥이라고 말하는 거야.”

나는 울지 않으려고 간신히 버텼다.

내 스토리에 더 확신이 있었다면, 반박할 용기가 있었다면, 베테랑을 놀라게 할 재능이 있었다면, 내 똥의 식사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다면. 그가 함부로 처박은 진흙탕 속에서 와신상담이라는 사자성어를 떠올리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모멸감을 지우기 위해 나는 그의 말을 진짜로 만들겠다고, 내 똥을 특별하게 빛나는 똥으로 만들겠다고 각오했다.

달도 없는 밤, 창문 없는 방에선 아침이 밝아오는지 알 수 없었다. 참지 말고 뛰쳐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아침 해처럼 떠오르려 했지만, 나는 애써 뜨지 못하게 했다. 우는 소리, 코 푸는 소리가 새어나갈까 봐 벽장에 들어가 얼굴을 파묻었다. 방 밖 복도에서 조용히 계단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언제든 나는 떠날 수 있다. 나는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다. 그 건강한 혼잣말이 노예 증후군의 시작이 되었다.

4

마감 직전, 김 작가는 배고픈 좀비처럼 물어뜯을 것을 찾아다니며 폭언을 쏟아냈다. 어처구니없게도, 마감 전에 예민해지는 자신의 태도를 두고 그는 오히려 프로답다고 여겼다. 격주간지에 작품을 연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달에 두 번, 우리는 그의 롤러코스터 위에서 생명 벨트도 없이 추락해야 했다.

내게는 못생겼거나 섹스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우롱이 공공연했다. 느닷없는 폭언에 무너지는 마음을 애써 수습하며 무너지는 방법을 익혔다. 김 작가가 선호하는 AV 애기에도 농담하며 맞장구를 칠 정도로 공허한 감냥만 늘어갔다.

학교 선생님이 날짜에 맞춰 대충 주변 정하듯, 그의 폭언은 폭탄 돌리기처럼 랜덤하게 먹잇감을 간택했다. 세 명의 어시스턴트들은 매일 사형수처럼 초조하게 그 날의 형 집행 선고를 기다렸다. 어느 날 호민 씨가 미세먼지만큼 고운 가루가 되도록 그의 땀들 같은 혀에 짓쪼갠 것이다. 당혹스럽게도 그 순간 그는 나를 피자 도우처럼 공중에 띄웠다. 얼마 후 내가 슬래셔 영화의 엑스트라처럼 난도질당했다. 그 순간 경민 님이 그의 면도칼 같은 입술 위에서 찬사를 들었다.

그가 우리 콘티를 인질로 삼지 않았다면 조금 더 빨리 모욕을 떨쳤을지도 모른다. 그는 우리 콘티를 전문 번역자에게 맡겨 일어로 번역해 담당 편집자에게 넘겼다고 말했다. 나 같은 아마추어가 직접 실행하려면 월급 이상의 비용이 드는 일이었다. 나는 평생 남의 눈치 따위 보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점점 그의 비위를 맞추게 됐다. 처음엔, 먹지도 않을 거면서 재미로 쥐를 사냥하는 고양이의 잠을 깨우지 않으려는 마음이었고, 다음엔 인질로 잡힌 딸의 생사 때문에 범인에게 사정하는 엄마의 마음이었다. 폭군에게 아부하는 간신도 볼모 잡힌 게 있었겠다 싶었다. 오로지 그를 통해 작가로 데뷔할 수 있다는 희망이 우리를 부조리극의 배우로 살게 했다.

산소 없는 행성에서 기우제 지내듯 하염없이 무릎 꿇고 기다렸다. 일본 편집자의 피드백은 매번 한두 달이 걸리며, 월간지의 특징상 한 달에 한 번 있는 편집회의에 올려야 하는데, 타이밍이 안 맞으면 석 달도 기다려야 한다는 게 김 작가의 설명이었다.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였다. 그는 그게 싫으면 번역도 통역도 없는 상태로 발품을 팔아보라고 말했다. 부도덕한 브로커들

이 우글거릴 거라고 했다. 인터넷에 공개된 편집부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보야 권한도 없는 신인 편집자가 만나러 나와 교육받은 것을 앵무새처럼 읊다 돌려보낸다는 이야기도 들려줬다. 현실적인 이야기였다. 혼자 도전할 용기가 없었다기보단, 김 작가가 이미 닦아놓은 고속도로에 올라타는 것이 가장 빠르고 현명한 길로 느껴졌다. 그가 우리 콘티를 자기 서랍에만 넣어둔 채 우리를 기만했다면 다 소용없는 일이지만.

대본도 엔딩도 모른 채, 우리는 주어진 역할극을 연기했다. 세 어시스턴트들은 그가 만든 무대 위에서 꽤 괜찮은 배우들이었다.

가끔 우리 콘티를 추켜세운 것도 그의 의도였다. 김 작가의 모든 행동이 자발적 복종을 초래한 건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다. 그 사실을 안 즈음, 우리는 각자 깊은 좌절에 빠져있었고, 셋은 서로를 너무나 경멸하고 있었다.

나는 이제 티브이 속 불행한 사람을 보며 ‘어떻게 저러고 사니’라며 혀를 차지 않는다. 지옥 불 속에서 사이버 과학을 굳게 신앙하고 있는 사람도 나름의 이유는 있다는 걸 실감했으니까.

그 당시, 어둠의 심연 속에 내 머리를 처박고 천천히 나를 고문했던 것들은 실은 아주 아름다운 말들이었다. 준비, 학습, 집중, 겸손, 인내, 고통 속에 싹틔우는 창작열... 매일 다이어리에 필사하고 싶은 것들이었다. 창작이 놀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전혀 거짓말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다른 이의 노동과 열정과 선의를 악용하기 위해 언급된 말이라면, 그것은 창작의 씨앗이 아니다. 그냥 사기의 구실이다.

작업실 상황이 밖에 알려질 리 없는 김 작가는 여유롭게 한국과 일본에서 꽤 승승장구했다. 출판사에서 주최한 연말 파티에 다녀온 뒤 유명한 일본 작가와 나란히 사진도 찍었다. 그 사진은 대단히 효과적인, 권력 과시의 도구가 되었다. 그의 SNS엔 민족주의자들이 따라다녔다. 그는 자신의 활동을 한국인의 저력이라 외쳤고 댓글을 다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라는 동질감에

자랑스러워했다. 그날 이후, 나는 해외에서 성공한 사람과 같은 국적이라서 덩달아 으쓱해지는 마음은 품지 않게 됐다.

2년이 흘렀고 김 작가는 한 번도 관심을 보인 적 없는 비자 취득을 위해 무언가 해야 했다. 사무실을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날부터 싸늘한 고드름이 머리 위로 쏟아졌다. 내가 밖에서 그를 험담할까 두려웠던 모양이었다. 조금이라도 작업실에서의 일화를 언급할 경우, 어떤 보복이 가해질지 그의 세 치 혀 위에서 아포칼립스적 예언이 널뛰었다.

“지옥은 중도 포기한 놈들이 자기 인생을 환불해 달라고 아우성치는 곳이지.”

그의 근사한 말은 정확하게 나의 자괴감을 증폭시켰다.

얼마 안 있어, 호민 씨와 경모 님은 입국 심사 중 잦은 관광 비자 갱신이 발각되어 공항에서 추방당했다. 향후 일본에서 활동할 기회까지 박탈당한 셈이었는데 둘은 그저 뒤돌아보고 싶지 않다며 기운 빠진 목소리로 시원해했다. 2년 만에 팀이 해체된 뒤, 그가 새로운 어린양 세 명을 모아 비겁한 패튼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나는 귀를 막았다.

## 5

운 좋게 나는 일본인 만화가 사무실로 전직했다. 처음으로 150만 원 수준의 월급을 받고 감격했다. 1년짜리 비자를 받아 매년 갱신할 수 있었고 여전히 빈곤했지만 김 작가 사무실에서 받았던 모멸과 모욕은 꿈에서만 만나게 됐다. 그 모멸을 떨치는 데에 또 다른 수년이 세 배 네 배로 필요하단 걸 알았다면 견뎌선 안 되는 거였다.

김 작가 사무실보단 조금 낫다고 할 수도 있지만, 만화가 어시스턴트라는 직업 자체가 전위적이란 생각이 들었다. 꿈을 좇는 사람들의 세계, 꿈을 말하지 않으면 추방되는 세계였다. 미묘한 불확실성 아래에서 모두가 고된 노동을 감내는 세계. 계약서보다 자기 암시와 잠언이 지배하는 세계였다. 꿈

따위 이야기하지 말고 비종교적으로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새록새록 커갔다.

나를 비롯해 화실에서 만났던 사람들, 그중에서도 오래 일을 지속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선생님'이라 불릴 미래를 꿈꿨던 늙은 드리머(dreamer)다. 데뷔하지 못한 채 창작 현장에 불박여 사는 불법 체류자 같은 존재였다. 다른 생계 수단을 갖추지 못해 업계에서 추방될 것을 두려워하는 난민 같았다. 타국에서 노동하는 우리는 관광객과는 신분이 다르다. 어느 나라 어느 장소에 있다 해도 노동을 돈으로 바꾸지 않으면서 편안히 자족하는 삶은 상상할 수 없는 존재니까. 몸뚱이가 유일한 자원인 노예선 탑승자니까.

짧은 업무 일수에 집중된 철야 작업이 마감이라는 시계 위에서 회전했다. 적은 수입으로 생계를 면피해야 했다. 한 달 단위 생계는 서울의 2호선처럼, 도쿄의 '야마노테 선'처럼 국적 불문 순환했다. 평형 감각을 잃은 삶의 달팽이관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어지럼증만 일으켰다. 한국을 떠났던 즈음, 내가 꿈에 그렸던 미래는 피가 흥건한 참치 해체 쇼처럼 선연했다. 지금 내 꿈은 참치 캔 속 고인 기름처럼 탁하기만 하다.

하지만 과거를 회상하기엔 일렀다. 아직 할 일이 남아있었다.

김 작가의 화실을 나와 체류 3년 차부터 출판사를 직접 찾아다녔다. '모치코미'라고 부르는데, 자기 원고를 들고 가 출판사에 개별 영업을 하는 일이다. 편집자들의 냉대는 우아해서 더 교묘했다. 실제로 편집자를 직접 만나보니 김 작가의 말이 완전 거짓말은 아니었다. 권한 없는 신인 편집자들은 자신의 독해력을 자랑하며 악담만 쏟고 돌려보냈다. 대등하게 이야기를 나눴던 편집자를 딱 한 명 만났는데, 편집회의 후에 거절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회사에서 잘릴 날이 다가오자 온몸이 가려워지는 이야기, 지구 밖 행성에

서 만난 외계인과 소통이 안 되는 이야기 등, 36페이지에 기승전결을 계산해 구겨 넣은 단편 스토리는 초라하게 식어갔다. 단 한 번도 발표할 지면을 얻지 못했다.

"너무 평이해요. 그림도 개성이 없고. 우리는 팔리는 이야기를 찾고 있어요. '원피스' 알죠?"

내 삶은 예측 불가능한데, 내가 만든 스토리는 너무 뻔해 예측 가능한 게 문제였다.

실력을 높여야 했고, 영업 활로도 찾아야 했다. 브로커들을 통해 원고를 보내기도 했다. 이즈음, 현지 매니지먼트 업계도 뵈었다. 제일 동포 모 씨가 일어를 못 하고 디테일을 잘 챙기지 않는 순진한 한국 작가의 원고료를 가로챘다는 소문도 들었다. 대량으로 작품을 찍어내야 하는 신생 잡지가 한국 작가를 찾는다는 소문을 듣고 노크하기도 했다. 편집부의 하청 업체인 디자인 회사 사장은 직접 만나보니 지독한 험한주의자였다. 그즈음 웹툰이 급성장해 일본 시장 진출을 노리던 한국 작가들이 모두 귀국했다. 매니지먼트 담당자들도 다른 업계로 이동했다. 나는 남겨졌다. 비루한 청춘의 일시적인 배경이라 여겼던 밀바닥 인생은 내 삶의 단단한 배후가 되었다.

날이 갈수록 남의 나라에 와서까지 점점 도태되는 맛만 봤다. 만화를 찍어내는 소프트웨어가 그려내는 인물이 내 그림보다 훨씬 좋았다. 번역기 성능이 날로 향상해 10년 거주자인 나보다 번역 품질이 월등했다. 소설 쓰는 AI가 만든 글을 읽어보니 인간의 퇴보, 아니 창작자의 소멸이 예감됐다. 매체 자체는 더욱 젊어지고 상업화되었고 젊고 보수적인 독자에 맞춰 더욱 선정성을 띠고 있었다. 나는 나이만 먹고 아무 실적도 내지 못했다. 농친 게 너무 많다는 억울함만 세월만큼 쌓였다. 나처럼 재능 없는 사람은 어느 나라에 살았더라도, 어떤 업계에 몸담았더라도 실패했을 거라는 자괴감이 따라다녔다. 양질의 식사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은 아직도 갖추지 못했다. 삶의

의욕이 없자 식욕도 없어졌다. 피부병이 늘 따라다녔다.

나는 그동안 만들었던 콘티와 원고를 상자에 넣어 벽장 깊은 곳에 구겨 넣었다. 일본 체류 10년 차, 창작을 내 삶과 관계없는 과거로 떠나보내며 혼자 송별회를 했다.

그 후 만화가 화실을 떠났고 파견 회사에 등록했다. 게임 회사에서 일한 번역 일과 웹 이벤트 기획 일을 시작했다. 인생을 걸 업무가 아니다 보니 부담이 없었고 월급은 훨씬 올랐다. 온몸을 덮었던 피부병도 점점 가라앉았다. 거울을 보고 조금 꾸밈 때마다 김 작가가 나를 보고 성적 매력 없다고 말한 것을 떠올리는 횡수도 조금씩 줄어들어 나갔다.

점심시간엔 신주쿠 오피스 건물 사이 공원에서 점심을 먹었고 퇴근길에 태국 요릿집에 들러 동료와 회사 사람을 욕하며 수다를 떨었다. 보증금을 모았고, 동물을 키울 수 있는 대신 보증금 및 사례금이 두 배가 드는 월세 원룸으로 이사했다. 고양이 보호 단체에 들러 쥐처럼 못생겼지만, 성격은 강아지처럼 까불거리는 까만 고양이를 한 마리 입양했다. 만화는 읽지 않게 되었고 꿈을 좇는 이야기에 감동하지 않게 되었으며, 시시하고 뻔한 얘기에 잘 울던 습관도 버렸다.

근근한 하루살이가 모였을 뿐인데 10년 넘는 시간을 훌쩍 이루었다. 별 혜택도 없는 포인트를 차곡차곡 적립한 기분으로 영주권을 받았다. 영구한 거주 허가. 영원히 익숙해지지 않는 타국에서 앞으로도 영구히 하루살이가 이어질 거였다. 10년쯤 지나면 대성공까진 아닐지라도, 적어도 목표했던 삶의 길 한복판일 거라 믿었는데,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퇴근길 한복판 지하철 인파 속에 서서 상심한 마음을 나직한 한숨으로 바꿔 토해냈다.

어떤 직업을 갖든, 어느 나라에 살든,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건 너무 큰 욕심이였을까. 모국어도, 감수성도 통하지 않는 남의 나라에서 무언가 새로운 삶을 꿈꾼 게 부주의했던 걸까. 명쾌한 답 대신, 응

딩이에서 수영하는 법을 배워갔다.

6

호민 씨가 도쿄로 관광을 온다고 메시지를 주었다. 담담하게 근황을 물을 정도로 우리 상처는 아물어 있었다.

호민 씨는 김 작가보다는 상식적이지만 괴짜로 유명한 한국 만화가를 견디며 서울에서 어시스턴트로 일하고 있다고 했다. 경모 님은 피규어 도매업자로 변신했는데 김 작가처럼 성질이 더러워졌다고 한다. 호민 씨가 채팅창에 얼굴을 잔뜩 찡그린 스티커를 날리며 전했다. 김 작가는 그 후로도 승승장구한 모양이었다. 최근 그의 신작은 일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져 공중파를 탔다.

“어디 가고 싶어?”

옛 친구를 위해 주말을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흥가 체험이라고 알아? 거기 가보고 싶어. 나 옛날부터 일본 호러 좋아했거든.”

호민 씨가 유튜브에서 봤다며 폐건물에서 공포 체험을 하는 곳에 가보고 싶다고 말했다. 별것 아닌 걸 상품으로 만드는 일본 문화에 혀를 내둘렀다. 만화가 화실에서 모욕당한 공포 체험은 차마 엔터테인먼트가 되지 못하는데 말이다.

호민 씨와 오랜만에 만나니 마냥 반가웠다. 서로가 초라해 애처롭던 마음도 사라지고 없었다. 그도 나를 안쓰럽게 바라보지 않는 것 같아 다행이었다.

신주쿠에서 지하철을 타고 20분쯤 이동했다. 도심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인데 급격히 시골 냄새가 풍기는 동네에 내렸다. 우리는 역에서 흥가 체험 가이드를 만나 해당 장소까지 걸어갔다.

“공포 부동산 나가모토라고 합니다. 오늘 내람하실 물건은 ‘이유 있는’

집이라 상당히 월세가 싸다. 고려하시고 둘러보십시오.”

가이드가 건조하게 말했다. ‘공포 부동산’이라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면 진짜 부동산 업자로 착각할 뻔했다. 가이드는 능숙한 연기자인지, 정말 부동산 업자인지 구분되지 않았다. 지난 10년간 나도 그랬다. 작가 지망생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작가라면 으레 그래야 하는 애티튜드를 연기했는데, 연기하다 보니 이미 그 존재가 된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았다.

이 체험에는 설정이 있었다. 체험 안내 가이드는 부동산 업자였고 방문하게 될 집은 살인 사건이 벌어진 흉물이라 집값이 폭락했다는 설정을 옷 입고 있었다. 인터넷 예약 사이트에서 봤던 설명에 의하면 부동산 업자는 집에 도착한 뒤 원 집주인에게 살해당할 예정이었다. 웹 사이트엔 그의 연기에 놀라지 말라는 주의사항이 빨간 글씨로 크게 적혀 있었다.

“야, 잠시 후에 이 사람 죽는대.”

호민 씨가 웃었다. 나는 호민 씨가 평범하게 웃는 얼굴을 보니 좋았다.

“우리 이 사람의 미래를 알고 있는 거잖아. 웬지 불쌍하다.”

어쩐지 저승사자가 된 기분이었다. 시간 여행을 와서 미래를 아는 것 같은 기분도 들었다. 우리 인생도 이 체험처럼 누가 예고 좀 해줬으면 좋았을걸.

“근데 이 사람 진짜 쓰러질 때 우리 어떡해야 해? 구급차 안 부르는 게 양심에 찢리지 않을까?”

“짜고 하는 건데 그렇게 애매한 연출을 하겠어?”

우리가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사이, 천천히 30분을 걸어 흥가에 도착했다. 분위기를 잡으려는 건지 일부러 숲이 우거진 한적하고 스산한 신사를 통과했고 인적이 드문 골목도 걸었다. 우연히 까마귀 시체를 보았는데 연출인지 실제인지 애매했다. 멀리서 누군가의 웃음 섞인 비명도 들렸다. 그것도 이 흥가 체험 이벤트 회사가 어딘가에 스피커를 틀어놓은 건지, 아니면 진짜 비명인지 알쏭달쏭했다.

마침 내리기 시작한 비가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호민 씨가 우산을 갖고 있지 않아서 우리는 같은 우산 속에 들어갔다. 비가 점점 더 거세져 폭우가 되고 있었다.

호민 씨가 가방을 가슴 앞으로 돌려 끌어안았다. 원고가 들어있나 싶어, 피식 웃음이 나왔다. 우리를 한없이 절망에 잠기게 했던 갑작스러운 인생의 폭우도 지나갔다. 10년 전 작업실에서 그가 만난 비를 막아주지 못한 게 이제야 미안해졌다. 그때 내 인생의 우산은 너무 너털너털했다. 어딘가 김 작가의 만행을 고발하는 글이라도 올릴걸. 그 이후에 우리의 전철을 밟았을 새로운 희생양들에게도 미안할 따름이었다.

대낮이라는 걸 잊을 정도로 흥가는 어둠침침했다. 빗소리 때문에 분위기는 더욱 고조됐다.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집 안을 둘러봤다. 김 작가 화실로 쓰던 집과 묘하게 비슷한 구조였다. 좁고 빼겨거리는 계단을 올랐을 때 나는 김 작가가 작업실로 내려오던 소리를 떠올렸다.

그리고, 우리가 2층에 올라선 순간이었다. 등 뒤, 1층에 머물렀던 가이드가 비명을 질렀다.

“으악!”

나는 호민 씨의 얼굴을 바라봤다.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소름 끼치는 비명이었다. 덜컥 겁이 났다. 저 비명은 정말 연기일까?

“어떡해! 내려가 봐야 하는 거 아냐?”

“흥가 들어온 이후 연출에 대해선 사이트에 언급 없어?”

“없어.”

눈 딱 감고 흥가 이벤트를 즐기는 게 입장권 5천 엔을 구매한 자의 태도였으나, 나는 돈 낸 것도 잊고 겁먹고 말았다. 그때, 가이드의 목소리가 아닌 낮선 중년 남자의 호령 소리가 들렸다.

“누구야! 누가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온 거야!”

창문에 창살이 없었다면 그대로 뛰어내렸을 것이다. 도망칠 곳을 찾다가 허둥지둥 벽장으로 들어갔다. 여유롭게 웃던 호민 씨도 내가 겁먹은 것을 보고 조금 당황한 표정을 보였다.

“어떡해, 무서워!”

벽장 안에서 호민 씨의 팔을 잡았다. 내가 생각해도 너무 세게 꼭 잡았고 호민 씨가 아프다는 말도 없이 내 어깨를 살짝 끌어안았다.

끼익 끼익, 계단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남자가 2층으로 뛰어 올라오는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렸다.

“나와! 다 죽여버리겠어!”

나는 호민 씨 귀에 속삭였다.

“진짜 같아. 무서워!”

“다 연기야. 짜고 치는 거야. 돈 냈잖아.”

호민 씨의 목소리도 조금 떨렸다.

나는 그만 벽장 속에서 울음을 터트리기도 말았다.

“흑흑, 호민 씨. 이거 무서워.”

드르륵, 벽장문이 거칠게 열렸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미친놈들!”

다 허물어진 흥가를 자기 세계 삼고 있는 남자. 당당히 돈 낸 소비자를 침입자로 취급하는 역센 남자. 남자를 보자마자 나는 그만 큰소리로 외치고 말았다.

“하지 마세요! 연기라고 해도 그만 하세요! 나갈래요! 엉엉엉!”

너무 크게 우는 바람에 놀랐는지, 살인자를 연기했던 아저씨가 목소리 톤을 바꾸었다.

“알았어요. 그만할게요. 이제 나오세요.”

부동산 업자 역을 하던 연기자도 심장계에 칼에 찔린 소품을 매달고 2층으로 올라왔다. 연기가 머리를 굽으며 사무적으로 말했다.

“중도에 포기해도 환불 안 돼요.”

우리는 두 사람이 꿰여준 녹차도 사양하고 밖으로 나왔다. 비는 그쳐 있었다.

그제야 안심이 됐다. 역으로 돌아오는 길, 뒤늦게 민망함이 몰려왔고 호민 씨도 웃었다.

“미안해. 돈도 5만 원씩이나 냈는데.”

“아냐, 진짜 리얼했어. 나도 중간에 좀 철렁하더라고. 하여튼, 일본 사람들 이상한 데에 디테일이 강하다니까.”

용의주도하게 준비한 스토리로 독자를 끌고 와서 보기 좋게 뒤통수를 치는 것, 독자의 시선의 흐름까지 계산하는 마법, 10년간 창작 업계에 몸담고도 터득하지 못했다. 그리곤 누군가가 준비한 트릭 앞에서 속수무책 무너졌다. 작가가 되지 못한 이유를 오늘 증명한 것만 같아서 부끄러웠다.

우리는 역 근처 390엔 균일 안주 체인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 호민 씨는 내일 아침에 서울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앞으로도 일본에서 계속 살 거야? 만화 일은 더 안 할 거야?”

당연히 답이 준비되어 있어야 할 질문인데 아무것도 답할 수 없었다.

어떻게 사는가 하는 문제에 답할 수 없기에 어디서 살지를 고민한다. 사는 곳에 따라 삶의 방식도 정해지곤 하니까. 한국에서 살면 주택 부금 같은 걸 고민하고 일본에서 살면 월세를 고민하는 거다. 어디서 사느냐가 어떻게 사는가를 규정하는 건 아닐까. 삶에 어떻게 임해야 할지 모르니까 직업을 갖는 건 아닐까. 만화가로 사는 삶과 만화를 즐겨 읽는 직장인으로 사는 삶은 그래서 완전히 다른 것 아닐까. 자신의 개성이 뭔지 말할 수 없으니 서로 국적이 뭐냐고 ‘웨얼 아 유 프롬’을 묻는 건 아닐까.

성공한 후일담이 아닌 실패의 맛, 현재 진행형인 실패의 맛은 지독하다. 390엔짜리 안주로는 텅텅함이 가지지 않았다. 10년이 지났는데도 그의 삶을 뜨겁

게 안아주지 못했다. 고장 난 사람끼리는 가끔 만나는 게 낫다. 그래도 벽장에서 그가 어깨를 안아줬을 때, 살인자를 연기한 사람에게 그러지 말라고 내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환불은 안 되지만 후회는 남지 않았다.

7

꿈을 품었던 세상은 애매한 환상과 폭력, 자기 합리화의 색깔로 도배되었다. 나는 꿈을 품은 모든 이가 성공하는 건 아니라는 단순한 사실을 인정한 뒤, 리얼한 세상으로 넘어왔다. 그러자 리얼한 세상이 때때로 더 환상적인 색채로 도배되는 걸 보았다.

도쿄에 머물고 있던 사이, 후쿠시마가 쓰나미와 원전으로 처참한 고통에 잠겼다. 서둘러 봉합하려는 듯 원주민들의 귀환이 떠밀듯 집행되었다. 쓰나미로 돌아가신 피해자보다 그 이후 재난 자살자들의 숫자가 사망자 그래프를 추월했다. 수상한 혐오가 일상적으로 만연했다. 신주쿠 거리 한복판엔 매일 밤낮 타자에 대한 증오가 전시되었다. 일본인은 지적이고 예의 바른 선진국의 지성인이라 믿었는데, 독재자를 계속 소환해 낸 결과 자신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줄도 모른 채 거리에서 쓰러졌다. 절망마저 씩어 괴멸해 가는 한 사회의 후퇴를 보았다. 불만이 있으면 떠나라며 선진국 국민들은 예의를 갖춰 비국민의 따귀를 때렸다. 심지어 귀화한 일본인에게도 ‘웰얼 아 유 프롬’을 물어 혈통까지 확인했다.

그 사이 한국에선, 꼼꼼하게 국고를 털어 세금을 자기 주머니로 옮긴 사기꾼과, 젊은이들에게 증동으로, 해외로 가라더니 애들을 수장시킨 무책임한 가짜 엄마가 한 시대를 거덜냈다. 그 후, 겨울 광장을 수백만 촛불로 뒤덮은 환상적 민주주의도 펼쳐졌다.

특수성을 강조하다가 섬나라 민족성만 핑계 대던 자발적 갈라파고스 일본. 걱정과 집단 지성 사이를 유유히 널뛰기하는 한국. 두 나라에 판타지 빛 폭우가 쏟아지는 걸 보았다.

나는 어리석은 삶을 내 삶으로 직접 살아본 적이 있어서 어리석은 세상을 홍보진 않았다. 나는 바보 같은 세상을 나 자신을 연민하듯 조용히 바라보기만 했다. 딱히 소속된 곳이 없어 목소리를 내기도 애매했다. 외국에 사는 건 미지근한 달관을 세 끼 식사처럼 퍼먹는 일일지도 모른다.

엄마 칠순 잔치 때문에 서울에 다녀왔다. 여행객처럼 서울에 들러 엄마가 호스트인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머물다가 하네다 공항으로 돌아왔다. 기다리던 사람들이 누군가를 환영하고 도착한 사람이 따듯하게 환영받는 풍경을 바라봤다. 사진을 찍어 재회를 기념하는 모습 사이로 홀로 빠져나왔다. 내가 착륙한 지루한 이곳은 여전히 누군가의 인생일대의 여행지이며 꿈을 품고 있는 미래다. 아직 내 여행은 도착하지 않았고, 평생 정착할 곳도 결심하지 않았기에, 이곳은 내게도 여전히 유효한 경우지다.

까만 고양이 한 마리와 지내고 있는 작은 원룸 같은 하찮은 것만 남았다. 일본이 아니었더라도, 어떤 분야에서 10년 동안 인생을 버텼다면 자연히 따라왔을 소소한 보상일지도 모르지만, 잘 견딘 덕에 타인의 모욕을 헤치고 나를 지킨 무탈한 하루를 선물 받았다고 생각했다.

여행을 떠나는 순간, 종착역에서 만날 풍경을 그린다. 낯선 곳에서 처음 보는 사람과 사랑에 빠질지도 모른다. 새로운 이웃이, 익숙하지 않은 문화가 내게 선사해 줄 위로와 깨달음이 있겠지. 메모리를 뽕뽕하게 채울 사진과 다이어리에 적을 감상, 산뜻한 해시태그를 기대하니 다시 가슴이 뛰었다.

막상 도착지에 와보니 중요한 발견은 경유지에 존재했던 것 같다. 어딘가 다른 공항을 경유할 정도로 멀지 않은 서울과 도쿄, 두 도시를 오가며 깨달았다. 무심코 놓친 많은 것들을 경유지에 흘리고 왔다는 것을, 어쩌면 공중에 흩어지고 말았다는 것을, 다만 내 삶으로 그곳을 통과해 왔다는 것을.





## 내가 차버린 공

- 리 동 렬 (중국) -

방 출입문은 고급스러운 향나무로 제작했다. 문 안쪽 중앙 상단에는 연꽃 사각형 사진 액자를 걸어놓아 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흔들거렸다. 내가 대여섯 살 나던 해에 아빠와 함께 찍은 흑백사진이 그 속에서 희미하게 웃고 있다. 사십 대 후반의 아빠는 내 방을 드나들 때마다 그 사진을 보며 살집 좋은 얼굴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이 사진은 네가 유치원에 입학하던 날 기념으로 남긴 것이다.’ 이튿날 아빠 한국 왔고, 내가 일부러 흑백사진으로 남겼지. 오랜 세월을 보낸 사진처럼 소중히 남기고 싶어서. 아빠가 신나게 설명을 했다. 도무지 생각나지 않았다. 동화 같은 얘기를 하나 보자.

아빠는 2년 전에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부러뜨린 앞니 두 대를 임플란트로 대체했다. 나를 볼 때마다 뭔가 은근히 바라는 것 같은 눈길이 솔직히 부담스럽다. 그게 뭔가를 알 것 같기도 하고 딱히 모를 것 같기도 하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 가짜 이빨에 저도 모르게 눈길이 갔다. 가짜가 진짜보다 좋아 보였다. 한국은 돈만 쓰면 얼굴뿐만 아니라 몸뚱어리의 어떤 부위라도 뜯어고칠 수 있다고, 진짜보다 더 예쁘게 성형할 수 있단다.

노크 소리도 없이 방문이 열렸다. 나는 이상한 동작을 연출하다가 멈추고는 화를 내려고 했다. 아빠의 흰 이가 보였다. 임플란트 가짜 이빨. 아빠의 발이 내 엉덩이에 올라왔다가 미끄러져 내렸다. 둔탁한 느낌이다. 아빠는 말 대신 발을 자주 사용했다. 어릴 적부터 축구를 좋아해서 생긴 버릇이란단다.

연초에 중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나를 마중했을 때도 아빠의 발은 나의 엉덩이에서 미끄러져 내렸었다. 술독을 받아 빨개진 아빠의 코끝이 두어 번 실룩거렸다.

“이놈, 그새 많이 컸구나. 살은 좀 빼시지, 히히……이젠 우리 같이 살자. 공부 잘해야 한다. 한국어도 잘 배우고, 중국에서 조선어를 배웠으니 한국어도 같은 우리말이다, 겁날 것 없다” 하고 신나게 사상 교육을 했다.

오랜만에 만나 서먹서먹해하고 있는 나를 끌어안았다가 풀고 어깨를 잡고 흔들기도 하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었다. “우리 옥이, 중국어 잘하지, 영어도 잘하지, 한국어도 잘하지……이러면 대한민국 어딜 가도 엄지 척 빼 들고 인정해 줄 게다. 이게 우리 조선족의 우세지. 이제부터 아빠 널 위해 올인할게” 하고 큰 손바닥을 펼쳐 나의 여린 등을 마구 두드렸었다.

“이거 왜 이래? 정말 간 떨어지겠다” 하고 나는 별로 안 좋은 기색을 내보였다. 상대방이 좋은 뜻으로 접근을 해도 내가 싫으면 싫다.

할매는 애칭 하나를 선물했다. 냉혈동물! 그게 애칭이라면 말이다.

“요 게으름뱅이야, 빨리 일어나 학교 가야지, 빨리……여든에 허리 꼬부라진 할미가 밥상 차려놓고 깨우는데도 안 일어나고, 말해도 대답을 안 하고, 니 점점 바보 되나? 감정도 없는 냉혈동물이냐?……빨리 일어나 밥 후딱 먹고 학교 안 가겠나?” 할매는, 이제는 늙었다. 여러 대 빠진 이 사이로 말이 급하게 새고 있었다.

솔직히 어른들은 시름 백번 놓아도 좋다. 요즘 애들은 속궁리가 따로 있다. 나로 말하면, 아침에 학교 갈 때 저녁에 설치해 놓은 폰 알람이 울리면 학교 상학 전 30분 시간 때가 된다. 일어나서 세수하고 칫솔질하고 밥을 먹으면 15분이 소요되고, 옷을 입고 가방을 찾아 메면 5분, 아파트 층계를 내려서 느직느직 길을 걸어도 10분이면 교실에 도착할 수가 있다. 급해할 게 뭐냐. 할매한테 설명을 몇 번이나 해도 이튿날이면 똑같이 꾸지람을 한다. “니 바보 아이가? 냉혈동물이냐?……” 마이동풍(馬耳東風)이란 성구를 배

운 적이 있다. 나는 내 방식대로 행동한다. 단지, 말이 적고 느린 것만은 사실이다. 그냥 그렇게 생겨먹었다. 바보란 말은 너무했다. 냉혈동물이란 말도 누가 생각하기 나름이다.

방문에 기대선 아빠는 입귀를 약간 실룩거렸다. 화를 내는 것 같기도, 괜히 폼을 잡는 것 같기도 하다. 방 안에 켜놓은 TV는 제멋에 좋아 돌아가고 있다. 한국과 중국 대표팀이 축구 경기를 하고 있다. 축구공이 선수들의 발 끝에서 요리조리 요술을 부리거나, 또는 골문을 뚫으려고 시도할 때면 내 심장은 오그라든다. 그러다가 축구공이 문전으로 날아 꽂히면 심장이 산산 조각이 난다. 조각났던 것이 다시 뭉쳐져서 합성을 내지른다. 나의 입과 팔과 다리가 요상한 동작을 지속적으로 연출한다. 평소에 그런 동작 좀 해보라면서 돈을 주어도 절대 못할 것 같다. 완전 마술이다. 그러나 아무리 격동이 되어도 입 밖으로 소리가 터져나가지 않는다.

아빠가 리모컨을 빼앗아 소리 볼륨을 조절했다. “이놈이? 뿔은 좀 차는 거냐? 흐흐, 소리 좀 낮추실까?”

분홍색 잠옷을 걸친 여자가 아빠 등 뒤에 숨어있다가 아빠의 팔소매를 잡았다. 상큼한 향수 내가 내 신경을 자극했다. 방 안이 갑자기 좁아졌다. 갑갑하고 어색해졌다.

내가 오기 전 아빠와 삼 년을 같이 산 대림동 현지 여자라고 한다. 며칠 전 이사를 할 때 처음 봤고, 이제 며칠째 낯을 익혀 왔지만 나는 여자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관심이 없다. 키는 큰 편, 몸매는 여위었고, 머리는 파마를 했다. 얼굴에 박혀 있을 오관은 그런대로 박혀 있다. 목소리는 가늘다. 이만 하면 대단한 관찰이다. 이쯤이면 사람 보는 눈은 있는 셈이다.

“네 새엄마다. 잘 지내라.” 새집으로 이사하는 날 아침 아빠가 나를 끌어당겨서 마주 세워놓았다.

새엄마는 “학생……반가워요” 했다. 아빠가 정색해서 호칭을 고쳐주었다. “학생 아니고 이름은 옥이, 우리 아들!” 새엄마가 가만히 웃었다. “응, 그래

요. 네가 옥이구나. 반가워, 우리 아들” 하고 다가와서 나를 안아주었다.

새엄마의 포옹은 참새처럼 가벼웠다. 두 팔을 풀면 참새처럼 포르르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이다. 사람 사이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나 싶었다. 은근히 근심을 했었는데 전혀 부담이 없으니 힐링하는 기분이다. 그동안 할매는 내가 매일 입는 옷이나 먹는 밥과 같은 존재였고, 아빠나 엄마는 내가 어릴 때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그리움 같은 것은 별로 없었다. 언젠가 내가 의지해야 할 것 같은 존재이었을 뿐이다. 그런데 할매는 소비돈을 줄 때면 매번 “아껴 쓰라, 엄마 아빠가 뼈빠지게 번 돈인데” 하고 잔소리를 했다. 인이 지겹도록 박힌 기분이었다.

새엄마의 목소리는 가늘고 여리다. “여보, 됐어요. TV 소리 저만하면 돼요. 자러 가요 우리…아 참, 학생, 아니 아들……한 가지 알고 싶은 게 있는데……한국과 중국이 축구를 하면 누가 이겼으면 좋겠어?”

아빠가 괜히 화를 냈다. “유치하네, 아직도 그런 것 알고 싶어요? 누가 한국 사람 아니라 할까 봐?”

“아니, 그냥……우리 아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알아야지……이젠 한국에서 같이 살아야 하니까. 한민족, 한 핏줄인데…….”

“제발 그런 것 들먹이지 마시구, 왜 다들 내 편 네 편 하며 꼭 알고 싶어서 안달이지? 왜 항상 사람을 줄 세워놓고 싶어 하시지?……애가 이제 중국서 왔는데, 개가 어느 쪽이 이겼으면 하겠소?” 아빠는, 그 한마디는 좃대 있게 잘 쏘아붙였다. 방문 소리가 꽤 크게 났다. 내일 아침 일찍 일하러 가야 한단다.

“그래요, 일찍 자요, 학생” 하고 새엄마가 나가다 말고 “아 참” 하더니 “이것” 하고 주머니에서 뭔가 꺼내 손을 내밀었다. 몽골한 것이 내 손에 쥐어졌다. 빨간 공, 아기 장난감 같았다. 어릴 적 내가 갖고 놀던 공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공이 왜 새엄마한테 있는 걸까?……아마도 할매가 나의 집에 몰래 그것을 넣어 보냈을 거고, 트렁크를 정리하다가 새엄마가 고

개를 가웃거리며 이게 뭐지? 하고 웃었을 거고, 아빠는 괜히 신이 나서 공에 대한 얘기를 했을 거고……순간 나는 새엄마의 눈이 놀라듯 커지는 것을 보았다. 예잇, 솟구멍에서 피가 거꾸로 솟아올랐다.

나는 빨간 고무공을 잡고 내밀 듯 말 듯 엉거주춤한 자세를 취한 채 미동도 하지 않고 서있다.

나의 손목에는 아빠가 선물해 준 스위스산 뚜르비용 시계가 채워져 있다. 아빠는 내가 온다기에 새 아파트를 구입했노라고 은근히 귀뜸을 해주었다. 나의 방에는 새 책들로 빼까빠까하게 채워진 책꽂이 있고, 새로 산 컴퓨터와 고급 브랜드 책상과 삼성 29인치 텔레비전 등이 폼 잡고 놓여 있다. 그래서 나는 새엄마의 얼굴에 비추어진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게걸스레 먹어서 좀 비대해진 몸뚱이며, 살집 흔들거리는 얼굴이며, 독을 쓰는 두 눈은 영락없이 깡패상일 게다. 순간 나는 아무렇게나 공을 던져버렸다. 빨간 공은 벽을 맞고 튕겨거리며 튀다가 공교롭게도 책꽂이에 정렬된 책 사이에 날아가 꽂혔다. 히틀러가 쓴 『나의 투쟁』이란 책과 성경 책 사이 벌어져 있는 틈을 찾아 정확히 박혔다.

나는 TV와 전등을 껐다. 침대 위에 올라 이불을 뒤집어썼다.

나는 이불 속에서 삼성전자 갤럭시S20 5G를 펼쳤다. 위챗 영상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울리고 있으나 받지 않는다. “이 노친네, 제발 줌” 하고 두덜거렸다.

할매는 초저녁부터 굶아떨어진 것 같다. 할매의 등은 몇 년 사이 90도로 굽어졌다. 침대에 기어 올라가면 다리를 꼬부리고 누워 고양이처럼 가릉거리며 코골이를 했다. 힘없이 벌어진 턱에서 ‘하하’ 하는 숨소리를 뿜어냈다.

“니두 빨리 자거라. 내일 아빠 니 데리러 온다는데, 자거라. 이게 몇 해 만이냐? 네 엄마도 서울 있다는데 왜 전화 한 통 없노? 모진 년이. 지 새끼 안 보고 싶은가 보지. 애새끼 출세시키겠다고 돈 벌러 간 년이……자거라” 하

고 할매의 뉘두리는 최근 몇 년 사이 듣기 귀찮게 부쩍 늘었다.

나는 화풀이하듯 게임 놀던 폰을 던져버리곤 했다. 냉장고에서 콜라와 햄버거를 꺼내 먹기 시작한다. 햄버거 셋에 콜라 두 병을 게 눈 감추듯 먹어 치운다. 트림이 목구멍에서 기어오른다. 배에 가득 차는 포만감이 좋다. 누가 곁에 없어도 좋다. 가끔 어른들이 애가 외로워 어찌겠느냐고 하지만 나는 괜찮다. 햄버거와 콜라, 게임을 할 수 있는 폰만 있으면 된다. 친구들과 싸움질을 하다가 몇 대 얻어맞은 후에는 남몰래 종합격투기도 배웠다. 한밤중에 나가 느티나무를 상대로 치고 박고 어찌고 하며 열정을 불태웠다.

아무튼 사람 생각 안 하는 게 행복이다. 그런데 할매가 그냥 내 마음을 쥐고 흔든다. 네 아빠, 네 엄마 어찌고저찌고하며 구시렁거렸다. 얌전하게 있는 애를 못살게 군다.

할매는 내가 자는 꼴도 못 본다. 이불을 뒤집어쓰고 몸을 새우처럼 웅크려서 자면 편한데 그 꼴을 못 본다. 이불을 끌어당겨 내리면서 고탈을 지른다. “니는 왜 잠을 그 따위로 자노? 이불 뒤집어쓰고 자면 숨 막혀 어떻게 사노?” 한다. 나는 “남이사, 잠두 내 맘대로 못 자노?” 하고 다시 이불을 머리 위로 끌어당겨 올린다.

아마도 다섯 살인지 여섯 살인지 딱히 기억에 없다. 유치원은 가지 않고 도랑가에서 흙장난을 하다가 도랑물에 빠져 물병아리가 됐고, 할매는 회초리를 들고 나의 엉덩이와 다리 정강이를 사정없이 내리쳤다.

“이 원수야, 이 원수야……지 새끼 지 기르지, 와 날 이렇게 고생시키누? 니 애비 에미 따라 한국 가거라. 돈 잘 벌고 잘살고 있다는데……왜 지 새끼 못 데리고 가고 이 늙은 어미만 고생시키노?” 하고 입에 거품을 물었다.

나는 울지 않고 이를 앙다물고 할매를 노려보았다. “저 독한 것이? 이놈이” 하고 할매는 또 회초리를 들었다.

그날도 이불을 뒤집어썼다. 핏자국이 얼룩진 다리와 엉덩이가 아리고 아파 왔었다.

“에그, 우리 손주 많이 아팠지? 어디 좀 보자.” 할매가 이불을 잡아 내리면 나는 끌어당겨 올렸다. 그러기를 반복했다. 할매는 나를 이기지 못한다. 땅이 꺼지는 한숨 소리가 들렸다. 꺼질한 손이 이불 속으로 들어와서 내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다. 몽골거리는 작은 공, 할매의 주글거리는 젖통을 쥐고 자던 나는 그때부터 공을 품에 안고 자는 버릇이 생겼다.

공은 내 소통의 도구였다. 그놈으로 친구 뒤통수를 정확히 맞출 수가 있고, 벽에 튕기며 날아다니는 꼴을 보고 즐기기도 했고, 길을 가면서 차거나 뿌리기도 했다. 꼬마 똥보가 작은 공을 쫓는 꼴이 우습다고 뒤에서 놀려대면 애들과 엉켜 붙어 싸움질도 곧잘 했다.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는 항상 볼록한 게 솟아있었다. 손으로 쓰다듬으면 온기가 살아났다. 가슴에 엉켜있던 이름 모를 불안들이 슬그머니 풀리는 것 같았다.

초등학교 때부터 나는 수업할 때면 자면서 강의 듣는 버릇이 생겼다. 선생님들이 가끔 교편으로 내 뒤통수를 때렸다.

“일어나, 버릇없이. 아무리 머리가 좋다고 해도 들을 것은 들어야지” 하고 선생님이 한숨을 짓든 말든 강의가 시작되면 잠이 왔다. 참을 수 없이 쏟아졌다. 그래도 시험을 보면 절대 낙제는 하지 않았다.

“육이 이눔, 참 머리는 좋은데, 공부 잘하면 북경대학도 가겠는데 아깝네, 아까워요” 하고 짧은 여 답임선생님이 나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두드려주며 안타까워했다.

한 개 반급에 대여섯 명의 친구들이 모여 공부를 하니 창문으로 기어드는 오후의 느슨한 햇빛처럼 모두가 게을러져 있었다. 선생님이 애써 가르치려고 해도 애들은 잘 따르지 않았다. 나처럼 잠을 자지 않으면 몰래 그림책을 보고 폰 게임을 하고 술락거리며 장난질을 했다. 방과 후면 온 운동장을 뛰어다니며 술래잡기를 하고 열심히 볼을 찼고, 또 약 올리는 수탉에 성난 누렁이 싸움질을 하면서 땀투성이가 되어 자랐다.

나의 공이 수난을 맞은 시기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느 날 잘못 던진 공

이 불행히도 교실 창문으로 날아가서 유리창을 박살냈었다. 정든 공과 이별하는 순간이었다…….

새엄마가 “학생, 주방에 밥상 차려놓았으니 먹어요” 하고는 옷을 갈아입고 외출을 한다. 나는 7층 아파트 창문에서 새엄마가 까만 핸드백을 들고 한들거리며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분홍색 스카프가 눈길을 끌었다.

엿저녁 오랜만에 친엄마가 보내온 문자를 본 기억이 생각났다. ‘육아, 내일 오후 시간 돼?’ 나는 응하고 답했다.

새엄마 앞에 스무 살 남짓한 처녀 애가 걸어가고 있다. 뒤를 두어 번 돌아본다. 새엄마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아침 햇빛이 그녀들 머리 위에 밝게 쏟아지고 있다. 나는 둘 사이에 공을 던졌다. 빨간 공이 눈부신 햇빛을 머금고 새엄마의 이마를 맞추었다. 공은 다시 튕겨 올라서 처녀 애의 뒤통수를 맞춘다. 나는 손뼉을 치며 웃었다. 물론 진짜 생긴 일이 아니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상상을 했다.

처녀 애의 목에서 나부끼는 스카프도 분홍색이다.

처녀 애의 얼굴은 조그맣고 눈은 크다. 작고 예쁜 입술에 빨간 립스틱을 진하게 발랐다.

이사하는 전날에 아파트 근처에서 나는 깡통 하나를 차서 날린 적이 있었다. 무심결에 차버렸었다. 길에 버려진 빈 콜라 캔이었다. 그놈은 멋진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누군가의 엉덩이를 맞췄고, 그 누군가가 돌아서더니 입에 쥘던 흰 마스크를 짚싸게 내렸다. 그때 본 얼굴이 그렇게 생겼다.

“너니? 왜 그래?” 힐문하는 처녀 애의 목소리가 카랑했다. 나는 대답 없이 그녀만 바라봤다. 나는 입에 푸른빛이 감도는 의료용 마스크를 쥘었다. 아빠는 보건용 KF94를 끼라고 매번 강조를 했다. KF94는 입자 0.4 $\mu$ m를 94% 이상 걸러준다고, 의료용 마스크는 안전성도 떨어지고 티가 난다고 누누이 설명했다. 티가 난다는 것은 내가 어디에서 왔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

아본다는 뉘앙스다. 한국 사람들은 주로 KF94를 끼니까. 그게 무슨 상관인가. 숨쉬기 편하고 내가 좋으면 그만이다. 의료용 마스크를 꺾기에 내 마음은 한결 안정돼 있었다.

“너, 중국서 왔구나, 그지?” 처녀 애의 목소리가 한결 누그러들었다. “다신 그러지 마. 다 큰 애가 깡통이나 차고 다니고, 길을 무단 횡단하고, 침 아무 데나 뱉어버리고……그러면 안 돼, 알았지?” 처녀 애는 누나처럼 가만가만 교육을 했다. 내가 침을 뱉은 것, 무단 횡단한 것도 알고 있었다. 듣기 싫지는 않았다. “그러면 정말 안 되지. 알았어요” 하고, 나는 대답했다. 오랜만에 내 목소리가 들렸다. 비록 모깃소리만큼 작았지만.

처녀 애는 자기 이름을 구름이라고 알려 주었다. 하늘의 구름이란 구름, 떠도는 구름. 윤 씨니 윤구름. 처녀 애는 말말 간에 나를 알고 있다는 뉘앙스를 주었다. “또 보자, 우리” 하며 굿바이를 했다. 손가락이 긴 그녀의 오른쪽 손목이 가볍게 돌면서 오른손이 보기 좋게 핑글거렸다. 나는 덤덤해서 그 모양을 바라보았다. 초면인데, 괜찮은 여자 애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 주머니 안이 따뜻해졌다. 불룩하게 솟아나는 게 있다. 물론 이것도 상상이다.

2호선 전철 홍대 입구 5번 출구. 나의 눈에는 또 버려진 콜라 캔 깡통이 보였다. 할매 말대로라면 똥개 눈에 똥만 보인다. 아무튼 이상했다. 깨끗한 환경에 위생 청결이 잘 되어있는 대한민국에 웬 깡통일까? 그런데 그 깡통이 하필이면 내 눈에 띄니 신기할 따름이다.

발이 근질거렸다. 겨우 참았다.

웬 여자가 달려와서 나를 덱석 끌어안았다. “육이야, 엄마다” 하고 나의 불이며 손등에 눈물을 쏟았다. 무슨 여자가 힘이 그리 센지 모르겠다. 느닷없이 큼직한 바위 하나 안은 것 같다. 배가 쿨룩거렸다. 손가락을 꼽아보면 엄마를 못 본 지도 5년 하고 두 달이 더 됐다.

그날 내가 인천공항에 내려 입국 심사를 받고 검역대를 통과해서 나오자

아빠하고 새엄마가 마중 나와 있었다. 아빠가 나를 보더니 버릇처럼 엉덩이를 찼었고, 새엄마가 예쁘게 또는 낮설게 웃었고, 어찌구려 정신없이 우리는 아빠 자가용에 올라탔다. 자가용은 엄청 고급스럽고 멋져 보였다. 아빠가 예쁘게 또는 낮설어 보이게 흰 이를 드러냈다.

“올해 초에 바꿨다. 2020 벤츠 GLC클래스 브랜드지. 세금 내고 수속 다 끝내고 해서 9천만 원쯤 들었다. 한번 폼 나게 살아 보자꾸나. 그동안 돈 버느라 널 챙겨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 이제부터 아빠가 해줄 건 다 해줄게. 그저 공부만 잘해라. 여긴 열여덟 살이면 성인이니 명년엔 운전면허도 따고, 대학만 가거라. 그러면 아빠가 자가용 하나 빼줄게” 하고 아빠는 고무풍선에 바람을 한껏 불어넣었다. 배가 터질 것 같았다.

아빠는 명년에 할매를 모셔 오겠다고 한다. 절대 안 될 소리를 한다. ‘괜한 걱정 말아라. 내가 왜 여기 편한 고향을 놔두고 너네 남조선에 가서 살겠니? 난 여기서 살기가 편하다’ 하고 말할 게 뻔하다. 할매는 고집불통이시다.

아빠는 “어른들의 일은 좀 복잡하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렇고 그렇지 않느냐. 니도 이만큼 컸으니 이해해라” 하고 은근슬쩍 동정심을 사려고 했다.

나는 앞좌석에 앉았고 새엄마는 뒷좌석에 앉았다. 마침 내 어깨에 가볍게 닿아와 툭툭거리는 손가락이 있었다. 고운 바람결같이 스치듯 말듯.

이때 코미디 같은 구경거리가 생겼다. 웬 여자가 허둥지둥 공항 출입문을 향해 달려가다가 넘어졌고, 급히 일어나서 엉덩이를 털며 엉겨주춤해서 뒤를 돌아보더니 후딱 ‘뒤로 돌았’을 했다. 버스가 다니는 길 건널목 신호등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단 횡단을 해서 쫓아왔다. 허우적거리며 팔을 흔들어 보였다. 아마도 급해서 말이 나오지 않는 모양. 승용차 차 문은 내려져 있었고, 나는 어리둥절해서 관중석에 앉아 코미디 영화를 보듯 그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다음 아빠를 돌아보았다. 아빠는 굳은 얼굴을 해서 승용차에 시동을 걸었다. 빠르게 운전을 해서 자리를 떴다. 여자는 그 자리에 망석처럼 굳어

지고, 차츰 멀어져 갔었다. 여자는 아빠보다 나이 더 먹어 보였다. 파란 바지에 빨간 외투를 걸쳤고 남자처럼 상고머리를 했다. 목에 두른 금 목걸이가 유난히 내 눈에 띄었다. 줄이 굵어 요란해 보였다. 나는 그 여자를 알 것 같았다. 아빠도 알아본 것이고, 중요한 것은 내 손에 운전대가 잡혀 있지 않다는 것이다. 아무려나 아빠의 차를 타고 가면 될 것이다.

나는 겨우 여자의 모진 팔에서 풀려 나왔다. 내 불을 만지려는 손을 슬쩍 밀쳐 버렸다. 나의 곁으로는 형님 누나 나이 또래의 젊은이들이 물밀듯이 오갔다. “웬 상봉이래?” 하고 흘끔거리며 쳐다봐서 창피했고 짜증이 났다. “조선족 같은데?” “개들 아직도 이산가족이 많은가 봐.” “아마도, 그렇지? 불쌍해.” 선글라스를 끼고 단발머리를 곱게 한 대학생 같아 보이는 두 여자가 지하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면서 소곤거렸다. 캐드거렸다. 손이 슬그머니오른쪽 주머니로 내려갔다.

씩씩거리는 여자의 목소리가 울렸다. “미안해, 그날 내가 좀 늦어서 제대로 마중을 못했네. 그놈은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니 전화번호는 찍어 보냈더라. 쫓쫓, 내가 나쁜 년이지. 미안해, 우리 아들!”

마을버스가 미궁 같은 골목들을 빠져나갔다. 3층 빌라 앞에서 우리는 멈춰 섰다. “네 아빠 집보단 못하지? 2층이야.”

벽돌로 지은 건물이 꽤 낡기는 했지만 밖으로 널찍한 베란다를 빼서 스타일이 있어 보였다. 방문을 열면 바로 주방이자 거실이고 양쪽으로 큰방 하나 작은방 하나가 있다. 큰방은 부부 침실일 게다. 나는 작은 방문을 슬그머니 열어보았다. 아담하고 작은 침대 하나쯤은 놓여 있을 듯싶다. 옷장이며 옷걸이이며 화장대 같은 것들이 잘 정렬돼 있었다.

여자가 옷깃을 잡아당겼다. “애, 거긴 보지 마. 바빠서 거두지 못했다, 미안해.”

작은 상이 차려지고 사과이며 배며 오렌지이며 하는 과일들이 나왔다. 이것저것 집어주며 “먹어, 좀 먹어봐” 한다.

갑자기 목이 말랐다. “저, 미안한데요, 맥주 없어? 캔 맥주 하나 먹어도 돼?” 하고 용기를 내서 말했다.

“너, 술 하니?” 여자가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다. 나는 여자를 뜯어보았다. 그리 뚱뚱해 보이지 않았고, 못생기지도 않았다. 큰 눈에 상고머리를 해서 오히려 정신이 나 보였다. 그 풀어진 눈빛이 기억에 어슴푸레 떠올랐다.

“아니, 술 못해. 그저 목이 킁킁해 한 모금 마시고 싶어서.” 나는 정말 술을 못한다. 여자는 냉장고에서 콜라 캔을 하나 가져왔다. 나는 시원한 캔을 따서 단숨에 들이켰다. 빈 통은 손으로 우그러뜨려 상 밑에 내려놓았다. 게으른 트림이 목구멍에서 기어 올라왔다. 불현듯 햄버거 생각이 나고 할매 생각이 났다. 창문가에 놓인 화분에 이름 모를 꽃들이 곱게 피어있다. 낮선 꽃들, 꽃들이 화사해 더 낯설어 보였다.

“우리 아들 수줍음 많이 타는구나. 괜찮아, 괜찮아, 처음이니까 다 그래. 나도 한국에 와서 적응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고, 그러다 보면 철이 들고 어른이 되는 거야.” 여자는 냇두리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런데는? 나는 야릇한 표정을 짓고 넋지시 여자를 바라보았다. 여자는 어른들이 자식들한테 늘 하는 버릇대로 한국에 와서 고생 고생하던 얘기를 풀어놓았다. 고깃집이며 횡집이며 건설 현장이며 모텔이며 사우나이며 안 다니는 데 없었노란다. 고약한 사장님을 만나 월급 안 줘서 울며불며 매달려 받아낸 일도 부지기수였노란다. 한국 나온다고 외상 빚 갚느라고 몇 년 전까지 허리띠 졸라매며 고생했단다.

“네 대학 학자금 번다고 열심히 일했는데 아직도 요 모양 요 꼴이구나. 창피해서……. 그러다가 저 양반을 만났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여자는 벽에 걸린 사진 액자를 가리켰다. 오십은 넘어 보이는 남자가 여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희미하게 웃고 있다. 뒤로는 갈매기가 날고 있고 바다가 보였다.

“아빠 나쁜 사람이야. 이태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더니 마음이 변했는지 나와 말도 하지 않더라. 어느 날 예쁜 여자를 데리고 나타났지. 정말 죽

고 싶었는데, 죽으면 안 되지, 하고 돌아보니 평소 뒤에서 날 돌봐주던 사장님이 눈에 띄었다. 내가 출근하고 있는 식당 맞은편에서 옷 장사를 하고 있는 김 사장님이시다…….” 나는 왜 이 여자의 얘기를 다 들어줘야지 하고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다. 아빠가 새엄마를 먼저 찾았는지 엄마가 새아빠를 먼저 찾았는지 나는 듣고도 헷갈렸다.

“암튼 생각해 보면 내가 나쁜 년이지, 나쁜 년이다……” “요즘 어른들 다 나빠요. ㅋㅋ.” “네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구나…….” 여자는 내가 대학 공부하는 데 드는 학자금은 이미 마련해 놓았으니 아빠가 돈이 없다고 하면 자기가 대주겠노라고 했다.

자식에 대한 어른들의 보상 심리는 정말 위대하다. 내가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는데도 여자는 뼈아프게 번 돈을 달갑게 내놓으려고 한다. 나를 조심스러워하며 어른 취급을 해서 조금 마음에 들었다.

여자는 쿠쿠 밥솥에 쌀을 안치고 상을 차린 다음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불고기 판을 올리고 두툼하게 잘라놓은 소고기를 올려놓았다. 최상급 한우라고, 맛있으니 실컷 먹으라고, 한국 사람들도 일 년에 한두 번 먹기 어렵다고, 엄마한테 자주 놀러 오면 대한민국의 맛있는 음식들을 골라서 죄다 사주겠노라고, 네가 이제 다 커서 왔으니 이젠 시름이 놓인다고, 부모님들이 고생한 보람 이제 빛을 볼 때가 된 것 같다고 늘어놓았다.

나는 한우를 게걸스레 먹었고, 여자는 구워서 끊임없이 집어 주었다. 불판에 한우가 반쯤 익도록 구워지면 지글거리면서 불그스름한 피가 고기 밖으로 배어 나온다. 피 맛에, 고기 맛에, 이런 맛은 처음이다.

내가 핏빛이 벌건 불고기를 맛나게 씹을 때마다 여자의 입은 용케도 찬스에 맞춰 병긋거렸다.

여자는 집에서 자고 가라는 말은 안 했다.

엄마한테 자주 놀러 오라고 곱씹기만 했다.

아빠와 엄마는 자기들의 수요에 의해 나를 분할했고, 어느 한쪽에다 양

육권을 귀속시켰고, 자식 스스로의 어떤 수요에 따라 양쪽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특혜를 베풀어주었다. 나쁜 건 없었다. 이 좋은 여건이 나쁘다면 내가 나쁜 놈이다!

전철역을 빠져나오는데 입안에서는 한우의 감미로운 맛이 그냥 군침 돌게 했다. 저녁 노을빛이 행인들의 이마에서 곱게 부서지고 있었다. 무언가 발에 걸려 차이는 게 있다. 방정맞게 콜라 캔 깡통이다.

순간, 노인 한 분이 눈앞에서 어정거렸다. 땅을 활기라도 할 듯 굵어진 허리가 할매를 닮았었다.

우리 할매는 절대 못 말렸다. 심한 고뿔에 걸렸다고 한여름에도 겨울 내복이며 솜옷을 입혀서, 겨울 털모자를 꼭 눌러 씌워서 나를 병원에 데려갔다. 찬바람 맞으면 안 된단다. 몸이 시루에서 갓 쥘 빵처럼 뜨끈해 있었고 속에서 불이 훗훗 일었다. 병원에 도착해서 링거주사를 맞을 때 할매가 나를 품에 안고 재우며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자장자장 우리 아기, 꼬꼬닭아 우지 마라, 우리 아기 잠을 깰라. 멍멍 개야 짖지 마라, 우리 아기 잠을 깰라. 자장 자장 자장……” 열이 차츰 내리자 나의 눈꺼풀도 무겁게 처져 내렸다. 몸이 녹고 있었다. 햇빛을 받은 하얀 눈이 스르르 녹듯이, 녹아서 깃털이 되 듯이, 바람에 가볍게 나부끼고, 새처럼 날고, 꽃이 보이고, 끝 간 데 없이 하늘이 파랗게 펼쳐지고……그런데 어떤 영문인지, 어느 순간 할매의 품을 파고들며 젖을 빨고 있는 내가 보였다. 창피했지만, 기억에 오래 남는 꿈이었다. 나와 할매는 운명 공동체 같아 보였다, 어른들이 요즘 말하고 있는.

오랜만에 눈이 따끔거렸다.

새엄마가 아빠 무릎을 베고 누워 흰 팩을 붙인 얼굴을 하고 있었다. 아빠는 비스듬히 누워 티브이를 보다가 “왔니, 밥은 먹고?” 하고 묻는다. 그 여자한테 갔다가 온 줄 안다. 당연히 밥은 먹을 거라고 판단한 모양. 아빠는 나를 보며 눈웃음을 지었다. 둘은 나의 행방에 대해 이미 정보를 나누었다

는 눈치다. 그러시든지 말든지.

새엄마가 얼굴에서 껍을 떼다. “학생”, 하다가 “이 버릇 봐, 아들” 하고 일어났다. 화장실에 들어가 세면을 한 후 크림을 바르고 향수를 뿌렸다. 마주 앉으니 좋은 냄새가 났다.

“우리 계속해 볼까? 나, 이래 봐도 대학에서 국어국문과 전공했다. 우리 한국어는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어종의 하나이지. 자부심을 갖고 배워야 해, 나도 이제부터 대한민국 사람이다 하고……한국어는 형태상으로는 교착어이고, 계통적으로는 알타이 어족에 속한다고 보면 된다” 하고 새엄마는 빠른 어조로 해석을 했다.

아빠가 커피를 타서 두 잔 갖고 들어왔다. 고마운 표정을 짓고 새엄마를 바라본다. “애는 중국에서 한글을 배웠으니 빠를 거야. 한국어에 외래어가 많아 혼란스러울 수 있으나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면 금방 적응할 수가 있지.” “여보, 내 임무는 애가 한국어능력시험 3급까지 따게 하는 것, 고기까지예요” 하고 생긱거렸다.

아빠가 내 머리를 어루만졌다. “그래요, 거기까지면 됐지. 나머지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열일곱이면 자립을 해야지, 자기 길은 자기가 알아서 가야 해. 대한민국에선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공부 안되면 나하고 현장 가서 노가다나 해야 한다, 알았지?” 아빠는 두 눈을 무섭게 부릅떴다.

새엄마는 또 “학생” 하고 불렀다.

한국어는 쉽게 배워지지 않았다. 별로 흥취가 느껴지지 않았다.

우리 아파트 근처에서 분홍색 스카프를 본 것은 역시 저녁 무렵이었다. 얼굴은 조그맣고 눈은 크고 작고 예쁜 입술에 빨간 립스틱을 진하게 바른 그 처녀 애였다.

전철 2호선 대림역 5번 출구와 우리 아파트와의 거리는 300미터쯤. 코로나19 때문에 학교 정상 수업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학교 가고 싶은 마음은

꼬물 만치도 없었다. 집 근처 피시방도 문을 닫았고 게임 오락실도 개업을 안 했다.

의료용 마스크를 쓰고 나는 전철을 타고 서울 곳곳을 누볐다. 취미 하나 생겼다. 2호선 전철을 타서 돌고 돌면 제자리로 돌아온다. 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다들 하나같이 마스크로 입을 가리고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앉아있었다.

어느 시각부터 배가 고팠다. 전철은 두 바퀴인지 세 바퀴인지 돌고 돌았다. 경로석에 앉은 나는 내가 아니었다. 속이 메스거렸다. 사람들 입에 가린 마스크가 볼록볼록 붙어났다. 동그스름한 공처럼 돼갔다. 색상도 흰색, 노란색, 까만색, 이렇게 제각각이었다. 오른손 엄지로 꼭꼭 눌러놓으면 푹푹 터질 것 같았다. 오른손을 칼처럼 펴서 가로로 날을 세워 날려 보고 싶어졌다. 희한했다. 이 사람들은 왜 입에 공을 물고 있는지 모르겠다…….

물론 나는 별 탈 없이 대림역에서 하차를 했다.

그때 왼쪽 가슴이 느닷없이 투덕거렸다. 분홍색 스카프가 내 앞에서 웃고 있었다. 참말 눈이 커서 사랑스러웠다.

“네 얼굴을 보니 배가 무척 고팠겠구나, 우리 저기 갈까? GS25에 가서 라면 먹자. 나도 배고픈데……너 신라면 좋아하니?”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따라갔다.

봉지를 뜯고 소스를 넣은 다음 더운물을 부었다. 냄새가 기가 막히게 좋았다. 한우보다 더 맛있었다. “천천히 먹어.” 분홍색 스카프가 말했다. “내 이름은 구름이야. 아, 맞다. 전번에 얘기했지. 이번엔 하늘의 구름이 아니구, 땅 위의 구름……흐흐. 넌 육이 맞지?” 내 얼굴이 부드럽게 퍼지는 것 같았다.

그녀가 어디 가서 놀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순종하여 따라갔다. 한참 걷다가 그녀는 다리가 아프다며 길가에 놓인 의자에 앉아 좀 쉬자고 했다. 그녀와 등을 비스듬히 돌리고 앉자 그녀가 입을 비쭉했다. 자기 등을 내 등에 맡겨 왔다. 내 몸이 가볍게 떨렸다.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가 자세를 바로잡고 왼팔로 부드럽게 내 어깨를 감쌌다. 다른 한 손으로 굳어진 내 손을 잡았다. 손등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다. 나는 완전 멍청해 있었다. 가슴이 견잡을 수 없이 뛰었고 얼굴이 화끈거렸다. 왜……이래요? 이 말도 못 했다. 정말 싫지 않았다.

“윤구름은 말이야, 니가 남 같지 않아서 그래. 내 동생 같아. 아니, 내 동생이지. 니네 새엄마, 나하고 무슨 관계인지 알고 있니?” 나는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나의 상상 속의 얼굴보다 더 예뻐다. 참, 나한테도 이런 누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어차피 내 누나가 될 것 같았다. 정말 cut이다!

“네 새엄마 말이다. 우리, 이모야.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는 아빠도 엄마도 없거든. 아빠는 사업 말아먹고 몇 년 전에 아예 종적을 감추었고, 엄마만 그해에 딴 남자 만나 시집가버렸지. 지금 난 내 혼자 살고 있다. 가끔 외로울 때면 울 이모를 찾아가기도 하지, 네 새엄마 말이다. 그러니 우리 사이도 뭐가 되긴 되지? 흐흐.” 그녀가 나오지 않는 웃음을 불쌍하게 지어 보였다. 나는 그녀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랴도 하고 싶어졌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현재 모 화장품 회사 판매원이라고 말했다. 화장품 브랜드가 얼마나 좋은가를 누누이 설명했고, 판매 수익이 얼마나 높은가도 자랑했다. 스스로 독립해서 남 보란 듯 잘사는 것이 자기 인생의 최고 목표란다. 그러면서 예쁜 손으로 내 볼을 쓰다듬어 주었다. 오랫동안 같은 동작을 반복했다. 내 눈가에서는 뜨거운 것이 조금 흘러내렸다.

마침 그녀의 폰이 울렸다. “네, 네, 금방 찾아드릴게요……지금 다리가 아파서 쉬고 있어요. 좀 있다가 금방 찾아 전해드릴게요.”

그녀는 내 앞에 부은 듯한 발을 내보였다.

“네가 심부름 좀 해줄래? 널 믿으니까 말인데, 돈 좀 찾아주라. 통장 줄테니 저기 은행에 가서 돈 좀 찾아주렴. 수고비는 내가 두둑이 줄게. 찾을

때는 통장도 카드 쓰는 것과 똑같아요.” 그녀가 차근차근 설명하자 나는 아빠한테서 ATM 기계에서 카드나 통장으로 돈 찾는 법을 배웠노라고 했다. 아빠가 혹시 모르니, 하고 세세히 가르쳐준 적이 있다. 나를 믿어주는 것만으로 고마울 따름이다.

우리과 한 삼십 미터 떨어진 곳에 우리은행이 있었다. 나는 ATM 기계로 그녀가 알려준 비번을 넣고 돈을 찾기 시작했다. 5만 원권으로 백만 원씩, 일곱 번을 찾았다. 그녀가 수고비 백만 원을 주겠다고 한다. 그녀만 따라다니면 아빠한테 손 안 내밀고도 소비돈은 푼히 벌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나도 떼뻗해질 수가 있고 사람 구실 좀 하고 다닐 것 같았다.

ATM 기계에서 돈을 찾아 가방에 넣고 나서는데 누군가가 길목을 막아섰다. 50대쯤 보이는 아저씨였다. 곁에는 윤구름의 손목을 잡은 또 한 명의 나이 든 아저씨가 장승처럼 서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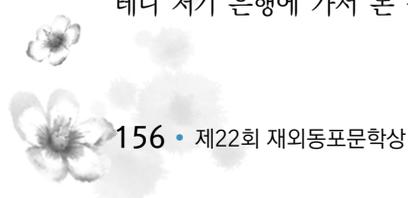
“이봐, 너, 그 가방 이래 내고 우리 따라가자. 순순히, 경찰서에 가서 다 불어라. 안 그러면 너희들 감방에 처넣을 거다. 인생 한번 폭삭 썩어봐라.” 사복 경찰들이었다. 나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뭐가 뭔지 갈피가 잡히지 않았다. 어쨌거나 감방에는 절대 갈 수 없었다.

분홍색 스카프가 눈물을 흘리며 애처롭게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디서 그런 답이 생겼는지 몰랐다. 순간 나는 오른발로 아저씨의 사타구니를 걷어찼다. 아저씨는 ‘억’ 하고 앞을 거머쥐며 꼬꾸라졌다. 동작이 연발 나갔었다. 윤구름을 잡고 있던 아저씨도 폭삭 꼬꾸라졌다. 돌려차기가 아주 정확했다. 달밤에 혼자서 자유 격투기를 연마한 보람이 있었다. 전혀 상상을 못 했던지 두 아저씨는 속수무책으로 당한 듯싶었다.

우리는 손을 잡고 뛰기 시작했다. 잘 뛰지를 못했지만 이 골목 저 골목을 찾아 죽기 살기로 뛰고 또 뛰었다.

어디가 어딘지 모를 골목에서 잠깐 멈춰 섰다.

윤구름이 내 목을 끌어안고 썩썩거렸다. “고마워, 네가 날 살렸구나. 넌,



내 동생이다. 잊지 않을게.”

그녀의 숨소리는 정말 달콤했다. 나의 손도 어느새 그녀의 허리를 껴안는 모양새가 됐다. 난생처음 나는 내가 모를 동작을 하고 있었다.

“넌, 이런 일 하지 마……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공부 잘하고, 좋은 사람이 되거라. 알았지?” 그녀가 다짐을 거듭했다. 나의 볼에는 그녀의 붉은 입술 낙인이 뜨겁게 찍혀졌었다. 손에도 5만 원권 한 묶음이 쥐어졌다.

우리는 다시 손을 잡고 뛰기 시작했다.

윤구름의 손은 정말 느낌이 좋았다. 힘이 없고 약한 것 같은데 나를 끌고 뛰니까 마술 같은 손이었다. 어디까지고 따라가고 싶어졌다. 갑자기 새엄마가 윤구름의 이모가 아닌 친엄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에게 다른 세상이 열리고 있는 것 같았다.

집에 들어오자 나는 방문부터 닫아걸었다. 꼼작하지 않고 벽에 기댄 채 눈을 감고 앉아있었다.

손목에 찬 스위스산 뚜르비옹 시계 초침 소리는 내 심장에 붙어서 똑딱거렸다. 아빠가 말해 주었다. “이놈 진품은 세계에서 값이 제일 비싸다. 지속적인 회전을 통해 시계에 가해지는 중력의 영향을 상쇄시키지. 1분마다 일정하게 회전해 손목의 움직임이나 위치에 관계없이 중력의 영향을 균일하게 받도록 설계됐는데 진품은 한화 6억 원쯤 한다…….” 중력의 영향을 균일하게 받도록 설계됐다? 그 말이 뭔지 잘 모르지만, 지금 내 심장이 왜 이리 뛰고 있는지는 알고 싶다. 그래서 이게 진품이란 말인가 아니란 말인가?

윤구름의 얼굴이 눈앞에서 얼른거렸다. 사타구니 가운데 그놈이 염치 없이 살아나고 있었다. 사춘가가 다 지나간 것 같은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했다.

아빠가 방문을 두드렸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옥아, 잠자니? 문은 왜 잠갔지? 할매가……휴.” 안 좋은 느낌이 내 심장

의 시계 소리를 멈춰 세웠다.

할매가 왜? 나는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놀라지 말거라. 할매가 오늘 저녁 8시에 운명하셨다는구나……방금 이웃집 재호 아저씨한테서 전화 왔더라. 코로나 땀에 비행기도 뜨지 않으니 이걸 어떡하면 좋지? 아침에 은행 가서 재호 아저씨한테 돈을 좀 보내야겠다……” 아빠는 걱정이 태산이다. 별로 슬퍼하지는 않는 목소리다.

할매, 하고 나는 사타구니에 얼굴을 파묻었다. 할매가 두 발을 오므리고 누워서 입을 반쯤 벌린 채 코를 곤다. ‘나 여기가 편하다. 내가 왜 니네 남조선 가서 살겠니?……’ 웃기는 할매가 괜히 죽었다고 웃기고 있었다.

한밤중에 내가 등을 새우처럼 꼬부리고 잠을 자는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불을 끌어당겨 내렸다. 간 떨어질 뻔했다. “니 바보 아이가? 냉혈동물이 가?……잠을 왜 이 따위로 자노?”

할매는 죽었다면서도 나를 못살게 굴었다.

# 2020 재외동포 문학의 창



## 대 상

슬기로운 이방인 생활

- 김진아 (프랑스)

## 우수상

한국 햄버그

- 방종석 (아르헨티나)

시베리아 찬바람속에서 11년 인생살이

- 리삼민 (중국)

## 가 작

자아 정체성, 동포3세 이야기

- 차바실리 (카자흐스탄)

나의 이름은 태양

- 류모니카 (미국)

아이들과 독일에서 산다는 것

- 박에스터 (독일)





## 슬기로운 이방인 생활

- 김진아 (프랑스) -

집 근처 슈퍼는 문을 닫은 저녁.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까이 있는 아랍 가게에 들렀다. 물건도 많지 않고 가격도 일반 슈퍼보다 비싸지만, 시간이 시간이라 선택권이 없었다. 프랑스에서 자정을 넘어서까지 문을 여는 곳은 이런 곳밖에 없다. 일하는 사람은 인도에서 온 삼 형제들이었지만 언제부터인가 으레 이렇게 늦게까지 하는 동네의 작은 슈퍼들을 아랍 가게 혹은 아랍 슈퍼라 불렀다.

같은 학교의 한국인 친구와 전화를 하며 싸구려 와인과 간단한 요깃거리를 샀다. 밖으로 나오니 한 프랑스 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쳤다. 웬지 그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가볍게 목례를 하고 습관적인 저녁 인사를 건네려 할 때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가 너무 낮고 희미해 한 발짝 더 다가가야 했는데, 그의 푸른색 셔츠에선 아주 오래전 할머니 집의 살짝 콧 냄새가 났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한국인이라고 말하고 곧바로 얼마 전에 죽었다고도 덧붙였다.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녀가 남긴 짐 중에 한국어로 된 책이 많아 혹시 받아 갈 생각이 없느냐는 거였다. 흘린 듯 그 자리에서 전화번호를 주고 헤어졌는데 그 사라질 듯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웅웅, 귀에 남아 울리는 듯했다.

집으로 돌아와서 한참을 고민했다. 현대인으로 응당 떠오르는 의구심, 불안감. 혹여 이상한 사람이 아닐까, 붓짐을 들어달라고 부탁한 할머니를 따

라가다 납치를 당했다던 한국의 유명한 괴담처럼 어디론가 잡혀가는 것은 아닐까 하고도 생각했다. 이상하게 무섭지는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집 주소와 현관 코드, 찾아오는 길, 방문 가능한 시간이 꽤곡히 적힌 긴 메시지가 도착하자, 나는 망설임 없이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다른 날 약속을 잡아보려고 했지만 서로 시간이 맞지 않아 오늘 밤도 괜찮으나 그가 물었다. 지금 본인은 다른 곳에 있지만, 그 집으로 바로 돌아가겠다고, 이사를 준비하고 있어 집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돌아갈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조금은 다급하게, 거듭 말했다.

약속 시간은 10시 30분. 그에 맞춰 10시 20분쯤 집을 나섰다. 남은 10분이 무색하게 그와 그의 아내였을 사람의 집과 내 집은 겨우 한 블록 정도 떨어져 있었다. 항상 누가 이런 곳에 살고 있을까 궁금증을 자아내는 고풍스러운 오스만 양식의 아파트였다. 코드를 누르고 들어가자 로비에서부터 난방이 훈훈하게 틀어져 있었다. 불 켜는 스위치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아 결국 난간을 더듬거리며 단단한 대리석 계단을 올랐다. 어두운 복도 사이로 빛이 보였다. 할아버지가 뚝뚝 커다란 문을 열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내가 앞으로 도착하자 말없이 살짝 비켜주었다. 현관에서 이어진 복도를 지나 불 켜진 거실은 상상 이상으로 넓었다. 나무로 된 마룻바닥과 벽 장식, 조명들은 오래되어 편안한 느낌을 주었는데 바닥에는 이삿짐 박스들과 아직 채 정리되지 못한 짐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다. 불박이 책장에는 몇 권의 프랑스어 책들과 몇 장의 사진이 있었고, 중앙 벽난로 위엔 커다란 거울이 있었는데 그 앞엔 크고 작은 청동 조각들이 가득 장식되어 있었다. 물끄러미 조각들을 바라보자 그는 자신의 아내가 아티스트였고, 검정 조각들이 그녀의 작품임을 설명해 주었다. 조각 작품을 주로 만들었던 그녀의 이름은 경애, 라고 했다. 경애. 그 두 글자만은 또렷이 한국어로 발음되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알파벳 읽듯 한글을 읽을 수 있지만,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 한국어로 적힌 그녀의 책을 가능하면 다 가져가 주면 좋겠다고 말했

다. 원한다면 몇 번이고 책을 가지러 와도 된다고 하는 그의 말처럼, 거실 한편에 널브러진 열댓 개의 박스들 속에 책들이 아주 많이 담겨 있었다. 종교 서적과 소설, 시집, 언론 잡지, 교육서, 세월에 갈변한 오랜 책들부터 최근 출판된 베스트셀러까지. 한 번 쓱 훑어보니 온갖 장르의 책들이 무작위로 담겨 있어 상자 하나하나를 뒤적여 볼 수밖에 없었다. 박경리의 『토지』 같은 대하소설도 한 권은 이쪽 상자에 다른 두 권은 저쪽 상자에 흩어져 있었다. 그녀는 다독가였던 게 틀림없다. 상자를 들추며 한 권 한 권 고르는 나를 할아버지는 거실 구석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던 그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와 경애 씨의 30년간의 결혼 생활, 상하이에서 공부했던 한국어보다 중국어를 더 잘한다는 그들의 딸들의 이야기. 작고 건조하게 풀어내는 목소리에 그 시간의 흐름이 묵직하게 퍼져왔다. 왜 이사를 결정했냐는 나의 질문에 혼자 살기에는 너무 넓지 않냐며 슬쩍 웃어 보이는 그를 보면서, 이제는 만날 수 없는 이의 자취를 본인의 손으로 정리해 나가는 기분은 어떨지 생각했다. 감히 상상해 보건대 읽지도 못하는 그녀의 책들을 그는 마냥 버릴 수 없었을 것이다. 그의 아내와 동향인 사람을 찾아 그 동포에게 유품과 같은 그녀의 책들을 전달하려 했을 것이고, 우연히 아랍 슈퍼에서 들려오는 한국어를 듣고 문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을 할아버지의 마음이 따뜻하고 아렸다. 참 조용히도 슬펐다. 다시 우리는 말이 없었다. 직접 가져간 가방도 부족해 비닐봉지에 가득 책을 담고서 다시 찾아와도 된다면 거듭 강조하던 그를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비가 가득 쏟아졌다. 축축이 내려앉은 공기로 낡은 책에서는 기억의 냄새가 나는 듯 했다.

한여름 밤의 꿈결 같은 일이었다. 프랑스에 온 지 10년이 다 되어갈 즈음이다. 예술과 문화의 나라에서 직접 미술사를 공부해 보겠다는 열정 가득했던 스물 초반의 나는 이제 마냥 어리다고 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다. 프랑스에 자리 잡은 한인 분들에게 명함도 내밀기 힘든 짧은 세월일지도 모르지만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은 나를 많이 바꿔놓았다. 시간이 흐르면서도 바뀌지 않는 건, 프랑스는 여전히 나에게 멀고도 골치 아픈 나라라는 점이다.

‘프랑스는, 얼굴은 엄청 예쁜데, 성격은 엄청 더러운 애인 같아. 화가 울컥 나서 소리를 지르려고 돌아본 그 예쁜 얼굴 때문에 마음이 녹아버리거든.’ 프랑스 생활 7년 차였던, 어학 시절부터 동고동락해 온 친구가 밤의 루브르를 함께 걸으며 했던 말이다. 밤의 하늘은 맑았고 관광객은 많지 않았던 날로 기억한다. 마침 오른쪽 멀리 보이는 에펠탑이 정각이 되어 수백의 하얀 전구들이 반짝거렸다. 말 그대로 더럽게도 예뻐다. 이 말을 남기고 그녀는 더는 예쁜 얼굴 뜯어먹고는 못살겠다며 짐을 싸서 한국으로 귀국했지만, 그녀가 했던 이 말만큼은 그 위트와 공감감이 섞여 내 마음속에 남아있다.

딱 그 정도의 거리였다. 미우면서 고운 애증의 나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뒤통수까지 세계 맞고서야 처음 환상에 젖어있던 프랑스에 대한 공감이 벗겨지기 시작했다. 이 나라는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 한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는 곳이다. 지하 방역으로 도망 나온 쥐들이 우리 집에 둥지를 틀어 그들과의 불편한 동침도 해보고, 재수 움 붙었다던 움이 얼마나 지독한지 알게 되었다. 은행, 보험 같은 행정 처리는 끔찍이도 느리고, 어떤 일든 한 번에 처리되는 게 없다. 병원 한번 찾아가려면 몇 주를 각오하고 예약을 한다. 오매불망 기다리던 택배는 집에 사람이 없었다며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하고, 인터넷 설치는 3주가 걸린다. 포기를 배운다. 이는 나이를 들어가며 자연스러운 단계이겠지만 연고 없는 타국에서는 더욱 서글프고 처절한 느낌이 든다.

외국인의 삶은 증명의 연속이다. 매년 내가 지난 한 해를 어떻게 보냈는지 다음 해에는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서류로 제시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경제적 여유가 있는지도 확인되어야 한다.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을 받아주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국가는 정당성을 요구한다. 당연한 이치이지만 적용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이다. 프랑스에서의 체류증 갱신은 거의 전쟁터

에 나가는 것과 같다. 체류중에 명시된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에는 연장 신청을 해야 하지만, 파리를 제외한 다른 구역은 인터넷 예약시스템이 엉망이다. 이 때문에 파리로 이사 오기로 결정했을 정도였는데, 예약할 수 없으니 무조건 일찍 도착해 번호표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엄청난 경쟁자의 수. 그날 담당자를 만날 수 있는 안전한 번호를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아침 6시쯤은 도착해 있어야 했다. 해도 뜨지 않은 추운 새벽에는 언제나 먼저 도착한 사람들이 가득했다. 그들과 함께 오들오들 떨면서 기다리다 9시 30분이 되면 무장한 경찰이 나와 문을 열고 방문 목적과 서류를 간단히 확인한다. 건물에 들어가서 번호표를 받고 또다시 내 번호가 불리기를 전광판을 보며 오매불망 기다린다. 오후 2시쯤, 내 차례가 되면 후다닥 창구로 달려가 담당자에게 서류들을 내민다. 하루에 수백 명의 유학생, 이민자, 불법 체류자를 만나는 프랑스인 담당자들은 대다수 굉장히 불친절하다. 분명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그들 역시 답답할 터이다. 그중에서도 까탈스러운 사람을 만나 심기를 건드리면 바로 서류가 부족하다며 쫓겨날 수도 있어 그 앞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웠다. 웃음기 없는 사람들 앞에서 화가 나도 웃었다. 불어가 많이 어눌하던 처음 몇 년간은 세상 그리 서러울 수가 없었다.

우리는 왜 이방인의 삶을 고집할까. 일 때문에, 공부를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서, 자신만의 꿈과 이유를 품고 타국에 도착한 사람들은 아무리 그 목표가 뚜렷하다 해도 낯선 토양에 적응하기는 쉽지 않다. 말은 잘 통하지 않고 어디를 가던 고향을 떠나온 외국인, 이방인이라는 신분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 학교나 직장에 소속되어 있지만, 무언가 붕 떠있다는 느낌이다. 문화적, 의식의 차이가 벽을 만든다. 나 역시 10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여전히 프랑스어가 어렵고 지나가는 어린아이의 유려한 말솜씨를 보고 좌절할 때도 있다. 크리스마스에 초대받은 친구의 집에서 웃고 떠드는 그와 그 가족들을 보면서 즐겁지만 쓸쓸함을 느낀다. 수없이 많은 와인 병을 비웠지만, 비가 오면 떠오르는 것은 막걸리요, 상사에게 와장창 깨진 날이면

소주가 그렇다. 여전히 상송보다는 한국 가요를 즐겨 듣고 심지어 요즘은 트로트가 그렇게 심금을 울릴 수가 없다. 프랑스는 결코 나의 모국이 될 수 없다.

한 번쯤은 얼굴을 비추라는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기는 척 표를 끊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나는 처음 여행을 하는 사람처럼 묘하게 들떠 있었다. 잠이 오지 않아 괜히 이런저런 영화를 틀었다 끄기를 반복하는데 가슴이 간지러웠다. 할머니의 품, 시끄러운 친구들, 대학로 앞의 순대볶음과 나의 취향으로 가득한 내 방 따위의 그리움들 때문이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부산으로 가기 위해 경유를 해야 했는데, 겸사겸사 하룻밤 정도 친구의 얼굴을 보고 가지 싶어 성남에 있는 친구 집으로 향했다. 중학교 시절 공부를 지지리도 못했던 나와 내 친구들을 우리 어머니는 모지리 클럽이라 불렀는데 모지리 클럽에서 가장 먼저 시집을 가서 서울로 상경한 친구였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위층에 살고 계신 친구의 시어머님께 인사를 드리고 내려왔다. 안면이 있던 동갑내기 남편은 오랜만에 두 사람끼리 회포를 풀라며 밖으로 나가주자 더욱 신난 우리는 짜장면과 치킨을 배달시키고 맥주 캔을 폈다. 친구에게 한 잔 따라주려니 친구가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임신 3주 차라고. 초음파 사진을 보고 괜스레 눈물을 흘리는 나의 등을 친구가 한 번 짝 때리더니 구수한 사투리로 말했다.

“근데, 엄마가 계속 고양이 내보내라 한다가. 아 한테 고양이 안 좋고, 고양이 있으면 아 떨어질 수도 있고, 털 때문에 아 건강 안 좋을 수도 있다고. 근데 우째 그라노. 야도 내 새끼데 우째 그라난 말이다.”

나의 친구는 남편의 어머니를 엄마라고 불렀다. 자기 아들을 따라 타지에 올라온 그녀를 시어머니도 딸이라고 부르며 살갑게 대해 주셨다. 첫아이의 기쁜 소식과 함께 아이 낳는 집에 털 짐승은 액운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내쫓으라는 엄마와 자신의 늙은 고양이를 지켜내려는 딸의 실랑이가 이어지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녀는 서울이 아직도 낯설고 외롭다고 했다. 부산보

다 몇 배나 넓은 이곳은 사람들도 몇 배나 바쁘다고. 시대를 제외하고는 사람 만날 일이 없고, 다니는 직장도 사무적인 분위기라 고양이까지 없으면 자신은 쓸쓸해 죽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프랑스에 있는 동안 한국어 말주변도 떨어졌는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던 나는 눈물을 툭툭 흘리는 그녀의 등을 짝 소리 나게 때렸다.

다음 날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서울역으로 갔다. 핸드폰으로 표를 예약하려 했지만, 본인 인증을 위해서는 한국의 휴대폰 번호가 필요했다. 생각지도 못했던 복병이었다. 한국의 전화번호가 없는 나는 나를 인증하지 못했다. 어쩔 수 없이 역에서 가장 가까운 시간으로 직접 표를 사야 했다. 창구는 사람들로 꽤나 붐비고 있었고 비교적 한산한 티켓 판매기로 갔다. 버튼을 누르려는데 누군가가 바짝 나에게 다가왔다. 소매치기가 싶어 깜짝 놀라 돌아보니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급하게 돈을 내밀고 있었다. 7분 뒤에 출발하는 기차를 꼭 타야 하는데 현금밖에 없어 기계에서 표를 사지를 못한다고, 자신이 현금을 줄 테니 내 카드로 대신 사달라는 것이었다. 다급한 그의 말투는 파리에서 들었던 북한 식당 종업원의 연변 사투리를 떠올렸다. 그의 얼굴에서 떨어지는 땀방울과 내미는 오만 원권은 무언가 절박해 나는 부산이 아니라 구미로 가는 표를 끊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전히 귀에 익숙지 않은 억양으로 잔돈은 되었다며 표를 낚아채 급히 달려가는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 있기에 저리도 바쁠까. 4분 남짓의 시간 동안 그는 자신의 기차를 찾아 몸을 잘 실었기를, 그리하여 어떤 사연인지 몰라도 구미에 무사히 도착하였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 번 표를 끊었다.

부산역에 도착하자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차하는 사람들 속에서 나를 발견한 두 사람의 얼굴에 꽃이 폈다. 내 기억보다 조금 마르고 조금 더 주름진 손을 붙잡고 차에 탔다. 엄마는 보조석 대신 뒷좌석에 앉아 집에 도착할 때까지 나의 손을 놓지 않았다. 한번 울기 시작하면 차 안이 눈물 바다가 될 것 같아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오래된 도시 고속도로를 타고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은 어딘지 모르게 어색했다. 산턱 중간중간에는 아파트들이 볼록 솟아있고 벽면에는 황제 같은 이름이 대문짝만하게 적혀 있었다. 높다란 건물들이 답답했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는 말처럼 고 몇 년간 낮은 건물에 눈이 익어버린 모양이다. 집에 도착해 우리 어여쁜 할머니를 만나고 아버지와 공항에서 사 온 와인을 마셨다. 술 한잔에 얼굴이 벌게지는 엄마도 이날은 함께 마셨다. 프랑스에 있을 때도 자주 연락드린다고 생각했건만 새벽까지 질문이 쏟아졌다. 와인 한 병으로 얼큰하게 취했다. 가성비 좋은 밤이었다. 원래의 내 방은 다른 집으로 가득했지만 잘 정돈되어 있었다. 부모님은 여전히 부지런했다. 퇴직하신 아버지는 아침 일찍부터 등산을 하러 가고, 엄마는 시에서 운영하는 카페에 시니어 바리스타로 채용되어 일주일에 세 번 출근했다. 손님이 없어도 너무 없다며 걱정하는 그녀의 얼굴은 생기가 넘쳤다. 두 사람의 삶은 마치 정해진 듯 규칙적이었고 함께 혹은 각자의 리듬에 맞춰 흘러가고 있었다.

늦잠을 자고 일어나면 집이 텅 비어있는 경우가 허다했다. 느릿하게 외출 준비를 하고 나서면 엘리베이터를 탄다. 계단을 이용할 필요가 없음을 기뻐하다 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 탄 지하철의 쾌적함에 감탄했다. 새삼 너무 편안하여 어색할 지경이었다. 친구와 부산대학교 근처 예전에 자주 가던 허름한 순대볶음 집을 찾았지만 귀여운 버블티 가게로 바뀌어 있었다. 거리는 지나다니는 사람이 아주 적었다. 분명 새벽까지도 북적거리는 거리였는데, 라고 중얼거리자 이제는 경성대학교 앞이 대세야 라고 친구가 대답했다. 20년 넘게 살아왔던 이곳이 이상하게 낯설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다. 나는 살이 췌다. 그동안 걷지 않고 많이 먹었다. 가서는 살 좀 빼라는 엄마의 목소리가 울먹였다. 영원히 헤어지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 핀잔을 하며 함께 울었다. 공항 검색대에서 기다리는 동안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부모님이 보였다. 잠깐씩 열리는 공간 사이로 내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그들은 그곳에 서있었을 것이다.



## 한국 햄버그

- 방 종 석 (아르헨티나) -

비행기 안에서 문득 얼굴도 모르는 경애 씨가 떠올랐다. 언젠가 서로 지나쳤을 지도 모르는 경애라는 이름의 사람. 누군가의 딸이었을 경애 씨. 할아버지의 아내였을 경애 씨. 두 딸의 엄마였을 경애 씨. 한국에서 태어나 8999km 떨어진 프랑스에서의 삶을 택한 경애 씨. 그녀는 본인이 고향이 아닌 곳에서 눈을 감으리라 예상했을까. 가족의 품에서 조금은 덜 외로웠을까. 경애 씨의 죽음은 세상 모든 이방인의 삶을 생각하게 했다. 단어의 기원처럼 다른 나라의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이방인들. 수많은 문들 뒤로 내가 아닌 타인의 삶들이 있다. 이방인으로서 우리는 집주인의 허락이 있어야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경험하고, 나누게 될 것이다. 나도, 경애씨도, 고양이를 껴안고 울던 모지리클럽의 친구도, 14,200원을 나에게 남긴 이름 모를 아저씨도, 내가 없는 집에서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는 나의 부모님 모두 각자의 길을 따라 그 선택의 무게를 견디면서 살아가는 이방인이다.

드디어 7시간 늦은 세상에 도착했다. 택시를 타고 돌아와 여행용 가방을 끌고 킁킁대며 5층의 계단을 올랐다. 열쇠로 문을 여니 습기에 내려앉은 먼지 가득한 공기가 나를 맞이했다. 다녀왔어, 라고 아무도 없는 집에 인사했다.

1998년 2월 14일 부산 김해공항 출국장. 아직은 찬 공기가 2월의 겨울 끝자락을 잡고 낙동강 강바람의 냉기를 뿜내고 있었다. 잠시 후면 지구 반대편으로 떠날 사람과 또 그 가족을 보내야 하는 사람들이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많이 아쉬워하는 얼굴의 어른들과는 다르게 작은아들 또래 아이들은 두꺼운 겨울옷을 입고도 땀이 날 정도로 이리저리 공항 대합실을 쫓아다니며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내가 꼭 2 주 전인 1월 31일 자로 다니던 은행에서 희망퇴직을 하였고 그 길로 우리 가족이 나선 이민의 출발선에 서있는 순간이다. 당시 불어탁친 금융 위기로 철 밥통에 고임금이라던 은행도 구조 조정이 불가피한 분위기였기에 미리 준비를 했던 것이다.

‘잘 있어라’, ‘잘 가라’ 몇 마디뿐, 서로 간의 긴 이별이 시작되었다. 우리 네 식구는 별 말없이 비행기에 올라 아내와 내가 나란히 앉고 바로 뒷좌석에 두 아들이 앉았다. 미련이 남아있듯이 비행기도 활주로를 길게 천천히 움직이더니 곧바로 무거운 동체를 쳐들고 구름을 뚫고 이륙하였다. 잠시 등받이에 온몸을 의지한 채 눈을 감았다. 어젯밤 마신 술 탓인지 머릿속에 그려진 이민 생활의 그림은 그렇게 선명하지 못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준비가 소홀했던 수험생 기분이었다. 비행기가 평행을 잡고 구름 위에 올라서자마자 뒷자리에 앉아있던 두 아들 쪽이 심상치 않게 조용했다. 작은아들이

갑자기 훌쩍거리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엉엉 소리를 내며 울기 시작했다. 이웃해 있던 승객들이 작은아들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때 큰아들은 한 손으로 동생 등을 토닥거리며 한마디 건넨다. “와 우노, 우리 식구 잘될라고 가는데 우지마라.” 그러는 큰놈의 눈에도 이미 눈물이 콕 차있었다. 비행기는 아직도 대한민국의 상공에 떠있었지만 아주 긴 이별을 예감했다. 얼마나 더 잘되기 위하여 저렇게 울며불며 이 나라를 떠나는지 잠시 머릿속이 까맣게 되었다.

2월 14일 한국을 떠난 비행기는 미국과 브라질을 거쳐 거의 하루 반나절 만에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우리를 내려놓았다. 이민에 성공한 동서 집은 까삐탈(Capital, 부에노스특별시)에 있었고 크고 넓었다. 당분간 동서 집을 임시 거처로 지내기로 했다. 가방을 풀어 꼭 필요한 일부 물건만 꺼내어 더부살이 생활이 시작되었다. 처음 몇 날은 시차적응 관계로, 미래에 대한 복잡한 머리로, 밤낮이 바뀌어가며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다. 당장 급했던 것은 말을 배워야 했다. 일단 아이들 공부를 위하여 가정교사를 통해 스페인어 개인 교습을 시켰으며 나도 어깨 너머로 한마디씩 익혀 나갔다. 처음에는 내가 제일 빨랐고 그리고 큰아이가 빨랐는데 갈수록 작은아들이 더 빠르게 적응해 갔다. 아이들 공부를 미룰 수가 없어 도착 며칠 만에 초등학교 작은아들을 인근 공립학교에 전학을 시켰다. 때마침 학기가 시작되는 시기에 공립이기 때문에 아무 말 한마디 못하는 아들의 입학이 받아들여졌다. 선생이 “네 이름이 뭐냐?”고 스페인어로 물었지만 아이는 울음으로 대신할 뿐이었다. 대부분의 한인들은 자녀를 사립학교에 등록시키지만 이미 그때에는 사립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태였다. 중학생이던 큰아이의 등록은 쉽지 않았다. 아르헨티나에는 초등학교(7년제)부터 낙제 제도가 있어 매 학년마다 학교에 등록 수속을 해야 했다. 그때는 이미 사립학교 대부분이 정원이 찬 상태였다. 큰아이는 이웃을 대동하여 여러 군데를 다니다 겨우 크지 않은 사립 중학교(5년제)에 등록을 시켰다. 날이 갈수록 작은아이는 한마디씩 배워가며

적응하는 듯했으니 큰아이는 많이 힘들어했다.

그렇게 정착 준비를 조금씩 하고 있는 중에 동서의 지인이 운영하는 소매 옷 가게 계산대를 좀 봐달라는 요청이 왔다. 주인 부부가 한국 다녀올 동안 카운터를 한국 사람이 좀 봐주면 좋겠다는 것이다. 말도 배울 겸 우리 부부는 250킬로 남짓 거리의 그 가게로 갔다. 기본적인 인사말인 올라(hola, 만날 때 인사), 짜우(chau, 헤어질 때 인사)도 모르면서 가게 계산대에 앉아 금고지기를 했다. 고객 응대나 판매는 현지 고용된 직원들이 하고 우리 부부는 돈만 계산했다. 처음 접한 지방의 소매 가게는 상당히 큰 매장 규모였고 판매 종업원을 여러 명 고용하고 있었다. 거의 한 달 가까이 가게를 봐주면서 꼭 필요한 숫자는 많이 배울 수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결정하지 않은 우리 부부는 소매 가게로 ‘돈 벌 수 있겠다’는 생각에 하게 되었다.

거의 한 달 가까이 평생 처음 해보는 ‘옷 장사’ 경험을 하고 다시 까삐탈로 돌아왔다. 그날 저녁 두 아이들은 잠을 자고 있었고, 우리 부부는 내일부터 닥칠 또 낯선 일을 의논하며 잠을 설치고 있을 때였다. 큰아들이 몸을 뒤척이면서 큰 소리로 잠꼬대를 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 부부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냥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나는 한국 햄버거가 더 맛있다”라는 잠꼬대를 들었기 때문이다. 인상을 쓰고 몸을 뒤틀며 고통스럽게 내뱉은 말은 충격일 수밖에 없었다. 지구 반대편에서 또 부모 없이 한 달 가까이 이모 집에서 두 형제가 마음고생을 많이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침에 아들을 조용히 불러서 물어봤다. “요즘 힘드냐?” 돌아오는 아들의 답은 예상했던 것이다.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말을 하고 하물며 개나 돼지도 말하는데 나만 말을 못해서 답답했어요”라는 것이었다. 게다가 우리가 없는 동안 동서네 아이들과 작은아들이 서로 부딪치며 충돌도 있었다는 이야기도 같이 들려줬다. 한마디로 역장이 무너졌다. 쉽게 있을 수 있는 집주인과 더부살이로 얽혀사는 입장 차의 설움이었다. 중 3학년으

로 이민을 와서 학업에 대한 충격과 동생들이 다투는 모습을 보고 많이 힘들어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을 떠난 지 한 달여 만에 동서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비숙련공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쉽지 않은 적응이었지만 여차피 항구를 떠났으니 도착항의 등대를 찾아야만 했다. 단추 기계 앞에 앉아 단추도 달고 완제품의 마지막 공정인 다림질도 하면서 그렇게 꿈을 키우고 있었다. 그러다가 고민 끝에 이미 준비되어 있던 동서네 다림질 공장을 조금 더 확장하여 내가 맡기로 했다. 이민 가이드가 되어줄 것으로 믿었던 동서가 별말이 없어 빨리 분리하여 나오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동서네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의 제품도 받아 일을 하기 시작했다. 전날 작업한 것을 옷걸이에 가지런히 걸어 이튿날 가게 문 열기 시작하는 새벽에 납품을 하여야 했다. 손수레에 싣고 시장을 누비며 의뢰했던 가게로 납품했다. 손수레를 끌고 상가를 돌며 납품하는 것이 좀 쑥스럽긴 했지만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나의 과거 이력을 알고는 '잘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왜 좋은 직장 치우고 장돌뱅이 하러 왔느냐'는 것이다. 아르헨티나는 이미 경제가 어려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던 것이다.

큰 비전도 목표도 없이 그냥 동서네 가게 공장일 도우면서 내 사업이라고 막 시작한 다림질 공장에 겨우 익숙해져 가는 4월 어느 날 우리에게 또 하나의 시험대가 주어졌다. 살고 있던 까삐탈에서 80km 떨어진 지방 소도시 사라떼(zarate)로 이사를 하게 된 것이다. 동서의 아는 사람이 소매 가게로 돈을 많이 벌었고 조만간 캐나다로 이민을 간다 하니 '그 가게를 인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아무 생각도 없었고 더욱이 지방으로 떠나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나이가 40이 넘어 내 맘대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내가 답답하기도 했지만 낯선 땅에서는 초보일 수밖에 없었다. 현지의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던 내 탓일 뿐이었다. 우리 네 식구는 이민 올 때 1인당 각자 두 개씩 가지고 온 이민 가방 여덟 개를 다시 대충 꾸러서 동

서가 소개해 준 그분의 승합차에 싣고 사라떼로 향했다. 한국에서 아르헨티나로 오던 여정보다 더 먼 느낌으로 또다시 난민의 길로 떠나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날 저녁 지구 반대편에서 처음으로 우리 네 식구만 둘러앉아 저녁식사를 했지만 뇌리에는 딱히 누구에게 할 것도 없이 원망과 자책뿐이었다. 아내도 친정 식구를 따라 이민 온 것에 대하여 약간은 불편해할 것 같았다. 혹시나 세월이 더 흘러 누구한테든 원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우리 부부는 약속을 했다. 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누구 때문에 이민 왔다'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아직 현지 사정도 말도 잘 모르는 상황이라 모든 것이 그분 가족들의 힘으로 준비해 나갔다. 집을 대충 정리하고 아내는 그분이 하는 옷 가게에 점원으로 취직을 했다. 일단 수입이 필요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전업주부이자 은행원의 아내로 살았는데, 현지 점원 유니폼을 입고 일하는 모습을 쳐다보는 것은 나에게 힘든 일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가족은 애당초 캐나다로 이민 갈 생각이 없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한국에서 사람 좋아하고 어울려 살던 우리 부부는 아는 사람이라고는 그분 한 집뿐인데 버티기 쉽지 않았다. 정확한 표현은 거기에 살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한국에서 노동운동을 함께했던 노총위원장한테 그 상황을 담은 편지까지 쓰기도 했었다. 짧지만 서너 달 만에 뭔가 첫 단추가 잘못된 것 같아 그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발버둥이었다. 그때서야 이민 대차대조표를 살펴본 것이었다. 무엇이 득이고 무엇이 실인지 조금씩 보였다. 저녁에 두 아들을 불러놓고 가족 회의를 했다. "우리 식구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겠다. 할머니도 보고 싶고 고모들도 보고 싶다"라고 했다. 이때 큰아들은 "아빠가 가자고 하시면 가야지요"라고 했지만 작은아들은 대답이 달랐다. "할머니도 고모도 여기로 오시면 되지 왜 우리가 가야 돼요?"라는 말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작은아들은 벌써 말도 좀 배워가고 현지 적응이 형보다 빨랐던 것이다. 만약 내가 하던 일이 한국에 나가서 다시 할 수 있었다면 바로 U턴했을 것

이다. 은행이 아니더라도 딱히 다른 일을 할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아내는 가게 점원으로 나는 간간히 그 집 가게 허드렛일을 도우며 대책 없는 생활을 했다. 아이들의 학교도 영주권이 없어 사립학교에 정규 학생이 아닌 학년 졸업 인정이 안 되는 청강생으로 등록하였다.

이민 생활에 있어 영주권 취득과 아이들 학교 전학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다른 나라보다 불법체류에 대한 통제가 덜한 아르헨티나이지만 생계나 학업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영주권이다. 처음 이민을 마음먹었을 때 확인차 다짐을 하듯이 물어본 것이 바로 이런 문제였다. ‘영주권 취득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가?’, ‘내가 할 일이 있느냐?’, ‘애들 학교는 문제가 없는가?’ 이 세 가지를 확인하고 싶었다. 이미 정착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의 대답은 ‘아무 문제 없다’ 였다. 닦쳐보니 막상 쉬운 것이 하나도 없었다. 생계를 위한 할 일도, 애들 학교 전학도, 영주권 취득도 쉬운 것은 없었다.

영주권 신청 과정을 생각하면 아찔하다. 아르헨티나가 원칙적으로 이민 국가이긴 하지만 한국에서 신청하고 수속을 밟아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불법체류 기간 중에 취업이민 수속을 밟는다. 그러는 과정에는 브로커가 있기 마련이다. 나도 유명 회사에 취직한 것으로 가짜 접수되어 있음을 뒤에 알고 브로커와 싸우기도 했다. 그러나 불법 의뢰를 한 처지라 현지의 사법부에 하소연할 수도 없었다. 결국 또 다른 현지인 브로커 변호사를 통하여 임시 거주 허가서를 겨우 받을 수 있었다. 임시 거주 허가서를 가지고 1개월씩 허가서에 연장 허가 서명을 받아야 했다. 새벽 4시면 전 가족이 일어나서 이민청으로 가서 줄을 서있어야 하는 고생을 했다. 그러기를 1년이 지나고 1년 기한 임시 영주권을 받았고 2번의 갱신 후 영구 영주권을 받게 되었다. 그래도 우리 가족은 수월하게 영주권을 취득한 셈이다. 그래서 아르헨티나에서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는 냉소적인 말들을 자주 한다. 영주권 브로커 사기를 당한 경험은 이웃에서 쉽게 들을 수 있다.

지방 생활에 익숙해질 즈음인 그해 9월 한국에서 어머니가 오셨다. 외아들 식구를 지구 반대쪽에 보내놓고 편히 지냈을 리가 없었다. 어머니가 오시는 날까지도 차가 없어서 승합차 레미스(자가용 영업)를 대절해서 모실 수밖에 없었다. 공항에 도착 시간이 저녁이고 사라떼까지 달리는 고속도로 주위에는 깜깜한 암흑이었다. 간간히 울어대는 방울뱀 소리만 분위기를 더 적막하게 만들었다. 어머니가 우리 집에 도착하자마자 대충 훑어보시더니 “왜 왔느냐?” 시며 눈물을 보이셨다. 급하게 얻은 불품없는 집도 그렇지만 차가운 타일 바닥에 제대로 된 침대도 없이 매트리스만 놓고 살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은행에 증권 간부로 일하며 크진 않지만 해운대에 위치한 롯데 아파트에 살며 부족함이 없었던 시절에 무슨 더 큰 영화를 볼 것처럼 이민을 나섰던 내가 어머니 앞에서 마냥 죄송스럽고 초라해 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두어 달 후 가게 점원 일을 그만두고 소매 가게를 준비하자는 결정을 했다. 시외버스를 타고 인근 도시로 가게 장소를 모색하러 다니기 시작했다. 주위의 위성도시는 대충 다 훑어보았다. 너무 멀리 나갔다가 돌아오는 버스를 놓쳐 까삐딸로 바로 가는 직행 버스를 타고 고속도로 요금소에 내려 집을 찾아간 적도 있었다. 까삐딸에서 사라떼 사이의 가게를 모색하러 걸어서 매일 수십 킬로는 걸어 다녀도 보았다. 그러나 이민 초보자가 객지에서 새로운 가게를 얻는다는 것이 결국 쉬운 일이 아니었다. 사라떼에서 어머니의 적적함도 달래드릴 겸 우리 식구는 매주 일요일이면 까삐딸에 가서 절(조계종 한마음 선원 부에노스아이레스 지원)에도 가고 한국 식료품 가게에서 일주일 먹을 장도 보곤 했다.

지방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다시 까삐딸로 나올 준비를 했다. 지방의 큰 소매 가게에 대한 미련을 접고 한인촌 가까운 곳에 작은 옷 가게를 준비했다. 어차피 시간이 더 흘러도 동서와의 관계가 원만하게 진행되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에 독자적으로 다른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가게를 계약

하고 이민 선배들의 도움으로 미장일도 하고 용접 일도 하면서 인테리어를 했다. 사라떼와 까삐탈 간의 거리를 매일 오갈 수가 없어서 공사 중인 가게에서 매트리스 하나에 잠을 자고 주말에는 식구들이 있는 사라떼로 가곤 했다. 그때 준비 중인 가게와 가까운 거리에 있던 동서네 집에 들르지 않는 것을 보고 지인들이 의아해 했지만 특별한 이유도 없이 서로 멀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하지 못했던 내 탓이었고 결국 '잘못된 이민'이었음을 느꼈다.

그렇게나마 어렵게 작은 소매 가게를 오픈하여 한국을 떠난 지 거의 10개월 만에 수중에 내 사업이라고 시작한 수입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가게가 안정되면서 7개월 남짓 지방 생활을 접고 가게 근처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가게와 집, 그리고 한인 타운이 그리 멀지 않아 좀 안정되는 듯했다. 그러나 작은 소매 가게에 두 부부가 매달려 있을 수는 없었다. 당시 스웨터가 유행이라 가게는 아내한테 전적으로 맡기고 부산 출신의 지인 형님과 수동 스웨터 편직기를 구입하여 동업을 시작했다. 처음에 원사를 10킬로 사서 옷을 만들기 시작했고 생각보다 판매도 괜찮아 점차 그 양을 늘려 나갔다. 편직기에 이어 스웨터 봉제 기계까지 들여 가내공업이지만 재미가 쏠쏠했다.

그러나 그런 재미가 나에게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다. 그동안 사이가 소원했던 동서가 미국으로 재이민 간다고 당시 운영 중이던 가게와 생산 공장을 인수하라는 것이다. 물론 고생하는 동생을 배려한 처형의 권유로 성사된 것이었다. 오래 고민하지 않고 하던 스웨터 공장 일체는 동업자 형님한테 물려주고 동서 공장을 인수하였다. 작은 자본으로 계약을 하고 한 달 정도 경영을 같이하며 동서가 미국으로 떠날 때까지 원단 등 자재구입 비용을 포함한 부채를 함께 떠안고 인수하기로 했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재단 기계를 놓고 막걸리 뿌려가며 약식으로 고사까지 지냈다. 그때 옆에서 보고 계시던 어머니의 마음은 '이제 돈 벌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시작한 의류 생산 도매는 내가 급성간염을 앓을 때까지 결국 버릴 수

없었던 계류이 되었다. 한참 어려울 때에 아내가 한 말이 아직도 소름 끼칠 정도로 머리에 맴돌곤 한다. '아침에 눈뜨기가 무섭다'는 이야기를 할 때에는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부끄럽기까지 했다. 당시의 경기 침체를 대변하는 '내년보다 낫다'는 유행어가 한인들 사이에 입에서 돌았다.

더욱이 가게를 인수하고 정신없어할 때 날벼락 같은 일이 아르헨티나에서 벌어졌다. 인수 후 두 달 만에 금융 파동이 왔다. 한국에서 피해서 온 IMF를 다시 지구 반대편에서 만난 것이다. 고정 환율이 깨지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3년간의 아르헨티나는 정말 어려운 시기였다. 폐소의 평가 절하가 나에게 큰 충격이었다. 이민 올 때 최고 환율 1,810원으로 환전해 와서 1:1로 가게를 인수했는데 다시 폐소 평가 절하는 설상가상이었다. 더욱이 특별한 패션 감각이나 사업에 재주가 없었던 내 탓으로 사업은 제자리걸음이었다. 계절이 끝나고 사업 손익계산서를 정산해 보면 남는 장사가 아닌 초기 자본 잠식해 가는 손해 보는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제법 크게 운영을 했고 매출도 올렸지만 결국 돈을 벌어서 가게 월세에 모두 충당한 것뿐이었다. 그러나 달리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에 3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가게를 4번 갱신했으니까 12년은 꼬박 버틴 셈이다.

그렇게 힘든 가게를 재계약을 두 번 갱신했을 즈음 작은아들은 중학교를 마치고 부에노스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다. 부에노스 대학은 국립으로 학비는 전액 무료였다. 그런데 2학년 때 갑자기 한국에서 연기를 전공하고 싶다고 했다. 고민 끝에 허락을 했고 결국 단국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입학했다. 그때부터 매 학기마다 등록금과 자취하는 생활비를 보내야 했다. 아들한테 직접 이야기는 못 하지만 가게에 재투자할 여력이 없어도 학비는 보내야 하는 처지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다. 당시에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아들의 한 학기 등록금을 대납해 준 지인도 있다.

나날이 힘겹게 겨우겨우 사업을 해나가는 동안에 몸은 살이 빠지고 갈수

록 일상이 힘들 정도로 피곤해지기 시작했다. 가게 문을 열고는 가게 뒤편 공터에 안락의자를 펴고 누워서 시간을 보냈다. 당시에는 가입한 의료보험도 없어 건강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검사도 제때 하지 못했고 B형 간염 보균이라 쉽게 피곤해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매달 한인 의사가 있는 개인 병원에서 혈액검사를 하고 관리를 해나갔다. 그러던 중 급기야 검사 결과를 본 의사가 빨리 보호자 오게 하라고 했다. 아내가 가게 문을 급히 닫고 친구의 차를 타고 왔고 나는 긴급 국립병원에 이송되었다. 그 국립병원에 근무하는 간 전문의가 한인 개인 병원에 와서 매월 한 번씩 나를 진료해 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낸 것이다. 소식을 듣고 아는 지인들은 거의 다 문병 오고 난리가 아니었다. 그때 이미 나는 동포 사회에 유명 인사였기 때문에 나의 입원 사실은 큰 뉴스가 되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을 때 급하게 달려온 몇몇 지인들은 황달에 노랗게 된 내 몸을 보고 많이 울기도 했다. 물론 감고 있는 내 눈에도 하염없이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훗날 들은 이야기지만 당시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힘들겠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때 아내는 병원 안에 있는 작은 기도실에서 '성모님을 쳐다보니 웃고 계시더라'면서 나를 위로해 줬다. 밤이면 보호자도 없이 희미한 창문만 보며 서러운 나날을 보냈다.

국립 무료 병원이라 오래 있을 수는 없어서 열흘 만에 퇴원하였다. 급성 간염은 편하게 쉬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 된다고 했다. 최선을 다하여 의사의 지시에 따랐고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그렇게 두어 달이 지나는 중에 가게는 폐업을 하게 되었다. 그 많은 물건과 기자재를 정리하는데 단 한 번도 나가보지 못했다. 재고를 싸게 팔아 정리하는 가운데에서도 인간들의 목에 찬 욕수에 가슴 아파해야만 했다. 외상으로 물건을 가져가서 금액을 자르고 주는 사람도 있고 현지인에게 팔아주겠다며 물건을 부쳐주고는 수급 건에 관해서는 무책임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면서 가게 정리라는 힘든 일을 아내와 아들이 모두 마무리하였다. 정리하고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평소에 가게 할 때에는 하루에 옷 한 벌만 팔아도 평생 먹고 산다고 했는데 정리하고 나니 빈손이었다. 몸은 편하게 누워있지만 가족에게 미안한 생각만 있을 뿐 도울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마냥 드러누워 있을 수는 없었다. 적자 경영이라도 매일 현금을 만지다가 그마저 끊기고는 매일의 생활이 문제가 되었다. 한국에 있는 동생들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지인들에게 조금씩 융통해서 생활을 해나갔다.

몸이 대충 회복될 즈음 지인이 한인이 경영하는 의류 생산 공장에 취직을 알선해 주었다. 서로가 사정을 잘 아는 사이라 바로 출근했다. 회사에서 내가 하는 일은 특정된 것은 없었다. 제품 운반을 위한 운전부터 정리 정돈에 청소까지 눈에 보이는 모든 일은 다 해야 하는 위치였다. 특별히 나의 전력을 아는 사장의 지시로 중요한 재무 관리까지 대충 훑어보는 업무도 간간히 주어졌다. 나에게 주어진 직위는 소속된 부서는 없지만 그냥 '부장'이었다. 아내는 아침이면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던 남편의 도시락을 싸고 나는 큰 불편 없이 열심히 일을 했다. 경영에는 재주가 없었지만 시키는 일은 참 열심히 했다는 생각이 든다. 한 번은 그 공장이 교포 사회에서 성공한 기업이라 신입 대사가 방문하게 되었다. 회사 사장이 밖에서 공장으로 전화를 해서 대사가 방문하니 나 보고 불편하면 잠시 밖에 나갔다 오라는 전갈을 보냈다. 그때 나는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남미서부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었다. 사장은 동포 사회에 대표 단체인 민주평통과 주재 공관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다. 사장의 깊은 배려로 대사 방문 시간 동안에 밖에 나가서 피해 있는 중에 온갖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15기에 이어 16기 협의 회장 4년의 임기를 마치고 17기에는 남미 최초 상임위원까지 하고 국민훈장 석류장을 전수받는 영광도 누리게 되었다.

나는 그렇게 공장 생활을 시작했지만 큰아들이 하는 일이 없어졌다. 새롭게 시작할 자본이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아르헨티나에는 젊은이들은 전문인이 아니면 거의 대부분이 의류 관련 일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자영업이 아니면 남의 공장이나 가게에 고용되어 직원으로 일할 수밖에 없다. 그때 마침 재외국민 초청 고국 문화체험 팀에 추천이 되었다. 한인 사물놀이 팀장으로 열심히 봉사한 것을 인정받은 것이다. 그동안 마음고생에 힘든 생활을 보낸 것 같아 조금이라도 쉬었으면 하는 생각에 잘 다녀오라고 했다. 부모의 결정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민 사회에서 힘들어 하는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아들의 또 다른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당시만 해도 몰랐다.

큰아들이 한국 나가 있을 때 작은아들이 대학을 마치고 군에 입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즈음 조국 방문 행사를 마치고 들어와야 할 큰아들에게서 연락이 왔다. 동생 입대 일자에 자기도 동반 입대하겠다는 것이다. 재외국민 자원입대에 관해 구체적으로 미리 확인했고 많이 알고 있었다. 재외영주권자이기 때문에 군 복무가 의무는 아니지만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 마음속에는 한국에 살고 싶어 하는 숨은 뜻이 있었다. 아르헨티나에 있을 때 집안일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고 한국으로 떠나기 전 내가 아프고 가게를 정리할 즈음, 제일 어려운 시기에 겪은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던 터라 그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았다. 그래서 큰 고민 없이 그렇게 하라고 힘을 실어줬다.

두 아들이 논산 신병교육대에 입소하던 날, 두 형제를 훈련소 안으로 들여다 보내고 막내 여동생은 집에 와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다는 이야기를 뒤에 들었다. 그러나 두 형제는 훈병 84번 85번으로 침상도 옆자리에서 같은 중대 소속으로 훈련을 무사히 잘 마쳤다. 나이가 24살 28살로 늦은 입대가 버틸 수 있는 힘이 된 것이다. 신병 훈련을 모두 마치고 작은아들은 훈련소 조교로 남게 되었다. 큰아들은 부산 태종대 부대로 배치받았다. 큰아들은 당시 중대장과 같은 또래로 서로 배려하면서 잘 지냈고 논산 훈련소 조교 작은아들은 신년 초 육군참모총장과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당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사무처 소식지에 두 아들의 입영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하여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일간지를 도배를 하기

도 했다. 부모를 떠나서 군 복무 20개월을 무사히 마치고 만기제대를 할 때까지 부모로서 한 일은 단 한 차례 작은아들 면회가 전부였다.

두 아들이 아무 문제 없이 대한민국 육군 현역병으로 잘 복무하고 있을 때, 부부만 남은 아르헨티나에서는 또 다른 변화를 시도하였다. 힘들게 시작한 나의 공장 생활도 1년 만에 그만두었다. 공장에서 받는 월급으로는 우리 부부의 생활도 쉽지 않았고, 내 몸도 점차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일을 찾아야 했다. 그동안 아내가 집에서 혼자 하던 하청 일의 규모를 키워서 같이 하기로 하였다. 나보다는 아내의 친화력이 도움이 되어 점점 규모도 커지고, 좋은 거래처를 확보하는 바람에 꾸준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 번듯하게 큰 가게를 할 때보다 아내의 얼굴에는 늘 웃음이 가시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었다. 큰 욕심 없이 먹고살고 운동하고 여행 즐기며 약간의 여유를 만들어 노후를 준비하면 되겠다 싶었다.

지난해 12월 28일부터 3주 정도 우리 부부는 한국에 다녀왔다. 그동안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막내 여동생 부부의 지극한 효성 덕분에 불효에 대한 큰 부담 없이 살아왔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에 사는 아들이 부산에 할머니를 뵈러 가서 우연히 보내준 사진 속의 어머니 모습은 나에게 큰 충격이었다. 걸어가시는 어머니가 손자의 부축을 받으면서 오른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계셨다. 순간 역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생애 처음 보는 모습이였다. 그래서 이번에 가능하면 다른 일보다는 어머니 곁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연로하신 홀어머니가 한국에 계시고 두 아들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 살고 있는데 그 식구들과 지구 정반대에서 우리 부부가 살고 있다. 머리가 복잡하다. 마음은 어디에서도 편하지 않다. 올 초 마지막 뵈 때는 이제 돌아가면 언제 다시 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아르헨티나는 갑자기 3월부터 강제 이동 제한을 하기 시작했다. 인터넷 미사 드리고 하루하루 기도하는 심정으로 버티고 있다. 이민 22년이 넘어 강산이 두 번 바뀔 수 있는 긴 시간에 이렇게 생생한 이민 체험의 파노라마



## 시베리아 찬바람속에서 11년 인생살이

- 리 삼 민 (중국) -

를 그려 낼 수 있다는 것으로 위로를 삼는다. 부산상고 졸업과 부산은행 입  
행, 그리고 노동운동과 위원장, IMF와 이민, 순간순간 잘되려는 극적인 변  
신이었지만 가족과 더불어 사는 소박한 삶보다 더 잘되는 것은 있을 수 없  
다는 것을 이제야 느낀다. 이 기간이 후회하지 않을 새로운 이민에 대한 대  
차대조표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였으면 좋겠다.



금년 음력설부터 꼬박 석 달 동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 안에 갇혀 있  
다가 이젠 나와서 활동해도 된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게이트볼 친구들이 대  
련시 로후탄 해변 가에 모이기로 약정했다. 백화가 만발하는 5월의 해변 가  
자연 경치는 완전히 새 모습을 드러냈다. 산기슭에 피어난 꽃들이 산들거리는  
봄바람에 해쭉해쭉 웃어주고 티 없이 깨끗한 바다 위에선 갈매기들이 훨  
훨 날아예면서 오서 오라 길손들을 반긴다. 이른 아침인데도 시민들과 미국,  
캐나다, 러시아 등 여러 나라들에서 찾아온 유람객들이 삼삼오오 무리를 지  
어 바닷가를 산책하고 있다. 문득 알아들을 수 있는 러시아어가 나의 발목  
을 잡았다. “드와스지, 더부라 우드람(안녕하세요? 아침 인사드립니다.)”  
“그그제나? (요즘 장사 어때요?)” 키폴이 후리후리한 러시아인들의 활달한  
성격 그대로 마중 나온 중국 쪽 회사 왕 사장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  
다. 그 러시아들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노라니 장장 11년 동안 러시아  
시베리아 찬바람 속에서 인생을 갈고닦은 잊을 수 없는 사연들이 새삼스레  
떠올랐다.

### 첫 풍랑

1978년 11월, 중국공산당 제11기 3중 전원회의가 열린 후 중국의 시장경



제는 서서히 대문을 열기 시작했다. 잠에서 깨어난 중국인들이 먼저 농촌 호도거리 생산책임제를 실시하고 도시와 농촌에서 개체 기업, 상점, 음식점들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그때 내가 살던 흑룡강성 동녕현은 러시아와 강 하나를 사이 둔 변강오지였는데 밤이면 러시아 마을에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1990년 중러 외교 관계가 회복되면서 고요하던 중러 변경은 들끓기 시작했다. 중국동녕해관이 우리 마을 동쪽에 새로 세워지고 유람객들과 상품들을 실어 나르는 수많은 버스와 트럭들이 매일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그때 나는 동녕현에서 국가공무원으로 있었다. 그때 내 한 달 월급 고작 60위안이었고 직장 일의 필요로 시골로의 외출이 잦았다. 임무를 가지고 시골 농촌에 하향을 내려가면 높이 앉은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지시만 내리는 것이 불만스러워 그 불만을 속임 없이 토로하고 올라오면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내가 하향 임무를 완수 못 했다고 호통질을 하였다. 그런 “두병간부”질을 계속 하는 것이 나는 지겨웠다. 그리하여 1992년 3월에 물결 따라 비실비실 떠내려가는 물고기처럼 러시아로 떠나게 되었다.

문을 열면 보이는 건 첩첩산중이요, 들리는 건 새소리뿐인 변강오지에서 40년 살아온 내가 버스를 타고 강을 건너 뿔따보카 러시아 세관을 통과한 후 시베리아 찬바람을 헤치고 나갈 때 나의 시야에 안겨 오는 풍경은 우물안의 개구리가 뛰어나와 바깥세상을 구경하듯이 모든 것이 생소했다. 끝없이 펼쳐진 들판에 십여 세대씩 모여 사는 옛 폴호즈 농장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핑 무리들이 먹이를 찾고 있는 길가엔 쓰다버린 낡은 프락포르와 콤파인들이 널려있었다. 더욱 나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던 것은 소련공산당이 갓 해체된 사회 환경이었다. 우수리스크시 중심에 세워졌던 레닌 동상이 하룻밤 사이에 송두리째 던져버려 졌고 나라 국기가 바뀌어졌으며 우즈베키스탄, 백러시아, 아제르바이잔 등 가맹공화국들이 갈라져 나가다 보니 서로 보는 척도 하지 않았다. 50여 개의 우수리스크시 복장, 신발, 식품 국영기업들이 모두 문을 닫다 보니 시장엔 온통 중국 상품이고 헬레브(짬뽕)를 사는

시민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광경이 비일비재였다. 사회 치안은 더욱 험악했다. 경찰들의 월급이 적다 보니 찍하면 중국인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제 안속을 차렸고 제일 무서운 것이 후리칸(깡패 무리)이었다. 그들은 중국인들의 숙소를 들이치고 밤이면 길을 막고 돈을 빼앗았다.

내가 우수리스크시에서 철물 장사를 시작하던 어느 날 밤이었다. 이튿날 아침 8시(러시아 시간으로 아침 6시)에 철물 한 트럭을 중국으로 보내겠으니 빨리 돈을 가져오라는 전화가 왔기에 나는 이미 준비했던 5000달러를 품속에 넣고 내가 주숙하던 니키와호와 125번 호텔을 떠났다. 택시를 잡아타고 나폴라이 사장 집에 거의 당도하여 골목을 빠져나가는데 난데없이 두 강도가 불쑥 뛰어나와 시퍼런 칼을 나의 가슴에 들이대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으러했다. 난생처음 이런 봉변을 당하다 보니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품속에 넣은 돈이 거덜 나는 날이면 나는 끝장이다. 아니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바꾼 나는 굵석거리면서 돈을 꺼내는 척하다가 벼락같이 두 놈이 선 사이로 빠져나갔다. 깡패들과 이삼 미터 공간이 있으니 나는 이리저리 피할 수 있었다. 바로 이때 승용차 한 대가 이곳을 지나가다가 내가 봉변당한 장면을 보고 큰 스피너를 들고 차에서 내렸다. 체구가 웅장한 러시아 사나이가 나서자 두 젊은 깡패들은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삼십육계 줄행랑을 놓았다. 나는 목숨을 건져준 러시아 운전수의 두 손을 잡고 “스바시바. 스바시바!”(대단히 감사합니다)라고 연신 감사를 드렸다. 운전수는 찬찬히 나를 뜯어보더니 “당신 고려 사람 아니요?” 라고 묻는 것이었다. “웁습니다. 중국에서 온 조선 사람입니다.” 너무나 고마워 나는 당장 200달러를 운전수의 손에 쥐어주었더니 그는 히히 웃으면서 “난 돈 때문에 당신을 구해준 것이 아니요. 저 앞에 우리 집이 있으니 그리로 가서 차 한잔 마시시오”라고 말했다. 그 고려인의 이름은 박 엘렉세이라고 부르는데 나는 그의 집에 가서 고추에다 감자소고기국밥을 먹으면서 그 가정의 피눈물겨운 역사를 들었다.

“나의 고향은 함경남도 오매리오. 지난 세기 20년대에 일본 놈들이 조선을 침략하고 하도 못살게 굴어 중국 연변을 거쳐 우수리스크에서 100여 리 떨어진 깊은 산골에 숨어 살았소. 초막을 짓고 황무지를 일구어 쌀밥이나 먹을 만했는데 후에 스탈린 시대에 일본 특무들과 우리 고려인들을 가려내기 어렵다면서 하룻밤 사이에 우리 마을 100여 명 고려 사람들을 강제로 기차 짐바구니에 싣고 멀고 먼 우즈베키스탄으로 가다가 허허벌판에 우리들을 버렸댔소. 휴~ 그때 고생은 말도 마오. 물이 없어 웅덩이에 고인 물을 마셨고 식량이 없어 풀뿌리와 나무껍질로 겨우 목숨을 건져냈소. 그래도 우린 그때 ‘우리는 한 핏줄이다. 힘을 모아 난관을 이겨나가자’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팡이로 버들 뿌리를 파내고 강물을 막아 백 헥타르 논을 풀었소. 자네도 우리와 한 가족과 같으니 여긴 중국과 다르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리고 여기가 여관보다 안전하니 저 사랑채에서 먹고 자오. 집세는 여관비 절반만 내오.” 적이 격동된 박 알렉세이 머리칼이 파르르 떨리었다. 언어 소통이 전혀 안 되고 하마터면 깡패들에게 목돈을 털릴 뻔했던 나는 그날 밤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 이튿날부터 나는 아진(하나), 드와(둘), 드리(셋), 와크잔(기차역)…… 하는 식으로 러시아어부터 배우기 시작했다.

### 피눈물 겨운 장사

구소련이 금방 해체된 후 루블이 시세가 급하강하여 원래 1루블이 1위안 하던 것이 한 달 사이에 50루블 주어야 1위안을 바꿀 수 있었고 물가도 날마다 높아졌다. 것처럼 흥성하던 철물 장사도 막을 내리고 우수리스크 시장의 소상공, 복장 장사도 러시아 소비 인구가 적다 보니 하강선을 그었다. 어느 날, 통역이 나를 찾아와 지금 구리 장사가 돈을 버니 빨리 시작하라고 했다. 따져보니 물건값, 교통비, 해관세를 물고도 한 트럭(17톤)에 만 위안을 벌 수 있었다. 그런데 구릿값 17만 위안을 선불해야 한다고 한다. 구리를

신시베리아에 가서 실어 온다는 것이었다. 당시 17만 위안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고 사기당하면 그 책임을 누가 지냐고 통역에서 따지고 들었더니 통역은 걱정 말라며 나를 데리고 소개하는 사람의 집을 찾아갔다. ‘유라’라고 부르는 사장은 자기 명함장과 집 서류를 내놓으면서 만약 일을 성사시키지 못하면 이 집을 내놓겠다는 것이었다. 통역하고 재삼 토의한 후 나는 몽칫돈을 그 자리에 소개인에게 건네주고 사인까지 받았다. 사흘 후 통역이 신시베리아에서 이미 구리를 발송했다는 통지서를 나한테 가져다주면서 이제 사흘 후면 구리가 우수리스크에 도착한다고 알려 주었다. 그런데 웬걸, 사흘, 나흘, 한 주가 지나도 소식이 없었고 통역은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다. 후끈 달아오른 나는 통역을 데리고 유라 사장네 집을 찾아가니 집은 텅텅 비어있었다. 이웃집에 물어보니 이 집은 셋집이고 유라는 어제 밤차로 모스크바에 갔다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유라의 명함장, 집문서, 구리 발송표 모두가 가짜였다. 내가 준 몽칫돈은 유라가 챙겨가지고 도망치게 분명했다. 하나님 맙소사! 낯설고 물신 이국땅, 온 나라가 산산 흩어지고 사회 치안이 엉망이 된 러시아 이 넓은 땅 어디 가서 나의 돈을 찾는단 말인가. 땅을 치며 통곡해도 응대가 없고 하늘을 우러러 하소연해도 나를 외면했다. 빈털터리가 된 나는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술한 빗꾼들이 우리 집에 찾아와 못살게 굴면서 내가 건너가기만 하면 당장 김치움에 가두겠다고 버르고 있으니 죽어도 건너오지 말라는 것이었다. 하늘이 노랗고 앞이 캄캄했다. 절망의 낭떠러지에서 나는 그만 굳어져 버렸다.

지금의 나는 초나라 시인 굴원이 “세상이 온통 흐려져 있는데 나 혼자 맑고 깨끗하였기에, 사람들 모두가 욕망에 눈멀었는데 나 혼자 맑은 정신이었기에 반대파의 비방으로 쫓겨났구나”를 외치며 떡라강에 몸을 던지고 만신세가 되었다. 돈지갑이 거덜이 나다 보니 가끔 시장에서 중국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여기저기서 비난의 목소리가 비수처럼 나의 가슴을 찔렀다. “책상머



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무슨 장사를 한다고? 국가에서 주는 월급이나 타먹고 살 거지……” 나는 40대 나이에 독수공방하는 그리운 아내와 대학에서 식비마저 떨어져 안달복달하는 둘째 딸을 생각하노라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내가 음식을 전폐하고 한숨만 토하던 어느 날 밤, 80세 언덕을 넘어선 주인집 올라 할머니가 조용히 나의 방으로 건너오셨다. “세르게이(나의 이름을 중국말로 부르기 어려워 주인집에서는 나의 이름을 세르게이라고 불렀음.) 작년까지만 해도 사과를 꺼빼탄(급이 있는 사람)들만 먹고 우리 같은 백성들은 구경도 못 했소. 이제부터 중국의 과일과 채소를 무역할 수 있다오. 우리 둘째 딸이 올라디보스토크에서 무역 회사를 차렸소. 거기로 가서 중국의 과일과 채소를 날라다 팔아보오. 돈이 없으면 내가 전화할 테니 우리 딸이 도와줄게요. 할머니의 말씀은 절망의 낭떠러지에서 맴돌고 있던 나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 이튿날, 나는 올라디보스토크에 가서 할머니의 둘째 딸 마리나를 찾았다. 그녀는 무역 수속, 까마스(20톤 물건을 실을 수 있는 트럭), 창고를 알선해 주고 중국에서 사과, 배, 귤, 양배추, 양파 등 과일과 채소를 실어 오라고 알려 주면서 까레니나 1호 창고를 알려 주었다. 일자리와 자금이 풀렸으나 숙소와 통역이 문제였다. 여관에 들자니 비용이 엄청나서 창고 사람을 찾아 쓰다 버린 허술한 창고를 손질하여 거기서 먹고 자라고 했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허술한 창고이기에 난방 공급이 안 되어 난로를 지펴야 했고 물도 백여 미터 밖에서 길어 와야 했다. 밤낮 이틀 동안 틈난 벽 구멍을 막고 문을 손질하고 장작을 패서 불을 피워 저녁을 대충 요리한 후 잠자리에 들었다. 밤 12시가 되었을까, 곤히 잠든 나는 갑자기 얼굴이 선뜩선뜩해져 손으로 만져보니 커다란 쥐들이 나의 얼굴을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후다닥 깨어난 나는 전등을 켜고 살펴보니 세 마리 큰 쥐들이 한쪽 구석에 쌓아놓은 쌀이며 감자, 무를 사정없이 갇아 먹고 있었다. 너무도 기가 막혀 말도 나오지 않았다. 곁에 누운 통역과 어떻게 하겠냐고 물었더니 “이런 집이라도 돈을 내지 않고 창고와 가까우니 참고 견디시다”라고 말하

는 것이었다. 새벽이 되니 난로 불이 꺼져 길어 온 물이 퐁퐁 얼었고 채소도 쥐들이 몽땅 쏟아 버렸기에 아침도 굶어야 했다. 성탄절이 코앞에 닥쳤기에 우리는 부랴부랴 준비를 다그치고 올라디보스토크에서 처음으로 “동방 과일, 채소 도매시장” 간판을 내걸었다.

러시아들은 성탄절과 신정을 중국의 구정처럼 성대히 치른다. 12월 23일, 러시아 극동지구에서 제일 큰 도시인 올라디보스토크 까레니나 1호 도매시장에다 처음으로 20톤의 과일과 채소를 부렸더니 하루도 안 되는 사이에 다 팔리어 해관세, 수수료, 교통비 등 비용을 다 갚고도 순수익 6000 위안이 남았다. 나는 감옥에서 풀려나온 사람마냥 안도의 숨을 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하지만 장사의 길은 하나 또 하나의 걸림돌이 나의 길을 막았다. 중국 목단강에서 18톤의 과일과 채소를 트럭에다 싣고 중국 수분화 해관, 러시아 커와스키노와 올라디보스토크 해관 검사를 마치고 우리 창고까지 도착하려면 적어도 300킬로미터, 15시간 이상 달려야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다. 그런데 겨울이면 과일이 자칫하면 얼고 여름이면 썩을까 봐 가슴을 조여야 하고 빨라야 새벽 1시 넘어서야 짐을 부린다. 짐을 부리는 러시아인들이 모자라면 할 수 없이 우리가 두 팔을 걷고 나서야 했고 아침 4시(러시아 시간으로 아침 6시)면 창고로 나가야 했다.

더욱 골치 아픈 일은 그 무슨 여권 검사요, 위생 검사요, 안전 검사요 하면서 중국 사람들을 못살게 굴었다. 한 번은 금방 들어온 과일을 다 부리고 아침 식사도 못한 채 창고로 나와 물건을 파는데 두 경찰이 내 앞에 서서 여권을 검사한 후 포도를 맛보자고 청을 들었다. 물건 사러 온 사람들이 많았기에 나는 카운터에 올려놓은 포도 상자를 가리키며 “옳다. 노유이 윈 나그레. 모르나 바브로브”(새로 들어온 포도인데 맛보시오)라고 말했다. 그런데 얼마 후 그 경찰은 무작정 나를 끌고 자기 차에 앉으라고 협박했다. 내가 “여권도 문제없고 시간이 없소”라고 대꾸했더니 다른 한 경찰이 나를 자

기들의 차에 신고 허름한 건축 공지로 갔다. 그곳은 시공하다 중단한 건축 현장이기에 아주 음침한 곳이었다. 경찰 셋은 나를 차에서 끌어내리기 바쁘게 발길로 차고 주먹을 안기면서 “어째서 새 상자의 포도를 내놓지 않고 먹다 남은 포도를 우리에게 주었어?”라고 줄 욕을 퍼붓는 것이었다. 내가 여러 번으로 해명했지만 경찰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몰매를 들이대던 경찰들은 피투성이 된 나를 팽개치고 가버렸다. 한식경이 지나 정신을 겨우 차린 나는 창고에 전화를 걸어 마리나에게 당장 오라고 통지했다. 얼마 후 달려온 마리나에게 신고 했더니 그는 한숨만 지으면서 “여기는 중국과 달라요.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어요. 참으세요”라고 했다.

길은 좁고 사람이 많게 되면 언제나 경쟁을 동반하게 된다. 내가 올라디 보스토르크에서 돈을 잘 번다는 소문이 퍼지자 우수리스크에서 온 백여 명의 아제르바이잔, 베트남, 중국 장사꾼들이 대거 몰려들었다. 장사꾼들은 돈에 혈안이 되어 서로 물건값을 낮추어 고객들을 자기 앞으로 끌고 가고 과일 상자 밑에 비싼 공업품을 깔아 밀수 장사를 하는가 하면 베트남 사람들은 루블과 달러의 환율을 속여 중국 사람들의 돈지갑을 후려냈다. 한 번은 나와 단동시에서 온 왕 씨가 동시에 과일을 차에서 부리고 사과를 도매하는데 그가 파는 사과값이 나보다 훨씬쌌다. 파는 값이 싸니 나의 물건을 사러 온 고객들이 슬그머니 그에게로 쏠리었다. 하도 이상하여 내가 건너다보았더니 세수도 안 하고 허술하게 옷차림을 한 두 손님이 왕 씨 앞에 다가가서 “워드까 예시?”(소주 팔아요?)하고 묻는 것이었다. 왕 씨는 손님의 행동과 옷차림을 보고 “예시, 예시”(있고 말고요)하면서 창고 구석에 둔 중국에서 들여온 소주 두 상자를 꺼냈다. 바로 그 찰나, 두 손님은 품에서 경찰증을 꺼내 보이면서 과일 상자 밑에 깔아 건넨 소주 50상자를 당장 몰수하고 밀수죄로 벌금 만 위안을 안기고 감옥으로 붙잡아 갔다. 해관세 받으러 왔던 마리나는 이 광경을 목격하고 나에게 “돈을 벌어도 깨끗하게 벌어야 해요”라고 일깨워 주는 것이었다.

사랑과 베품은 국경이 없어도 음식 문화와 풍속 습관은 나라와 지역이 서로 다르다. 러시아들은 고기와 우유, 차와 빵을 즐겨 먹고 채소는 주로 감자, 양파, 토마토와 오이다. 세계에서 국토 면적이 1위를 차지하고 러시아 대부분 지역은 기후가 차기에 과일은 주로 미국, 캐나다 등 해외에서 수입했고 1990년 이후에는 중국산 과일을 주로 수입한다. 해마다 가을철이면 집집마다 그 이듬해 여름까지 먹을 감자를 움에다 저장하며 오이는 가란 스키라고 하는 단 한 가지 품종의 오이를 먹는데 극동 지구에서 가장 큰 온실이 알조무(지명)에 있다. 러시아들은 감자를 매끼마다 먹는데 소고기탕에다 넣거나 삶은 다음 으개서 간을 맞춘 다음 헬레브 아니면 베리맨(물만두)과 섞어 먹는다. 어느 날, 마리나가 나를 찾아와 올라디보스토르크시 가까운 도에다 땅을 얻어줄 테니 농장을 꾸려 거기서 나오는 채소를 과일과 섞어서 팔아보라고 했다. 농사, 특히는 채소를 심어본 적 없는 나에게 있어서 농장을 꾸린다는 것은 펴이나 힘에 부치는 일이었다. 짬을 내서 마리나와 함께 밭에 가보니 나의 마음은 확 끌려들었다. 땅은 3만 평쯤 되고 비옥했는데 위치는 산 아래에 있었다. 그리고 산에는 고사리가 낮으로 벨 정도로 많았고 산 아래로 자그마한 강이 흐르고 오랫동안 묵은 밭은 썩대가 무성했다. 나는 과일 도매 시장을 계속하는 한편 농장을 꾸리기로 결심했다. 이를 위해 나는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구정전으로 20명의 노무 일꾼들의 여권과 출국 준비를 끝내고 예전에 생산대장 일을 했던 류 씨를 총 인솔자로 초빙했다. 농장을 하기 위한 준비로 나는 또 러시아에서 작은 경운기 한 대를 사고 중국에서 비닐판막, 비료와 살충제 등 생산 물자를 러시아로 날라갔다. 준비가 다 되었으니 달리가 수북이 쌓여들 것 같아서 기쁘기만 했다. 하지만 풀기 어려운 애로가 하나둘씩 앞을 가로막았다.

청명이 지난 후 땅을 갈아 번지고 비닐하우스 받침대를 세우고 땅을 고

르는데 어느 하루 러시아인 두 명이 경찰을 앞세우고 나를 찾아왔다. 그들은 이 땅은 자기네 땅인데 왜 허락도 없이 농장을 꾸리냐며 따지고 들었다. 내가 마리나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다. 한 시간 후 마리나가 자가용을 몰고 와서 그들에게 해명했다. 첫째, 원래 이 땅은 옛 폴호즈 농장 땅인데 10여 년 버린 땅이라는 것. 둘째, 중국 사람들의 여권은 모두 합법적이고 나라 법률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 셋째, 마리나가 사전에 올라디보스토크시 시청 해당 부문을 찾아 승인까지 받았기에 빈틈없다고 했다. 하지만 경찰은 나의 여권을 돌려주지 않았으며 자기들이 옛 폴호즈 농장 주인이기에 안 된다고 잡아땀다. 마리나가 시청으로 같이 가자고 해도 그들은 들은 척도 안 했다. 뜨거운 가마 위에서 땀몰아 치는 개미마냥 바질바질 속이 타들어 가는 사람은 바로 나였다. 농장에서 일할 노동력들을 러시아로 입국시키기 위해 수속을 하느라고 이미 10여만 위안을 밀어 넣은 마당에 지금은 경찰이 나의 여권을 돌려주지 않으니 한 치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다. 나와 마리나, 류 대장은 꼬박 사흘 동안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합의하여 결국 밭 주인이 시내로 들어가는 길수리, 임시 일군 모집과 운수 차량을 해결해 주기로 하고 가을에 총 수입 중 20프로를 밭 주인에게 주는 것으로 계약을 했다.

그다음 애로는 오이 종자였다. 오이 종자를 온실에서 싹 띄워야 했는데 오이 종자를 살 수가 없었다. 가란스끼오이 종자는 알쥬누시에 가야 살 수 있었는데 온실 사장을 찾아갔더니 자기들도 모자라니 종자가 없다고 잡아땀다. 속담에 “동행업자 서로 원수”라고 하듯이 후에 알고 보니 알쥬무 온실의 오이 절반은 올라디보스토크시에서 판다는 것이었다. 내가 그 오이를 재배하면 자기들의 장사에 영향이 미치는 건 뻔한 사실이었다. 내가 오이 종자 때문에 안달복달할 때 마리나가 찾아와 한국 사람한테서 그 오이 종자들을 샀다고 알려 주었다. 값도 알쥬무 온실에서 파는 값보다 훨씬 싸다.

오이 종자를 온실에서 싹 띄워 비닐하우스에 옮길 때쯤, 또 새로운 애로

에 부딪혔다. 이 오이 품종에는 절대로 화학비료를 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중국의 『손자병법』에 “길을 가다가 막히면 고집스레 옛 길을 택하지 말고 새 길을 바꾸어 가라”는 말이 있다. 나는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물었더니 하바류스크에서 농장을 꾸리는 하복성 왕 씨가 조용히 나를 불러 오이 포기 에다 삶은 콩 다섯 알씩 파묻으면 오이가 잘 자라고 맛도 좋다고 했다. 그의 말대로 하였더니 과연 큼직큼직한 오이들이 주렁주렁 달리고 오이 맛도 아주 좋았다.

그때 나는 오이가 나오는 족족 나의 창고로 날라다 팔았는데 중국산 과일과 함께 아주 잘 팔렸다. 이외에도 2만 평 되는 밭에다 감자, 무, 양배추, 당근 등 채소를 심은 후 움에 저장하였다가 밭 주인이 보내주는 트럭에다 싣고 올라디보스토크에 200여 개 되는 식품 상점과 시장에 팔아 툭툭히 수입을 올렸다. 그때 나는 모든 지출을 빼고도 순수입 6만여 위안을 벌었다. 비록 올라디보스토크 과일, 채소 도매상들이 백여 명 부쩍 늘었지만 나는 당시 채소와 중국산 과일과 채소를 함께 팔았기에 자리매김은 갈수록 튼튼했다. 기회는 언제나 준비된 사람에게 차려지는 법이다.

### 가는 정 오는 정

나는 장사 시간이 길어질수록 부를 쌓아가는 비결은 가는 정, 오는 정으로 인간성을 지키는 데 있다는 것임을 뼈저리게 느꼈다. 다른 장사꾼들은 값을 낮추고 복장이나 소상품 같은 것을 차 밑에 실어 들이는 수단으로 돈을 긁어모으려고 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철부지 아이들이 엄마와 같이 창고에 들어와서 빨간 사과를 보고 먹고 싶어 손가락을 빨 때 나는 서슴 없이 먹음직한 사과를 아이 손에 쥐여 주었으며 생활 형편이 어려운 장사꾼들이 외상으로 상품을 달라고 할 때에도 사기당할까 봐 우려할 때가 많았지만 주저하지 않았다. 한 번은 바레와 시장에서 과일을 파는 따나가 아침



## 자아 정체성, 동포3세 이야기

- 차 바 실 리 (카자흐스탄) -

일찍 물건 사러 우리 창고로 왔었다. 사과 40상자를 차에 싣고 뒷걸음하는 데 그만 지나가는 다른 짐차가 따냐의 다리를 쳤다. 사고를 친 그 남자 운전수도 내가 잘 아는 친구였다. 따냐의 남편은 폐암으로 죽음을 앞둔 시한 부고 아이들도 모두 학교에 다니다 보니 치료 비용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여인을 병원으로 실어갈 사람도 없었다. 나는 하던 일을 창고 일꾼들에게 맡기고 바로 택시를 불러 병원으로 향했다. 따냐의 한 달간 치료비와 약값이 중국 돈으로 6000 위안은 되었는데 그 돈을 모두 내가 물어주었다. 퇴원하는 날 따냐는 너무도 감사해 “발쑤이 스바시바, 지베 노체니 호르소 켈로이 크!”(마음씨 좋은 사람, 대단히 감사합니다)며 연신 감사를 표했다.

따냐가 퇴원한 후 이 일이 입소문으로 퍼지자 갈수록 많은 장사꾼들과 러시아 친구들이 우리 창고를 찾았다. 그리고 따냐도 그 은정을 잊지 못하겠다면 성탄절 때면 색다른 음식이나 기념품들을 싸들고 나와 함께 즐거운 성탄절을 보내곤 했다.

해와 달이 바뀌어 시베리아 찬바람 속에서 나는 장장 11년 장사를 했다. 그 사이 나는 피나는 노력으로 어깨를 누르던 20만 위안의 빚더미를 허물어버렸고 둘째 딸의 4년 대학 학비를 대주었으며 시내에다 아파트까지 장만했다.

“깊이 잠든 정원은 고요해 산들바람 속삭이네/ 아름다워라 내 맘 이끄는 황홀한 이 밤이여” 러시아 아가씨의 노랫소리가 나의 심금을 울린다. 어쩌면 수백 년대를 이어 부르는 우리 민족의 “아리랑”처럼 “모스크바 교외의 밤”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러시아 온 나라 경제가 침체되고 코로나19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도 흔들림 없이 러시아인들은 삶의 저 언덕을 향해 줄달음치고 있다. 장장 11년 시베리아 찬바람 속에서 인생을 갈고닦은 러시아가 사무치게 그립다.

### 1. 소련 시절

나는 카자흐스탄 동포 3세이다. 우리 할아버지 고향이 어디인지 잘 모른다. 외할아버지의 고향은 강원도 양양이다. 1920년생이신 우리 큰아버지는 할아버지의 고향에 대한 많은 것을 아셨을 것이다. 그러나 1937년의 스탈린의 강제이주 공포에 관한 기억이 생생했기 때문에 조국과, 할아버지의 고향에 대한 질문들을 무시하시거나 “더 이상 묻지 마라!”라고 하셨다.

둘째 큰아버지는 할아버지가 한글로 작성하신 가족에 대한 기록들을 보유하고 계셨는데 40년 전에 집에 화재가 나서 고향과 관련된 귀중한 모든 기록들이 불타 버렸고, 화재 이후로 둘째 큰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우리 할머니도 한반도에서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하기 전 고향을 기억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강제이주를 당하신 분들에게 눈앞에는 그 당시 무서운 장면들이 생생하게 기억나서 조국에 대한 이야기는 금기였다.

셋째 큰아버지는 “연해주에서 우리 아버지는 조그마한 식품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다. 부자도 아니었는데 러시아 연해주에서 카자흐스탄으로 도망하자 아버지가 고발 없이 체포되었다. 그 후 할아버지에 대한 소식이 끊겼다”라고 말하셨다.

거의 모든 고려인들은 1937년 강제이주에 관한 비슷한 비극적인 가족 스토리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원주민인 카자흐 민족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았으면 낯선 땅에서 생존하기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1930년대 중반에 유목 생활을 하는 카자흐 사람들은 몇 년 계속 가뭄을 당해 매우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다. 먹이가 많이 부족해서 소, 양, 말들이 많이 죽었고, 가축들을 키우며, 고기를 주식으로 먹는 유목민들도 식량이 떨어져 많이 사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자흐 사람들은 머나먼 극동에서 카자흐스탄까지 강제이주를 당하고, 카자흐 언어도 러시아어도 모르는 채 낯선 고려인들에게 먹을 것과 집을 나누어주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당시 우리 부모님은 어린 나이였다. 매우 가난한 어린 시절에다가 몇 년 후 2차 대전이 일어났다. 그때 제대로 먹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농업 집단들이 독일군과 싸우는 소련군의 전쟁으로 군량미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까지 수확을 도와야 했다. 부모님의 이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이러한 어려운 생활을 하신 우리 부모님은 최선을 다해서 대학에 입학하셨다. 어머니는 러시아에서 공업대를 나오셨고, 아버지는 알마티 국립사범대학을 졸업하셨다. 대학을 마치고, 알마티로 돌아와 어머니가 몇 십 년 동안 기계/장비 제작 연구소에서 근무하셨고, 아버지는 오랫동안 전문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셨다. 우리 부모님은 형과 나에게 “너희들은 우리보다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한다. 우리가 물론 너희들이 잘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너희들도 나름대로 노력해서 열심히 살아야 한다”라고 늘 하신 말씀이었다.

알다시피 카자흐스탄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합(소련)에 소속된 130여 소수민족이 사는 다민족 공화국이었다. 우리가 태어난 1970년대는 소련에서 ‘가장 부유한 시기’라고 부른다. 그 당시 잘되는 소련의 이데올로기는 ‘곧 공산주의가 될 것이고, 우리 국민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소비에트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다.

나도 공산주의 시대가 된 후 ‘소수민족’이란 개념이 사라질 것이고, 오직 ‘소련 사람’이 남을 것을 믿었다. 근데 초중학교에 다녔을 때 여름 캠프에

서 자기 언어를 쓰는 지방 애들을 보면, ‘조금 있으면 과거에서 올라온 이런 무식한 민족 습관이 반드시 없어질 거고, 다들 위대한 레닌이 쓴 러시아 말만 쓸 것이다’라고 생각했다.

또한, 이러한 사고방식을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쳐주신 담임선생님이 형성시켰다. 우리 담임선생님이 역사와 사회학을 매우 재미있게 가르쳐주셨기 때문에 우리 반 절반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인문대 역사학과로 입학하기로 했다.

하지만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몇 년 후 우리 머릿속에 소비에트 멘탈리티를 든든하게 심어주신 유태인 담임선생님이 갑작스럽게 이스라엘로 이민 가셨다. 이 소식을 들은 우리 모두는 배신감을 느꼈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인기가 많은 카자흐스탄 국립대학교 역사학과로 많은 고등학교 동창들이 입학 원서를 냈다.

합격하기가 매우 어려운 역사학과 입학시험에 점수 미달로 내가 군대에 갈 준비를 하게 되었다.

## 2. 군대

1988년 여름에 내가 군에 입대했다. 어느 날 우리 소대 사령관이 나를 포함한 몇 명 병사를 부대 바깥으로 일하러 데리고 갔다. 작업장에 가는 길에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령관은 서울 88올림픽을 보러 대원들과 잠시 자기 집에 들렀다. 경기를 보면서 사령관은 갑자기 나를 보면서 “차 병사, 너 한인이지?” 물었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저기 운동장에서 한국 관객들이 뭐라고 외치지, 들고 있는 포스터에 뭐라고 써있지?” 소령관이 물었다.

“잘 모릅니다!” 대답했다.

“너 정말 모르냐? 그럼 너 한국어를 모르는 한인이냐?” 물어보면서, 소령

관이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그 순간 정말 부끄러웠다. 그 전에는 내가 한인인 줄 알면 다들 “한인들은 부지런하고, 똑똑하다”라고 했지만 “모국어를 아느냐?” 묻지를 않았다.

또 한인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에서 온 군대 동료가 나보고 “너 정말 한인이나? 그럼 소련 군대에서 뭐해? 혹시 남한 스파이가 아니냐?” 질문까지 했다.

이렇게 군대에서 자기 민족어를 몰라서 생긴 부끄러운 일 때문에 모국어를 꼭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며, 군대를 제대했다.

### 3. 카자흐스탄 동포들의 모국어 상실

현재 3~4세 동포는 모국어를 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성씨를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 원인은 고려인들은 한반도에서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한 다음으로 러시아 정부가 정착한 고려인들을 조사할 때 러시아식으로 많은 성씨를 기록한 것이다. 김씨, 박씨, 이씨는 문제가 없었는데 정씨, 전씨와 천씨를 ‘텐’ 씨로 기록했고, 차씨와 채씨를 ‘짜이’ 또는 ‘쯔하이’ 로 기록했다.

내 성은 러시아식으로 ‘짜이Tsay’ 라고 한다. 성씨를 정확히 알기 위해 내가 알마티에 계신 박일(1911~2001) 유명 철학 및 한국학 박사(정용희 작가의 제자, 최고의 전통 시조와 한국의 현대시 번역가, 한국 애국가)님에게 내 성씨를 정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다. 직접 만나지 못해 박일 박사님은 전화로 약 1시간 동안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자네 성은 차씨고, 본은 연안이다”라고 결정을 내리셨다. 이렇게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인 성씨를 알아냈다. “이제 모국어를 열심히 배워야겠다” 굳게 마음을 먹었다.

여기선 카자흐스탄 동포는 왜 모국어를 잘 못하고 그렇게 빨리 잃어버렸는지 이야기해야 할 것 같다. 원인은 여러 가지 있다. 이는 다음과 같다.

구소련 시대 때는 강제이주를 당한 많은 소수민족들(체첸인, 터키인, 독일인 등) 중에서 고려인들이 자기 민족 언어, 문화를 빠른 시기에 잃어버렸다.

1920~30년대 러시아 극동의 고려인 사회는 나름대로의 관습과 전통을 형성하였고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잠재력을 축적한 인간 공동체였다. 연해주의 땅을 자기의 새 고향으로 생각했던 한인들은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따라서 민족문화와 언어가 발전하였고, 민족 인텔리층이 견고하게 형성되었다. 고려말로 된 신문, 잡지가 발행되었고, 고려말 출판사, 극장, 사범대학, 사범학교, 기술전문학교, 문화계몽시설 등이 있었다.

1937년에 소련 정부는 대중매체를 통하여 극동의 일본 간첩 문제에 마치 고려인들이 적극 개입한 것으로 보도를 했고, 그로 인해 고려인들은 강제적으로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로 이주하게 되었다. 이 스탈린의 명령에 따라 거의 10만 명이 강제이주를 당하였다. 이렇게 해서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그때부터 고려인들은 소련 정부의 러시아어화 민족교육정책에 따라 러시아어를 배우게 되었고, 자기 민족 언어, 민족 문화를 잃어버리기 시작했다. 소련 정부의 박해와 강제이주의 결과 한인인 교육, 문화, 언어 분야에 있어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정부 지시에 따라 100여 개 한인학교, 고려사범대학이 폐쇄되었다. 한인들의 모국어 교육은 완전히 러시아어화 되었다.

1950~60년대에 카자흐스탄 정부는 고려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의 학교들에서 고려말 교육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그 이유는 고려인들이 넓은 영토에 흩어진 것, 주와 구역 교육부의 무책임과 무관심, 고려말과 러시아어를 동시에 구사하는 자격 있는 교사들의 부족, 교재와 사전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일부 고려 사람 중에서는 스스로 민족 언어 공부를 그만두자고 제안한 사람도 있었다. 학부모들은 언어의 실용적 면에 치우쳐서 ‘러시아어를 배워야 먹고, 입고 살 수 있다. 한글을 배워선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 고 했다.

1970년대 초반에 소련연방정부는 소련에서 발전된 사회주의가 실현되었

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우리 국가에 러시아 사람, 우크라이나 사람, 어느 민족 사람이라는 개념이 곧 없어질 것이고 모든 국민들은 소련 사람이라고 부를 것이다’ 및 ‘민족 간 친화와 융합’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이에 따른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비러시아인 아동들을 위한 러시아어 예비반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고려말을 배우려고 하는 학생 수가 급속히 줄어들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 상황에서 고려인들은 모국어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다.

또한, 거주 이동을 제한하는 제도가 폐지되자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도시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 당시 농촌에서의 생활이 극히 어려웠고, 농촌 교육이 도시에 비해 많이 낙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자연히 고려인 젊은이들은 큰 도시에 가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 당시 고려인은 소수민족 가운데 이미 교육 수준이 높은 민족으로 인정을 받았고, 선진적 러시아 문화와의 접촉 결과로 고려인 학자, 엔지니어, 의사, 예술가 등 민족 인재가 배출된 것이었다.

#### 4. 한반도 첫 방문 및 한국어 배우기

1990년도에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군대 친구와 함께 알마티 통신대학에 입학했다. 대학에 다니면서 한인 교회와 알마티 고려문화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1992년도에 교회 목사님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단체를 만들어서 2주간 한국에 보내셨다. 그때 내가 처음으로 해외로 나가면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 당시 ‘알마티~서울’ 직항이 없어 모스크바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서울에 도착했다.

나는 무척 피곤했지만 행복했다. 나는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고, 한국 말도 제대로 못했지만 그동안 텔레비전에서만 본 한국은 전혀 낯설지 않았다. 특히 한국 음식이 입에 매우 잘 맞았다.

이 조국의 방문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다. 나는 알마티로 돌아온 후 앞으로 내 삶을 한국어와 한국과의 연결하기로 했다. 그 후로 나에게 별로 잘 어울리지 않은 알마티 통신대학을 그만두었고, 알마티 국립대학교에서 새로 열린 한국어과를 입학했다.

알마티 국립대학의 한국어과라고 불렀지만 우리 반 담당 교수는 북한에서 온 김봉삼 교수님이었다. 그러나 후배들에게 한국 교수님이 한국어를 가르치셨다. 재미있는 것은 대학 내에서 북한 교수님과 한국 교수님이 서로를 만나지 않도록 노력하며, 우연히 만나면 인사만 하고 대화를 피하려고 했다. 하지만 강의가 끝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같이 맥주 한잔이나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다.

1990년대 초반까지는 카자흐스탄 수도였던 알마티에서 북한 사람, 유학생들을 흔히 만날 수 있었다. 1991년 말에 카자흐스탄이 소련으로부터 독립하자 카자흐스탄으로 한국 사람 즉, 목사, 한국어 강사, 러시아어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당시 고려인 동포들은 북한 사람이든 남한 사람이든 크게 구분하지 않고, 같은 민족으로 받아들였다.

1학년을 마치면서 김봉삼 교수님은 어느 날 “조선에 가고 싶은 학생들은 손 들어봐!”라고 하셨다. 나와 포함한 몇 명 학생들은 “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못할 것이다”고 생각하면서 손을 들었다. 이렇게 나는 친구들과 함께 1993년 여름에 북한을 방문하게 되었다. 북한에 약 10일을 있었는데 숙박을 평양에서 했고, 묘향산, 백두산 등에 다녀왔다.

북한의 여러 곳을 방문한 중에 아름다운 자연을 제외하고, 가장 인상적인 것은 두 가지 있었다. 하나는 외국 지도자들이 김일성에게 기증한 선물의 박물관이었다. 이 박물관은 산속 깊은 곳의 커다란 동굴에 있었다. 엄청난 공간 안에 순금으로 만든 각종 사이즈의 김일성의 동상, 보석으로 제작한 다양한 선물들 및 기타 많은 최고 비싼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나는 이것을 구경하면서, “아~, 일부만 팔고 북한 국민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얼마

나 좋았을까?” 생각했다.

더 하나의 인상적인 것은 모범 유치원을 방문한 것이었다. 우리 동포 대학생들 앞에서 조그마한 아이들은 땀을 퍽 퍽 흘리면서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잘 추었다. 아이들이 준비한 공연을 본 다음에 유치원생들은 우리에게 유치원 건물을 안내해 주었다. 각각 학생들을 유치원생 한 명씩 손을 잡고 구경시켜주었다. 내 손을 키가 작은 5~6살짜리 여자애가 잡았다. 유치원 안내 기간 동안 이 꼬마가 내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구경을 마치고 우리가 다음 곳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이 꼬마가 내 손을 놓지 않았다. 나는 이 조그마한 여자애의 슬픈 큰 눈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4년간의 한국어과 재학 시절은 금방 지나갔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직장에 다니셨고, 나는 유치원에 다니지 않아 할머니님과 함께 있었다. 러시아말을 전혀 모르신 우리 할머니님은 고려말(함경북도 사투리와 비슷함)만 쓰셨다. 이로 인해 내가 고려말을 어느 정도 할 줄 알았기 때문에 대학교 공부도 재미있으면서 그리 어렵지가 않았다. 내가 한국어과를 우등생으로 졸업했다.

## 5. 한국 어학연수와 유학 시절

대학 재학 중에 나는 다니던 알마티 한국교육원을 통하여 1~2주간 여름 모국 방문 프로그램으로 여러 번 한국에 다녀왔다. 대학을 졸업하자 내가 3개월 단기간 어학 연수하러 국제교육진흥원으로 갔다. 한국어과를 이미 졸업했기 때문에 고급반으로 들어갔다. 우리 반에 유럽, 중국, 남미에서 온 재외동포들이 있어 다들 한국말을 잘하기 때문에 재미있었다. 초급반에 한국말을 아예 못하거나 조금밖에 못하는 동포들이 있었다. 모든 연수생들은 같은 기숙사에서 숙박했고,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해서 서로 얼굴을 알고 있었다.

수업 중에 한국어 외 한국 문화, 한국 역사가 있었다. 특히 문화, 역사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은 항상 연수생들에게 “여러분은 각국 나라에서 왔지만

‘우리나라, 우리 문화, 우리 역사’를 말할 때 현재 거주국이나 거주국의 문화와 역사를 염두에 두지 마시오. ‘우리나라’는 한국, ‘우리 문화’는 한국 문화, ‘우리 역사’는 한국 역사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같은 동포로서 반만 년의 풍부한 역사, 한강의 기적을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하셨다. 초급반 선생님들도 똑같이 교육을 받았다. 초급반 연수생 중에 미국 입양동포 한 명이 있었다. 내가 그 친구의 이름을 기억 못 하지만 순수 미국 이름을 가진 것을 기억한다. 다시 말하면 한국인의 외모지만 이름이 ‘토미 존슨’이었다. 토미는 한국말을 한마디도 못했다.

연수 코스 시작 약 2주일 후부터 토미는 갑자기 말라빠졌고, 불안한 걸음으로 걷기 시작하며, 어리둥절해졌다. 그 후는 수업 시간이나 밥 먹는 시간에 보이지 않았다. 토미는 기숙사 방에서 외출하지 않고,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입맛도 떨어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것이다. 물어보니까 토미는 심각한 혼란에 빠졌다. 그동안 미국인인 줄 알았던 토미는 한국에 와서 본인이 미국사람이 아니라 한인인 줄 알게 되었다. 토미의 머릿속에는 ‘미국인과 한인’ 간에 엄청난 정신 싸움이 일어났을 것이다…… 토미가 어떻게 되었는지 결과를 잘 모른다. 나는 3개월 어학 코스를 밟은 후 먼저 귀국했고, 토미는 3개월 더 남아있었다.

상기 단기 어학연수를 수료한 후 나는 다니던 알마티 한국교육원으로 한국어 교사로 입사했다. 약 1년을 한국어를 열심히 가르친 후 1997년도에 재외동포재단이 실시한 초청장학생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하기로 했다. 나는 필기시험과 인터뷰에 합격하여 선발되었다. 이렇게 한국에서 유학하고 싶은 내 꿈이 이루어졌다.

유학 시절 때 많은 것을 보고, 배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겪고 얻었다. 1997년 9월에 한국에 도착한 몇 달 후 경제 위기가 터졌다. 그때 나라가 부도가 날 위험 앞에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헌신적이고, 애국심이 넘치는지 직접 볼 수가 있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

와 운동 중에 ‘금 모으기’는 제일 대단한 운동이었다. 그동안 장롱 속에 소중하게 보관했던 돌 반지, 행운의 열쇠, 기타 금 액세서리를 모아 가치가 떨어지는 원화로 환전하려고 하는 시민들이 은행에서 줄 서있는 모습은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매우 감동시켰다. 나는 학생으로서 금이나 외화를 보유하지 않았지만 보편적 애국 분위기에 따라 한국을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 ‘Made in Korea’ 상품만 샀다. IMF 시대가 일어난 후 1998년 초에 미국 영화 아카데미 수상을 많이 한 ‘타이타닉’이 전 세계에서 대개봉했다. 당시 한국 사람들은 두 가지로 나뉜 것을 보았다. 한 사람들은 할리우드 영화를 반드시 보아야 한다고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영화의 상영으로 인해 발생된 자금은 외환으로 미국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나중에 타이타닉의 사본을 보면 되지”라고 결심했다.

내 첫 기숙사의 룸메이트가 여자 친구랑 상영관에서 이 영화를 보았다. 2년간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룸메이트가 총 3명이 바뀌었다. 모두 한국 사람이었다. 여자 친구와 함께 ‘타이타닉’을 보았던 첫 룸메이트는 내가 동포인 것을 알고, “재외동포는 모두 배신자이다. 조국이 어려울 때 나라를 버리고, 외국으로 도망간 배신자들이다”라고 했다. 이 말을 듣고 놀라며, 큰 충격을 받았다. 그동안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한인들은 흩어져 많은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다.

공업대에서 재학 중인 두 번째 룸메이트는 공부만 열심히 해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기숙사로 돌아오고 그랬다. 기숙사에서 몇 시간 잠만 잤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눌 시간도 별로 없었다. 동포인 나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나보다 3살 많은 박사 과정을 밟는 세 번째 룸메이트는 “모든 동포는 우리와 같은 민족이다. 일제시대 때 당신의 조상들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다른 나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이국땅으로 이주한 후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해서 우리나라의 잘못이다. 우리 정부가 그 당시 잘 해주지 못

해 죄송하다”라고 한 말을 듣고 나는 매우 감동했고, 감사했다.

그 후 유학 중에 만났던 한국 사람들은 크게 상기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동포는 배신자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체의 약 20%였다. ‘동포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비중은 약 30%였고, 전체의 약 50%는 ‘동포는 우리와 같은 민족이다’라고 생각했다.

우리 지도 교수님은 구소련 동포들의 역사를 조금 알고 계셨다. 자기 뿌리를 잃어버려 족보를 보유하지 않은 것도 아시고, 나를 도우려고 하셨다. 서울에 있는 ‘연안 차씨’의 사무실 겸 자료와 기록 보관소의 주소를 찾아내고 알려주셨다. 내가 그 사무실을 어렵게 찾았다. 사무실에 계시는 어르신 두 분이 내게 물으셨다. “자네 할아버지의 한국 성함이 뭐예요?”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답했다. 그분들은 “할아버지의 고향이 어디였는지 아요?” 나는 똑같이 “잘 모르겠습니다” 대답했다. 어르신들은 “그럼 못 도와주겠소. 둘 중에 하나라도 알면 찾아볼 수 있는데, 할아버지의 성함과 고향을 모르면 자네 뿌리를 찾기가 불가능하다”라고 하셨다. 매우 안타깝게도 한국에서 뿌리를 꼭 찾아야 한다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6. ‘노르웨이 교포’

한국을 방문한 외국 사람들이 내국민으로부터 항상 받는 질문들은 “외국 어디서 왔어요? 그 나라는 어디 있어요? 거긴 어때요?” 등이다. 유학 시절 때 나도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다. 카자흐스탄에서 왔다고 하면, ‘스탄’을 듣자 한 사람들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아, 카레이스키!”라고 했다. 나는 속으로 “카자흐스탄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사이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가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하고 붙은 세계에서 9번째 큰 국가이다”라고 생각했다. 그런 태도를 보고 내가 카자흐스탄 친구하고 장난으로 ‘국적을 바꾸어야겠다’고 했다. ‘새로운 국적’을 정할 때 한국 사람들이 자세히 잘 모르는 부자 나라여야 했다. 미국, 영국, 일본, 독일

을 한국 사람들이 잘 알기 때문에 안 되었다. 고민하다가 우리는 북유럽에 소재한 노르웨이를 선택했다.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노르웨이는 유럽에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 나라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한다. 보통 노르웨이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바이킹, 석유, 참치이다. 또한, 석유를 생산하는 나라는 잘 산다는 고정 관념이 있다. 노르웨이어를 잘 아는 사람들은 드물기 때문에 러시아어를 하면 “이 언어는 노르웨이어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

‘새로운 국적’을 선택하고 나서 이제 노르웨이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얻어야 했다. 그전에는 노르웨이어라고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바이킹(Vikings), 트롤(troll), 탐험가 아문센(Roald Amundsen), 탐험가 헤위에르달(Thor Heyerdahl), 화가 몽크(Edvard Munch), 작곡가 그리그(Edvard Grieg) 그리고 록그룹인 아하(A-ha)였다. 인터넷을 통하여 우리는 이 나라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이제 ‘새로운 거주국’에 대해 많은 지식을 얻은 다음에 나와 친구는 밖에 나가면 ‘우린 노르웨이 교포이다’ 단단하게 말할 수가 있었다.

다음 주말에 친구하고 외국인들이 즐겨 찾아가는 서울 명동으로 놀러 갔다. 한 옷 가게에서 우리가 하는 러시아어를 들은 종업원은 어디서 오셨냐고 물었다. 우리는 유럽 억양을 흉내면서 한국말로 “저희는 노르웨이에서 왔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가게 종업원은 기념으로 노르웨이의 동전을 달라고 했다. 우리는 미안하지만 동전이 다 떨어졌다고 말했다. 다른 가게의 직원은 우리가 ‘노르웨이 교포’인 것 알고, 본인이 록그룹 아하의 팬인데 잡자기 그룹 리더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상기해 달라고 부탁했다.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한 식당에 갔다. 식사 중에 우리 러시아어 대화를 열심히 듣고 있는 약간 술에 취한 옆 테이블 아저씨들은 “너희들은 어디서 왔냐? 몽골에서?” 물었다. 우리는 “아닙니다. 저희들은 노르웨이에서 왔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노르웨이’란 말을 들은 후 얼굴 표정까지 달라진 아

저씨들은 “그러셨군요! 멀리서 오셨네요!” 매우 친절하게 말했다.

어느 날 밤늦은 시간에 기숙사가 문을 닫기 전에 내가 기숙사로 빨리 가려고 바빴다. 택시를 타고 가는 중에 친구하고 통화하면서 지갑을 꺼냈다. 지갑에 돈이 얼마 되지 않아 택시 기사에게 “아저씨, 가까운 지하철역까지만 데려다주세요!”라고 말했다. 택시 기사는 “방금 쓴 언어가 뭐예요? 물어보았는데 내가 습관적으로 “노르웨이어”라고 대답했다. “노르웨이 교포군요!” 하면서 택시 아저씨가 나를 기숙사까지 데려다주셨다. 나는 거짓말을 해서 너무 부끄러웠지만 매우 고마웠다.

현재 물론 한국 사람들은 카자흐스탄과 카자흐스탄 동포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은 1992년에 외교를 수립했다. 그동안 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깊은 관계를 맺었고,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의 국민이 상호이해를 넓히기 위해 여러 가지 많은 문화-스포츠 행사들을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 방송국들이 여러 차례로 카자흐스탄에 와서 다큐멘터리, 특집, 쇼 프로그램 등을 많이 촬영했고, 국내에서 많이 방송했다.

#### - 마지막으로 -

현재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내 한국의 최대 교역을 보유하고, 다양한 분야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다. 28년 동안 양국 대통령들은 국민 방문을 많이 하셨고, 무역-투자, 환경, 인프라-건설, 과학기술, 교육-문화, IT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확대하여, 강화해 나가기를 노력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1991년에 독립했다. 1998년에 대통령 지시로 수도를 알마티에서 북쪽 누르술탄(전 명칭: 아스타나)으로 옮겼다.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카자흐스탄 국민 방문할 때 수도에만 가셨다. 그러나 지난해 4월에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3개국 방문의 마지막 국가로 카자흐스탄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수도에서 진행될 정상회담을 앞서 4월 21일에 현지 고려인 동포 약 4만 명이 거주하는 경제 문화 중심 도시인 알



## 나의 이름은 태양

- 류 모 니 카 (미국) -

마티에서 고려인 300여 명을 초청해 동포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카자흐스탄 최대 도시 알마티를 방문하는 것은 문 대통령님이 처음이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동포 간담회에서 하신 인사말 중에 다음 말씀이 있으셨다. “……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의 뿌리를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깊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광활한 초원 위에는 독립운동의 별들이 높이 떠있습니다. ‘백마 탄 장군’으로 불린 항일명장 김경천 장군,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 한글학자이자 임시정부에 참여했던 계봉우 지사, 연해주 독립군부대에서 활약한 황운정 지사는 우리 역사의 지평에 저물지 않은 별이 되었습니다…… 1세대의 개척정신, 근면과 성실을 지켜온 후손들은 ‘고려인’이라는 이름을 더욱 강하고,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만든 주역들입니다. 카자흐스탄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있는 동포 여러분 모두가 영웅입니다. 우리는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뉘은 민족입니다. 불모지에 벼씨를 뿌려 논을 만들고, 학교를 세워 보란 듯이 아이들을 길러낸 민족입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고려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카자흐스탄 동포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으며, 자랑스러워했다. 고려인들은 당시 여러 가지 비극적인 역사적 상황, 개관적 원인으로 인해 이국땅에 가서 살아야했다. 카자흐스탄 동포들은 조국을 버린 배신자들이 아니라 일본으로부터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며,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에 우의와 협력을 다지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나는 아침마다 집 근처 공원에서 운동을 한다. 얼마 전에 공원 운동장에서 한 카자흐인 할아버지를 만났다. 할아버지는 지금 몇 시냐고 물어보고, “자네 어느 민족 사람이냐?”라고 물으셨다. 나는 한인이라고 대답했다. 카자흐인 할아버지는 “자네는 대단한 민족의 아들이다”라고 하셨다.

‘45세 남성 · 암 4기 · 첫 발생 장기: 모름 · 넓적다리뼈 골절 사흘 전 편으로 고정했음 · 극심한 아픔을 호소함 · 방사선 치료 가능 여부를 의뢰함.’

의뢰되어 온 남자 환자는 휠체어에 앉아 진찰실에서 의사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에겐 그가 한국인으로 보였다. 햇볕에 그을린 진흙 색 피부, 벌어진 어깨, 소매 없는 러닝셔츠 상의에 반바지 차림으로 앉아있었다. 무릎 위쪽까지 내려오는 반바지 바짓가랑이 한쪽이 터질 듯이 팽팽하였다. 넓적다리를 동여맨 하얀 붕대가 바지 틈새로 보였다. 수술 받은 쪽 다리 종아리와 발은 퉁퉁 부어있고 일본식 조리 슬리퍼를 신은 맨발에는 자르지 않은 발톱 밑에 검은 때가 박혀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 같았다. 표정이 없었다. 양 볼과 목은 늘어져 있었다. 굵은 주름, 튀어나온 입술, 내려앉은 입매, 면도하지 않아 들쭉날쭉 자란 희끗희끗한 턱수염 때문인지 그는 45세가 아닌 70세로 보였다.

“혹시 한국분이세요?”

실례인 줄 알면서도 나는 대뜸 그에게 한국어로 물었다. 미국에서는 상대방의 국적이나 인종을 확인하지 않고 영어가 아닌 외국어로 말을 걸면 실례가 된다. 그날 나는 평소의 내 의례대로 환자를 대하지 못했다. 보통은 ‘아무개 씨, 나는 의사 아무개입니다’ 라고 먼저 나를 소개하면서 악수하고, 먼



답을 시작한다.

“No, I am not a Korean. Are you a Korean, Doctor?”

내 짐작대로 그는 내가 한국말로 첫마디를 건넸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계속해서 영어로 말했다.

“I was born in Korea. My American folks adopted me when I was three years old.”

“Do you understand Korean though?”

“No, I do not know Korean.”

“My apologies that I spoke in Korean.”

그날 내 클리닉에는 많은 환자가 약속되어 있었고 제시간에 봐주어야 할 환자들이 자꾸 뒤로 밀리는 판이어서 나는 서두르고 있었다. 나는 의뢰서에 적힌 부분만 대강 훑어보고 급히 진찰실로 들어갔던 터였다. 환자와 대면하기 전에 차트에 쓰인 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았더라면 그의 이름이 한국 이름이 아닌 것과 가족 관계를 쓰는 칸이 비어있다는 것을 인지했을 것이었다.

차트에 그의 이름은 ‘타일러(Tyler)’ 라고 쓰여 있었다. 그의 성(性)은 A로 시작되는 유대 계통의 성씨였다. 타일러라는 이름은 영국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 그 어원은 ‘타일을 붙이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왔다고 한다. 그의 가족력 칸이 비어있는 것이 그제야 눈에 들어왔다. 나는 타일러 씨에게 언제부터 아팠는지, 어떻게 입원하게 되었는지 물었다. 그의 대답은 짧고 통명스러웠다. 그를 낳은 생모와 생부, 친척들이 걸린 병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물을 차례가 되었다.

“혹시 양부모님께서 생부모님에 관해서 이야기해 준 적이 있나요?”

“.....”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혹시 양부모님은 타일러 씨의 출생에 대한 정보를 갖고 계셨나요?”

“모릅니다.”

그는 잘라 말했다.

“다른 친척들에 대한 병력도 들은 적이 없으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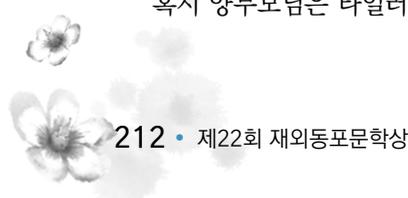
“전혀 없습니다.”

“.....”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나를 낳은 생모가 십 대, 미혼모였다는 것뿐입니다.”

타일러 씨는 내가 한국 출신 이민자라는 것을 알았지만 반가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한국계 환자가 드물게 오는 병원이었다. 대개 평범하고 순탄한 삶을 사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다. 내가 한국 이민자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한국에 관한 관심을 보여 주는 것이 보통이었다. 나의 개인사에 관해서 궁금해하기도 했다. 한국이라는 말을 들으면 과거에 ‘가난’한 나라라거나 ‘고아 수출국’으로 사촌이 고아를 입양하였다거나 ‘삼촌이 육이오전쟁 때 참전했던 나라’ 라고 말하는 것을 종종 들었다. 별로 유쾌하지 않았지만, 그 내용은 어느 정도 사실이던 때였다. 타일러 씨의 양아버지는 당시 하와이에 살고 있던 군인이었다. 한국에 주둔한 적은 없었다고 한다. 군인 가정으로 하와이에 살았으므로 특별히 환경적 요소로는 마음 쓰이는 점은 없었다. 그러나 양부모, 양부모 친척들의 병력에 대해서는 물을 필요가 없었다. 그가 겪고 있는 암과 생물학적인 관련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대답은 짧고 통명스러웠다. 툭툭거리는 말투여서 화가 난 것은 아닌 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의 마음은 읽을 수가 없었다. 말 없는 환자들이 그렇듯이 타일러 씨도 속으로 분노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 또 나야? 왜 내가 암에 걸려야 해? 인생은 너무나 불공평해!’ 만약 그가 그런 분노를 누르고 있다면 그는 치료를 거부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노파심이 들었다. 나는 권유받은 치료를 내동맹이치는 환자들을 심심치 않게 보아왔다. 대개 분노를 누르고 살아왔거나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고 살아온 환자들이었다. 가까운 부모 또는 배우자를 향한 분노가 대부분이었다. 일종의 복수라고 생각하고 하는 행위이다. 간혹 자긍심이 없는 환자들도 치료받는 것을 거부한다.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굳게 믿는 사람들이다. 타일러 씨를 보면서 내가 전공의 때 만났던 어떤 여자 환자가 기억났다. 그 여자 환자는 자기는 암 치료를 받을 가치가 없다고 치료를 거부했다. 아버지를 무서워했던 그녀는 공포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어 무진히 노력했지만, 아버지의 반복되는 힐난은 결국 그녀가 참으로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확신시켰던 것이었다. 오랜 세월이 지나 50세가 넘었는데도 머리에 깊이 새겨진 비하된 자신에 대한 열등감과 공포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었다.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를 많이 본 곳이 내가 전공의를 하던 뉴욕주립대학 업스테이트 메디컬 센터였다. 시라큐스에 있는 그 대학병원에는 꽤 알려진 종양 방사선학 전공의프로그램이 있었다. 비교적 백인 위주의 시대였던 1970년대에 나는 도미했다. 미국의 대학병원에서 세계 최고의 의학 수련을 받고 귀국해서 후배 양성에 전념할 수 있다는 것은 매력적인 아이디어였다. 당시 한국에서는 많은 의대생과 의사들이 도미 준비를 하는 것이 유행처럼 의학계를 지배하고 있었다. 한국의 의학은 발전하는 중이었고 한국은 가난했다. 그래서 나는 도미했지만 잠자는 시간과 집에 있는 두세 시간을 빼고 영어만 쓰는 나날은 외롭고 힘들었다. 생소하기만 했던 미국의 의료 시스템을 익히고 새로운 의학 상식을 흡수해야 하는 스트레스는 컸다. 영어에 익숙하지 않아 이해력이 낮았고 내가 쓸 수 있는 어휘는 적어서 세 살배기 어린이의 그것과 다를 바 없었다. 환자들이 하는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고 대충 넘어가는 경우도 흔했다. 교수님에게 환자에 대한 병력을 보고

해야 하는데 난감했던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뿐인가? 모든 매개체는 영어로만 전달되고 있었다. 그 당시 한글로 된 신문은 시라큐스까지 배달이 되지 않았고 한국어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은 그곳까지 도달하지 못했다. 한국에 대한 뉴스는 친구를 통해서 전화로 듣거나, 가끔 미국 방송국에서 다루어 주지 않는 한 알 수 없었다. 또 병원 전공의 식사 메뉴는 어떠한가. 샐러드, 짓이긴 감자, 또는 감자튀김, 멍멍한 미트 로프나 소금만 들어간 동그랑땡이 자주 반복돼서 서브되었다. 먹은 후에도 먹은 것 같지 않아 늘 허기가 지었다. 된장국, 총각김치가 너무도 그리웠다. 시라큐스에는 외식을 할 만한 동양음식점이라고는 중국집이 하나 있었지만 내가 한국에서 먹던 스타일의 매콤한 중국 음식을 만들어내지 않았다. 한국 식품점은 물론 없었다. 김치가 먹고 싶어서 배추처럼 단단한 채소라고 찾아낸 것이 브로콜리였다. 브로콜리 김치는 실패로 끝났다. 가난했던 유학생 신분으로 잠깐이라도 한국을 다녀올 수 있는 처지는 더더욱 아니었다. 한국은 멀고 먼, 갈 수 없는 그리운 내 고국이었다. 나는 우울했다.

뉴욕 같은 대도시가 아닌 시라큐스에 가서 전공의과정을 하게 된 것이 후회되었다. 내가 그곳에 가게 된 것에는 나의 무지함이 한몫했다.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던 때가 아니었다. 미 전국의 병원에 대한 정보는 삼백 페이지에 달하는 책으로 출판되고, 이 책은 대학교 도서관에서 빌려 보아야 했다. 귀찮은 일은 피해 가고 결정은 빨리하는 성격 때문에 벌어진 실수로 나는 시라큐스에 가게 되었던 셈이다. 적어도 미국 지도를 보고 지원서에 넣을 도시들을 찾아보았어야 했는데, 점점 과정을 생략하고 뉴욕주 병원들은 뉴욕시와 가까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에 의존해서 병원 지망원서를 제출했던 곳이었다.

미국은 그때나 지금이나 7월 1일에 전공의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도착한 시라큐스는 후덥지근하고 흐렸다. 첫날부터 시라큐스는 맘에 들지 않았다. 그곳에는 의과대학 친구도 한국인 친지도 없었다. 시라큐스는 뉴욕주의 북

쪽 지역 업스테이트에 있는 도시로 뉴욕시에서 7시간 정도 운전해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있었다. 한국에서 온 친구들을 만나러 자주 왕복하기에는 먼 거리였다.

그뿐 아니라 기후조차 맘에 들지 않았다. 일 년에 겨우 160일 정도가 맑을 뿐이니 기후에 의한 SAD(Seasonal Affective Disorder)라 불리는 우울증이 생기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어느 해였던가, 옥상에서 한 전공의가 뛰어내려 자살한 겨울도 있었다.

맘에 들지 않던 시라큐스 날씨, 한국이 그리워 때로는 슬펐던 도시 생활에서 만났던 많은 사람 중에, 암 치료를 마다하던 몇몇 환자들에게서 삶의 여러 양상을 배웠다. 표면에 드러나지 않고 보호막이 쳐있는 가정이라는 공동체, 사랑을 실행하는 텃밭이라는 가정 안에서 아이들은 의외로 트라우마를 받기도 하고, 아픔의 생채기가 없어지지 않아 흔적을 남기는 것을 보았다.

나는 타일러 씨가 아팠던 과거만을 보지 말고 ‘오늘’을 살고 앞날을 보아주기를 바랐다. 남아있는 시간을 다시 걸을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몰두했다. 많은 말기 환자들은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안다. 안다고 말하지 않을 뿐이다. 타일러 씨도 알고 있을 것 같았다. 그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싶었다. 타일러 씨의 마음에 평화가 오면 그는 경계심을 내려놓고 나를 위시한 주위의 간호사들, 테크니션들을 신뢰하고 좋은 상호관계를 만들 것이었다.

타일러 씨에게 그가 당시 겪고 있던 아픔의 정도, 아픈 부위, 먹고 있는 진통제 등에 관해 묻고 그를 조심스레 그리고 이번에는 충분한 마음의 여유를 갖고 진찰하였다. 진찰 후, 타일러 씨와 그의 부인을 의사 면접실로 초대하고 탁상을 가운데 두고 서로 마주 앉았다. 앞으로 받을 방사선 치료에 관해서 설명했다.

“타일러 씨, 방사선 치료가 성공적으로 골절 부위를 아물게 하면 걸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생명이 연장되지는 못합니다.”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슬픔도 역정도 보여 주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듣고만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의 부인이 물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는지요?”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경우 삼 개월에서 반년 정도 삽니다.”

환자들의 종말을 알려야 하는 일은 의사들의 의무 중의 하나이지만 이러한 의무를 좋아하는 의사는 없다. 방사선 치료를 위해 입원할 이유가 없다는 것과 살아오던 익숙한 환경에서 지내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견해도 주었다. 그의 방사선 치료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통원해서 받으면 되는 것이고 정작 방사선이 쏘여지는 치료 시간은 10분도 되지 않고,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것도 알려 주었다. 그의 아내가 걱정하는 구토는 없다고 설명해 주었다. 내 설명을 듣고 있던 타일러 씨는 느닷없이 내게 질문했다.

“왜 제게 가족력에 관해서 물어보았는지 궁금합니다.”

“발암 원인을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빠른 진단을 위해서 테스트의 방향을 잡아주기도 하고요. 개발되고 있는 실험 중인 약을 쓸 수 있는지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족력을 아는 것은 환자의 병을 알고 치료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보면 된다. 미스터리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고 완벽한 퍼즐의 형태를 완성할 수 있을 수도 있다. 특히 유전인자를 물려받아 생긴 병으로 의심될 때는 DNA에 암세포 추적 물질을 달아서 하는 치료 방법도 있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갖게 되어 도움이 된다.

타일러 씨의 병은 유전적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해 주었다.

내가 가족력의 연관성에 관해 설명하는 동안 두 손을 비비며 잠자코 듣던

타일러 씨는 천천히 입을 뿔었다.

“저는 세 살 때 한국에서 하와이에 사는 백인 부부에게 입양됐습니다. 일곱 살쯤 되었을 때, 양부모는 나를 포기했습니다. 그 후 나는 여러 집을 전전하면서 위탁 양육을 받았지요.”

그는 그가 파양되었던 때의 자신의 과거를 차분하게 말했다.

“나는 내가 싫었어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내 주위에 아무도 없었어요. 새로 가는 집은 언제나 어설프지요. 새어머니, 새아버지 때로는 나보다 먼저 와있는 위탁 아이들이 있기도 했어요.”

“새로 만난 가족들과 친해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겠네요.”

“좀 친해지면 다른 집으로 옮겨졌어요. 제가 고등학교 일 학년이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살던 집에서 그냥 나왔어요.”

“마지막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도 돼요?”

“별일은 없었어요. 그냥 다른 집으로 가게 스케줄이 되어있다고 했어요. 집을 싸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또 다른 위탁 가정에 던져지는 것 같아, 끔찍했어요.”

그는 태어났을 때 한국에서 버려졌고 일곱 살 때 미국의 양부모에게서 또 한 번 내쳐졌던 셈이었다. 그는 모든 제재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벗어났지만, 그의 삶은 고되었다. 그가 열여섯 살 되던 해였다. 딱히 갈 곳이 없던 그는 그때부터 떠돌이가 되어 노동판을 전전하면서 살았다. 이십 대 후반에 들어섰을 때 그는 길에서 함께 지내던 친구들과 하와이 섬을 떠나 캘리포니아로 왔다고 했다.

파양이라니? 입양아는 물건이 아니다. 물건은 사고 다시 물리거나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입양한다는 것은 부모 없는 아이를 내 아이로 받아들여 돌보아주고 보호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 살아가겠다는 법적 절차일 뿐 아

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의미심장한 약속, 부모가 되겠다는 약속을 자신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내가 낳은 자식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을 안 듣는다고 버릴 수 있는가? 버려서는 안 되고 또 법적으로 버릴 수 없다. 아이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아이가 처신을 잘하지 못 하는 이유를 알아내고 싶어 한다. 교사와 면담도 한다. 아이의 친구들을 눈여겨본다. 때로는 부모 자신들이 가정상담소를 찾아 상담을 받기도 한다. 양부모라고 다를 것이 없다는 것에 생각이 미쳤다.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끊는 것을 허락하는 ‘파양’이라는 법적 제도는 참으로 비도덕적인 법이 아니고 무엇인가 싶었다.

“A”로 시작하는 성을 가진 부모가 법적으로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를 끊게 된 이유가 무엇이였을까. 양부모들은 무슨 이유에서든지 아이를 기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때로는 정부 지원금이 생각보다 적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파양을 신청한다. 그 외에는 아이와의 원만하지 못한 관계 때문이다.

나는 그가 겪었을 어린 시절의 갈등과 고민을 상상했다.

‘미운 일곱 살’로 접어들면서 고집이 나왔을 수 있어. 또 얼굴색이 노랗다고, 눈이 작다고 급우들에게 놀림을 받았나? 그 화풀이를 양부모에게 했을까? 자기가 부모를 닮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몹시 혼란이 왔을 거야. 내 얼굴은 왜 까맣지? 왜 내 코는 납작해?

밖에서 놀고 집에 돌아와 신발을 잘 닦지 않고 뛰어 들어오는 어린 타일러가 보인다. 양부모에게 야단을 맞는 어린 타일러, 반항하는 어린 타일러. 버려준 너를 데려와 키워주는 우리에게 감사할 줄도 모르는 녀석. 너 오늘은 저녁밥 먹을 수 없어. 네 방에 가서 나오지 마! 양 아빠가 바지허리에서 굶은 가족 핵대를 뽑는다……. 아냐, 아냐, 그렇지않았을 거야……. 좋게 생각하려 해도 분노가 서서히 내 가슴 깊은 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인간은 비도덕적인 법에 불복종할 도덕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마틴 루서 킹 주니어 목사가 한 말이 생각났다. 그렇다. 얼마나 옳은 말인가!

미국에서는 입양된 아이들의 약 1~5%가 양부모에게서 포기당한다고 한다. 그리되면 우선 정부 관리 기관으로 옮겨진다. 입양됐을 때 나이가 많을수록, 정서적으로 불안할수록, 또는 성적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아이들일수록 양부모와의 관계를 쉽게 이루지 못해서 결국 파양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 이런 과정을 겪은 아이들은 성장하여 어른이 되어서도 아무도 믿지 못하는 성격을 갖게 되기 쉽다. 타일러 씨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는 아무도 믿지 않게 되었다.

“나는 나 자신이 싫었습니다.”

“.....”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세상에 미친 사람이나 나 같은 사람을 좋아했을 거예요.”

자신을 아껴줄 수 없었고 자신을 괴롭혔다고 하였다. 마약도 하고 담배도 피웠지만 아무런 위안이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국에 돌아가고 싶거나, 생부나 생모를 찾고 싶지는 않았나요?”

“아니요!”

그가 치료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방사선은 위험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떻게 치료에 쓸 수 있나요?”

“암세포는 어리기 때문에 방사선에 약해요.”

암 치료에 쓰는 방법들을 찬찬히 말해 주었다. 그가 받았던 것 같은 수술이나, 앞으로 받을 방사선에 대해서 이해했다. 다시 견게 되는 것이 치료의 목적임도 이해했다. 그는 방사선 치료를 받기로 동의했다. 치료를 두 주 동안 열 번으로 나누어서 하루에 많은 양의 방사선을 쪼여 주는 방법으로 가기로 했다. 치료 기간이 너무 길면 생명 연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치료에 가까운 시간을 잃을 뿐이기 때문이었다. 나를 처음 본 날 그는 첫 치료를 받았

다. 다음 치료 때부터는 나를 매일 볼 필요는 없고 치료 기술자, 간호사들이 돌봐 줄 것이라고도 알려주고 헤어졌다.

그는 오래 살지 못할 것이었다. 며칠을 벌기 위해서 부작용이 심한 약물 치료를 받는 것보다는 증상 완화에 초점을 맞추는 호스피스 치료가 그에게는 더 의미 있을 것이었다. 호스피스에서는 항암 치료는 하지 않고 증상 치료만 한다. 만약 암 덩어리가 아프게 하면 진통제를 처방해 준다. 진통제 때문에 변비가 생길 수 있으니까 변비 예방약을 미리 주고, 입맛에 도움이 되는 합당한 약을 주기도 한다. 또 열량이 많이 들어있는 주스를 권장해 주기도 한다. 종말 환자들은 음식을 씹는 것조차도 싫어하기 때문에 단백질과 필수 비타민이 들어있는 음료수를 마시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환자를 굶어서 죽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타일러 씨와 그의 부인에게 호스피스 제도를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호스피스에 의뢰서를 보냈다. 종말 환자들만을 보는 정신과 서비스에도 의뢰서를 보내었다.

치료 시작 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 중간 치료 성과를 알아보려고 그를 다시 보았다. 아픔이 조금 나아졌고 정신과 의사도 보았다고 하면서 어느 정도 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다. 고개를 돌려 방구석을 한참 보고 있던 타일러 씨가 말했다.

“나는 나의 생모와 생부에 대해서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요?”

“나의 한국 성씨가 무엇이었는지 알고 싶어졌어요.”

입양 기록에는 있었는지 모른다는 말도 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의 뿌리를 찾을 시간이 없었다.

“타일러 씨, 한국 이름을 만들어보는 것이 어떨겠어요?”

“좋습니다. 그 이름을 쓸 시간이 없겠지만요.”

이름은 타이러(Tyler)이고 성(性)은 A로 시작되는 그의 이름을 놓고 재미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을 꺼내었다. 즉 '타일러'라는 한국말도 있는데 '타이른다'라는 동사로 쓰인다는 것을 말해 주었다. 말의 뜻도 설명해 주었다. 그렇지만 순수 한국말 '타일러' 세 글자를 이름으로 쓰지는 않는다는 것도 이해시켜야 했다. 한국 이름은 성까지 합쳐서 대개 석 자로 되어있고, 성은 그의 이름 'A'로 시작하는 것처럼 조상에게서 물려받는 것으로 한 글자라는 것, 이름은 대개 두 글자로서 부모나 친지가 지어준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이름은 뜻글자인 중국 글인 한문을 쓴다는 것도 알려 주었다. 좋은 뜻의 이름을 만들어주기 위해 부모들이나 조부모들이 신경을 많이 쓴다고도 말해 주었다. 한국 풍속은 이름이 주는 뜻대로 인생을 살게 된다고 믿는 다니까 그는 이해가 간다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모음, 자음의 한글 문법을 가르쳐준다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다. 그에게 남은 시간은 너무 짧았다. 우선 타이러의 이름이 'T(티)'로 시작하니까 '티을'이 들어가는 첫 자를 생각해 보자고 제안했다. 타, 태, 투, 터, 툃 등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글자를 우선 검토했다. 투, 터, 툃으로 시작되는 이름은 없는 것으로 기억되고 '타'는 내 기억에 '남'이라는 뜻이라서, '태'가 어떻겠냐고 물었더니 좋다고 했다. 이름에 들어가는 '태'자도 여러 개의 한문 글자가 있고 글자에 따라 다른 뜻이 있다. 쉽게 가는 것이 우선이어서 '태양太陽' 즉 '해', 영어로는 'sun'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제시했다. 그도 좋아했다.

남은 일은 그의 성을 만드는 일이었다. 그의 성씨가 'A'로 시작하는데 한국말로 소리를 내면 '에이'가 된다. '에이'라고 두 자가 들어가는 성은 없다. 그래서 '에이'의 첫소리 'ㅇ(이응)'으로 찾아보기로 했다. 한국 성씨 중에 이, 오, 유, 육, 예, 윤 등이 있는데 태양을 집어넣어서 발음을 해보라 했다.

“이 태양, 오 태양, 유 태양, 육 태양, 예 태양, 윤 태양 . . . . . 이렇게요. 어때요?”

“이 . . . 태...양, 오 . . . 태...양, 유 . . . 태...양, 육 . . . 태...양, 예 . . . 태...양, 윤 . . . 태 . . . 양?”

여러 번 그는 소리 내서 반복했다.

“윤태양이 맘에 들어요. 윤태양이 좋아요!”

조선 시대 때에는 양반, 무인, 상인 등의 계급제도가 있었고, 양반 계급은 부자로 살면서 정치적으로 세도가 컸다는 것과 덧붙여 윤씨는 조선 시대 때 양반의 성씨였다니까 처음으로 그가 빙그레 웃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양반 제도가 있었던 500년 조선 시대 때 대여섯 명의 황후가 윤씨 성을 가졌었다는 이야기도 해주었다. 마지막 황후 순종 효 황후는 나의 어릴 적 친구의 고모(aunt)였다는 것도 자랑삼아 말했다.

타일러 씨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는 조선의 마지막 황후가 있었을 때는 반세기도 더 전의 역사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았다. 덧붙여 설명을 해주는 것이 좋을 듯했다. 나의 친구는 황후 친오빠의 두 번째 부인에게서 태어난 막내이었다고 말해 주었다. 그리고 내가 태어났을 때의 이야기도 덧붙여 해 주었다. 나도 늦게 태어난 막둥이었다는 것과 내가 간접적으로 알게 된 당시의 상황을 말했다. 내 어머니가 40대 중반에 나를 임신했고, 낙태시키고 싶었지만 임신 중절의 방법이 없던 때여서 내가 태어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어머니가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을 내가 우연히 들어 알게 된 '원하지 않았던 임신과 출생'에 대한 비밀은 무척 충격이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사실 나는 반항의 어린 시절을 보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나는 배 안에 있던 '네'가 '너'인 줄 몰랐었어.”

“무슨 말이야?”

“'너'를 낳고 나니까 '네'가 바로 '너'였어.”

타일러 씨는 내 출생에 얽힌 이야기를 재미있어했다. 그리고 다시 빙그레

웃었다.

“자, 타일러 씨, 당신의 이름은 윤태양입니다!”

그날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다.

타일러 씨가 한국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을 것이다. 그것도 짧은 기간 동안 말이다. 그때쯤, 곳곳에 구멍 난 그의 마음을 한국적인 것으로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욕심이 생겼다. 치료를 끝내는 날 그에게 선물을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제 그는 한국, 한국적인 것, 한국 사람, 한국 의사가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았다. 한인 타운에 가면 쉽게 한국에서 수입한 물건을 살 수 있겠지만, 그의 이름과 관련된 선물은 없을 것이었다. 궁리 끝에 하늘에 날리는 연(kite)에 그의 새 이름을 그려 넣어 ‘윤태양의 특별한 연’을 만들어주기로 마음먹었다. 연은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나이와 관계없이 아이, 어른 모두에게 사랑받는 놀이 기구가 아닌가? 나라마다 연의 모습도 다르다. 윤태양 씨만의 특수한 연을 만들어 선물하면 그가 기뻐할 것 같았다. 다리가 아물고 걸을 수 있는 윤태양이 한국 그림이 그려지고 자기의 이름이 쓰인 연을 바람에 태워 멀리 날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실천할 수 있는 일이라는 자신감이 들었다.

하얀색 한지로 앞면에는 한글로 ‘내 이름은 윤태양’ 이라고 파랑과 빨간색 마커 펜으로 쓰고 밑에는 한자로 윤(尹)·태(太)·양(陽) 세 자를 까만색으로 토를 달아 장식했다. 뒷면에는 알록달록한 색동저고리 한복 입은 남아, 여아의 그림과 ‘태양’은 ‘해(sun)’을 뜻한다는 영어 주석을 쓴 종이를 오려서 붙였다. 한지는 얇아서 잉크가 퍼졌기 때문이었다. 연을 완성하고, 질기고 가벼운 긴 끈을 달았다. 연은 다이아몬드 모양이었고 꼬랑지 끝 쪽에 같은 한지로 가늘고 긴, 땀시 나는 꼬리를 만들어 달았다. 하지만 마지막 치료를 받아야 하는 날 윤태양은 병원에 오지 않았다. 윤태양만의 연은 윤

태양에게 전달되지 못했다.

삼 개월이 흐른 후, 호스피스 간호사에게서 이메일이 도착했다.

“타일러 A 씨가 0000년 00월 00일 00시 00분에 운명한 것을 알립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호스피스 통고를 받고 난 지 몇 달 후 그의 아내는 짙막한 사연을 쓴 카드를 보내왔다. 그는 죽기 한 달 전부터 걸을 수 있었고, 그의 마지막 날들은 아프지 않고 편안했다는 내용과 함께.

윤태양 씨를 치료했던 때는 시라큐스에서 로스앤젤레스로 이사 온 지 7년 정도 지났을 때였다. 지금도 나는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다. 뉴욕 업스테이트와는 달리 나 같은 동양인들과 히스패닉, 흑인들이 많아 위축되지 않고 당당히 가슴을 펴고 활보할 수 있는 곳이다. 내가 합류한 메디컬 그룹 동료 의사들은 거의 백인들이다. 간호사들은 필리핀 사람들이 많고 테크니션들은 역시 백인이 많지만, 인종차별의 기색이 없다. 거의 반세기가 흐른 지금 미국은 다문화화를 받아들이고 여러 외국말을 외국어 ‘foreign language’라고 하지 않고, 세계 언어 ‘월드 랭귀지(world language)’라고 할 정도로 바뀌었다. 정규 학교에 한국계, 비한국계, 한국계이지만 한국말을 못 하는 학생들에게 한국어 선택과목이 주어지는 중고등학교도 전국에 2백 개에 육박하고 있다. 나도 자연스레 타국에서 온 백색 타 인종들과 유색 타 인종들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다. 또 나의 모국인 한국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을 두게 되었는데 그것은 ‘윤태양’과의 만남이 한몫을 했다고 생각된다.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백인 양부모에게 입양되어 동양인이 별로 없던 미국 도시에서 삶을 시작했던 청년의 외롭고 힘들었던 짧은 생애는 내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잊혀지지 않는다.





## 아이들과 독일에서 산다는 것

- 박 에 스테 (독일) -

어느 누구의 태양이 될 수 없어 아팠던 윤태양, 짧게 있었던 지구라는 땅에서 태양을 찾아 헤맸던 윤태양, 보이지 않는 태양이었기에 자신을 짐작처럼 구박하던 윤태양은 오늘도 구름 한 점 없는 로스 안젤레스의 푸른 하늘에서 태양으로 떠올라 온몸을 태우며 우리를 비춰 주고 있다. 윤태양은 태양을 찾지 못해 헤매었던 자신처럼, 또 '짐작'이라 확대하던 아팠던 자기처럼 외로운 아이들의 가슴에 온몸을 아끼지 않고 따뜻한 별을, 밝은 빛을 비춰 주고 있다.

한국을 떠나던 날, 만 두 살이었던 큰아들은 공항에 배웅 나온 할머니 손을 쉽게 놓지 못했다. 내 품에 안겨 있던 6개월밖에 안 된 작은아들은 중이염으로 고열치레 중이라 축 늘어져 있었다. 그날은 결혼도 하고 아들도 둘이나 낳아 엄마가 된 다 큰 딸내미가 독일 가서 살겠다고 떠나는 날이었다. 아마도 우리 엄마의 눈에는 다 큰 내가 안쓰러운 어린애로 보였을 것이다. 게다가 언제 다시 보게 될지 모를 눈에 밝히는 손주까지 보내야 했으니, 애가 애를 데리고 잘 살려나 싶었을 것이다. 공항에서는 배웅 나온 가족들이나 떠나는 우리나라, 누구 하나 훌쩍이듯 뒤돌아설 수 없는 가슴 저린 신파를 찍는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다. 하필 왜 먼 독일이고, 하필 왜 저 손주 녀석은 지금 아프고 난리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걱정스런 눈빛으로 쳐다보는 아빠 엄마의 눈빛에 맺고 끓는 확실한 인사라는 게 있을 리가 만무하였다. 같이 울다 웃던 낮으로 비행기 시간에 쫓겨 헤어지고, 서로 안 보이는 구석에서 마음이 아려 찢끔찢끔 눈물을 찍어댄 게 인사라면 나름 인사였다.

“엄마, 내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혹시 알려줄 수 있을까?”

“응 그럼. 어디 가는 길인데?”

“두 개인데…… 공항 가는 길하고 한국 가는 길.”

떠나는 마음은 무거웠어도 막상 독일에 도착하니 말도, 지나가는 사람들 눈빛도 낯선 땅에서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겨우 마트에 가서 입맛에 맞는 먹거리를 살 수 있을 정도로 적응되자 뜬금없이 큰아들이 길을 잃어버렸다며 길을 찾는다. 공항 가는 길이랑 한국 가는 길을 찾으면 한국에 두고 온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삼촌 만나러 갈 수 있다고. 둘이 대화를 주고받다가 꾸역꾸역 우겨 넣어둔 마음이 터져 나왔다. 이게 향수병이구나. 남편이 학교에 가고 나면 셋이 부둥켜안고 울다 웃다 그렇게 첫 해가 갔다.

“엄마, 배고파!”

“엄마, 똥 싸어!”

“엄마, 책 읽어줘!”

독일도 유치원 자리 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다.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별반 다를 게 없다는데 이런 것까지 같을 줄이야…… 낯선 집, 낯선 동네, 낯선 나라에서 적응할 것도 많은데 어쩔 수 없이 아이 둘을 일 년 넘게 옆에 끼고 있어야만 했다. 남편이 저녁에 집에 올 때까지 두 녀석은 오롯이 내 몫이었다. 삼시 세끼만 무사히 해 먹인다고 하루가 쉽게 가는 것은 아니었다. 밥해주면 똥 싸고, 똥 싸면 씻겨 줘야 하고, 씻겨 주면 놀아줘야 하고, 그러면 또 배고프다 하고. 이 사이클을 대여섯 번 반복하면 하루가 지나갔다. 다음날도 똑같았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삼촌 그 누구도 만날 수 없는 곳에서 엄마만 찾는 두 녀석은 나에게 좋으면서 싫은 존재이기도 했다. 정말 다행히도 내가 아이들을 마냥 싫어하게 되진 않았는데, 그건 아파트 이웃들 때문이었다.

우리가 사는 아파트에는 좋은 이웃들이 많았다. 오가다 마주칠 때면 웃는 얼굴로 인사해 주고, 크리스마스 와 부활절 같은 독일 명절 때마다 꼬박 꼬박 아이들에게 작은 선물을 전해 주신 친절한 독일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분들 중 나에게는 엄마 같은 분이 계셨다. 우리 엄마와 비슷한 연배이시면서 한국에서 오신 한국 아주머니! 젊었을 때 공부하기 위해 독일에 왔다가 독일인 남편을 만나 이곳에 살게 되셨는데, 우리가 온 좋게도 그 앞집에 살게 되었다. 독일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독일 말을 할 줄 모르던 나에게 독일을 이해할 수 있게 큰 도움을 주신 분이 앞집 아주머니다. 독일에서 어떤 행동이 예의에 어긋나는지, 한국과 다른 문화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 내가 겪어보지 못해 몰랐던 것들도 아주머니 덕에 알게 되었다. 그렇게 넷이서 매일같이 만나 장을 보러 가고, 산책하고, 밥을 먹고, 놀이터를 다니면서 독일에서도 정을 쌓을 식구가 생겼다. 아이들도 앞집 할머니, 할아버지라 부르며 앞집 식구들을 잘 따랐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내가 아이들과 붙어있어야만 했던 그 시간을 화만 내지 않고 잘 보낼 수 있었다.

“파스타를 이틀 연달아 먹은 아들) 엄마, 이거 또 해주실 거예요?”

“아니, 이제 재료가 없어. 왜. 더 먹고 싶어?”

“아니요, 다행이다. 휴.”

어느 정도 독일 생활에 적응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제일 변하지 않는 것은 한식만 좋아하는 식구들 입맛이었다. 유치원도 안 가는 불효자들의 입맛은 어찌나 까다로운지 요구하는 메뉴도 다양했다. 주로 한국에서 먹던 음식들을 해달라고 했는데, 할머니 입맛이라 그런가 식혜를 찾을 때도 있었다. 떡집에서 몇 천 원만 주면 얼음 동동 식혜를 사먹을 수 있는데…… 아, 여긴 없다. 먹고 싶은 음식들이 생각나는 건 아들들뿐이 아니었다. 남편과 나도 이따금 사무치게 먹고 싶은 것들이 있었다. 아무리 전화해도 배달 오지 않는 음식들, 문득문득 떠오르는 음식들의 잔상과 상상 속 냄새만으로 균침을 꿀떡 삼키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이 타향살이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우린 왜 기본적인 욕구도 채우지 못하고 살아

야만 하는가! 등 떠밀려서, 누가 시켜서 온 타향살이도 아니고 우리가 선택해서 온 것인데 못 먹는 아쉬움도 모자라 억울한 마음마저 들었다. 그러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엄마에게 물어보고 인터넷도 뒤져가며 엿기름을 가라앉혀 전기밥솥에 식혜를 만들고 있는 내 모습이 낯설면서 대견했다.

어릴 때 명절을 맞아 식구들이 할머니 댁에 몰려들기 하루 전날이면 할머니는 꼭 밤에 집에서 가장 큰 전기밥솥에 가득 식혜를 만드셨다. 그땐 어려 손을 보낼 수도 없어 식혜 하던 할머니 모습을 바라만 봤었는데, 식혜 하는 법을 배우지도 않은 내가 식혜를 하고 있자니 ‘밥알이 잘 뿔나’ 하며 밥솥을 열어보던 할머니 생각이 났다. 식혜를 만들 수 있게 되자 그리웠던 음식들을 하나하나 해볼 자신이 생겼다. 그렇게 어깨너머로 본 할머니의 주걱질을 떠올리며 목을 쭈고, 김장할 때 손만 보았던 기억을 더듬어 김치를 담갔다. 한국이었다면 전화 한 통으로 시켜 먹을 수 있는 짬뽕을 무려 세 시간이나 걸려 만들었을 때의 기쁨, 맛은 2%가 아니라 200% 부족하지만 기억과 비슷하게 양념 통닭 냄새와 맛을 흥내 냈을 때의 성취감은 먹겠다는 ‘집착’과 고생을 동반한 ‘궁상맞음’ 그 사이 어딘가에서 왔다 갔다 했다. 먹고 싶은 게 떠오르면 뉘든지 손수 만들어야 하는, 사람을 굉장히 능동적으로 만드는 게 타향살이었다.

“엄마, 왜 이렇게 못생긴 표정을 해요? 힘들어요?”

“엄마, 전 어른이 되는 광선을 쬐서 빨리 할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저 세상 구경가려구요.”

유치원에 가지 못해도 아이들은 쑥쑥 컸다. 엄마의 표정을 살필 줄도 알고 감정도 입을 줄 알았으며 가끔 웃긴 말도 했다. 아기였던 둘째도 어버버 하지만 제법 그럴듯하게 말을 할 줄 알게 됐다. 그러던 중 좋은 소식이 한꺼번에 왔다. 첫째는 유치원에, 둘째는 어린이집에 다니게 됐다는 목 빠지

게 기다려 왔던 소식과 기다리지 않았는데 찾아온 셋째 임신 소식. 아이 둘을 나라에 맡기고 이제 좀 편해지려나 했더니 또 시작이다. 셋째도 아들이었다. 목소리가 엄청 크다는 아들 셋 엄마가 내가 될 줄이야. 남편은 돈 못 버는 학생인데 애 셋을 무슨 돈으로 키우지. 안 그래도 아들 셋이라 한숨이 나오는데 더 큰 걱정이 앞섰다. 감사하게도 독일에는 우리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정인 사람들이 출산할 때 금전적인 면뿐 아니라 여러 방향으로 도와주는 기관이 있었다. 담당자와 면담을 하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같이 궁리하고 출산지원금을 받는 절차를 밟으면서 남편과 나는 독일에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게다가 우리는 독일 정부에서 주는 장학금으로 먹고살고 있었는데 셋째가 태어났다고 장학금을 더 올려줬다. 여기저기서 배려해 주고 도와준 덕분에 셋째가 태어나고 늘어난 살림을 감당할 수 있었다. 독일에 학문을 배우러 왔는데, 같이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남편과 둘이 얘기를 나눌 정도로 고마웠다. 자기 밥그릇은 가지고 태어난다더니 우리 집 셋째가 딱 그 먹을 걱정 없이 태어난 것 같았다.

“아빠, 오늘은 학교 안 가요?”

“응, 아빠 이제 학교 안 가도 돼.”

“그럼 어디 가요? 우린 유치원 가는데.”

셋째를 낳고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남편은 졸업하고 6개월에 걸친 백수 생활을 해야만 했다. 가장의 무게가 유난히도 무거웠을 텐데 내가 같이 짊어져 주지 못해 미안한 시간이었다. 유치원에 아이 둘을 보내고 날이 좋으면 유모차를 끌고 셋이 집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했다. 날은 눈부시고 좋았지만 답답한 마음이 무거워서 편히 갈 곳이 공원밖에 없었다. 별이 잘 드는 잔디밭에서 돛자리 깔고 신발 벗고 누워 이런저런 걱정을 하다가 마지막엔 ‘지금 상황도 감사하지’ 라고 마무리 짓는 게 매일의 대화였다. 어른들

의 힘든 시간과 상관없이 감사하게도 아이 둘은 유치원에 잘 적응해 엄마보다 빨리 독일어를 배워갔다. 걱정거리는 산더미였지만, 감사할 것들도 넘쳐났다. 다행히 남편은 두 계절 만에 그 시간을 끝내고 작은 설계 회사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식구가 많으며 보통 받는 초봉보다 훨씬 더 받고 시작해 이번에도 아이들 덕을 봤다. 또 감사할 일이다. 독일에 올 때 큰 꿈을 품고 왔지만 정작 살다 보니 작은 꿈도 큰 꿈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바뀐다. 회사에 갔다가 저녁에 일찍 퇴근한 남편과 매일 같이하는 저녁밥, 낯선 독일 말이 힘들 텐데도 유치원에 잘 적응해 준 아이들, 외식보다는 시간은 오래 걸릴지라도 집에서 함께해 먹는 별식, 한두 마디씩 말하기 시작하는 셋째가 뜬금없이 하는 엄마! 아빠!, 가족이 함께하는 산책.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 쌓여져 이뤄내는 인생의 큰 꿈을 놓치지 않게 되어 좋다. 이렇게 타향살이가 익숙해져 간다.

“어렵게 한인 마트에서 구해 온 비비빅을 냉동실에 몰래 숨겨 놓았는데 큰아들이 꺼내먹는 걸 보고 갑자기 나도 모르게 화가 나 소리를 질렀다.) 그거 내 건데!!! 먹지 마!!!”

“엄마, 왜 화내요? 음…… 너무 먹고 싶은 거면 그럴 수 있어요.”

큰아들은 늘 어른 같다. 어떨 땐 엄마 같지 않은 나보다 더. 내가 정말 정말 정말 아껴둔 비비빅을 꺼내 한 입 베어 문 아들을 보고 불같이 화를 내는 걸 본 남편이 엄마 맞냐고 웃긴다고 했다. 어른 같은 큰아들이 상황을 파악하고는 이해한다며 위로를 전했다. 자기도 아껴둔 걸 누가 실수로라도 먹으면 속상할 것 같다고 하면서. 상황이 이렇게 되면 부끄러움은 내 몫이다. 나이가 몇인데, 애를 몇이나 낳았는데 아직도 아이스끼끼 앞에서…… 그것도 아들이 먹는 걸 보고…… 으이그. 그렇게 곧잘 날 부끄럽게 만드는 큰아이가 학교에 입학했다. 대견하기도 하고 벽차기도 하고 외롭기도 했다. 이 좋

은 날 남들은 다 할머니 할아버지랑 오는데, 우리 아빠 엄마도 첫 손주 입학 식인데 얼마나 보고 싶으실까. 외로울까 봐 그러셨는지 앞집 아주머니께서 선물도 주시고 입학식에도 같이 가주셨다. 멀리 있는 가족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사촌이 낫다고 아이의 첫돌마다, 생일마다, 일이 있을 때마다 챙겨주시고 축하해 주시는 마음이 고마웠다.

아이들이 학교, 유치원 다니면서 독일 말을 제법 할 줄 알게 되고 잘 적응해줘서 한숨 돌릴 법도 한데 아직 내 고생이 끝나려면 멀었나 보다. 이번에는 넷째 임신이다. 넷째는 아들이 아니고 딸이라는 소식에 기쁜 마음으로 출산을 기다리는 중에 전치태반인 걸 알게 됐다. 게다가 세 번의 제왕절개 수술 이력이 있으니 고위험 산모로 분류되어 출산 전 한 달을 입원해야 했다. 한 달 동안 엄마가 없는 세 놈을 돌봐주시기 위해 보고 싶었던 엄마가 부랴부랴 한국에서 오셨다. 아이들은 할머니 사랑 듬뿍 받으며 엄마 없는 생활도 의젓하게 잘 해냈고, 나도 위험한 상황을 맞지 않고 무사히 네 번째 제왕절개를 해내어 딸을 품에 안을 수 있었다. 퇴원하고 온 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아껴두고 싶었던 시간이 금방 흘러 어느새 엄마와 헤어질 시간이 되었다. 옆에 있을 땐 귀한 줄 모르고, 옆에 없을 땐 보고 싶은 엄마와 자식 사이인지라…… 새 식구 맞는다는 핑계로 잠시 엄마와 티격태격하며 지낸 짧은 동거가 끝나고, 엄마는 다시 하늘을 날아 제집으로 송 가버리셨다. 정신을 차리고 나니 내 옆엔 득실득실 남자만 넷, 안으면 바스러질 것같이 작은 딸아이가 하나. 이렇게 엄마 없이 머나먼 독일에서 애 넷 키우는 외로운 애미 신세가 됐다.

“세상에서 제일 큰 가락은?”

“엄지발가락!”

일주일에 한 번, 이런 유치한 대화를 하며 네 아이들을 안혀 놓고 손과

발을 만져볼 기회가 온다. 바로 손, 발톱 합쳐 총 80개를 깎아야 하는 매주 돌아오는 그 시간! 이때를 핑계 삼아 아이들의 손발을 그 옛날 용의검사하듯 살펴보게 되는데. 큰놈 둘은 겨울에 장갑도 안 끼고 얼마나 신나게 놀았는지 손이 거칠거칠 다 뒤틀고, 막내 두 녀석 손과 발은 아직 말랑말랑 애기티가 난다. 아이들이 금방 커서 스스로 손, 발톱 자를 수 있는 날이 오면 엄마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겠지, 라고 생각하며 매주 기쁘게 주중행사를 치르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애들 뒤통무니 쫓아다니며 5분만 앉아있어 달라 사정사정해야 하고, 어쩔 땐 정신없는 엄마 덕에 주중행사를 치르지 못한 애들이 손톱 밑 흙을 벗 삼아 귀신처럼 다닐 때도 적지 않다. 휴, 귀찮다. 그냥 내 손, 발톱만 자르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애 넷을 키우자니 정신도 없고 체력도 딸리고 다 힘들다.

“한국 가는 비행기 안) 엄마, 벌써 비행기 추락해요?”

“아니, 추. 락. 아니고 착. 륵. 하거든?”

한국말을 잘하는 것 같다가도 이상한 포인트에서 실수하는 아이들. 웃긴다. 아이의 말과 달리 우리 식구들 태운 비행기는 감사하게도 추락 아니고 착륙해서 무사히 고향 방문을 할 수 있었다. 정말 오랜만에 방문한 한국인데 아이 방학 일정에 맞추다 보니 너무 짧아서 보고 싶은 사람들 맘껏 보지 못하고, 먹고 싶은 것들 맘껏 다 먹고 오지 못해 아쉬웠다. 그나마 한 가지 위안 삼는 건 친정집에서 오롯이 이기적인 딸로 살다 왔다는 것. 아침에나 대신 누군가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며 밥해 주는 소리를 땡굴땡굴 누워서 듣기, 네 아이 중 어느 한 놈이 아침 일찍 일어나 밥 달라고 해도 나 대신 줄 사람이 있으니 또 땡굴땡굴 누워있기, 독일에서 매일같이 하루에 두 번씩 돌려대던 빨래 양이 줄진 않았을 텐데 빨래 통에 넣어두기만 하면 마법처럼 깨끗하게 빨려 착착 개켜져 쌓여 있던 옷들을 보며 감탄하기, 먹고 싶다고 말

만 하면 만들어주거나 배달 오거나 스스로 요리되어 내 앞에 잔뜩 놓여 있는 마술 보기. 나도 엄마 딸일 때 이려고 살았을 텐데…… 내 애들 엄마로 살다 딸 대접 받아보니 천국이 따로 없었다.

우리 가족의 한국 방문 일정이 정해지자, 아빠, 엄마는 봄에 밭에다 참외를 잔뜩 심으셨다. 독일에는 한국 과일과 비슷한 것들이 대충 다 있지만 딱 두 가지, 한국 참외와 포도는 우리 식구들이 늘 그리워하는 과일인 걸 아시기에.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신 참외 넝쿨이 우거진 밭에서 아이들은 참외를 바로 따서 칼로 쓱쓱 깎아 먹는 맛을 깨닫고 무척 좋아했다. 부지런한 둘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할아버지를 쫓아 밭에 가서 제법 농사꾼처럼 참외 수확도 해왔다. 정신없이 짐을 싸는 한국 일정의 마지막 날에도 아빠는 참외를 따 오셨다. 그 참외들을 옷 사이사이에 깨지지 않게 잘 박아 넣었는데 독일에 와서 짐을 풀다 보니 짐은 다 내가 짴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참외가 한 알씩 툭툭 튀어나왔다. 안 그래도 한국에 다녀올 때마다 고향 떠나 사는 설움에 마음이 좋지 않은데 이놈의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참외가 짐 푸느라 바빠 죽겠는데 자꾸 방해한다. 참외를 볼 때마다 애들도 영영, 나도 영영. 몇 알 되지도 않으면서 마음을 들었 다 났다 하는 요물이 따로 없었다.

한국에 있는 동안 마당 한켠 내내 널려 있던 고추는 마지막 날 부모님이 눈물 콧물 흘려가며 하나하나 닦으시더니 방앗간에 가서 한 봉지 고춧가루로 만들어주셨다. 시골에 사시는 시할머니는 이제 이게 본인이 담가 주는 마지막 고추장일 거라며 묵직한 고추장 한 통을 싸주셨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우리 할머니는 나한테 하루에도 몇 번씩 ‘애가 밋이여’를 물으시고 넷이라고 대답하면 엄청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다. 독일 산다고 하니 남편은 외국 사람이냐고도 물으셨다. 오래된 동네 친구들은 독일에서 살다 온 촌년을 데려다 어제도 만나고 오늘도 만난 것처럼 밥도 해주고 놀아도 주고 잠도 재워줬다. 아이들은 다양한 버전의 (왕, 친, 외, 이모, 작은) 할머니들, 할

아버지들, 이모들, 이모부들, 삼촌들, 사촌들을 만나 신나게 놀고 사랑받고 비비다 왔다. 그렇게 사랑 듬뿍 받다가 돌아오니…… 분명 이 글을 쓰며 내가 누워있는 여기, 독일이 우리 집인데 판 곳에 내 집이 있는 기분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게, 마음을 두고 왔단 말로도 쓸 수 있을 것 같다.

“(셋째 왈) 엄마, 형아들은 한국에서 태어났죠?”

“응. 너랑 동생은 독일에서 태어났어.”

“왜요? 우린 왜 한국으로 안 가요? 난 한국이 더 좋은데.”

2012년 9월 21일 8년 전 9월. 아이 둘을 업고 끌고 독일 땅을 처음 밟았다. 그렇게 시작된 타향살이는…… 라고 쓰고 싶지만, 독일에 도착하자마자 시차 적응도 안 된 채 타향살이를 말 그대로 시. 작. 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만 했던 일 처리 중 가장 중요했던 건 바로 비자청 방문이었다. 비자를 얻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일단 증빙해야 할 서류만 산더미일 뿐만 아니라 비자 담당자를 만나기 위해 아침 일찍, 아니 새벽부터 서둘러 가야만 했다. 서류 준비야 남편이 주 담당이니 난 그저 애들 챙겨서 나가기만 하면 됐는데도 그게 참 힘들었다. 비자청 여는 시간에 맞춰 가지 않으면 늘어선 줄 끄트머리에 서서 오랜 시간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꼭두새벽부터 애들을 깨워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일찍 서둘러야 했다. 9월은 서머타임이 막 끝났을 때라 비자청에 도착해서 동이 틀 때도 있었다.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 매년 같은 시기에 와야 하는 걸 뒤늦게 깨닫고 ‘왜 우린 날씨 좋은 여름에 독일에 오지 않았을까, 그럼 비자청에 오는 날도 아침 해가 일찍 뜨는 따뜻한 여름이었을 텐데!’ 라며 갈 때마다 같은 후회를 했다.

처음 독일 생활을 시작할 때 남편은 독일에서 주는 장학금 수혜자였기 때문에 학생 시절에 우리 가족이 비자를 받는 것은 다행히 별 어려움이 없었다. 그래도 독일이라는 나라에 거주할 수 있는 허가를 얻길 바라는 외국인

이 가득한 비자청에 가는 기분은(나도 그 사이에 서있는 외국인이었지만) 텃세 부리는 마름에게 굽신굽신 허리 굽히려 가는 소작농 같아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다. 나도 우리나라 한국에선 비자 없이 살 수 있는데! 억울한 기분도 들고. 한편으로는 한국에 살 때 길에서 마주치는 외국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던 것-딱히 무시하지도 않았지만-을 무척 후회했다. 내가 그들 입장이 되어보니 시선 하나로 할 수 있는 말이 참 많다는 걸 이제야 알겠다.

우리가 독일에 온 그 계절, 가을이 되면 일 년에 한 번 혹은 이 년에 한 번 씩 그 일을 하러 비자청에 가야만 했다. 남편은 처음엔 학생 나부랭이, 백수를 거쳐 드디어 독일에 세금 내는 회사원이 되었다. 직장 생활 몇 년 차에 남편이 드디어 영주권을 얻고 나니 동반 비자를 가진 우리의 입지도 조금씩 안정을 찾았다. 가을이 오는 그때마다 비자청에 가는 부담감도 조금씩 줄어들었다.

제작년 가을, 아직 동반 비자 신분인 아이들과 내 비자를 위해 몇 년 만에 비자청에 가야만 했다. 이번에 아이들은 데려올 필요 없다고 했다. 아이들을 데려오지 않아도 된다 해서 그런가, 이젠 비자가 거절될 일이 없어서 그런가. 이번엔 한결 가벼운 손과 마음으로 간만에 시내 나들이 나가는 기분으로 넷째 하나만 있는 척, 오뎅하게 셋이 비자청에 다녀왔다. 서머타임이 막 끝난 가을 아침 하늘은 여전히 어둡고 추웠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다. 여권에 비자 딱지 하나씩 붙여 주는 건데도 두 시간쯤 기다려-제출한 여권만 다섯 개이니, 독일에서 이 정도 일처리 속도는 감사한 편이다-비자를 받아냈다. 하지만 기다리는 시간은 예전처럼 초조하지 않았고, 감히 비자청에서 커피 한 잔 하는 여유도 부릴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날이 꼭 비자를 선물로 받는, 때마다 꼭 돌아오는 생일이란 생각도 했다. 비자 받는 생일이 꼬박꼬박 일 년마다, 잦은 주기로 돌아와 힘들었을 때도 있었지만, 독일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생일이 돌아오는 주기도 점점 길어지고 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생일이 더디 온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물리적 생일에 내 지난 세월을 생각하며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

처럼, 비자를 받는 생일날이 되면 어김없이 독일에 온 첫날이 생각나고 우리의 지난 타향살이가 큰 탈 없이(물론 산 넘어 산인 일상이지만) 잘 흘러가고 있음에 감사하게 된다. 2018년 가을, 이렇게 비자를 감사히 받는 생일이 무사히 지나갔다.

“(2012년에……) 우리 나이 들면 어디서 살까?”

“한국 가서 늙어야지!”

“(2020년에……) 우리 나이 들면 어디서 살까?”

“글쎄, 아이들이 여기 산다고 하면…… 보고 싶어서 한국 가서 살 수 있을까?”

남편의 대학원 합격증 한 장에 의지해 가족, 친구들 떠나 지구 반 바퀴를 돌아 먼 이사를 하고 한 해 두 해 지내다 보니, 끝나지 않을 것 같던 학생 시절도 지나 남편은 번듯한 건축사가 되었다. 나는 셋째도 충분한데 분에 넘치는 예쁜 넷째도 있다. 지나간 시간을 되짚어 보니 지금까지 우리에게 닥쳤던 난관들이 눈앞에 스쳐 지나가며 퀘스레 마라톤에서 1코스 완주한 것 같은 뿌듯함이 든다. 이만큼 오기까지 어쩔 수 없이 지나온 힘들었던 시절과 우리를 서럽게 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 지나고 나니 좋았던 일도 안 좋았던 일도 모두 감사할 따름이다.

가끔 나는 남편과 나이 들면 어느 나라에서 살아야 할지 얘기한다. 독일 생활 초기에는 ‘무조건 한국에 돌아간다!’ 였지만, 지금은 대답이 좀 다르다. 어디에서 살게 되든 간에 우리 가족이 함께인 곳으로,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는 곳에서 살게 되는 걸 먼저 생각하게 된다. 물론 한국에 계신 부모님과 가족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 한켠이 아리다. 내 집은 여기 독일인데 지구 반 바퀴 돌아 내 집이 또 있는 것처럼.



# 2020 재외동포 문학의 창



중·고등 부문

## 최우수상

가을비의 사랑법

- 김미혜 (중국)

## 우수상

아이단 + 라만 = 나

- 홍찬양 (아제르바이잔)

꿈꾸는 디아스포라

- 김다윤 (오스트리아)

## 장려상

주름살에 핀 웃음 꽃

- 유다은 (태국)

집은 내 마음 속에 있다

- 윤에스더 (감비아)

내가 영어를 못해도 되는 이유

- 표현규 (캐나다)





## 가을비의 사랑법

- 김미혜 (중국) -

얼어있던 바람결이 해설해설 풀어진다. 아물아물 피어나는 아지랑이가 아니어도 봄이 오는 걸 알 수 있었다. 세상이 아무리 암울하고 절망스러워도 자연은 그 스스로의 근면함으로 계절을 풀어내고 찬란한 햇빛은 그 따스함으로 차가움을 품는다. 나는 이런 따스함이 좋았고 이런 봄의 사랑법을 사랑했었다.

아빠의 사업 때문에 나는 엄마 배 속에서 자고 있을 때 바다를 건너 중국이란 대륙에 안착했다. 기억이 가물가물한 어린 시절 장면을 굳이 떠올려 보자면 항상 퇴근하시고 피로로 가득 찼던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오시던 아빠를 천진난만하게 쳐다보는 나를, 아빠는 한걸음에 달려와 안아주셨다. 그것도 매일을 힘든 기색 하나 내지 않으시고. 나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참 좋았다. “삐삐삐빅-”하며 숫자를 입력한 후 열리는 문 뒤로 하루도 빼먹지 않고 웃으며 들어오시는 아빠가 계셨기에. 아빠는 항상 칭얼대는 딸아이를 데리고 놀다가 엄마가 마법처럼 순식간에 한 상 차린 밥상 앞에 둘러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며 먹는 저녁밥이 행복의 맛이라고 하셨다. 이런 소소한 행복들을 누릴 수 있어 참 행복하다고 하셨다.

쓸쓸한 가을이 다가오기 전 여름의 무성함이 절정에 달하듯, 만개한 꽃들 사이에 기대어 순진무구한 웃음꽃을 피우던 어린아이의 행복도 절정에 달했었다. 언제나 그렇듯, 슬픔은 늘 갑작스레 이별을 타고 찾아와 버린다.

벽차도록 한 몸에 사랑을 주시던 아빠는, 언제나 큰 나무처럼 의지했고 버팀목이 돼주셨던 아빠는, 가을비 내리던 밤 생계를 유지하러 모국으로 돌아갔다.

가을은 늘 가슴 한구석 시리게 느닷없이 찾아온다. 느닷없이 찾아오는 가을처럼 가을비도 느닷없이 찾아오곤 한다. 흐드러지게 폈던 여름이 지고 추적추적 내리는 가을비가 쓸쓸한 가을이 온다는 걸 알려 주고야 만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빨간 딱지는 붙여지지 않았지만, 자꾸만 날아오는 종이 꼬리들은 어린 나도 아빠가 하시던 일이 잘 풀리지 않았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다. 그때는 몰랐다, 아빠의 빈자리가 이토록 클 줄은. 타국에서 아빠 없이 엄마와 단둘이 살아간다는 건 그리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었다. 엄마와 나는 오랜 시간을 중국에서 살아왔기에 중국어를 능통할 수 있어 언어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외로움이 문제였다. 가을비가 내리는 날 아빠가 떠나서서 일까. 가을비가 내리는 날이면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고 엄마도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밤들이 많아졌다.

늘 함께일 것만 같았던 익숙한 지난 시절을 뒤로한 채, 한 해 또 한 해 다가오는 쓸쓸한 가을을, 한 번 또 한 번 내리는 쓸쓸한 가을비를 우리는 몸도 마음도 멀리서 느끼며 맞이했다. 그래도 죽으란 법은 없다는 걸까.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인가 보다. 늘 느닷없이 내리는 가을비도 한 번 또 한 번 맞다 보니 가을비도 슬픔과 외로움 대신 추억으로 내리는 듯했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엔 항상 엄마가 커다란 우산을 들고 씩씩 주셨다.

가을이 지나 겨울이 오고 봄이 오고 여름이 다가오는 이걸 몇 번이나 반복했을 때쯤, 스마트폰이 보편화되었다. 신비로운 과학은 장거리 전화로만 겨우 아빠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과거에서 클릭 몇 번 만에 아빠와 바로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영상 통화라는 것도 할 수 있게 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고 흘러간 시간 속에 너무 많은 걸 흘려보낸 걸까, 거리가 멀어져 마음도 멀어져 버린 걸까, 영상 통화 횟수도 점점 줄어들었다. 그러던 중

경계가 점차 나아져 아빠가 있는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됐다. 여행 목적으로 모국에 돌아온 것이긴 하지만 설렘은 감출 수 없었다. 마침 내리는 가을비가 어찌 반가운지 깡충깡충 아빠를 향해 뛰어갔다. 이젠 가을비가 그리움의 대명사가 아닌 재회의 기쁨으로 남을 것 같았다. 물론 그땐 가을비가 차마 처참한 이별로 될 줄은 몰랐다.

십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게 틀린 말은 아니었나 보다. 아빠는 여전히 다정다감한 아빠였지만 더 이상 다정다감한 남편은 아니었다. 아빠는 홀로 너무 오랜 세월을 보내서였을까, 나한테 여전히 웃는 얼굴을 한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나무였지만, 엄마한테 아니었다. 해서는 안 될 짓을 해버렸다. 잠깐 편의점에 갔다 온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나 보다. 엄마 몸에 시퍼렇게 생겨버린 멍들, 유리에 맞아 생긴 상처들, 깨져 있는 욕실 거울과 굴러다니는 소주병들, 그리고 그 사이에 누워 자고 있는 아빠의 손엔 먹다 남은 소주병이 쥐여 있었다.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숨죽여 울고 있는 엄마의 눈엔 절망, 슬픔 그리고 배신감이 서려 있었던 것 같다. 난 가을비 내리는 밤, 창문 밖을 바라보는 엄마의 눈이 제일 슬픈 눈이라고 생각했었다. 흘러내리는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눈동자를 보기 전까진 말이다. 나는 내 앞에 누워있는 아빠를 보고 처음으로 낯설음을 느꼈다. 다리가 풀려 픽 넘어졌고 귀에서 자꾸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머릿속엔 아무 생각이 나질 않았다. 엄마는 내 손을 잡고 집을 나와 무작정 걸었다. “후두두둑-” 애석하게도 가을비가 또 처참하게 내렸다. 우산도 없이 걷다 보니 내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차가운 물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비가 내릴 때의 특유한 눅눅함 그리고 짹짹하고 축축한 흠냄새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비에 폭 젖은 내 옷에서 나는 건지 길옆 하수구에서 풍기는 건지 알 수 없었다. 그렇게 집을 빠져 나와 한참을 걷다가 하수구에서 풍기는 게 아니라 내 옷에서 나는 냄새란 걸 알았을 때쯤 엄마 친구 집에 도착했고 그 후 며칠 동안 신세를 지며 지냈다. 아빠 집으로 가고 싶었지만 그날 밤 아빠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려 차

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처음 내린 가을비는 아빠를 한국으로 돌아가게 했고 두 번째 내린 가을비는 완전한 이별을 타고 내렸다. 엄마와 아빠가 같이 보낸 긴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이별은 쉽고 간단했다. 나 알게 모르게 두 분이서 쌓여 왔던 게 폭발했나 보다. 언성이 높은 통화 몇 번 만에 끝나버렸다. 서류 몇 장만이 이 걸 증명하듯 자꾸만 눈에 밟힌다. 그렇게 내가 중2 때 내린 가을비는 행복을 앗아갔다. 외할머니도 중국에 계신지라 나와 엄마는 중국으로 돌아왔다. 똑같은 공간, 똑같은 집이었지만 아빠와의 거리가 더 멀어져서일까, 낯설게 느껴졌다. 엄마는 뭐가 그리 미안한 건지 늘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다.

가을비는 외투보다 마음을 먼저 적신다. 가을비가 적시기 전에 눈물이 먼저 적시는 것 같다. 그렇게 몰래 마음을 적셔가던 중 아빠한테서 연락이 왔다. 길고 긴 메시지였다. 딸한테 못난 아빠가 되어서 미안하다고, 아빠가 천 번이고 만 번이고 미안하다고, 이 못난 아빠를 용서해 줄 순 없냐고…… 글자 사이로 아빠의 참회하는 모습이 배어있는 것 같았다.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며 고뇌하시면서 나에게 보낼 문자를 작성하는 아빠의 모습이 배어있었다. 아빠를 향한 그리움도 견잡을 수 없이 커지고 말았다. 정신 차려보니 액정엔 이미 내 볼을 타고 내려온 눈물로 가득 찼다. 추적추적 내리는 가을비에 푹푹 참으며 누적해 왔던 그리움이 터지고 말았다.

세상에는 말없이 오고 가는 것이 많다. 파릇파릇 돌아나는 새싹들이 봄이 왔단 걸 알려 주듯이 추적추적 내리는 가을비가 가을이 오고 있음을 알려 준다. 기약 없이 떠나가는 시절도 마음의 만남을 기약할 수 없는 얼굴도 기약 없이 내리는 가을비처럼 느껴진다. 시간이 또 흐르고 아빠의 모습이 가을비처럼 아른해져 갈 때쯤, 난 아빠 보러 다시 한국 땅을 밟았다. 몇 년 못 본 사이에 저 분이 내 아빠가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지쳤다. 손에 커다란 우산을 꼭 쥐고 날 데리러 공항에 오셨다. 그 옛날 옷도 멋있게 입고 다니고 아이들과 견주어 보아도 전혀 지지 않는 잘생김 가득한 얼굴은 온데간데없



## 아이단 + 라만 = 나

- 홍 찬 양 (아제르바이잔) -

었다. 일하시느라 바빠 옷에 신경 쓸 여념이 없으신 것 같았고 잘생긴 얼굴엔 견뎌온 삶의 무게가 담겨 있는 듯한 주름이 새겨있었다. 날 바라보며 웃는 얼굴은 여전했고 내 손을 감싸는 따뜻한 기운도 여전했다. 한 손엔 캐리어를 끌고 한 손엔 아빠의 따스한 손을 잡고, 아빠의 다른 한 손이 들고 있는 우산을 쓰고 가을비를 가로지르며 집을 향해 걸었던 그날 밤이 잊히지 않는다.

늦게나마 바라본다. 아빠만의 사랑을 담아 내리는 가을비를. 만물이 약동하고 새살이 돋아나는 봄도 아니고, 흐드러지게 꽃이 피는 여름도 아니고, 대지에 흰옷을 입히는 낭만의 겨울도 아닌 쓸쓸한 가을에 추적추적 내리는 가을비지만 난 알고 있다. 쓸쓸하게 내리는 듯한 가을비가 아빠만의 사랑법이란 걸.

아빠는 한국에 나는 타국에, 멀리 떨어져 있지만 아빠 딸은 곳곳이 바르게 자라고 있다. 눈물을 머금은 펄펄 나뭇잎까지 애달프게 흔들리는 가을비의 사랑법을 터득해 가면서. 추적추적 내리는 가을비를 사랑해 가며.

얼어있던 바람결이 풀리지 않아도 세상이 아무리 암울하고 절망스러워도 아빠 사랑이 담긴 가을비는 가을비만의 찬란함으로 나를 품에 안는다.

나의 인생 14년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곳이 불의 나라 아제르바이잔이다. 미국에서 태어나 5년 반 살았고 한국에서 1년 반, 그 후 즉 아제르바이잔이라는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나라에서 살고 있다.

미국에서 유치원(kindergarten), 한국 상주에서 유치원 그리고 이곳의 수도 바람의 도시 바쿠에서 초등학교를 거쳐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꿈 많은 소녀다.

이곳 아제르바이잔 공립학교들은 이름이 따로 없고 각 학교마다 번호가 있다. 내가 다니는 학교는 236번 학교다. 과거 공산국가 러시아의 식민지 영향인 듯하다.

이곳 학교는 아제르바이잔어(아제리어)로 수업하는 반과 러시아어로 수업하는 반으로 나뉜다. 나는 1학년 때부터 러시아 반에서 공부하고 있다.

아제리어를 사용하는 국가는 이곳뿐인데 러시아어는 많은 나라들이 사용하고 있고, 글로벌 시대에 러시아의 영향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은 점을 고려해 부모님이 러시아 반으로 정해 주셨다.

이곳 학교는 1학년 때 같은 반 아이들이 4학년까지 같이 올라가고, 5학년부터 11학년 졸업할 때까지 같이 올라간다.

몇 년을 똑같은 교실, 똑같은 친구들과 지내다 보니 지루할 때가 있고 새로운 환경과 변화가 그리울 때가 있다.

반면에 새로운 선생님 또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바뀌는 반 친구들과 1년에 한 번씩 서로를 알아가고 적응해야 하는 수고가 필요 없는 장점이 있다. 또 친구를 깊이 사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방식이 마음에 든다.

나는 이곳 현지 학교를 다니면서 아주 친하게 지내는 절친 두 명이 있다. '아이단' 과 '라만' 이다.

나는 초등학교 1학년 때 키가 커서 맨 뒷자리에 앉았는데 그때 짝꿍이 아이단이란 친구다.

처음 아제르바이잔 학교에 다니다 보니 모르는 게 많아 하루하루가 힘들었는데 언어가 안 통하는 나를 아이단은 눈치껏 티 나지 않게 챙겨주곤 했다. 예쁜 얼굴은 아니지만 눈이 아주 크고 우리 또래 아이들이 감히 흉내 내지 못할 패션 감각이 뛰어난 친구였다. 1학년 때부터 신발과 옷, 배낭을 늘 색깔을 맞춰 입고 학교에 왔다. 우리 학교 전체를 통틀어 단연 아이단의 패션 감각은 최고였다.

학교에서의 모습도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게 행동이 성숙했던 것 같다. 그리고 내가 봐도 참 여성스러운 모습이 아이단에게 있었다. 그런 아이단을 우리 반 여자아이들은 좋아했고 같이 짝꿍을 하고 싶어 했다. 그렇게 반에서 인기가 많고 주목받는 아이단이 나에게 관심이 많고 친하게 지내는 것을 우리 반 여자아이들은 부러워했다.

한국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아이단에게 있었던 거 같고 방탄소년단을 좋아 한다는 공통점이 우리에게 있었다.

아이단과 나는 4학년 때까지 계속 짝을 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아빠나 엄마들이 데리고 집으로 가는데 아이단은 늘 할머니 아니면 할아버지가 아이단과 언니를 데리고 집으로 간다.

4년 동안 한 번도 아이단 엄마나 아빠를 본 적이 없다. 하루는 쉬는 시간에 아이단에게 물었다.

“왜 너의 엄마와 아빠는 한 번도 학교에 안 오니?”

아이단은 말없이 나를 쳐다봤다.

그리곤 이렇게 말했다.

“우리 엄마는 매일 일하러 직장에 가야 하기 때문에 바빠서 학교에 올 시간이 없어. 학교 끝나면 언니랑 할머니 집에 가서 점심 먹고 숙제하고 놀다가 해가 지는 저녁 엄마가 퇴근할 시간에 집에 가.”

그리고 잠시 머뭇거리며 주변을 살피더니 아이단은 내 쪽으로 몸을 움직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렸을 때 아빠가 엄마를 자주 때렸어.”

“그래서 언니와 나는 아빠가 무서웠어.”

“어느 날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와도 다투고…….”

“지금은 아빠와 같이 살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 아이단의 얼굴은 빨개졌고 슬퍼 보였다. 나는 그날 집에 와서도 아이단이 학교에서 나에게 한 말들이 계속 떠올랐다. 저녁을 먹을 때 아빠와 엄마에게 오늘 있었던 아이단 이야기를 했다. 이곳 사람들은 남편에게 맞고 사는 여자들이 많다고 아빠가 말했다.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아이단으로 나의 생각이 가득했다.

아침에 잠에서 눈을 떴다.

눈뜨자마자 아이단이 떠올랐다.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나에게만 아이단의 어두운 부분을 들려준 것에 대해 고마운 마

음이 들었다. 이것을 계기로 아이단과 더 깊은 친구 관계로 발전한 것 같아 살짝 기분이 좋았다.

나의 또 다른 절친의 이름은 라만이다.

아이단의 집은 학교 뒷문 쪽으로 가고 나와 라만은 학교 정문을 지나 가는 같은 방향이다. 라만과 나는 집에 오는 길이 같아 자연스럽게 친해졌다. 라만은 아이단과 달리 털털하고 씩씩한 성격이다. 키도 우리 반에서 제일 크고 정의로운 성격이다. 아주 가끔이지만 남자아이들과도 싸운 적이 있다.

이곳 여자아이들은 남의 집에 잘 놀러가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라만 집에 자주 놀러가고 숙제도 같이 했다. 라만 엄마는 나를 예뻐했고 갈 때 마다 맛있는 아제르바이잔 음식을 만들어 같이 먹고 집에 갈 때 조금씩 싸주기도 했다.

라만 엄마는 우리 아빠보다 키가 크고 이슬람 여자들이 하는 히잡을 늘 썼다. 라만 아빠는 러시아에 돈 벌러 가서 가끔씩 집에 온다고 라만이 말했다. 그러나 나는 1학년부터 7학년이 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라만 아빠를 본 적이 없다. 또 라만이 아빠에 대해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던 거 같다.

아이단과 라만은 별로 친한 사이가 아니다. 학교에서도 둘은 별로 얘기를 하지 않는다. 아이단과 라만 그리고 나 이렇게 셋이 친하게 지내면 좋을 것 같아 다리 역할을 하려고 하루는 수업이 끝난 후 학교 옆 분수 공원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아이단과 라만은 서로 어색해하고 별로 서로에 대한 관심이 없어 보였다. 마치 물과 기름같이 섞이지 않을 거 같고, 하얀색과 까만색같이 둘에게는 공통점이 없어 보였다.

내가 좋아하는 아이단과 야만이 나와 함께 셋이서 절친 삼총사로 지내는 건 불가능해 보였다. 그날은 아무런 소득 없이 피곤하기만 한 하루였다.

아이단은 4학년 중간에 시내로 전학을 갔다. 아이단보다 두 살 많은 언니가 학교생활을 힘들어 해 다른 학교로 전학 갔는데 엄마의 강요로 아이단도 같이 가게 됐다.

아이단은 언니가 학교생활이 왜 힘들었는지는 나에게 말하지 않았다. 나는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다. 우리 반 아이들은 좋은 일, 자랑거리는 부풀려서도 말하지만 안 좋은 일은 잘 드러내 말하지 않는다. 그냥 짐작만 할 뿐이다. 아이단이 전학 간 이후에도 가끔 주말에 나는 아이단 집에 놀러가 시간을 같이 보내곤 했다.

그러나 아이단은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집에 온 적이 없다.

6학년 여름방학 전쯤 라만을 경험하는 사건이 있었다. 우리는 수업을 마치고 함께 학교 건물을 지나 집으로 오고 있었다. 분수 공원을 지나다가 라만이 멈춰 서더니 나에게 말했다.

“누가 학교 건물 위에서 너의 배낭에 물감을 뿌렸어.”

나는 배낭을 내려놓고 살폈다.

핑크색 배낭에 파란색 물감이 튀긴 자국들이 있었다.

나는 몹시 짜증과 화가 났다.

“누구야!!”

“누가 이런 거야 도대체…….”

“라만 너는 봤어?”

“아……아니 못 봤어.”

집에 와 저녁에 엄마와 아빠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했다.

아빠 생각에는 라만이 학교 건물 지날 때 물감이 위에서 떨어지는 것을 봤으니 누가 그랬는지도 봤을 것 같다고 하시면서 라만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라고 하셨다.

만일 라만이 모른다고 하면 아빠가 학교에 찾아가 선생님에게 말하고 물감 뿌린 아이를 찾겠다고 하셨다.

그러나 아빠가 직접 나서면 일이 커지니 라만에게 전화해 너희 둘이 해결을 해보라고 하셨다.

라만에게 전화했더니 라만은 누가 그랬는지는 못 봤다고 말했다.

그러나 라만답지 않은 망설이는 듯한 전화 목소리였다.

나는 다시 신경질적으로 물었다.

라만은 내일 학교에서 얘기하자며 전화를 끊었다.

나는 라만이 뭔가 알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다음 날 학교에서 첫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라만이 나의 손을 붙잡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2층으로 끌고 올라가 5학년 반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누군가를 찾는데 순간 한 남자아이가 우리를 보자마자 교실 뒷문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라만도 그 남자아이 뒤를 쫓아 뛰어갔다. 나도 덩달아 라만의 뒤를 쫓아 뛰어가다가 라만의 뛰어가는 뒷모습에 웃음이 터졌다. 덩치가 큰 라만이 뒤통뒤통 엉덩이를 흔들며 뛰어가는 모습이 너무 웃겼다. 라만은 정말 달리기를 못한다.

그 아이는 남자 화장실까지 도망갔다. 잠시 머뭇거리던 야만이 바로 남자 화장실까지 쫓아 들어가 잠시 후 남자아이 팔을 잡고 밖으로 나왔다.

밖에 있던 나에게 빨개진 얼굴로 끌고 와 빨리 사과하라고 그 아이를 다그쳤다. 주변에 있던 남자아이들이 다 우리를 쳐다봤다.

그 남자아이는 쑥스러운 듯 바닥을 쳐다보며 머뭇거리다 작은 소리로 “미안하다”고 말하곤 바로 자기 교실로 도망치듯 달려갔다.

나와 라만도 다음 수업이 시작되어 아래층 우리 교실을 향해 달렸다. 수업 하는 동안 나는 라만을 자꾸 쳐다보며 혼자 웃었다. 라만에게 고마워해야 하는데 뒤통뒤통 뛰어가던 라만의 모습이 자꾸 떠올라 웃음이 계속 나왔다.

남자 화장실까지 범인을 잡으려고 들어가다니…….

수업이 모두 끝나고 학교 건물을 지나면서 물감을 뿌렸던 2층을 한 번 쳐다봤다. 그리고 라만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라만은 아무 표정 아무 말도 없이 걷기만 했다. 고마운 마음으로 라만이 좋아하는 도내르를 사주려고 도내르 가게 앞에 멈춰서서 나에게 말했다.

“어제 너에게 물감 뿌린 남자아이는 내 사촌 동생이야. 외삼촌 아들…….”

이곳 사람들은 친척들이 한 동네에 많이 모여 산다.

“어제 물감 묻은 배낭을 보며 화를 많이 내던 너의 모습을 보며 사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어. 하필 사촌 동생이 한 짓이라…….”

“그리고 밤새 고민했어.”

“사촌 동생의 잘못을 너에게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런데 넌 외국 사람이지만 내 소중한 절친이기 때문에 너를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어.”

“미안해. 이제야 말해서…….”

나는 라만의 손을 꼭 잡았다.

“아니야.”

“낯선 나라에서 살면서 좋은 오빠 같은 친구가 있어서 넘 좋아.”



## 꿈꾸는 디아스포라

- 김 다 윤 (오스트리아) -

“너랑 같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해.”  
“내가 너에게 고마워해야 해.”  
랴만은 그제야 씩 웃었다.

아이단과는 전학 간 이후로 만나는 시간이 많지 않지만, 아이단은 매년 내 생일을 기억하고 정성스런 선물을 준비해서 준다. 반면에 거의 매일 만나는 랴만은 한 번도 내 생일을 기억한 적이 없다.

내가 전화해서 “오늘 내 생일이야.”  
그러면 “아이고 어제까지 기억하고 있었는데 오늘 깜박했네.”  
늘 그런 식이다. 그래서 항상 랴만 선물은 생일 다음 날 받았다.

달라도 너무 다른 아이단과 랴만. 내 욕심인 절친 삼총사는 이루지 못했지만 아이단과 랴만은 나의 아제르바이잔 생활에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절친들이다. 내가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마치 천사같이 내 주변에 머무르며 자신들이 손해가 되더라도 나를 도와주는 사랑스런 친구들…….

이 글을 쓰며 아이단과 랴만이 더 소중하고 사랑스럽게 다가온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이단과 랴만을 합친 모습이 나 같다는 생각을 문득 해본다. 아이단+랴만=나 ㅎㅎ

어른이 되어서도 절친으로 남을 수 있는 오랜 친구들이었으면 좋겠고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들어가는 우정이 우리에게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한다.

여러분은 ‘디아스포라’ 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디아스포라(디아스포라)는 그리스어로 ‘흩뿌리거나 퍼트리는데’를 뜻하는 말로서 특정 민족들이 기존에 살던 땅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이지만 유럽에 살고 있는 저와 저의 가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디아스포라!’ 흩어짐으로 시작되는 위대한 이야기를 통해 저의 또 하나의 가치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혹시 <금주가>라는 노래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노래는 1931년 일제 강점기, 당시 술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조한, 한국 교회 예배 시간에 불린 계몽 찬송가라고 합니다. 이 곡을 작사, 작곡하신 분이 바로 저희 외증조할머니 임, 배 자, 세 자 할머니이십니다.

제가 이 노래를 알게 된 것은 아버지를 통해서였습니다. 아버지는 비엔나 오페라 극장에서 노래하시는 성악가이신데 할머니의 숭고한 정신을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해 이 찬송가를 녹음해야 한다고 하시며 연습을 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이것을 왜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하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서 한국계 미국인(Korean-American), 디아스포라로 대한민국을 위해 사신 꿈의 사람이셨습니다. 할머니는 동포들의 계몽운동뿐 아니라, 특별히 시카고에서 카페를 운영하시며 윤봉길 의사와 김구 선생님께 독립 자금을 보내시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교포 2세로 태어나 한글학교 교과서에서만 배우던 윤봉길 의사와 김구 선생님이 미국에 계셨던 할머니의 도움을 받으셨다고 하니 너무나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할머니께서 그저 고국을 떠나 자신을 위해 이름 있는 음악가로 또…… 카페를 잘 경영하여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목표로 두셨다면 아마도 할머니는 자신의 꿈을 이룬 사람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진정한 가치! 꿈은!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나라를 잃어버린 아픔을 씻어내고, 일본의 압제로부터 다시 독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음악적 재능과 물질을 나누는 삶을 사셨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인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는 제가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930년대의 할머니와 2000년대의 제가 디아스포라라는 공통점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만났습니다! 제게는 이것이 너무나 신기하고 멀게만 느껴졌던 대한민국의 역사를 피부로 느끼게 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제게 하나의 가치! 특별함이 되었습니다. 왜 제가 유럽에서 태어나 살고 있는지…… 저들과 다른 특별함으로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 유럽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한국계 오스트리아인(Korean-Austrian), 디아스포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과 친척들은 놀랍게도 세계 각국에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엄청난 강점이 되어있었습니다. 할머니를 통해 전 세계의 가족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미국과 한국에서 활동하신 할머니 업적을 조사하고 자료를 모았습니다. 개인을 위해 사셨다면 역사 속에 할머니의 이름은 그냥 ‘교포’였을 텐데 한인 사회와 나라를 위해 헌신하셨기에 그 수고는 역사 속에 흔적으로 남아있었다고 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 초 국가에서 독립운동을 하신 여성으로 포상을 받는 영광스러운 일도 생겼습니다.

할머니에 이어 우리 가족들이 보여 준 디아스포라의 모습이 저에게는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각자 작은 부분들에 수고했지만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어 또 다른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중학교 교과서에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약간 실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비중은 안타깝게도 북한과 김정은의 이야기였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보는 대한민국은 이 정도구나……!”라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우리 가족들처럼 나에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은 강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말씀드려 이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단편적인 한국이 아니라 다이나믹한 열정의 나라, 대한민국을 소개했습니다.

할머니를 통해…… 주위 사람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할머니를 알았던 것처럼 제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저를 통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북한과 김정은만 있는 나라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글을 써서 할머니와 가족들로 인해 변한 저의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것도 디아스포라 다음 세대로서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주름살에 핀 웃음꽃

- 유 다 은 (태국) -

한글학교를 12년 동안 성실하게 다닌 것은 저에게는 자랑입니다. 비록 태어나 살고 있는 곳은 오스트리아이지만, 한인 사회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학교를 다니고 다양한 행사를 경험하며 한국 사람으로 배우고 알아야 할 소중한 가치를 보물로 가진 오스트리아 한인 2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 두 문화를 강점으로 가진 한인 디아스포라입니다. 이제 세계 속에서 더 넓은 시야로 역사를 배우고 경험하는 정체성이 분명한 한인 디아스포라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클래식 기타를 배우고 있는데 할머니처럼 나라와 이웃을 위해 재능을 나누고, 물질도 나누는 꿈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제가 꿈꾸는 My Story! 또 여러분의 Your Story!가 만나 Korean History!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가게 될 것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따르르릉……따르르릉……따르르릉……

전화벨 소리가 거의 끝날 무렵 영림이는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급하게 수화기를 든다.

“여보세요?”

“영림아! 나여. 나.”

튼금없는 소리에 영림이의 이맛살이 살짝 찌푸려졌다.

“누구시오?”

“나 순례여.”

영림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되물었다.

“뭐여, 김순례라고? 강경초등학교 1회 김순례? 아이구, 친구야. 안 죽고 살아있었냐?”

“그려. 아직까지는 살아있어…….”

떨리는 목소리로 영림이는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아이구, 반갑다 친구야. 이게 얼마 만이냐…….”

이렇게 시작된 영림이와 순례의 수다는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올해 86세, 우리 할머니의 성함은 김순례이다.



옆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던 나는 “안 죽고 살아있어”라는 할머니의 투박한 사투리가 섞인 대화에 호기심이 생겨 귀를 쫓긋하고 듣게 되었다.

전화기를 든 할머니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영림이 할머니의 남편분이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소식에는 어두움이 잔뜩 깔려 있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던 두 분은 서울의 한 백화점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 시간을 잡으셨다. 그때 마침 태국에서 여름방학이라 한국에 와 계시던 엄마가 그날 외할머니와 친구분을 모시고 다니시기로 하셨다.

외할머니가 수화기를 내려놓자마자 할머니에게 누구시냐고 여쭙어보았다. 할머니는 가만히 내 손을 잡으시며 “너보다도 훨씬 어렸을 때부터 가장 친했던 친구인데, 죽기 전에 꼭 만나보고 싶은 친구여……”라며 은은한 미소로 답해 주셨다.

통화를 하셨던 할머니의 초등학교 친구분이신 영림이 할머니는 공산주의자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집안이 힘들어지자 학교를 다 졸업하지 못하고 19살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셨다고 한다. 그 이후로 할머니와 소식이 끊어지셨다고 했다.

결혼식 전날 고등학생이셨던 외할머니는 학교까지 결석하며 선물을 가지고 찾아가셔서 한참을 껴안고 울었다고 하신다. 그 후 할머니가 수소문하여 40년 만인 60세쯤에 한 번,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연락이 된 것이다. 86세 때, 25년 만의 만남을 약속하신 거였다. 두 분 다 사는 지역도 다르고 바쁜 일상을 살다 보니 만나기가 쉽지 않으셨나 보다.

드디어 우리는 약속 장소인 충신대역으로 향했다. 영림 할머니는 안산에

사시는데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 서울 나들이를 하신 거였다. 두리번거리던 할머니는 횡단보도 건너편에 계신 친구분을 보자마자 얼굴에 반가움이 가득했다. 할머니의 설렘이 나에게까지 전해질 정도였다. 두 분은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자마자 아이처럼 세차게 손을 흔들며 걸어가셨지만 마음과는 달리 발걸음은 너무나 힘들어 보였다. 그때처럼 이 보행등 신호가 이렇게 빠르게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두 분의 얼굴 표정은 마치 구름 위를 사뿐사뿐 걸어가는 것처럼 반가움으로 들떠 있었다.

엄마는 그 근처에서 맛집으로 소문난 곳으로 식사 대접을 하고 싶어 하셨지만 다리가 불편하신 두 분의 걸음 상태로는 무리였다. 우리는 두 분이 만났던 백화점 안에서 식사를 하기로 하였다. 점심시간이라 봄비는 백화점 안에서 할머니들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한 걸음 한 걸음 힘들게 사람들을 헤치고 나아갔다. 나는 할머니를 부축해 드리며 천천히 걸으려고 했지만 그것조차 쉽지 않았다. 겨우 에스컬레이터 앞에 메뉴와 상관없이 가장 가까운 식당에 자리를 잡았다. 점심식사를 하시며 두 분은 이야기꽃을 피우기 시작하셨다.

평소에 외할머니는 과묵하다 하실 정도로 말씀이 없으시고 조용한 분이시다. 그러나 이날 본 외할머니는 낯설어 보였다. 남자 동창들과 좋아하던 선생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손뼉까지 치시며 깔깔거리셨다. 집에서 학교까지 1시간 동안 걸어가던 길에 불렀던 노래까지 나지막한 목소리로 같이 부르시며 아이처럼 좋아하셨다. 마치 내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수다 떠는 거랑 다르지 않았다.

‘아! 할머니는 처음부터 어른이 아니었구나…….’ 나와 똑같은 학창 시절이 있으셨던 거였다.

두 분은 70년 전의 기억들을 어제의 일처럼 생생하게 끄집어내셨다.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나는 “할머니는 언제 가장 행복하셨어요?”라고 여쭙어 보았다. 그러자 할머니는 “너처럼 학교 다닐 때가 제일 행복하였지”라고 대답하셨다.

나는 바로 “그럼 할아버지와 연애하셨을 때는요?”라고 되물었다. 할머니는 “그때도 좋았지. 근데 너무 짧았어……”라고 말끝을 흐리셨다. 소녀처럼 볼이 붉게 물들었다가 새침하기까지 한 할머니의 모습은 누가 봐도 16살 소녀의 모습이었다.

모든 근심과 걱정은 잊어버리고, 두 분은 봄날에 흐드러지는 벚꽃보다 더 아름다운 웃음꽃을 떨어뜨리고 계셨다. 나와 엄마는 옆에서 소녀들의 행복한 수다에 빠져 눈을 반짝이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고 있었다. 그렇게 즐거운 만남을 마치고 우리는 다시 영림이 할머니를 충신대역 입구까지 모셔다드렸다. 두 분의 눈가는 촉촉이 젖어들었고 애뜻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볼 뿐 꼭 잡은 두 손을 쉽게 놓지 못하셨다.

“건강해야 돼. 친구야. 혼자 있다고 밥 대충 챙겨 먹지 말고. 네가 4학년 때 가장 친한 친구로 내 이름을 적어줘서 고마워.”

그렇지만 두 분은 다시 만날 기약을 하지 않으셨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쉬움에 젖어있는 할머니에게 나는 밝은 목소리로 여쭙었다. “할머니, 다음에 또 만나시면 되죠.” 그러자 할머니는 “오늘이 마지막 만남이 되지 않을까 싶다. 그래도 너와 엄마가 있어서 할머니가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친구를 만나 보았어. 고맙다…….” 주름지고 거북이 등처럼 까칠한 손이 살포시 내 손 위에 포개졌다. 차마 바쁘신 외삼촌과 외숙모에게는 친구 만나러 가자고

애기를 못 하셨던 모양이다. 할머니는 엄마를, 영림이 할머니는 지팡이를 의지하며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 도움 없이 두 분이 자주 만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내년엔 또 한국에 나오면, 할머니 친구분께 모셔다 드릴게요.”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미소를 지으셨다.

일제 강점기 시기에 태어난 외할머니는 요동치는 역사의 수레바퀴 안에서 참으로 고달픈 삶을 견뎌내신 분이다. 7남매 중 큰아들이셨던 외할아버지가 군대도 가기 전에 결혼하시는 바람에 외할머니는 홀로 남아 큰외삼촌과 시부모 그리고 5명의 어린 시누이들과 시동생까지 뒷바라지하며 힘든 시집살이를 버티셨다.

할머니는 치열한 젊음 속에서 2번째, 3번째 외삼촌을 가슴에 묻었던 감당하기 힘든 시련도 있으셨지만 항상 희망을 잃지 않으시고 엄마, 이모, 외삼촌들을 비롯한 7남매를 잘 키우셨다.

지금은 비록 갈라지고 뿔개져 성한 곳 하나 제대로 없는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한 매서운 화염과 비바람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켜낸 거대한 고목나무 같은 분이시다. 이제는 넉넉한 삶을 사셔도 좋으려면 지금도 할머니 본인에게 10원 한 장 쓰는 것도 아까워하시며 절약에 또 절약을 하신다. 뽕 때마다 “이것은 용돈이 아니여. 한국에서 많이 보고 느끼고 배우고 가라는 교육비다”라며 꼭 손에 봉투를 쥐여 주신다. 어렸을 때는 용돈 받았다고 좋아했지만 이제는 그 의미를 알기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돈이 되었다.

2살 때부터 해외에 살게 된 나에게 외할머니는 자주 볼 수 없는 분이셔서 어렵기도 하였지만 항상 한국에 갈 때마다 포근하고 따뜻함을 안겨주셨다.

굽어진 등을 이끌고 우리 올 때마다 간도 잘 안 맞는 반찬이지만 정성껏 차려주시려 애를 쓰신다. 작년에는 저녁 시간에 좀 늦게 도착했더니 불어터지고 밀이 새까맣게 탄 백숙을 먹으라며 차려주셨다. 아빠와 나, 동생은 탄 맛 나는 백숙을 다 먹어치우고 왔다. 그 탄 맛 나는 백숙에는 할머니의 기다림이 그대로 들어있었다. 맛있는 척해야 하는 게 좀 힘들었지만, 그 따스함과 소박함에 난 할머니가 좋다. 또한 할머니가 친구분을 만나시면서 보여 주었던 해맑고 수줍음 많던 16세의 모습은 나에게 친근함까지 선물해 주셨다.

할머니가 억척스럽게 이겨낸 삶은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 주셨다. 힘겨웠던 삶을 이겨낼 때마다 한 줄씩 주름살이 더 늘어나셨을 거다. 그래서 그 흔적의 증거인 주름살이 난 자랑스럽다. 그 주름살은 단순히 노화의 한 부분이 아니다. 오랜 기간 쌓아 올린 경험과 지혜, 그리고 눈물과 땀방울로 만들어 낸 삶의 깊이였던 것이다.

요즘 할머니는 치매가 제일 무섭다고 하신다. 사랑하는 자식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짐만 될까 봐…….

이제는 내가 할머니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꼭 전해드리고 싶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잊지 않고 기억할 테니…….”

할머니와 함께한 시간 여행은 나에게 삶이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그 시간을 채우고 가꿔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할머니의 인생을 통해 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그 시간들이 모여 열매가 맺어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희생과 사랑이 필요한지도 보았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친구분에게 모셔다드린다는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 죄송한 마음에 속이 상하지만 할머니가 그래왔듯이 나 역시 지금의 불편함과 답답함을 인내로 묵묵히 이겨내려 한다.

지금 내 나이 만 16세, 이 순간이 나에게서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이제는 한국에 가면 해야 할 일이 생겼다. 할머니의 깊게 패인 주름살에 웃음꽃이 가득 필 수 있도록 할머니를 모시고 친구분들을 찾아뵙어야겠다.

“할머니! 할머니의 삶은 누구보다 더 아름다웠으며 찬란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랑 같이 꼭 친구분 만나러 가요.”





## 집은 내 마음 속에 있다

- 윌 에 스 터 (감비아) -

나의 도시락을 호기심으로 바라보던 친구들, 친구들과 밖에서 놀려면 부모님의 픽업 시간에 맞추기 위해 한 주 전에 허락받기, 개를 키우기 위해서는 매일 산책과 배변을 치운다고 책임진다고 약속하기, 주말에만 허락된 TV 시청 때문에 토요일은 새벽 5시부터 남동생과 함께 만화 보기, 바쁜 부모님의 학교 행사 참여는 아주 최소한의 범주 내에서 이것이 바로 이민 가족에서 자란 나의 아동기 일상이다.

나는 삼중 언어자다. 공립 유치원 때부터 이중 언어(불어/영어) 학교를 다녔고, 집에서는 부모님들과 항상 한국말을 했다. 덕분에 각 언어를 넘나들며 말하곤 하는데, 프랭글리쉬, 코렌치, 그리고 내가 자주 쓰는 콩글리쉬가 그 예다. 콩글리쉬는 보통 한국계 친구들과 만날 때 쓴다. 예를 들어, 한국말을 하지만, “you know what I mean?” 혹은 “like” 같은 영어 추임새를 넣는다.

나는 전형적인 한국인 2세대. 1세 이민자인 부모님을 통해 북미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한 번도 한국에서 살아본 적이 없지만, 부모님의 문화와 경험들이 나의 성장기에 영향을 주었다. 가족이 함께 봤던 한국 방송 혹은 엄마의 손맛이 담긴 한국 음식은 나의 어린 시절의 추억이다. 따뜻하고 찰진 흰 밥에 칼칼한 김치찌개는 아마도 나의 영원한 단골 메뉴가 될 것이다.

나는 미국의 매사추세츠에서 태어났다. 이후 만 네 살이 되던 때, 나의 가

족은 캐나다의 온타리오로 이사를 했다. 다민족 도시인 토론토에서 자랄 때는 나의 정체성을 따로 세울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나는 눈에 띄게 다른 존재가 아니었다. 대부분 나의 친구들은 이민 자녀들이었다. 나처럼 그들의 부모 역시 부족한 영어로 말하고, 가정 규율은 엄격했다. 우리는 우리만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나의 소속감은 분명했다. 왜냐하면, 내가 속한 도시에서 한국은 꽤 비중 있는 문화권이었고, 교회와 학교에서 본받을 만한 한국인들도 있었다.

중학교 3학년 때, 모든 것이 바뀌었다.

열네 살이 되던 때, 나의 가족은 감비아로 이사를 했다. 그때는 마치 다양성은 조금도 용납할 수 없는 세상 속에 떨어진 것 같았다.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이 작은 나라에서 어린이 포함 45여 명의 한국인들이 살고, 한국 가게는 전혀 없다. 익숙한 환경과 오랜 친구들과의 이별뿐만 아니라, 즐겨 먹던 한국 음식들과도 멀어졌다. 내가 속했던 사회에서 나오고, 나의 정체성도 뺏긴 보답인 양 그토록 원하던 개를 두 마리나 얻었다. 감비아 학교에서는 아시안이 없었고 내 동생과 나만 유일한 한국인이었다. 길을 걷다 보면, “어, 거기 중국인!”이라고 자주 듣는데, 그때마다 “나는 중국인 아니에요. 한국인이예요.” 라고 틈만 나면 말하고 다녔다. 덕분에 학교 친구들과 그 부모님들은 나를 한국인 여학생으로 인식했다. 당시 나는 레바논과 감비아 학생들로 가득한 곳에서 갇혀 있는 듯했고, 내게 주어진 관심이 버거웠다.

내 또래 다른 선교사 자녀들은 옆 나라 세네갈 기숙학교로 갔다. 불어권, 부유한 사업가 자녀들만이 내 곁에 있는 친구들이었다. 살고 있는 집, 사는 방식, 대화 방식, 그리고 행동 방식 면에서 그들과 나는 너무 달랐다. 그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받는 선물들과 방학마다 다니는 멋진 여행은 내겐 늘 문화 충격이었다. 그들과 나 사이에는 어떤 연결점도 없었다. 때문에 우리의 우정은 얇고 피상적이었다. 내게는 엄마가 제일 친한 친구였고,

두 마리의 개들이 위로자였다. 당시에 알지 못했지만, 감비아에서 보냈던 지난 2년 동안 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 소속감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

정체성을 찾으려는 나의 바람은 한인 비중이 크고 미국인 비중은 더 큰 Dakar Academy 선교사 자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빛을 얻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분명한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었을까? 아니었다. 그곳에서 한국인 1세 친구들과 나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곧 깨달았다. 같은 한국인데, 우리는 다른 문화 속에서 성장했다. 그들은 종종 나에게 "너는 한국인이 아니야. 미국인이야"라고 장난삼아 놀리곤 했다. 어린 시절 읽던 책부터 놀이까지 우리의 공통점은 아주 적었다. 심지어 한국에서 5년간 사셨던 기숙사 사감이신 아론 선생님마저 "너 정말 한국인이야?"라고 농담 삼아 물으셨다. 그럴 때엔 보통 웃고 말았지만, 웬지 나는 한국인이 되기엔 뭔가 충분치 않은 듯했다.

그렇다고 나의 미국인 정체성이 확실한 것도 아니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나의 삶은 캐나다에서 보냈기 때문이다. 미국 역사와 전통들을 배울 때는 나에게 어떤 연결 고리나 강한 끌림이 없었다. 내가 만일 Dakar Academy 기숙사에 있지 않았다면, 나는 결코 수퍼볼을 시청한다거나 미국 50개 주의 이름과 위치를 배우지 못했을 것이다. "잠깐, 캔사스와 알칸사스가 있다고? 장난하나?" 미국 역사 시험을 공부하면서 나는 당황스러워 이런 혼잣말이 나왔다.

더구나 법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도 캐나다인도 아니다. 그 나라에서 내가 아는 것은 토론토가 전부이다. 비록 서부 캐나다인 친구 아일리와 내가 하키와 메이플 시럽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지만, 토론토의 다양성은 진정한 캐나다 전통과는 거리가 멀었다. 정말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사실 나는 캐나다 국가를 거의 잊었다. 지난 십 년 넘게, 매일 학교에서 영어와 불어로 불렀건만, 나는 겨우 몇 음절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중얼거린다.

나는 딜레마에 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이 질문을 다른 친구들에게 물었을 때, 장-찰스라는 친한 친구가 말하기를 "넌 그냥 너야. 너는 에스더야"라는 우스운 답변을 들려줬다. 당시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생각하면 할수록 나는 그 말이 의미심장했다. 나를 대표할 만한 국가들 사이에서 어느 한 가지를 골라야 할 필요가 없었다. 내가 경험했던 다양한 문화들이 나를 한국 사람으로서 자격 미달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걸 왜 몰랐을까?

나의 복잡한 아동기, 혼란스러운 국적은 외향적인 나로 만들어갔다. 예를 들어,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데 좀처럼 불편하지 않다. 그리고 인종, 나이, 성별과 상관없이 그들을 알아가는 과정이 즐거웠다. 이런 경험들이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란 것을 깨닫자, 내가 훗날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찾는 데도 도움을 얻게 되었다. 여러 언어를 구사하고, 사람들과의 네트워킹을 좋아하고, 비교적 많은 나라에서 살아본 경험들이 국제관계학과 어울려 보였다. 내 인생 가운데 일련의 경험들이 때로는 상실감과 혼동을 주었지만, 나의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하도록 했다: 나의 흥미, 나의 장점 그리고 나의 열망.



## 내가 영어를 못해도 되는 이유

- 표 현 규 (캐나다) -

나는 캐나다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처음부터 캐나다 국적이었다. 하지만 난 지금 캐나다에서 한국에서 온 조기 유학생들과 같이 비영어권 출신을 위한 특별한 영어 수업인 EAL(English as an Additional Language)을 듣는다. 즉 한국에 막 온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이 특별반에서 한국어 수업을 듣는 것과 같다. 한국에서 태어나 아기 때 이민을 온 다른 한국 친구들보다 영어를 못한다.

그 이유는 내가 만 3살을 넘겼을 때 아버지께서 일이 있어 한국으로 들어가 9년 가까이 한국에서 살았기 때문이다. 그때 우리 식구는 모두 캐나다 국적이었지만, 부모님이 캐나다로 이민을 오시기 전에 모두 30년 넘게 한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전혀 외국인이라는 생각 없이 한국에 잘 동화돼 살았다. 당연히 한국인처럼 한국어만 하고 살았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비롯해 부모님의 일가친척도 모두 한국에 있어 단 한 번도 내가 캐나다인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다시 부모님을 따라 캐나다에 왔을 때는 6학년이 막 시작할 무렵이었다. 한국에 있을 때 제대로 영어 공부를 한 적이 없었다. 사실 영어 학원도 다니고 했지만 그때는 왜 영어를 배워야 하는지 몰라 그냥 대충 시간만 보냈다.

낮선 캐나다에서의 학교생활은 처음에는 너무 두려웠다. 영어를 전혀 할 줄 몰라 학교에 첫 등교했을 때 정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다.

그러나 내가 한국에서 막 왔다는 것이 다른 한인 학생들이나 한인 조기 유학생들에게는 오히려 선망의 대상이 됐다. K-POP 스타나 한국의 프로게이머들이 이미 또래 친구들에게는 우상이었고, 영어 공부만 하면서 오히려 한국어가 어눌한 한인 친구들에게 생생하게 한국 콘텐츠를 설명할 수 있는 내가 화제의 중심에 있었다.

영어를 못 알아들으면 시간이 걸리지만 한인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다 해결됐다. 쉬는 시간이면 모든 한인 친구들과 또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다른 민족 친구들이 내 주변에 몰려들었다. 그럴 때면 그들이 궁금해하는 이야기나 한국 프로게이머의 한국어로 설명하는 게임 기술을 가르쳐주며 마치 내 자신이 영웅이 된 듯했다. 정말 영어를 잘 못하지만 한국어를 잘하는 것만으로도 캐나다에서의 학교생활을 생각보다 편하게 보낼 수 있게 됐다.

또 하나 한국에서 친구들이 방과 후에 모두 여기저기 학원을 다니느라 같이 놀 수가 없었는데, 여기서는 공립도서관에 모여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과 마치 한국의 PC방 같이 게임을 진탕 즐길 수 있었다. 특히 한국에서 유행하는 신세대 언어를 구사할 때면 친구들이 모두 부럽다는 듯 하나하나 배우려고 내 말에 귀 기울였다.

부모님은 한국에 있을 때 항상 ‘영어를 배워야 한다’ ‘캐나다에서 살려면 한국어보다 영어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한국어로 말하고 한국 노래를 알고, 한국의 유명 게이머들의 테크닉을 먼저

배울 수 있으니까 더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됐다.

그게 문제가 됐다. 부모님은 다른 한국 조기 유학생들은 1년이면 다 EAL을 졸업하고 정상 수업을 듣는데 3년이 넘도록 EAL 수업을 듣는 나 때문에 걱정이다. 잔소리만 늘어놓으신다. 가끔 영어를 완전하게 다 알지 못하고 문법도, 단어도 부족하다고 느낄 때 걱정이다. 그런데 이런 모자라는 부분을 한국어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 정말 절실하게 영어를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부모님은 영어가 세계 공통어이기 때문에 한국에 살아도 영어를 잘해야 한다고 하셨다. 그런데 BTS나 영화 <기생충> 등 한국 문화가 점차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니까 한국어를 잘하고 영어는 대충해도 잘살 수 있을 것 같다. 어머니가 한국어학교 선생님을 해서 자원봉사자로 따라가 한국어를 배우는 아이들을 봤다. 초급반인 아이들은 모두 5~6세 아이들로 절반은 한인 2세대들이었지만, 절반은 혼혈 아이들이었다. 나처럼 캐나다에서 태어나 모두 캐나다 국적자이고 영어가 모국어라 영어는 잘하지만 한국어는 잘 몰라 힘들어했다. 그러나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려는 모습이 귀엽다.

영어를 배울 기회는 많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널려 있다. 하지만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은 이에 비해서는 드물다. 하지만 지금처럼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더 멀리 많이 퍼져 나간다면 한국어를 잘하는 그 소수가 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요즘 지식은 다 인터넷에서 나온다고 한다. 그래서 숙제를 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얻을 때 인터넷을 많이 활용한다. 특히 유튜브는 동영상으로 자세하게 원하는 내용을 설명해 주어서 자주 이용한다. 다른 친구들은 영어로 유

튜브를 보고 정보를 얻지만 나는 한국어 유튜브도 자주 이용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영어로 보나 한국어로 보나 같지만 한국인만의 아주 특별한 노하우가 녹아있는 동영상을 발견하면 정말 기분이 좋아진다. 다음 날 수업에 남들과 차별화된 내용을 소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 영어에도 자신감이 생겨, 한국어로 된 콘텐츠를 영어로 만들어보면 나도 인기 있는 유튜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상상도 한다.

아버지께서 페이스북도 유튜버 실시간 방송도 아이디어는 한국이 먼저였다고 하셨다. 싸이월드와 아프리카TV 등이 만약 영어로 함께 운영됐다면, 마크 저커버그나 래리 페이지 대신 한국에서 유명 인사가 나왔을 것이라고 말한다.

지금은 좋은 아이디어가 한국어보다 영어로 만들어져야 더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내가 어른이 되면 한국어로 만들어진 아이디어들이 세계가 모두 인정하는 때가 올까?

세익스피어로 인해, 그리고 영국의 막강한 국력으로 인해 영어가 세계의 중심 언어가 되었는데 한국어도 세계의 주요 언어의 하나로 부상했으면 좋겠다. 진짜 그래야 하는 이유는 내가 한국어는 아주 잘하지만 아직 영어를 완벽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적은 캐나다이지만 단 한 번도 내가 한국인이라는 생각을 잊은 적이 없고, 한국어만 해도 세상을 편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영어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한국인으로 특별한 무엇을 표현할 수 있는 한국어가 점차 많은 외국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주목받아 나갈 수 있도록 한인 모두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부모님이 영어를 못해 걱정하는 불효자는 되지 않을 텐데…….

2020  
재외동포  
문학의 창



초등 부문

 최우수상

별

- 신 율 (중국)

 우수상

뼈약이의 탄생

- 박 재 윤 (케냐)

아주 특별한 산책

- 장 하 진 (미국)

 장려상

난 꿈이 있어

- 이 윤 서 (중국)

내 인생의 첫 술

- 김 동 현 (미국)

먹어봐요 김치를, 함께 줘요 K-Pop을~~

- 박 지 후 (뉴질랜드)





# 별

- 신울 (중국) -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마치 하나의 작은 은하계 같다. 우리 모두는 각각 하나의 별이고 그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 어느 별은 태양이 되기도 하고 또는 먼 곳에 있는 은하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나의 별들이 나에게 무엇인지 꽤 오랫동안 잊고 있었다. 특히나 가까이에 있던 ‘그 별’은 나에게 태양이었는데 말이다.

푸른 달빛이 별들을 장식할 때, 하늘은 마치 바다처럼 끝없이 펼쳐진다. 고요하고 또 신비롭다. 나무숲 사이로 흐르는 물, 아니 물이 아니라 달빛이다. 그 달빛은 잠자는 대지의 얼굴을 어루만져 주고 그 위에 은빛 이불을 덮어준다. 나의 생각도 창가에서 느껴지는 은은한 바람을 따라 사방으로 퍼지며 불현듯 그중에서 가장 애뜻하고 서운한 기억 하나를 끄집어낸다.

중국에 살다 보니 이별이 확실히 한국보다 많은 편이다. 애초에 중국에 거주하러 오는 게 아니라 유학하러 오거나 일 때문에 오기도 하니 일이 끝나면 돌아가기 마련이다. 그러니 함께 긴 시간을 보내는 사람을 가족을 제외하면 찾기 힘들다.

나는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바쁘셔서 할머니와 함께 보낸 시간이 많았

다. 처음 유치원에 간 날, 건기 대회, 할머니 팔을 베며 잠들었던 기억. 그 속에서 할머니에 대한 애정이 물이 드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내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할머니 댁에서 놀고, 먹고, 자고, 엄마 잔소리도 듣지 않을 수 있으니 할머니 댁을 많이 갔었다.

“시간은 마치 날아다니는 화살 같다.”

이 말은 거짓말 같지만, 한편으론 다시 뒤돌아 생각해 보면 그 말이 생생하게 와닿는 때가 있다. 시간은 마치 화살처럼 빠르고 난 점점 커가면서 할머니와 보내는 시간이 확실히 적어졌다. 할머니에 대한 애정은 변함이 없지만, 할머니와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는 건 어쩔 수 없었다.

그래도 할머니께서는 손주들이 할머니 댁을 찾을 때마다 항상 예뻐해 주시고, 또 잊지 않고 와준 것을 기뻐해 주셨다. 할머니는 우리들이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사주시고, 맛있는 것을 드시게 되면 손주들에게 한 번씩 전화해서 같이 먹자고 하시고, 용돈도 주셨다.

할머니께서 식당을 하실 때, 연세 때문에 배달을 직접 못 하셔서 내가 대신 해드리면 나에게 그 음식 가격보다 더 많은 돈을 주셨다. 그렇지만 할머니 식당은 우리 동네였고, 나는 친구들 보기 민망해서 배달을 많이 도와드리지 않았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죄송하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난다.

그러다 갑자기 할머니께서 작년 겨울에 한국으로 이사 가신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 소식은 나에게 정말 충격적인 말이었다. 할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이 요즘 들어 짧기는 했지만 그래도 할머니가 옆에 없는 건 정말이지 생각만 해도 허전하다 못해 힘들었다. 그날 밤은 잠도 오지 않고 생각만 많았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한국으로 이사 가시는 날이 늦춰지면서 우리 집에서 일주일 정도를 함께 지내게 되었다. 일주일이라고 생각하며 할머니와 함께 최대한 좋은 추억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그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나



는, 아니 우리 가족은 할머니와 외식도 가고 세기공원도 가고 산책도 많이 했다. 그러나 한없이 부족하고 서운한 마음을 다 채울 수는 없었다.

할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엄청나게 아니 빛처럼 빨리 지나가고 뭘 해도 확실하게 허전함을 채워진 못했다. 그렇게 시간은 가고 결국 할머니가 한국에 가시는 날이 다가왔다.

2019년 12월 18일, 할머니가 한국에 가시는 날. 할머니께서는 애써 울음을 참는 나에게 말씀하셨다.

“어쨌든 간에 우린 같은 하늘 아래 있어. 네가 아무리 울어도 바뀔 수 없는 건 바로 이 할머니가 한국에 가는 일이야.”

아니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 생각에 동의할 수 없어요. 제가 아무리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해도 그 순간마다 할머니를 만날 수 없고, 1년에 두 번만 볼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사람들이 우리 할머니는 한국에 있어서 보고 싶어도 못 본다고 했을 때 나는 할머니가 옆에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할머니께 잘 하자고 생각했는데, 어렸을 때 기억을 이제야 겨우 다 떠올렸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할머니와 함께 보냈던 시간들이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할머니랑 보내는 시간이 예전에 비해 적어져도 그래도 할머니랑 보내는 시간이 짧지만은 않았어요. 한 달에 한 번은 할머니네 가서 놀았었고 거기에서 할머니가 해준 맛있는 음식, 할머니랑 같이 티브이 보면서 웃는 기억도 재밌었는데 할머니네 공원 앞에서 축구하며 축구 선수를 꿈꿨던 시절도 정말 재밌었는데 할머니네 집 앞에 있던 호수에서 붕어를 손으로 잡았던 것도 재밌었는데 할머니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한글학교에 데려다줬던 기억도, 그땐 싫었지만 지금은 추억이 되었는데 왜 할머니가 한국으로 가신 다음에야 이런 생각이 나는 걸까요? 아무리 같은 하늘 아래, 이웃 나라에 있어도 자주 만날 수 없고, 만난다고 해도 그렇게 오래 함께 있을 수 없

잖아요. 같은 하늘 아래라고 빨리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같은 하늘 아래라도 각자 생활을 하고 있고, 만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할머니가 한국으로 가서 어쨌든 실감이 안 나서 제가 할머니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할머니를 자주 못 본다는 서운함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죠.

결국 나는 할머니께서 공항 가는 날에 배웅해드릴 수 없었다. 그날은 평일이었고 학교에 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상하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실감이 안 났기 때문이다. 그러다 학교에서 혼자 앉아있을 때 하늘을 가르며 지나가는 비행기를 보면 웬지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다. 평소엔 말이 많고 장난기가 많은 나는 그날만큼은 가만히 자리에 앉아서 울고 있었다. 내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챈 친구는 나를 위로했다.

그날 하루 종일 땀인지 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뿔개가 자꾸 흘러내려 나는 자꾸만 닦고 또 닦았다.

할머니의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랐던 나는 어느덧 하나의 나무가 되었고 그 나무는 이미 예전처럼 보호할 필요가 없지만, 그 안에는 항상 할머니와의 첫 번째 기억이 남아있다.

또 하나의 별빛이 찬란한 달빛을 비추는 밤이다. 저 밤하늘에 뜬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사람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알려 준다. 우린 은하계 속의 별처럼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모른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지. 그 별들이 누군가의 태양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은하 그 자체가 되리라는 것을.



## 삐약이의 탄생

- 박재윤 (케냐) -

나는 케냐에서 한글학교를 다니는 3학년 학생이다. 한글학교에서 우리는 한국 책을 읽을 수도 있고 한국어를 배울 수 있다. 한글학교에서는 한국 친구를 만날 수 있어서 나는 기분이 좋다. 어느 날 한글학교에서 코피아로 견학을 갔다. 코피아는 케냐에 있는 한국 농업 연구소다. 거기서는 채소나 과일 같은 것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상자나 봉지 같은 담을 짓을 가져갔다. 어느 구역에서 학생들에게 닭의 달걀을 나눠주었다. 우리는 그게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몰랐다. 집으로 돌아와서 나는 달걀을 부화시키려고 오븐에 넣었다. 그러나 슬프게도 부화되지 않았다. 다음에 코피아를 또 가게 되었을 때 한 번 더 달걀을 가져올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달걀들을 깨뜨리고 말았다. 형과 나는 엄청 슬펐다.

여름방학이 되었을 때, 우리 가족은 한국에 가게 되었다. 거기서 우리는 달걀을 부화시킬 수 있게 온도 조절 장치를 샀다. 그리고 많은 재미있는 일들을 했다. 한국에는 큰 놀이동산이나 워터파크가 있어서 나는 너무 좋았다.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을 수 있었다. 특히 부산에서 먹었던 완당이 정말 맛있어서 지금도 생각이 난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도서관도 가게 되었다. 그곳에는 재미있는 책들이 수북이 꽂혀 있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도 나와서 나는 그곳에서 하루 종일 만화책을 읽으며 있고 싶었다.

우리가 케냐 돌아오고 몇 주 뒤 우리는 달걀 부화 장치를 만들었다. 스티로폼 박스에 온도 조절 장치를 넣고 물도 넣어놓았다. 그리고 며칠 뒤 한국

수녀님이 유정란 8개를 주셨다. 우리는 그 달걀을 우리가 만든 부화 장치에 넣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루에 3번씩 전란을 했다. 약 21일 뒤 병아리 한 마리가 태어났다.

그의 이름은 삐약이. 생일은 2019년 11월 25일이다. 태어난 병아리는 갈색 깃털을 가지고 있었다. 엄마는 한국 병아리는 노란색인데 케냐 병아리는 갈색인 것이 신기하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삐약이를 위해 스티로폼 상자로 집을 하나 만들어주었다. 그런데, 한 일주일만 지나자 삐약이는 그 상자에서 쉽게 날아서 밖으로 빠져나왔다. 그래서 우리는 더 커다란 집을 만들어줬다. 올라앉을 수 있을 곳도 상자 안에다 만들어줬다. 몇 주 뒤 삐약이는 금방 자기 집 위에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2m 넘게 점프를 해서 밖으로 나왔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우리는 삐약이를 그냥 집 안에서 돌아다니게 하기로 했다. 삐약이는 풍을 많이 뉘서 치우는데 애를 먹었다. 삐약이가 커지자 우리는 삐약이를 앞 베란다에서 키우기 시작했다.

우리는 처음에 삐약이를 암탉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삐약이가 수탉 울음소리를 내며 울기 시작했다. 가끔씩은 까마귀 울음소리도 냈다. 그래서 우리는 삐약이가 암탉이 아니라 사실은 수탉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점점 우는 소리가 더 커져서 더 이상 아파트에서 키우면 안 될 것 같았다. 결국 수녀원에 보내기로 결심했다. 한국 수녀님이 계시는 수녀원에는 커다란 닭장이 있다. 다른 닭들도 많이 있었다.

삐약이를 보내는 날(2020년 4월 23일), 삐약이 집으로 가보니 작고 귀여운 알이 하나 있었다. 삐약이가 알을 낳은 것이다! 아마 우리가 삐약이를 다른 곳에 보내려고 하는 줄 알고 헤어지기 싫어서 얼른 알을 낳은 것 같다. 우리는 삐약이를 안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삐약이는 지금도 우리랑 행복하게 살고 있다. 지금도 가끔 삐약이는 시끄럽게 울기도 한다. 그래도 나는 삐약이가 사랑스럽다.



## 아주 특별한 산책

- 장 하 진 (미국) -

저는 가끔 저의 마음에 무엇이 비어있다는 걸 느껴요. 주로 산책을 할 때 느껴요. 조용한, 또 고요한 산책은 저의 흥을 잠시 내려놓고 깊은 생각에 빠뜨려요. 특별하고 소중한 이 산책을 생각하면 그 순간으로 되돌아간 것처럼 느껴지는 나만의 기억이 무엇일까요?

2016년 늦은 여름 한국에서의 오후였어요. 해가 하루를 마치고 지구의 다른 편으로 가기 전에 외할머니와 저는 발을 신발에 쏙 넣고 가벼운 마음으로 산책하며 스쳐가는 기억일 줄 알았지요. 그날 너무나도 인상적인 일이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지요. 해가 조금씩 지기 시작하자 그림 같은 장면처럼 보였어요. 위에는 아름답게 연한 파랑, 아래는 진한 주황, 가운데에는 파랑과 주황이 만나는 지점에 아주 예쁜 분홍색이 있었어요. 할머니와 저는 자유롭게 춤추며 반기는 바람과 마주쳤어요. 해의 따스한 빛과 바람의 시원함은 환상의 조합이었어요. 그때 바람소리만 들리는 고요함을 뚫고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딱 산책하기 좋은 날씨가, 응?”

저는 입이 늘어날 정도로 크게 웃으며 할머니를 힘이 나게 해드렸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리듬을 타고 있었던 바람에 맞춰 걸었어요. 바람이 우리를 감싸며 우리가 걷는 길을 모두 따라 걸었어요. 우리의 발목을

간지럽히듯 바람이 불다가 갑자기 거치고 센 바람이 우리를 밀었어요. 그렇게 할머니의 아파트 뒤편에 있는 놀이터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걸었어요. 도착하자마자 할머니는 벤치에 모셔드리고, 저는 흥이 넘치도록 신나게 놀았지요. 놀고 또 놀다가 지치면 잠깐 쉬고, 할머니는 저를 너무 신기하다는 눈으로 바라보셨어요. 놀고 있는 저를 바라보며 아이처럼 환한 표정으로 싱글벙글한 할머니의 얼굴이 너무 보기에 좋았어요. 저는 더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이리저리 뛰어다녔고 빨리 지치게 되었지요. 그러나 할머니의 밝게 웃는 표정은 저를 힘이 솟는 약을 먹은 것처럼 에너지가 넘치는 행동을 하게 만들었어요.

다시 찾아온 조용함 속에서 저만의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많은 생각들을 하다가 갑자기 무서운 생각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할머니가 떠나면?’

저는 외할머니와 아주 유일하고 특별한 관계를 나누어요. 제가 힘든 시기에 할머니가 토닥여 주고, 할머니께서 몸과 마음이 약해져 좋은 말씀이 필요할 때는 버섯 모자와 선글라스를 끼고 기쁨을 주는 공연과 말씀을 전달하는 건 저의 역할이에요. 제 친구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해 “너무 귀찮은데 오늘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러 가야 해”라고 말할 때 저는 슬픈 감정이 와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자와 손녀들을 너무 사랑해서 귀찮을 정도로 우리들을 걱정해 주고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이지요. 이때 보라색, 분홍색, 그리고 주황색이 어울린 아름다운 하늘을 바라보며 표현을 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어요. 그 순간 용기를 내서 할머니께 여쭙어보았어요.

“할머니…… 꼭 계속 계실 거예요?” 할머니는 가벼운 미소로 웃으셨어요.

“하진아! 나 계~속 있어. 그런데 네가 생각하는 그렇게만은 아니겠지.”

“네? 이해가 안돼요…….”

“그게 좀 있으면 알게 될 거야. 네가 준비될 때 파도가 돌을 치는 것처럼

깨닫는 때가 올 테니…….”

할머니는 약한 팔로 주먹을 내밀며 다른 팔로 파도를 만들며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는 꿈을 꾸는 듯한 눈을 뜨시고 저에게 눈길을 돌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진아!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이고, 할머니는 항상 너와 함께 꼭 있을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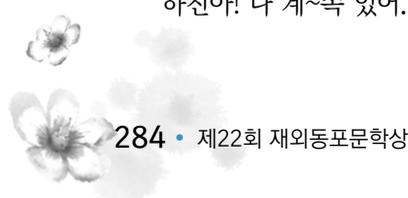
그 문장은 저를 또다시 깊은 생각에 빠뜨렸습니다. 할머니가 나와 항상 함께 한다는 그 말은 내 마음에 메아리처럼 울리고 또 울렸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말이라서 질문들이 막 떠올랐지만 당분간 이 질문들은 잠시 숨겨 놓고 이 순간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꼭 다시 깊이 생각할 거라는 마음의 약속을 하고, 할머니와 저는 서로를 더욱더 잘 알게 되는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늘을 바라보며 많은 것을 느끼고 더 특별하게 느껴진 것은 할머니와 저, 단둘이 보낸 첫 번째 저녁 하늘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일어나 천천히 걷기 시작하고, 화단에 잠시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셔서 저한테 다가오셨습니다. 할머니 손에는 노란 꽃이 있었고, 그 꽃을 저에게 내미셨습니다. 받아야 하는지 몰라 망설이다가 꽃을 받았더니 할머니께서 활짝 웃으셔서 ‘우리 마음이 통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노란 꽃을 손에 들고, 함께 걷다가 할머니 집 가까운 화단에 다시 심고 우리의 새로운 생명을 보며 함께 웃었습니다. 다시 심은 노란 꽃, 다시 우리 마음에 희망의 씨를 심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꽃은 할머니와 손녀인 저와의 아주 특별한 관계를 상징해요. 이제 그 특별한 산책을 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저한테는 어제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아직 그 질문이 남아있지요.

“하진아! 나 계속 있어. 그런데 네가 생각하는 그렇게만은 아니겠지.”

그 후로 저는 미국에 다시 돌아왔고, 할머니는 한국에서 사시기 때문에 멀리 느꼈었어요. 올해 1월에 할머니는 가족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설날 아침에 식사를 하시려다가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어요. 할머니가 이 세상에 안 계시다는 것이 우리를 슬프게도 하지만 오히려 저는 할머니랑 더 가까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할머니는 제 마음속에 꼭 계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할머니는 이제 이 세상보다 더 좋은 하늘나라로 가셨기 때문에 저는 가족들에게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할머니가 더 편안하고 행복해지신 것을 축하해 주자고 말했어요. 할머니는 인간으로는 영원히 나와 함께 있지 못하지만, 할머니에 대한 추억과 얼굴은 제 마음에 늘 함께 남아 있지요. 4년 전에 할머니와 함께 심은 노란 꽃과 이 보석 같은 사실을 담은 제 마음속 보석 상자는 할머니와 저만의 멋진 비밀이에요. 할머니! 저랑 항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마워요.





## 난 꿈이 있어

- 이윤서 (중국) -

여기는 끝이 안 보이는 초록색 바다가 무릎까지 잠기며 하얀색 물고기가 바람에 따라 보일락 말락 한다. 햇빛이 초록 바다를 따라 짱충짱충 뛰어놀고 있었다. 나는 내몽고 초원에 있지!

가족과 함께 내몽고에 온 지 벌써 5일째다. 오늘은 '시골집'에서 점심 먹기로 했다. 나는 매일 후딱 먹고 식당 주변을 돌면서 많은 것을 카메라 속에 담는다. 오늘도 이것저것 찰칵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나를 부르는 듯 했다. 나는 깜짝 놀라서 급히 뒤를 돌아보니 대여섯 살 나 보이는 여자가 “언니 한국 사람?” 그의 빨갛고 통통한 얼굴에는 땀범벅으로 흠이 묻어 있었고 호수처럼 맑고 깨끗한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반가움이 가득했다.

“음, 어떻게 알았지?”

“큍, 언니 핸드폰에 한국말, 언니 반가워!” 그는 아주 많이 신나서 손뼉 치며 말했다.

“아~나도 반가워! 이름이 뭐니?”

“난 유리, 김유리.”

“너는 누구랑 여행하러 왔니?”

“난 여기서 태어났어, 나는 여기서 살아.”

“그렇구나, 근데 한국말 엄청나게 잘하네.”

“언니 고마워.” 그는 자랑스러워하며 흐뭇해서 활짝 웃었다.

“저분이 내 한국말 선생님 송 선생님이셔.” 우리가 식당 마당 쪽을 가리키

며 말하였다. 나는 반가운 마음에 마당에 쭉 펼쳐진 빛을 밟으며 송 선생님께서 인사드리려고 우리를 따라갔다. 20살 안팎의 생머리에 청바지 차림을 한 여선생님이셨다. 내몽고 초원에서 이렇게 한국 분을 만나니 더없이 기뻐다. 우리는 인사를 나누고 서로 자기소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송 선생님은 대학 시절 단짝 친구와 졸업 후 세계 일주를 약속했었다. 그들은 졸업 후 바로 세계 일주를 시작했고 내몽고 초원 이르러 초원을 체험하고 몽골족에 대해 이해해 가면서 즐거운 여행을 했다. 어느 날 송 선생님과 친구는 우연히 우리 아빠가 경영하는 식당에서 식사하게 되었다. 두 분은 주문을 다 하고 지도를 보면서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친구의 낮이 백지장처럼 되더니 그만 쓰러지고 말았다. 카운터에 계시던 우리 아빠는 재빨리 달려가셔서 송 선생님의 친구에게 응급처치를 하고 식당 직원들은 구급차를 불렀다. 송 선생님이 친구 가족이랑 통화하고 있을 때 우리 아빠는 뭔가 알 듯 말 듯한 표정을 하며 바라보았다. 그리고 한숨을 쉬면서 사무실로 들어가셨다. 송 선생님은 자기를 바라보고 나서 한숨 쉬는 우리 아빠가 이상해서 사무실 안으로 힐끗 보았다. 그 순간 그는 깜짝 놀랐다. “태극기!” 우리 아빠는 벽에 걸려 있는 남자의 사진을 보면서 뭐라 혼잣말을 하셨다. 액자 한쪽에는 태극기가 꽂혀 있었다.

의사 선생님의 진료 결과 친구의 건강 상태로는 더는 세계 일주를 할 수가 없고 이른 시일 내에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그날 밤 그들은 우리 아빠의 호의를 받아들이고 '시골집'에서 묵게 되었다. 송 선생님은 오후 내내 사무실에 있는 태극기가 궁금했다. 낮선 내몽고 초원 현지인 사무실에서 태극기를 볼 수 있어 반갑기도 하고 또한 영문을 알고 싶었다. 송 선생님은 식당 카운터로 달려가 서투른 중국어로 “한국 귀치(한국 국기)?”, 송 선생님은 핸드폰에 번역기 앱을 클릭하시면서 설명을 부탁했었다.

알고 보니 우리의 할아버지는 유학 시절 우리의 할머니를 만났고 결혼 후



## 내 인생의 첫 술

- 김 동 현 (미국) -

내몽고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결혼 몇 년 뒤 유리 할아버지는 심한 병에 걸려 후유증으로 언어 능력을 상실하셨다. 언어 장애인이 되신 유리 할아버지는 아들한테 자기 민족의 말을 가리킬 수 없다고 생각하니 그 무엇보다 가슴 아팠고 한이 맺혔다. 생명의 마지막 순간에 유리한테는 꼭 한국말을 가리키며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유언을 남기셨다. 하지만 내몽고 초원에서 한국말 선생님을 찾기는 하늘에서 별 따기 같았다. 유리 아빠는 두 여행객이 한국 사람인 줄을 알아차리고, 유리 할아버지의 유언을 지켜주지 못한 것이 죄스러워서 사진을 보며 용서를 빌고 있었던 것이었다.

유리 아빠의 가족 이야기를 듣고 난 송 선생님은 밤새 깊은 사색에 잠겨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튿날 송 선생님은 유리한테 한국말 발음 동영상과 인사말 동영상을 남기고 친구랑 귀국하였다.

귀국한 송 선생님은 유리 옆에서 한국말을 가르칠 수 있는 길을 찾으면서 많은 수업 자료를 준비하셨다. 그리고 어느 날 식당 문 앞에 송 선생님이 천사처럼 나타났다. 우리의 한국말 공부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언니, 내 한국 이름도 송 선생님이 지어주셨어. 선생님이 나를 처음 만났을 때 눈이 호수처럼 맑고 깨끗해 보여서 유리라고 지어주셨대.”

“언니, 난 꿈이 있어. 나도 커서 송 선생님처럼 여러 나라 다니면서 나 같은 애들한테 한국말 가르칠 거야. 태극기도 그려주고 아리랑도 불러주고.”

유리의 얼굴에는 햇빛의 부드러운 쓰다듬 속에서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그러니까 햇벌처럼” 그녀가 덧붙여 말했다.

유리와 송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간의 한글학교에서 보냈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한글학교는 나에게 중국에서도 한글을 배우며 또 한국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자신감을 실어주었다. 나의 행복한 배움터다.

나도 내가 받은 만큼 줄 수만 있다면…….

거실에 앉아있었다. 내 앞에는 컴퓨터가 열려 있었다. 화면에는 할아버지의 얼굴. 할아버지와 나는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로 인한 사회적 격리 기간 동안 일주일에 한 번 줌(zoom) 미팅을 하고 있다. 오늘도 줌 미팅으로 할아버지를 만났다. 나는 할아버지께 영어를 가르쳐드리고, 할아버지는 나에게 한자를 가르쳐주신다. 서로의 수업을 마친 후, 할아버지께서는 나에게 물어보셨다.

“자, 동현아, 일주일 동안 좋았던 일 세 가지만 말해 봐라.”

나는 생각해 봤다.

“아, 맞다! 목요일…… 4월 30일에 아주 큰일이 있었죠…….”

내가 대답했다. 솔직히, 그 일을 말씀드릴지 잠깐 고민을 했다.

“그날…… 제가 드디어 술을 처음으로 맛봤어요.”

“뭐라고? 와아아, 축하한다!”

할아버지께서 박장대소하며 말씀하셨다. 할아버지께서 나의 소식을 듣고 좋아하셔서 사실 나는 놀랐다. 왜냐하면 열두 살의 나이에 벌써 술을 먹어 보았다는 말을 듣고, 안 좋아하시거나 걱정하실까 봐 망설였는데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다니…… 의외였다. 할아버지는 한국 가족의 술 문화의 전통을 유지해서 기쁘다고 하셨다. 혈, 술 문화라고? 무슨 가족 전통을 말씀하시는 거지?

“그렇지, 술은 아버지한테서 배우는 거야!”

할아버지께서는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다.

“너저 엄마는 고등학교 다닐 때, 내가 처음 술을 가르쳐줬다. 너는 중학생인데 벌써 첫 술을 배우다니, 히야~~~ 이거야말로 ‘청출어람 청어람’ 이구나, 하하하하!”

완전 꺄꺄꺄꺄 웃으셨다.

나는 할아버지께 ‘청출어람 청어람’이라는 한자와 뜻을 배우게 되었다. ‘청출어람 청어람’의 뜻은 ‘푸른색은 쪽에서 나왔지만, 쪽빛보다 더 푸르다’라는 것이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Blue is from violet, but it is much bluer than violet.’ 아주 멋진 말이다. 정말 뜻밖의 칭찬을 받은 ‘내 인생의 첫 술’을 배운 그날의 이야기를 밝히겠다.

2020년 4월 30일. 그날은 우리 가족이 LA 갈비를 먹기로 했다. 엄마와 아빠는 갈비 양념을 만드시면서 캔 맥주를 마시고 계셨다.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엄마 아빠는 술을 참 많이도 마신다. 엄마는 나를 한참 동안 바라보시더니,

“동현아, 너 오늘 첫 맥주 아주 쫌~~~끔 마셔보는 거 어때?”

뜬금없이 질문하셨다. 나는 조금 생각해 보다가 대답했다.

“그래요!”

드디어 저녁시간이 되었다. 나는 식탁에 소주잔을 준비해 왔다. 엄마는 지하실에서 미켈롭 울트라(Michelob Ultra) 맥주 한 병을 가져오셨다. 병을 뜬 다음, 아빠는 정확히 1센티미터의 맥주를 소주잔에 따라 주셨다. 어른한테 술은 두 손으로 받는 거라고 아빠께서 가르쳐주셨다. 그리고 고개를 돌리고 술을 마시는 게 예의라고 가르쳐주셨다. 나는 엄마 아빠와 건배를 하였다.

“동현이 인생의 첫 술을 위하여, 건배!”

“건배!”

“예, 건배!”

고개를 돌린 후, 맥주를 원샷했다.

“아이, 씨!”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맥주의 맛은 아주 특이했다. 혀에 닿을 때 톡 쓰며, 거품이 입안에 부글부글거렸다. 첫맛은 쓰지만, 나중에 달아졌다가, 목구멍을 내려갈 때는 소다를 삼키는 것 같았다. 이상하게 맛이 있었다. 나는 다음번에 또 마셔볼 수 있는 기회가 기대되고 신났다.

“내 아들 맛네!”

우리 아빠가 이렇게 좋아하실 줄이야.

“에이, 술로는 내 아들이지!”

엄마가 치고 들어오셨다.

맛다. 솔직히 엄마가 아빠보다 술을 잘 마신다.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첫 술을 마신 나의 이야기를 듣고 ‘청출어람 청어람’이라고 말씀하시며 좋아하신 것 같다. 할아버지의 딸인 우리 엄마, 우리 엄마의 아들인 나, 앞으로도 우리의 역사는 쪽쪽 흐를 것이다.

나는 코로나 기간 동안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였다. 할아버지와 줌 미팅을 끝내고 나니, 한국의 할아버지 할머니 댁이 더욱 그리워졌다. 한국에 놀러가서 다 같이 ‘용마폭포공원’에 산책도 하고, 서울 시내에도 놀러 가고, ‘유일 설렁탕’도 또 먹고 싶다.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 먹어봐요 김치를, 함께 춰요 K-Pop을~

- 박지후 (뉴질랜드) -

안녕하세요? 저는 발랄하고 호기심 가득한 꿈 많은 12살 박지후라고 합니다. 전 4살 때 뉴질랜드에 이민을 와서 한국과 한국 문화를 거의 TV나 인터넷으로만 접했기 때문에 뉴질랜드 텔레비전에서 'Korea' 라는 단어나 한국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마냥 신기하고 반가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가 생각하는 한국과 실제 한국이 많이 다를까 봐 조금 걱정도 되고 거리감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4년밖에 살지 못했던 저는 작년 8월에 한국을 다녀오고 나서 가깝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소식만 들으면 몸에서 바로 반응이 나오는 걸 보면 피는 못 속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 문화를 한국 사람만이 좋아할 거라는 편견을 저도 모르게 가지고 있구나 봅니다. 제가 뉴질랜드에서 지내면서 저의 편견을 깬 경험들을 이제부터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단짝인 브로디의 집에 슬립 오버(한국의 파자마 파티)를 하러 갔을 때 브로디의 엄마께서 점심으로 김치 라자냐를 만들어주셔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을 '키위' 라고 하는데 키위들도 김치를 좋아한다고 하니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집에서만 먹던 우리나라의 음식 '김치'를 한국인이 아닌 키위 친구의 집 냉장고에 있는 걸 보고 저는 '한국의 음식

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가까이에 있었구나' 하고 정말 뿌듯했습니다. 심지어 평소에도 김치찌개와 된장찌개, 불고기 같은 한식을 즐겨 드신다는 말에 또 한 번 깜짝 놀라면서도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음 날 엄마와 아빠가 저를 데리러 오셨을 때 엄마께서는 브로디의 엄마가 김치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듣고 기뻐하시며 김치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김치전, 두부 김치의 레시피를 알려 주셨고 브로디의 엄마께서는 정말 고마워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언니가 초등학교 6학년 때 'Albany Idol Contest' 라는 학교 장기자랑 대회에 언니 친구와 함께 참가했습니다. 트와이스의 "Cheer Up"이라는 노래에 맞춰 9명의 안무를 2명의 안무로 수정하고, 몇 주 동안 방과 후에 열심히 연습하여, 대회에 나가 준비한 것을 100% 발휘하였습니다. 아쉽게도 댄스 부분 최우수상은 놓쳤지만, 예선과 본선 그리고 준결승을 통과하여 결승에 진출 후 실수 없이 실력을 모두 보여준 것만 해도 전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니가 춤을 출 때 관객석에서는 키위 친구들이 후렴 부분을 따라하며 하나가 되었으며 저를 포함한 200명 정도 관객의 마음을 말 그대로 "Cheer Up" 시켜버렸답니다!

또 결승대회에서 K-pop 댄스로 인기를 한 몸에 받은 언니는 피아노 연주 부문에도 진출하였는데 기대도 하지 않았던 연주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더 기뻐합니다. 친구들과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선생님들 그리고 다른 학부모님들의 축하를 받으며 언니는 우리 가족의 자랑이 되었고 엄마와 아빠의 얼굴에 웃음꽃이 환하게 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작년 7학년 때 학교에서 개최하는 '퓨전 댄스 배틀' 대회에서 본선 진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제는 두 나라의 댄스를 콜라보하는 것이었는데 저희 팀 친구들과 아이디어 회의를 시작하는 중 키위 친구들이 부채를 활용해 보자는 이야기가 나와 제가 한국 부채춤을 보여 주며 어

떠나고 하니, 모두 동선을 다양하게 짤 수 있고 전체적으로 모양이 예쁘다며 모두 찬성하여 부채춤과 팝 댄스를 접목해 안무를 만들고 연습한 결과 본선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예쁜 분홍색 털이 달린 부채춤 전용 부채를 구하기 힘들어 아쉽게도 일반 부채로 대신했지만 연습하는 시간 내내 친구들과 한국의 부채춤을 응용하여 재미있게 안무를 구성하고 놀았던 기억을 떠올리면 지금도 웃음이 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의 음식이나 노래, 전통 무용에 대해 뉴질랜드 사람들의 관심이 제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처음 뉴질랜드 땅에 발을 내디뎠을 때 우리나라의 문화가 키위들에게 생소하게 느껴질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점점 더 한국 문화를 쉽게 받아들이고 익숙해지는 뉴질랜드를 보면 참 마음이 뿌듯하고 자랑스롭습니다.

앞으로 저의 계획은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거나 아직 접해보지 못한 뉴질랜드 사람들을 위해 기회가 있으면 한국학교를 대표하여 흥겹고 멋진 사물놀이 공연도 하고, 또 직접 배우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가르쳐 주는 시간도 갖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한국 전통 악기에 관심이 많아서 3년 전 '남십자성 예술단'에서 단원으로 2년 동안 사물놀이 악기 중 북과 장구를 담당하여 공연했었는데 올해에는 다른 악기도 접해보고 싶어서 한국학교에서 특별활동으로 팽과리와 징을 배우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에게 알려 주고 싶은 우리의 훌륭한 문화가 너무나도 많아서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참 자랑스롭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2020 재외동포 문학의 창



## 대상

Mother, Lost and Found  
잃어버린 어머니와의 재회

---

• Hana Crisp (호주)

## 가작

Add More Salt If Necessary  
필요시 소금을 추가할 것

---

• Ann-Kathrin Moon (독일)

Dear Eomma  
친애하는 엄마에게

---

• 김난이 (미국)





## Mother, Lost and Found

- Hana Crisp (Australia) -

*For as long as I can remember, I've been searching for mother figures.*

*There was the English teacher in ninth grade, to whom I gifted a non-assigned reflective writing piece: the elderly singing teacher and her slightly harsh, unsolicited advice, who knew which songs would suit my voice better than I did: my best friend's mother—thoughtful, wise, empathetic: and of course, therapists.*

*By the time I reunited with my birth mother, I had probably collected more surrogate mothers than I could count on both hands. But I was still looking for the one.*

*It's a sunny but crisp October day in Seoul and I'm under-dressed for the weather in a short cotton dress with black tights. I'm waiting nervously at the Eastern Social Welfare Society office with my Korean social worker in a tiny, sterile fluorescent-lit room, the setting for countless birth family reunions before mine and to come.*

I know that my mother has two sons from her second marriage, my half-brothers, and she lives with her third husband. I know that she didn't want to meet

me at first because she felt too ashamed. Otherwise I know little and I've read that it's best not to expect anything(if that's even possible). I wonder whether I should have ironed the hem of my dress and if my birth family will think I'm pretty.

Before I know it, they're here, and I turn to see a small, older Korean woman with short, permed hair and an impassive expression, almost exactly my height, coming straight for me. My eyes flick across her face searching for similar features, but before I can take anything in, she suddenly clutches me and holds me tightly, sobbing, for moments that feel like an eternity. She is followed by another younger Korean woman, also the same height, who enters the room with the same tentative, melancholy heaviness and embraces me in the same way. I'm wholly unprepared for this charge of emotion and feel that I should be emotional in return or something, but nothing comes up. My body stiffens: I pat their backs awkwardly and murmur "it's ok", hoping they understand.

Looking at my *Omma* and *Halmoni*, they could have been strangers for all I know, apart from our shared height. I had held some romanticised notion of instantly seeing myself reflected in my mother's face or being struck by the similarity of our voices or mannerisms, but today, no such recognition comes. It isn't until later that I start to see our physical resemblance, so obvious to everyone else, in the downward-slanting, almost sad-looking outer corners of our eyes and prominent jawlines.

After the initial reunion, all six of us—*Omma*, *Halmoni*, *Samchon*(my uncle), *Sukmo*(his wife), and my interpreter—leave the adoption agency for a day out in Seoul. I sit beside my mother on the bus and she takes my hand, stroking the back of my palm and smiling nervously. I'm sitting next to the woman who gave birth

to me—this tiny woman somehow gave birth to me—for the first time. What is she thinking? I wonder. I try to meet her gaze and forge some kind of connection.

It's often the first meeting that people ask about, but the day passes by in a blur, it's all too surreal. Like panning for gold, the details have fallen through the sieve and only a handful of small, glinting memories remain.

We take photos together outside Dongdaemun market, with Omma, Halmoni, and I all lined up in a row in front of a colorful mural. As we walk through Insadong, looking at souvenirs, my aunt wants to buy me a scarf, but Halmoni stops her, saying "That's not Hana's style." "Oh, do you know your granddaughter's style already?" my aunt retorts.

We eat dumplings that don't meet my family's standards, because they're from Jeonju, a city famous for its food, and actually, all Seoul food is sub-par. At the restaurant, someone—I can't remember who—asks me whether I hold any resentment towards the family. Of course not, I reply, without much thought, *why would I?*

In the following days, I travel to Jeonju, my birthplace, to meet the rest of the relatives on my mother's side. They're warm and welcoming—eager to buy me things, feed me, and take lots of photos together. One night, we all sit on newspapers spread out on the floor and eat Korean barbecue, home style, cooked on portable gas burners. The men sit together and wait to be served, while the women busy themselves in the kitchen, setting down various banchan dishes and baskets of lettuce, and soon the small room is filled with the sounds of sizzling pork belly, clinking glasses of soek, and laughter. I feel the heat of the grill, crowded bodies, and conviviality, surrounded by multiple mini conversations that

flit past and circle around my ears like little sparrows. I can barely understand a flit, but no matter. It's all new and fun and wonderful.

My first trip to Korea awakens parts of myself that I didn't know existed, and soon I commence regular visits back, exploring how far the rabbit hole of my Korean-ness extends, with equal parts trepidation and excitement.

Each time, I visit my birth family, and each time, they celebrate my return. In typically blunt Korean fashion, they're quick to point out whether I've lost or gained weight, look tired, or have acquired more freckles—largely unavoidable under the harsh Australian sun. Despite the language and cultural barriers, which are immense, we manage to bond over simple things like food and Korean dramas.

Gradually, I come to know each of my relatives and their distinct personalities: my eldest aunt who studied hard at school and became a university professor, my vivacious second aunt who won some kind of beauty pageant as a teenager and is still striking in her middle-age, and my slightly unconventional uncle, a journalist, reserved and insightful. But it's my Omma who I'm most curious to know and yet remains unknown.

Now that we are reunited, I hold secret hopes for the kind of intimate mother-daughter relationship we could start to build, the kind I had always wanted. Like the women you see walking together in shopping malls, who are so obviously mother and daughter, even from a distance. The women who, in my mind, probably talk about everything and get facials together. 친구 같은 딸(*chingu kateun ddal*), they would say in Korean—a daughter like a friend. The mothers and daughters I had always envied.....so much so, that sometimes I would need to look away.

I study Omma from a distance. I observe her curiously, wondering about the kind of person she is. What does she like to do in her free time? Does she have hobbies, interests? What did she dream about when she was young? Does she have friends? Who does she confide in? While my relatives generally seem so comfortable with each other, my mother seems both a part of the family and yet removed. She busies herself cooking, cleaning, tending to my younger cousins, etc..... like other Korean women of her generation, I suppose, but she is somehow withdrawn within herself. I hear that she had “a hard life” and 잘 참다 (*jal chamda*)—she is good at suppressing her feelings.

I make a silent inventory of the ways in which Omma and I are similar and different. She seems timid and passive, qualities that I find disappointing, to be honest. She mentions that she was always too afraid to learn how to drive, though all her siblings can. I wonder if she is intelligent and curious, and wanted to go to college—which was expensive and reserved for my more studious aunt and uncle—but just didn’t have the opportunity. I ask if she enjoyed school when she was young, like I did, but she simply replies, “Who enjoys school?” When the topic of blood types—believed by Koreans to denote personality traits—comes up, my family, shocked that I don’t know my own blood type, is sure that I must be Type A like my mother. Later I discover that I’m B Positive, which must have been inherited from my supposedly good-for-nothing father.

In the mornings on her days off work, Omma goes to the local bathhouse to relax and gossip with other neighbourhood ajummas (middle-aged women) and one day I ask if I can join her. Though we can’t speak, there are other ways to bond, I figure. She wakes me around 7am and we walk there together. When we pay to enter, the bathhouse owner asks if I am Omma’s daughter and is surprised

that I can’t speak Korean. I lower my eyes and wonder if Omma feels embarrassed or ashamed. But she doesn’t seem to mind.

I sit beside her silently in the sauna and we take turns sipping from the flask of sweetened iced coffee she has prepared, as she catches up with the other ajummas. Despite the twenty-year age gap our bodies are so similar..... short legs, small breasts, the curve of our hips..... that it makes me feel less self-conscious. I try to imagine feeling comfortable enough to do this with my adoptive mother or sister, either now or as a child, but can’t—our shared female forms always seemed so fundamentally different to me.

I see other young girls with their mothers, with taut creamy skin and lithe bodies moving carefree about the bathhouse, and I wonder if this is a part of what my life would have been. Though I question the Korean practice of over-exfoliation(surely those layers of skin exist for a reason?), I scrub Omma’s back vigorously and she scrubs mine. She lends me a peeling lotion for my face and brings small cartons of milk to slather over our freshly scrubbed bodies. I try to push past the strangeness of it all, hoping that something can be salvaged, somehow, through our naked togetherness.

Seven years after my reunion, I take the plunge and move to Seoul. After all these years and trips back and forth, it feels like I’ve only scratched the surface. There’s still an entire culture and family I want to know. For one of the first times in my life, I block out the voices of reason and responsibility—though they continue to shout all the while—and follow my heart.

Life in Seoul is isolating and frustrating at first, the typical experience of moving to a foreign city, but as I start to make friends and get a (tiny!) grip on the language, it slowly becomes easier. I also get the opportunity to spend longer, less

hurried stretches of time with my birth family, and we do everyday, boring-but-pleasant things together, like watching Korean reality TV and taking easy walks around the neighbourhood.

In late summer I visit Jeju Island with one of my brothers and his fiancée, where we eat surprisingly good pizza with chili oil on one of the smaller islands off the coast. In early winter, my Samchon and Sukmo make a day trip up to Seoul to visit me, from their home over three hours away in the countryside of north Jeolla. Over *makgeolli* and *kimchi jeon*, they ask me about life in Seoul, and when I say that it's good, though a bit lonely, they reply, "Can't we be your friends?"

Yet while my other relatives and I continue to move towards each other, my Omma stands back.

When I visit Jeonju, I try to gently probe her for information. *What are you doing these days? Have you been busy? How is work? Do you have friends at work? How is SeAppa? All the Questions.* Questions being the Western gateway to "getting to know someone", I figure. At first, I expect the same in return. *How do you like living in Korea so far? Are you making friends? What do you do in your spare time? What have you been doing...for the past 30 years?* But the questions never come.

Every few months, she sends me a text message to say, "it's getting cold, remember to dress warmly", or some variation thereof, but otherwise our communication is as infrequent as it was back in Australia. Childishly, I feel that she should be the one to reach out first, as the parent. I take her silence personally, as a lack of effort towards me, and chastise myself for assuming that things would somehow be different now that I was in the same country.

Sometimes, when I visit Jeonju, she remains at home while I spend time

with other family members, and I wonder why. In the distance between us, the resentment I'd previously denied starts to prickle like a thorn in my side. The more she holds back, the more it grows, like a weed.

I start to wonder if my mother truly didn't know about the decision to give me up for adoption, as she claims. My grandmother is a little cagey on the subject("Oh, she must have known"), and my brother also believed that my mother was informed. But Omma insists that one day she came back to visit me, and I was just gone. *Why does it matter anyway, whether she knew or not, all those years ago?* On one hand it means nothing, and I cringe at my own pettiness, and on the other, it means everything.

I don't have children. I can't imagine how traumatic it must have been to have one and suddenly discover that they had disappeared. What would you do? Would you drive yourself crazy trying to get them back? But my mother tells me that she had already caused so much trouble to her parents, she'd already been such a "bad daughter", that she didn't feel she had the right to question the decision. So she didn't say a word. I'd always believed that mothers will fight for their children, to protect them at all costs, but instead I slipped through her fingers, silently and forever.

I know that most women who are separated from children through adoption felt that they had no other option. Some were coerced through lies or physical force. These mothers often experience significant trauma, grief, and ongoing mental health issues resulting from the initial separation and loss. I know that today, over 95% of adopted children from Korea are the children of single mothers who still face social stigma and discrimination. I know all of this, and yet I can't muster up compassion for my own mother, a divorced, single mum who likely didn't have

any real choices.

*You need to forgive your mother.....*

For months, I tell myself this. For months, I oscillate between self-judgment, anger, and then shame for feeling anger, until finally, I convince myself, however selfishly, that some kind of confrontation is required.

An older Korean man once told me that Koreans bury trauma. They shove it down into an invisible suitcase and carry it around, but don't dare to open it because they'd just collapse. Who knows exactly what I hope to achieve, but I want to pry the case open, *Western style*, and shake up the contents. So, with encouragement from my Samchon, I arrange a time to visit Omma in Jeonju, armed with an excellent interpreter.

The three of us sit around the dining table in my mother's small kitchen: Omma and I facing opposite each other to feel that we are conversing directly, with the interpreter on the other side to reinforce her impartiality. Omma has prepared some tea and fruit and seems nervous. In the context of our regular meetings of meals and small talk, it feels odd to set an intentionally deeper agenda.

We start by going over some old history, almost like a warm-up for the bigger questions. I express my frustration and mistrust over hearing different accounts of my adoption from different family members, though I'm resigned to never having the definitive version, and we fuss over some details, such as whether her second husband had indeed discussed my adoption with my grandmother prior to my relinquishment.

During a pause in the conversation, I blurt out something I'd often wondered.

"Did you love me before I left?"

As soon as the words leave my mouth, I regret how harsh they sound. It's too late to explain my rationale..... if you had me for three years but decided to remarry and leave me with your parents, perhaps—perhaps we didn't quite bond properly?

"Why do you ask me that?" she says, visibly pained. "I was so immature and that's why that happened.....How could you think that I didn't love you..... Don't say that! Never say that....."

I also tell her that I feel that she's been distant during my time in Korea.

"Although you've been here in Korea for almost a year, I want to spend more time with you and do things with you... But I can't..... And I can't ask you to stay-what can I say to you? I have no right. I'm not worthy to say anything to you.

"Your Sukmo said to me, "For seven years your daughter has visited Korea and now she has put her life on hold to come to Seoul, but you haven't visited her yet. If it were one of your sons, would you have not gone to see them already?" She had no right to say that to me, I couldn't sleep that night. She's not really family either" [*only related by marriage*].

She speaks freely now: it seems cathartic for her to speak about these things. But I'm slightly confused by her words and strain to draw a clear thread from her thoughts. *She wants to approach but yet holds back?*

I confess that I want to move forward but I'm still struggling to forgive her. Because despite all of the forces against her, I was *her daughter*, *her* responsibility.

"Would forgiveness even be possible?" she asks. "I'm satisfied that you even exist. It's enough for me for you to live well.....at least when you were young you studied hard, and hopefully you will meet a nice person now." She seems content to observe me from afar. To see me happily married with two children, as

she saw in a dream once.

“But.....I’m not satisfied”, I stammer. “I’m not satisfied because..... I was looking for, hoping for.....a mother. I thought we would build a relationship.....”

“But what can we do? I see my neighbors with their daughters—shopping and having conversations together in Korean—and I’m jealous, but what can we do about that? In my mind, we have a lot of conversations. I always long to talk to you.”

I have nothing left to say. Maybe she’s right, and this is all I can expect. I see an image of two people performing a strange, almost comic dance: slowly circling around each other, sometimes reaching out towards the other, but never touching.

By this point, almost two hours have passed. The conversation has taken its toll on both of us, we’re war-torn and weary, and I feel a little guilty. I hope it was worth it. I thank Omma for being so open and willing to have this conversation in the first place. While it hasn’t necessarily changed anything, we’ve never been so honest with each other.

It feels like a step forward. I finally feel like we might be getting somewhere.

One morning, towards the end of my first year in Korea, I receive an urgent-sounding *KakaoTalk* message from my Samchon.

*I need to talk to you. It’s about your brother’s wedding. Can I call?*

It was only a month before the wedding. I’d been looking forward to it. Though I knew that adoptees are, sadly, often unwelcome to large, formal family events, even my Halmoni had told me she was glad I was coming, and my Samchon

and Sukmo had insisted that I *must* attend, as a member of the family. When my brother and his fiancée invited me—the same brother who came to my Australian hometown for a year-long working holiday—I offered to sing at the ceremony, and they happily accepted.

My brother and Samchon each try to explain that, on further reflection, my mother wouldn’t feel comfortable if I attend. Not even if I sit alone at the back. Not on her own account, but in case it would reflect badly on my brother’s fiancée, for marrying into a family who have given up a child for adoption.

Convolutd but Real Korean Shit, I’m told.

I contact Omma myself via text: *If you do not want me to come to my brother’s wedding, why do you not contact me directly?* I know that it’s rude, but I don’t care.(This is also the extent of what my Korean studies thus far will allow.)

She replies instantly, but indirectly, *You must have misunderstood something.....your uncle will explain everything.....*

We do not discuss this further. After the wedding, I notice that my mother has updated her Kakao profile with a shiny, Korean-wedding-perfect photo of my brother and his wife, my second brother, herself, and her current husband. They look like paper doll cut-outs, smiling broadly and holding hands, dressed in colorful *hanboks*.

Later, when I no longer care about the wedding, I learn that the explanation about my brother’s fiancée was a cover for Omma’s concerns for her own reputation and the implications of extended relatives finding out about me. I understand, but I wish she had told me the truth in the first place. The truth would have meant something to me.

But I guess it doesn't matter anymore.

*I'm staring at Omma.*

*She's standing in front of me, about two meters away, her body angled to the side, as though she can't face me directly.*

*I try to move closer, but can't, my feet are glued to the floor. There is a space between us. A space that contains everything that was lost.*

*Her eyes, dark bottomless pools, so much like mine—or mine like hers, glimmer with held back tears.*

But it's not my mother—it's another adoptee—standing in as my “mother.”

“What do you want to say to her?” the facilitator asks gently.

It comes out in a whisper.

*“Omma, I'm here.”*

The tears are rolling silently, steadily, down my cheeks.

*“I'm right here.”*

*“Can you see me?”*

*“Can you really see me?”*

Over the years, I've read so much. Books on adoption, attachment, the “primal wound”, trauma stored in the body, healing the inner child.....

But I haven't read the book that tells you that some things broken cannot be mended.

*Where is the book that tells you that?*

It's been almost ten years since I first returned to Korea. I'm still living in Seoul. I've reclaimed so much: my birth family reunion and life in Seoul have brought me so much joy.

My married brother has since had an adorable, *objectively cute baby*, the light of Omma's life.

I'm in Jeonju but I haven't come here to visit her especially. We have little contact now. We sit next to each other at a famous *kalguksu* restaurant. Sukmo updates Omma on my Seoul life—about my new job, the company I just joined, my apartment, about anything else she can think of. It's like we communicate via a mediator.

She is here but not here. Our upper arms are almost touching, and yet there's that familiar boundary between us. But this is what is comfortable, for both of us, right now.



It's better this way. I tell myself it's ok to stop trying, at least for now. I needed some distance to find compassion for Omma again.

And to feel what's left: a well of grief for the mother I never had.

What has been recovered, in ten years? On the face of it, not much. I look down at my hands: I can hold what we have within my two small palms. There is no neat ending. I wish there was.

But I'm still here.

And I leave the door ajar.

## 잃어버린 어머니와의 재회

- Hana Crisp (호주) -

내가 기억하는 한 나는 예전부터 쪽 어머니와 같은 존재를 찾고 있었다.

9학년 때 영어 선생님이 그중 하나로, 나는 선생님이 숙제로 내주지 않았던 수필 한 편을 자발적으로 써서 그녀에게 선물로 주었다. 나이 많은 성악 선생님이 그중 한 명이었다. 약간은 냉정하고 요청하지 않은 충고를 잘 하 시긴 했지만. 선생님은 내가 부르던 노래보다 내 목소리에 더 잘 어울리는 노래를 알고 있었다. 내 가장 친한 친구의 어머니도 있었다. 그녀는 사려 깊고, 현명하고, 공감능력이 있는 분이였다. 물론, 여러 심리치료사들도 그중 하나였다.

친모를 만나기 전까지 나는 열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대리 엄마들을 마음 속으로 간직했던 것 같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나는 단 한 사람을 찾고 있었다.

...

코끝에 닿는 공기가 서늘한 햇살 좋은 10월의 어느 날, 서울에서 나는 날 씨에 어울리지 않게 검정색 스타킹에 짧은 면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나는 동방사회복지회 사무실의 형광등이 켜진 작은 방에서 한국인 사회복지사와 함께 초조한 마음으로 대기 중이었다. 이곳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입양인들



이 친가족을 만났을 것이고 앞으로 만나게 되리라.

나는 내 친모가 두번째 결혼에서 아들들을 낳았다고, 그들이 현재 친모의 세번째 남편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나의 친모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에 처음에 나를 만나기를 원치 않았던 것도 알고 있었다. 그밖에는 그녀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어딘가에서 친부모에게 아무 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제일 낫다는 글을 읽은 기억도 났다(그것이 가능한 일이라면 말이다). 나는 ‘입고 있는 원피스의 치마단을 다려 입었어야 했다’ 생각했고, 내 친가족이 나를 예쁘다고 생각할지 궁금했다.

다른 생각에 빠져 미처 눈치 채지 못했을 때, 그들이 그곳에 이미 와있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짧은 파마 머리에 키가 작고 무뚝뚝한 모습을 한, 그러니까 나와 거의 똑같은 키의 나이가 많은 한국 여자가 나를 향해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나는 눈을 깜박이며 그녀의 얼굴에서 나와 닮은 점을 찾아 보았다. 하지만 내가 뭔가를 발견하기도 전에 그녀는 나를 와락 움켜잡더니 꼭 껴안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 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같은 키의 약간 더 젊은 한국 여자가 그녀의 뒤를 따라 역시나 주저하듯 멜랑콜리한 발걸음으로 방 안으로 걸어들어와서 같은 방식으로 나를 껴안았다. 나는 그런 감정의 무게를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나도 그들처럼 감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내 몸은 긴장으로 굳어졌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그들의 등을 어색하게 다독이며 “잇츠 오케이(it's ok)”라고 말하는 것 뿐이었다. 그들이 내 말을 이해하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나의 엄마(Omma)와 할머니(Halmoni)를 바라보니, 우리의 키가 비슷하

다는 사실 외에는 남이라고 해도 이상할 게 없어보였다. 나는 언제나 재회에 대한 로맨틱한 상상을 해왔었다. 엄마를 보면 얼굴에서부터 비슷한 점을 즉시 발견할 수 있을 거라거나 목소리나 행동이 비슷해서 깜짝 놀라게 된다거나 하는 것들 말이다. 그런데 막상 오늘 그런 느낌은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우리 외모에서 닮은 점을 차차 발견할 수 있었다. 너무 분명해서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것들, 아래로 쳐져 슬퍼보이기까지 하는 눈꼬리와 두드러지는 턱선이 그것이었다.

첫 재회 후에, 엄마, 할머니, 삼촌, 숙모, 나, 그리고 나의 통역사 이렇게 여섯 사람은 입양 에이전시에서 나와서 그날 하루 동안 서울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버스에서 나는 엄마 옆에 앉았고 엄마는 내 손을 잡고 손등을 쓸어내리며 긴장한 듯한 웃음을 지어보였다. 나는 지금 나를 낳은 엄마의 옆에 처음으로 앉아있다. 이 작은 여인이 나를 낳았다니. ‘엄마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나는 궁금했다. 나는 엄마와 눈을 맞추며 일종의 유대감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사람들은 주로 친모와의 첫 만남에 대해서 묻곤 하는데, 그 날은 내게 희미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모든 것이 지나치게 초현실적이었다. 마치 사금을 캐는 과정처럼, 구체적인 것들은 체에 난 촘촘한 구멍 사이로 빠져나가고 아주 작고, 반짝이는 기억 몇 가지만 뇌리에 남아있다.

나와 엄마와 할머니는 동대문 시장 밖에 있는 알록달록한 벽화 앞에 나란히 서서 함께 사진을 찍었다. 인사동을 걸으면서 기념품도 구경했다. 숙모가 나에게 스카프를 사주고 싶어하셨지만, 할머니가 저지하며 “그건 하나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하셨다. 숙모는 “와, 벌써 손녀딸 스타일을 아세요?”라며 응수하셨다.

우리는 만두도 먹었다. 그런데 그 만두는 우리 가족의 기준에 맞지 않았다. 그들은 미식의 도시 전주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사실 서울 음식은 다 그저 그렇다. 식당에서 누군가(누구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에게 가족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전혀 없어요” 라고 곧바로 대답했다. 제가 왜요?

다음 날 나는 고향인 전주로 떠났다. 나머지 외가 친척들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나를 따뜻하게 환영해주었다. 자꾸만 뭔가를 사주고 싶어했고, 먹이고 싶어했고, 함께 사진을 많이 찍고 싶어했다. 어느 날 밤, 우리는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그 위에 앉아 휴대용 가스 버너에 한국식 바베큐를 구워 먹었다. 남자들은 다 같이 앉아 상이 차려지길 기다렸고, 여자들은 부엌에서 바쁘게 반찬과 상추를 준비했다. 작은 방은 어느새 삼겹살이 구워져 지글거리는 소리와, 소맥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웃음소리로 가득 채워졌다. 나는 작은 참새들처럼 내 귀를 지나고 맴돌았다가 통과하는 여러 작은 대화들에 둘러싸여, 그럴이 내뿜는 열기와 북적이는 공간과 취흥을 느꼈다. 무슨 말인지는 거의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상관 없었다. 모든 것이 새롭고 재미있고 경이로웠다.

...

나의 첫 한국 여행은 존재하는 지조차 몰랐던 내 자신의 일부를 일깨웠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한국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기 시작했다. 나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토끼굴 같은 내 한국인다움이 얼마나 길게 이어지는지 알아볼 작정이었다. 내 마음 속엔 긴장과 흥분이 똑같은 비율로 차올랐다.

나는 한국을 갈 때마다 매번 가족을 방문했고 그들은 매번 나를 반겨주었다. 가족들은 한국인 특유의 직설 화법으로, 내가 살이 빠졌는지 췌는지,

피곤해 보이는지 아니면 주근깨가 더 많아졌는지 재빨리 짚어냈다(호주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주근깨가 느는 것은 피하기 어려운 일이다). 언어와 문화라는 거대한 장벽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음식이나 한국 드라마같은 단순한 것들을 넘어서 유대를 만들어나갔다.

나는 조금씩 친척들을 한 명씩 알아나갔고 그들의 성격적 특징도 구분할 수 있었다. 큰 이모는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 교수가 되었다. 십대 시절 어느 미인 대회에서 우승한 적이 있는 명랑한 둘째 이모는 중년이 된 지금도 여전히 매력적이다. 그리고 조금 이례적인 나의 삼촌은 기자인데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스타일이고 통찰력이 있다. 그러나 내가 가장 궁금하고 여전히 잘 모르는 채로 남아 있는 사람은 바로 나의 어머니이다.

이제 우리가 재회했으니 나는 우리가 내가 항상 바라왔던 그런 가까운 모녀 관계를 만들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비밀스런 희망을 품게 되었다. 소꿉물에서 함께 걷고 있는 모습이 멀리서 봐도 영락없이 엄마와 딸인 게 분명해 보이는, 비밀이 없이 서로 모든 것을 나누고 함께 마사지를 받으러 가는 그런 모녀. 한국 말로 ‘친구 같은 딸’ 말이다. 내가 언제나 부러워했던 모녀들, 너무 부러웠던 관계 만큼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야했던 그런 모녀들.

나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둔 채 엄마를 알아가고자 했다. 호기심을 가지고 그녀를 관찰하고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했다. 시간이 남을 때 엄마는 뭘 할까? 취미나 관심사가 있을까? 어릴 때 꿈은 뭘였을까? 친구가 있을까? 엄마는 누구에게 비밀을 털어놓을까? 친척들은 보통 서로를 편안하게 대하는 것 같은데, 엄마는 가족의 일원이면서도 동시에 동떨어져 보였다. 그녀는 요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어린 사촌들을 돌보면서 스스로를 바쁘게 만드는 것처럼 보였다. 엄마 세대의 다른 한국 여자들과 다를 바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엄마는 어딘가 내성적으로 보였다. 누군가 엄마가 힘든 인생을 잘 참아 왔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엄마가 감정을 억누르는 것에 능하다고.

나는 엄마와 내가 비슷한 점과 다른 점에 대해 나만의 리스트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엄마는 소심하고 수동적이었고, 그런 점은 솔직히 말하면 실망스러웠다. 엄마는 언젠가 운전을 배우는 것이 너무 겁나 배우지 못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엄마 외에 다른 형제자매들은 모두 운전을 할 수 있는 데도 말이다. 난 엄마가 똑똑하고 호기심이 많은 사람인지, 대학에 가고 싶기는 했는지, 등록금이 비싸서 더 학구적이었던 이모와 삼촌에게 양보할 수 밖에 없었던 건지 그저 기회가 없었던 것뿐이었던지 궁금했다. 그래서 엄마에게 어릴 적 학교 생활을 좋아했는지 물어본 적이 있다. 내가 학교를 좋아했던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대답은 간단했다. “누가 학교 다니는 걸 좋아하니?” (한국인들이 성격 유형을 판단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혈액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내가 나의 혈액형을 모른다는 것에 충격을 받은 가족들은 나도 엄마처럼 A형일 것이라고 짐작했다. 하지만 나중에 내 혈액형은 B+로 밝혀졌다. 아마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사람일 것으로 추측되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이리라.

엄마는 휴일 아침이면 동네 목욕탕에 가서 피로를 풀고 다른 동네 아줌마들과 수다 떠는 것을 좋아했는데, 어느 날 나는 나도 함께 가도 되는지 물었다. 우리가 서로 말은 안 통해도 다른 방식으로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엄마는 나를 아침 7시에 깨웠고 우리는 목욕탕까지 함께 걸어갔다. 입장료를 내는데, 목욕탕 주인이 내가 엄마 딸이냐고 묻고는 내가 한국말을 못하자 짹짹 놀랐다. 나는 땅을 쳐다보며 혹시 엄마가 당황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궁금했다. 하지만 엄마는 거리까지 않는 눈치였다.

나는 사우나에서 엄마 옆에 말없이 앉아있었다. 우리는 엄마가 보온병에 준비해온 달달한 아이스 커피를 번갈아가며 차례로 홀짝였고, 엄마는 동네 아줌마들과 안부를 나누었다. 20년이라는 나이 차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은 너무나 비슷했다...짧은 다리, 납작한 가슴, 엉덩이의 곡선...그래서 나는 남들을 털 의식할 수 있었다. 양어머니와 여동생과 이렇게 함께 목욕탕에서 편안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해보려고 했다. 하지만 지금이나 아니면 어릴 때나 상관 없이 불편할 것 같았다.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은 궁극적으로 너무나 너무나 달라보였다.

목욕탕에 어머니와 함께 온 다른 젊은 여자들을 바라보았다. 탱탱하고 부드러운 살결과 나긋나긋한 몸들이 남을 의식하지 않은 채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이것이 내 삶의 일부가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했다. 여전히 한국인들이 때미는 관습에는 의문을 품고 있지만(그 피부층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나는 엄마의 등을 열심히 밀어주었고 엄마도 나의 등을 밀어 주었다. 엄마는 내게 얼굴 각질제거제를 빌려주고 작은 우유 한 통을 가져와 갓 때민 우리 몸에 우유를 듬뿍 발랐다. 이 모든 것에 대한 낯선 느낌은 멀리 밀어낸 채, 나는 별거벗은 채로 함께 하는 이 순간이 무언가를 구조해내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우리가 재회한 지 7년이 되던 해, 나는 서울로 거처를 옮기기로 마음을 먹었다. 몇 년에 걸쳐 한국을 여러 번 오갔지만, 내 경험은 여전히 수박 겉핥기 정도로만 느껴졌다. 한국에는 여전히 알고 싶은 문화가 가득했고 알고 싶은 가족이 있었다. 내 인생 처음으로 나는 나의 내면에서 소리치는 이성과 책임감의 목소리를 무시해버리고(이것들은 지금도 여전히 내 안에서 소리치고 있긴 하지만),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따라갔다.

새로운 도시로 이사를 가면 누구나 겪는 것처럼, 처음 서울에서의 삶은

고독하고 어려웠다. 하지만 친구를 사귀기 시작하고, (아주 약간!) 한국어를 쓸 수 있게 되기 시작하자 내 삶도 점차 수월해졌다. 그리고 한국 가족들과도 좀 더 길고 여유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가족과 함께 한국 리얼리티 티비 프로그램을 보거나 동네를 슬슬 산책하는 것처럼 별 것 아니지만 즐거운 일상을 함께 보낼 수 있었다.

늦여름에 나는 남동생 중 한 명과 그의 약혼녀와 함께 제주도에 놀러가기도 했다. 제주 해안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섬들 중 하나에 있는 피자집에서 우리는 칠리 오일이 뿌려진 어마어마하게 맛있는 피자를 먹었다. 초겨울에는 삼촌과 숙모가 나를 만나러 그분들이 사시는 전라북도에서 차로 세 시간이 넘게 걸리는 서울에 당일치기 여행을 오셨다. 막걸리를 곁들인 김치전을 함께 먹으며 삼촌과 숙모는 서울에서의 생활이 어떤지 물으셨다. 나는 잘 지내고 있지만, 조금 외롭다고 말했는데, 그때 삼촌과 숙모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네 친구가 되면 안 될까?”

하지만, 이렇게 내가 다른 가족들과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있을 때에도, 엄마는 여전히 내게서 거리를 두고 있었다.

전주에 방문했을 때, 나는 조심스럽게 엄마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요즘 바빴어요? 일은 어때요? 직장에 친구들이 있어요? 새아빠는 어때요? 이런 질문들. 내가 자란 서구 문화권에서 질문은 ‘누군가를 알아가기 위한’ 관문이다. 처음에 나는 엄마가 나에게 똑같이 해줄 거라고 기대했다. 한국에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어머니? 친구들은 좀 사귀었니? 시간이 남으면 뭘 하니? 어떻게 지냈니...지난 30년 동안? 그러나 질문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았다.

엄마는 몇달에 한 번씩 내게 문자로 “날씨가 추워지니 항상 따뜻하게 입

고 다녀라”라거나 비슷한 종류의 이야기를 건넸다. 하지만 그것 외에는 우리는 내가 호주에 있었을 때만큼이나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다. 유치하게도, 나는 엄마가 나에게 먼저 연락을 해야한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엄마니까. 나는 엄마의 침묵을 나와 가까워지려는 노력이 부족한 탓으로 생각했고, 이제 같은 나라에 살고 있으니 우리 관계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던 나 자신을 질책했다.

어떨 때는 내가 전주에 가서 다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도 엄마는 집에서 나오지 않을 때도 있었다. 나는 엄마의 그런 행동이 의아했다. 우리 사이에 좁혀지지 않는 거리에서, 나는 이전에 부인했던 서운함이 내 안에서 가시처럼 곤두서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엄마가 거리를 두면 둘수록, 그 가시는 잡초처럼 무성하게 자라났다.

나는 급기야 엄마가 주장하는 것처럼 엄마가 정말 내가 입양가게 된 것을 모르고 있었을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이 주제에 대해 비밀을 감추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아이고, 당연히 알고 있었겠지”), 남동생도 엄마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엄마는 어느 날 나를 보러 갔을 때 내가 입양을 가고 없었다고 말했었다. 그렇게 오래된 일인데, 엄마가 알고 있었든, 모르고 있었든 그게 뭐가 중요한가? 한편으로는 그건 아무 것도 아니었고 나조차도 나의 용졸함이 민망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은 모든 것이기도 했다.

나는 아이가 없다. 자신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경험이 얼마나 강렬한 트라우마를 남길지 나는 상상할 수조차 없다.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미친듯이 운전해서 아이를 다시 데려오려고 할까? 하지만 엄마는 당시 이미 엄마의 부모님께 너무 큰 폐를 끼쳤고, 이미 정말 “나쁜 딸”이었던기 때문에 그 결정에 대해 따질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래

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나는 항상 엄마들은 자식을 위해 싸울 거라고, 자식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난 엄마의 손가락 사이로, 조용히, 그리고 영원히 빠져나갔다.

나는 입양으로 아이들과 떨어지게 된 여성들 대부분이 자신에게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느낀다는 것을 안다. 일부 여성들은 거짓말이나 물리적 강제로 인해 자신의 아이들과 이별하게 된다. 이들은 종종 분리와 상실의 경험에서 비롯되는 커다란 트라우마와 비통함, 지속적인 정신 건강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기도 한다. 한국에서 보내진 입양 아동의 95퍼센트가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감내해야 하는 싱글맘의 아이라는 것도 이제는 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도, 나는 이혼 후 싱글맘으로서 다른 선택지가 없었을 가능성이 큰 나의 엄마에 대한 연민을 내 안에서 찾아낼 수가 없었다.

...

엄마를 용서해야 해...

몇달 동안 스스로에게 말했다. 몇달 동안 자책과 분노, 그리고 분노를 느낀 것에 대한 수치심 사이를 오갔다. 이기적이게도 일종의 정면돌파가 필요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기 전까지는.

어떤 한국 노인이 내게 말하길 한국인들은 트라우마를 가슴 속에 묻는다고 했다. 보이지 않는 가방에 그것을 담고 가슴 속 깊이 넣은 채로 다니지만, 무너져 버릴까봐 감히 열어보지는 못한다고. 내가 정말 이루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나조차도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서양의 방식으로 엄마의 그 가방을 열게 하고 싶었던 같다. 그리고 그 안에 든 게 무엇인지 훑어보려고 했다. 삼촌의 격려에 힘 입어 나는 전주에 엄마를 만나러 갔다. 아

주 훌륭한 통역가와 함께.

우리 셋은 엄마 집의 작은 부엌에 있는 식탁에 둘러 앉았다. 엄마와 나는 서로 직접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서로를 마주 본 채 앉았고 통역사는 우리의 말을 공정하게 전달하기 위해 다른 쪽에 앉았다. 차와 과일을 미리 준비한 엄마는 긴장한 것처럼 보였다. 정기적으로 식사를 하고 담소를 나누는 평소에 비해 이렇게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일부러 조성한 분위기가 다소 어색하게 느껴졌다.

우리는 오래 전 역사로 거슬러올라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더 큰 질문을 하기 위한 일종의 워밍업 같은 느낌이었다. 나는 내가 입양되던 당시의 상황에 대한 가족 구성원의 각기 다른 기억으로 내가 느끼게 된 서운함과 불신을 털어놓았다. 애초에 정확한 설명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아주 작은 부분을 두고 소란을 떨었다. 예를 들어 나를 포기하기 전에 엄마의 두 번째 남편이 정말로 할머니와 나의 입양에 대해 상의를 했었는가 하는 것들 말이다.

대화 중에 잠시 침묵이 흘렀고, 나는 항상 의문을 품어왔던 질문을 불쑥 꺼내놓았다.

“내가 입양되기 전에 나를 사랑하긴 했어요?”

이 말이 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너무 냉정하게 들려서 말을 뺀 것을 후회했다. 하지만 왜 그랬는지 이유를 설명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3년 동안 나를 키우고, 재혼 때문에 부모님에게 나를 맡겨준 채 떠났다면, 아마-아마 3년 동안 우리가 충분히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았던 게 아닐까요?

“그런 건 왜 묻니?” 엄마는 명백히 상처 받은 얼굴로 말했다. “내가 너무 철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던 거야...어떻게 내가 너를 사

랑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나... 그런 말 하지마! 절대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내가 한국에 있는 동안 엄마가 나와 거리를 둔 것에 대해서 느낀 서운함도 털어냈다.

"너가 한국에 거의 일년을 있었고, 나도 너와 시간을 보내고 너와 이것저것 하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어... 그리고 난 너에게 여기에 있어달라고 말할 수도 없어. 내가 너에게 뭐라고 하겠니? 나는 그럴 권리가 없어. 난 너에게 어떤 말도 할 자격이 없어."

"너희 숙모가 나한테 그러더라. 7년 동안 딸이 한국에 방문했고 이제 서울에 오기 위해서 호주에서의 생활까지 잠시 멈추어 두었는데, 너는 서울에 딸을 보러 가지도 않았다고. 만약 그게 아들 중 한 명이었다면 아들 보러 서울에 안 갔겠느냐고. 근데 너희 숙모는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 그날 밤 나는 잠을 못 잤다. 너희 숙모는 (혈연으로 맺어진) 우리 가족도 아니잖아."

엄마는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하기 시작했다. 가슴에 묻힌 말을 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난 여전히 엄마의 말이 헛갈렸고 엄마의 생각을 분명히 이해하고 싶어 안간힘을 썼다. 그러니까 엄마는 나에게 다가오고 싶지만 참고 있다는 건가?

나는 엄마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싶지만 엄마를 용서하지 못해 힘들다고 고백했다. 왜냐하면, 엄마에게 가해진 모든 외압에도 불구하고 난 여전히 엄마의 딸이고, 엄마가 책임져야 하는 아이였기 때문이다.

"용서가 가능하기는 할까?" 엄마가 물었다. "난 너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해. 너가 건강히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나는 충분해...넌 적어도 어릴 때는 공부도 열심히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너가 좋은 사람을 만난다면 더 좋겠지." 엄마는 나를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듯 보였다.

엄마가 언젠가 꿈에서 봤던 것처럼 내가 언젠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며 두 아이를 갖고 사는 걸 보는 것으로 죽한 듯 했다.

"근데...난 만족이 안 돼요." 내가 머뭇거리면서 말했다. "나는 만족이 안 돼요, 왜냐하면...나는 찾고 있었고 갖고 싶었거든...엄마가. 난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뭘 하겠니? 나도 다른 사람들이 딸들과 같이 쇼핑도 하고 같이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는 걸 보면 부러워. 그런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니? 내 마음 같아서는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싶어. 난 항상 너랑 이야기 하는 걸 꿈꿨어."

난 더이상 할 말이 없었다. 엄마 말이 맞는 지도 모른다. 이게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전부였다. 두 사람이 이상하고 웃기기까지 한 춤을 추고 있는 이미지가 떠올랐다. 서로의 주위를 천천히 맴돌면서 가끔 상대에게 다가가지만, 절대 서로 닿지는 않는.

이쯤 되자 거의 두 시간이 흘렀다. 대화는 우리 둘 모두를 지치게 했다. 우린 전쟁에서 돌아온 병사처럼 찢기고 몹시 지쳐있었다. 그리고 나는 죄책감을 느꼈다. 난 이 대화가 그래도 가치 있는 대화였기를 바랐다. 나는 엄마에게 솔직하게 말해주어서 그리고 애초에 이 대화를 갖는 것에 응해주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비록 이 대화가 바꿔놓은 것은 아무 것도 없을 지라도, 우리가 서로에게 이토록 솔직했던 적은 없었다.

이 대화로 나는 진전이 있다고 느꼈다. 마침내 어딘가에 도달할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들었다.

...

어느 날 아침, 한국 생활이 거의 일년이 되어가던 때, 나는 삼촌으로부터 긴급해 보이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할 얘기가 있다. 네 남동생 결혼식에 관한 거다. 전화해도 되겠니?

남동생의 결혼은 거의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었다. 나는 몹시 기대하고 있었다. 입양인들은 크고 형식적인 가족 행사에서 종종 환영 받지 못하는 신세가 된다고 알고 있긴 했지만, 할머니조차 내가 결혼식에 참석하면 매우 기쁠 거라고 말씀하셨고, 삼촌과 숙모는 나도 가족의 일원으로서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셨다. 남동생과 그의 약혼녀가 나를 결혼식에 초대 해주었을 때(호주에 있는 내 고향에 일년 동안 워킹 홀리데이로 방문했던 그 남동생이다), 나는 내가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르면 어떨지 제의했고 예비 부부로부터 반가운 승낙을 받았었다.

남동생과 삼촌은 각각 나에게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다. 내가 참석하면 엄마가 불편할 것이라는 거였다. 내가 결혼식장 맨 뒤에 혼자 앉더라도 말이다. 엄마 스스로를 위한 생각이 아니라, 만약 신부 측 가족들이 아이를 포기하고 입양시킨 집안과 결혼한다고 나쁜 소리를 들으면 어쩌나 염려한다는 것이었다.

상황이 다소 복잡해지긴 했지만, 이 상황은 지극히 한국적인 것(Real Korean Shit)이라고 했다.

난 엄마에게 「남동생 결혼식에 내가 가는 걸 원치 않았다면, 왜 나한테 직접 연락하지 않았어요?」라고 직접 문자를 보냈다. 무례하게 들린다는 것을 알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그때까지 배운 한국어로 구사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엄마는 곧바로, 하지만 에두른 답장을 보냈다. 네가 뭔가 오해한 것 같다...삼촌이 다 설명할거야...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이상 이야기하지 않았다. 결혼식 후에, 나는

엄마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바꾼 것을 발견했다. 한국식의 결점 없는 반짝이는 결혼식 사진에는 남동생과 그의 신부, 내 둘째 남동생, 그리고 엄마와 엄마의 현재 남편이 함께 있었다. 그들은 마치 책에서 오려낸 종이인형처럼 알록달록한 한복을 입고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었다.

나중에, 내가 더이상 그 결혼식에 대해서 꽤념치 않을 때, 나는 남동생의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엄마의 우려를 감추기 위한 변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엄마는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평판을 우려했고 혹시 먼 친척들까지 나에게 대해 알게 되면 어쩌나 걱정했다.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엄마가 나에게 사실대로 말해주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진실을 말해주었다면, 그것도 나에게서는 나름의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것은 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

나는 엄마를 바라본다.

엄마는 내 앞에 서 있다. 2미터 정도 떨어진 채. 몸은 정면을 향하고 있지 않다. 마치 나를 정면으로 바라볼 수 없다는 듯이.

나는 엄마에게 조금 가까이 다가서려고 한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 발이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 둘 사이엔 공간이 있다.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공간이.

엄마의 눈은 끝 없이 깊고 어두운 물 속 같다, 마치 내 눈처럼. 아니 내 눈이 엄마의 눈을 닮은 건가, 눈물을 머금어 반짝거리면서.

그런데 그건 우리 엄마가 아니다-그건 다른 입양인이다-우리 “엄마”자리

에 서있는 사람은.

“엄마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으세요?” 중개인이 나긋하게 묻는다.

내 말이 속삭임처럼 희미하게 나온다.

“엄마, 나 여기에 있어요.”

눈물이 소리 없이 양볼을 타고 흐른다, 끊임 없이.

“나 바로 여기에 있다구요.”

“내가 보여요?”

“내가 정말로 보여요?”

...

지난 몇 해 동안, 나는 책을 정말 많이 읽었다. 입양에 대한 책, 애착에 대한 책, “원초적 상처”에 관한 책, 몸에 저장된 트라우마에 대한 책, 내면의 아이가 입을 상처를 치유하는 것에 대한 책...

그런데도 부러진 어떤 것들은 영영 치유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책을 아직까지 보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책은 어디에 있는걸까?

...

한국에 처음으로 돌아온 지 이제 거의 10년이 되어간다. 난 여전히 서울에 살고 있다. 이곳에서 나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되찾았다. 혈육과의 재회와 서울에서의 생활은 내게 너무나 큰 기쁨을 안겨주었다.

결혼한 나의 남동생은 너무나 사랑스럽고, 객관적으로 귀여운 아이를 낳았다. 그 아이는 우리 엄마의 삶에 빛과 같은 존재다.

어느 날 전주에 갔다. 딱히 엄마를 만나러 내려간 것은 아니다. 이제 우리

는 거의 연락을 주고 받지 않는다. 우리는 아주 유명한 칼국수집에 나란히 앉았다. 숙모는 엄마에게 나의 서울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주신다. 나의 새로운 직업, 내가 막 입사한 회사, 내가 사는 아파트 등. 숙모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무엇이든 이야기하신다. 마치 우리 둘이 중개인을 통해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엄마는 여기에 있지만 여기에 없다. 우리의 팔은 서로에게 거의 닿을 듯하지만 우리 사이엔 익숙한 경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우리 둘 모두에게 이게 편안하다.

이 편이 낫다. 나는 나 자신에게 더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적어도 지금은 괜찮다고 말한다. 엄마에게 연민을 되찾기 위해 어느 정도 거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도.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엄마에 대한 크나큰 슬픔의 우물.

지난 십년 동안 어떤 상처가 회복되었을까? 겉보기엔 그다지 많지 않다. 나는 내 손을 가만히 내려다본다. 우리가 가진 것들은 내 작은 두 손으로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적다. 깔끔한 결말은 없다.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하지만 난 여전히 여기에 있다.

문을 살짝 열어둔 채.



## Add More Salt If Necessary

### a memoir of adoption, finding home, and learning to make kimchi

- Ann-Kathrin Moon (Germany) -

#### Vegan Kimchi

ca. 1.3 kg/ prep. time: ca. 1h/ soaking time: ca. 8h/ fermentation: 8-10 days

#### Ingredients:

- 1 large firm napa cabbage
  - 5g sticky rice flour
  - 3 Tbsp sugar
  - 20ml Dasima
  - ¼ Daikon radish (ca. 250g)
  - 2 scallions
  - ¼ leek (the middle light green part)
  - ¼ Nashi (or 1 regular) pear
  - 4 cloves of garlic
  - 1 piece of ginger (ca. 5g)
  - 40g Gochutgaru chili powder
  - 2 Tbsp soy sauce
  - 2 Tbsp vegan fish sauce (optional)
  - 1 Tbsp apple vinegar
  - Sea salt
- Instructions:

Remove the outer leaves from the napa cabbage. Cut in half lengthwise and rinse. Spread the coarse sea salt between the leaves. Put the cabbage halves in a large bowl, cover with water, and place a heavy plate over it to keep it submerged. Leave to soak at room temperature for 6-8 hours.

It takes at least 8 hours to travel from South Korea's capital Seoul to Jeju island over land and sea. Jeju, 제주도, Island of the Gods, located where the Yellow Sea and the East China Sea merge, dominated by the Hallasan volcano, 6,400 feet high. If you set your foot on Jeju ground, you stand on two-million-year-old lava and basalt. Like on every volcanic island, water and fire, earth and sky merge in the most pristine way, timeless and ever-changing. The sea can be turquoise and calm, playing tender games with the white sands. But close your eyes and turn the corner, and you'll see the waters throwing themselves grey and violent against black cliffs. The rain season lasts for nearly two months, and during this time, the air is hot and steaming, damp clothes stick to sweaty skin, the skies breathe relentlessly. In fall and winter, the winds and waves are rough, the smell of the sea seeps in everywhere. Walk by the water and lick your lips, and you can taste the saltiness of the elements. It is the island of my ancestors, I like to believe. But I can't know for sure. There is nobody I can ask.

For as long as I can remember, I have been drawn to the sea. Growing up at the southern end of Germany, I was surrounded by the soft, tree-covered mountains of the Black Forest, the next ocean a 7-hour drive away. But I longed for it all my life, its blue vastness and the horizon that recedes with the same speed that you move towards it. I never made the connection to my origin, the fact that I was born on an island: possibly the first in generations to

leave and live far away from the sea. My mother used to joke about my temper sometimes, calm and sweet in one moment, irascible and aggressive in the next, you're a little volcano, she would say, it has to be because you're born on a volcanic island! I bit my tongue and kept silent, what was I supposed to say? At other times, she pointed out similarities between me and her, traits of character, hobbies, or talents we shared, it's obvious that you're my daughter!, she would exclaim, often followed by the same story of how everyone used to comment on the slanted eyes she had as a baby. She does it to this day and I still don't know who it is supposed to convince, me or her. Later, I learned that Jeju women are feared for their quick temper, their sharp tongue, and their unfaltering will. Is blood thicker than water?

Jeju island is said to be one of those rare societies worldwide with a semi-matriarchal structure. Girls and women have still largely been subjected to the authority and will of the male head of the family, following the patriarchal spirit of Confucian tradition. As the primary laborer of the household, however, Jeju women have always played a crucial economic and social role. The Haenyeo divers are gritty, brave women who entrust the sea with their lives and plunge down into its dark depths to harvest abalone, conch, octopus, sea urchins, sea squirt, algae, shells, sargassum, oysters, and slugs. If you walk along Jeju's shores, you might spot their tiny black heads and orange buoys in the distance, floating amongst the white crests of the waves. But as in so many other parts of the world, the old ways of living are fading, and the number of sea women is dwindling. There are safer, easier, more profitable ways to make a living: industries and businesses offer stable jobs and better money. Some of them persist, nonetheless, and they are connected to the ocean by a deeply spiritual

bond, woven from history, necessity, and devotion. The true women of the sea wish to be swallowed by the waves when their time has come, they are descendants of Grandmother Seolmundae who birthed the whole island from different parts of her body, friendly sirens that sing their salty song of freedom and evanescence. Sometimes, I can hear their faint voices at night, calling from afar.

Mix the rice flower with 20ml water and bring to boil in a small pot. Constantly stir. Take off the stove and mix in 1 tbsp of sugar.

Korean food is usually very spicy, however, many dishes contain a surprising amount of sugar and sweeteners. Taste a spoonful of kimchi and a lot of intense flavors unfold in your mouth. The fiery combination of chili and fermented cabbage proves challenging to many European taste buds.(the recipe I use skips the fermented shrimps but add those if you want the extra punch) But would you guess that there is also a big chunk of pear, a good bit of rice syrup and several tablespoons of sugar in it?

She was only 22. When she was my age now, I was already eleven, her child whose whereabouts were as unknown to her as those of my father. What an ancient way to control and punish women: stigmatize them for getting pregnant, force them to have a child they don't want, shame them for not having a child they don't want, or leave them no choice than to give away their baby. Korean society in the 1980s would not tolerate single mothers, without husband, without marriage, without the necessary means, or the required social status. She was a young woman away from home, they had a fleeting relationship, she got

pregnant, he disappeared. That is how the official story goes. The true one may be even crueler. It's a story as old as time. And it never fails to make me mad. Mad at him, that man I refuse to call my father, mad at every other man who has ever done the same. Mad at the patriarchal world we live in, that claims to be civilized but still allows men to decide the fate of girls and women, their bodies, their babies, their futures. Where are they, those 200,000 women, mothers to us "lost children?" Has anyone ever considered that it might be them who should be asked for forgiveness?

Sugar, ah honey honey

Oh sugar, pour a little sugar on it honey.

Nowadays, we rarely talk. Our emotional ties have faded over the years after I left the village where I grew up, that picturesque, suffocating place at the foot of the mountains. I have moved more than a dozen times since then, between cities, between countries, but she has only come to visit me once. She does not know what my life looks like and I have stopped expecting her to. I haven't told her that I found my mother but never heard back from her, she doesn't know I got engaged after I said No the first time. She has her own demons from the past haunting her. Trauma gets passed down from one generation to the next, the Native Americans say. We inherit the nightmares from our ancestors, carry them in our bodies, and if we don't face and eventually pacify them, they won't ever stop roaring. Isn't it only logical, I wonder, that I must bear all this pain, passed down to me from two women who have faced so much trauma themselves?

She has, however, found her own, strange way to show her motherly love

from a safe distance: she sends parcels. My changing domiciles fill several pages of her little address book but no matter where I live, I receive parcels. Dozens of them. Parcels full of stuff, some of it useful, some cherished, some amusing, some pointless – but what I can be sure of is that every available gap between things is filled with sugar: candy, chocolate, haribos, special little treats and snacks, Lindt bunnies, Santa Claus', jars with honey, chocolate spreads, confectionary, cellophane bags stuffed with home-baked cookies, dried fruits, rock candy, all thoughtfully wrapped and accompanied by a hand-written card. And there are always smileys, as stickers or hand-drawn, covering packaging, cards, and boxes. When she was a little girl, her own mother turned her back on her when she came to her crying, seeking comfort and support. So she smiles, no matter what, while I hide my grief behind constant, exuberant laughter. We both find solace in all things sweet, although no sugar in the world can undo what has been done. We might not be that different after all.

Ah sugar, ah honey honey

I just can't believe the loveliness of loving you.

Rinse and peel the radish and carrot(s) and cut into match sticks. Wash the scallions and leek and cut diagonally into thin rings.

I was 12 when I deliberately cut myself for the first time. It was the year when I decided that I wanted to die. My ashes were to be buried on an island, on a cliff overlooking the sea. I didn't die but I kept on inflicting harm on my body for two decades, and I still think about my own death almost every day. Each of the slowly fading scars on my arms and legs is linked to a memory

of a certain moment. In most of them, I was shaken to the core by the fear of abandonment. Sleepless, lonely, and heavily intoxicated, it was the only relief: whatever sharp item I could get hold of would do—scissors, knives, razor blades, shards, sometimes I burnt myself with a cigarette butt, sick to the stomach from the smell of my melting skin. The pain felt numbing and revitalizing at the same time. Watching the blood trickle out of my body seemed like the only proof I was still alive.

As if we were involuntary members of a secret society, I can spot and identify other Korean adoptees. There is the physical appearance, for one, a face and body that look Asian, whereas the rest of the person gives away the Western, mostly white middle-class upbringing. But what makes them actually distinguishable is the sadness they radiate. I don't perceive it from afar but I can usually sense it when I look at them from close up: a thick, sticky mass of grief and anger that seeps out of their pores, a distinct air of forlornness blurring their eyes. We look at each other and we recognize both ourselves and the other. The first impulse of curiosity and recognition is often then replaced with rejection and distrust, and we turn away from this stranger who looks right at the most shameful and vulnerable spot inside of us and makes us do the same.

Mental illness is widespread among adoptees. Everyone who denies that shuts their eyes from the truth. In Sweden, the suicide rate for adopted adolescents is four times higher than for their Sweden-born peers. Being an adoptee also increases the disposition to engage in substance abuse, delinquency, and abusive relationships. But every time I search the internet for help, the psychological support that is available is mainly directed at adoptive parents. Fair enough, I

think, but what about us? My first attempts at seeking psychological assistance turned out to be entirely futile. The respective therapists seemed unsure what to do with me: their demeanor confirmed my fears of not deserving help, or worse, not even qualifying for counseling because I was simply making a fuss out of nothing. The voices in my head kept telling me You don't deserve help, you don't even deserve suffering, you should be nothing but thankful for all that you have! At other times, they hissed This is exactly what you deserve, you simply were not good enough, why else would she have given you away? More than a decade later, I eventually found a therapist who met me where I was. She took me by the hand and guided me gently. Together we looked at the long way I had come and the road ahead I still had to walk. A tiny blue flower had started to grow and cast its faint glow in the dark.

Peel the pear and remove the core. Peel and roughly chop ginger and garlic. Use a blending stick to make a smooth paste with the pear, ginger, garlic, chili flakes, soy sauce, fish sauce, ½ TS salt, 2 tbs sugar, and apple vinegar.

Making kimchi is traditionally a very social activity within a community. The recipe is passed down from mothers to daughters or mothers-in-law to daughters-in-law in what I imagine as an intimate, almost sacred ritual. Kimchi seems to be the sort of thing that always tastes best when made by the own mother or grandmother. It is home, it is identity, it is heritage, so engrained in the Korean way of life that kimjang, the process of preparing kimchi, was added to th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y the UNESCO in 2013.

Home, identity, heritage. To me, these concepts make themselves known

through their absence. Home to me is a no-place, a utopia, something that, like a mirage, can only ever exist within sight yet beyond reach. As soon as I get close enough to grasp it, it disappears. Identity is a concept intricately twisted and intriguing for me personally, while at the same time being so tirelessly exploited and overused generally that I have grown weary of the mere sound of it. And heritage? I don't think heritage can even exist without identity. Cambridge Dictionary defines heritage as material as well as immaterial "features belonging to the culture of a particular society." I studied anthropology, attracted and fascinated by foreign cultures and peoples, their languages, customs, and beliefs. It felt like they could teach me something I was missing, as if looking at the foreign meant, ultimately, looking at myself.

When Germany competed against South Korea in the 2002 World Cup, I was 14. As if by a miracle, South Korea had made its way all up to the semifinals and the thought of the Koreans booting the German team out of the World Cup got me strangely excited. Oblivious of what to expect, I went to watch the match in the nearby town. Hundreds of people had gathered in the scorching midsummer heat in front of a gigantic screen. I remember the top I was wearing that day, a short-sleeved crinkled blouse in pale pink. Pink clothing suits her particularly well, my adoption documents say, a puny attempt to render the formal text a little more humane. The match was nerve-jangling. No goals were scored for the first, endless, 75 minutes. I was surrounded by hordes of sweaty people in full German fan attire, drinking beer from plastic cups while cheering for the national team or nervously biting their lips. When the German team captain eventually sent the ball into the net, the entire crowd erupted in deafening jubilation. Everyone leaped up and started to sing and dance in a mist

of glistening beer and sweat that exploded in the sunlight. I sat unnoticed on the ground and sobbed. Tucked deep into my bag, the little Korean flag my father had brought when he picked me up in the spring of 1987 was waiting in vain for its big moment.

In a way, that moment was the epitome of a feeling that many adoptees know all too well: being alone in a crowd of people, at the wrong place at the wrong time, sticking out as someone who does not belong. As a kid, blending in was simply not an option. My parents were not originally from the region, they didn't speak the local dialect and rarely participated in any of the communal activities. On top of all that, they had a son struggling to socialize with other kids and a daughter adopted from Korea. So, what were the odds? All throughout my childhood and youth, I never wanted to have anything to do with anything or anyone even remotely Asian. If a person qualifying as such looked at me with friendly interest, I would avert my gaze immediately, signaling clearly that I wished to be left alone. Even interacting with an Asian person seemed to be too big of an acknowledgment of my own Asianness. I was sick and tired of being questioned, of having to explain myself, of laughing off jokes and comments that deeply hurt me. I simply wanted to be like everyone else. My parents accepted my unwillingness to approach my origins, so the topic was considered irrelevant for more than two decades.

Growing up surrounded by faces that did not mirror my own deeply distorted my self-perception. In white people's faces, I recognize familiarity and belonging, paired with the knowledge that I can never truly be part of it. Korean faces, in contrast, convey a strong sense of foreignness and otherness,

while making me painfully aware that this is precisely what others see when they look at me. The first time I kissed a Korean man, I choked on the mix of attraction, repulsion, and fright. Seeing another Korean face so close to mine felt transgressive, almost incestuous. I gasped and took a step back, unable to explain what was happening to me. The anthropologist does not only look at the foreign and recognize themselves. The opposite becomes equally true: looking at herself, she sees the Other.

Every adoptee who returns to South Korea marvels at the experience of looking like everyone else, something that can only ever be understood by individuals who grew up surrounded by people ethnically different from them. I previously had been to cosmopolitan cities, places where the diversity of human existence is so extreme that nobody would ask you where you are from or care what you look like. Each time, this had felt incredibly liberating to me. But the streets of Seoul bore an entirely new experience: all those millions of individual faces and features melted into a vast sea of people looking just like me. It didn't matter that they didn't actually resemble me because what I saw was myself mirrored in each and every one of them in a way I had never deemed possible. I stared at other women's bodies and faces and it struck me with a vengeance that the shape of my legs, the curve of my belly, the texture of my skin, the outline of my cheeks, even the way my face looks when I am tired – all these things were utterly common: they were utterly Korean. Suddenly, I felt less wrong and outlandish and different, and most of all, I felt less ugly. The omnipresent shame related to my physical appearance was gone, and, what was more, only in its absence did I recognize that it had been there all along. Like the humming of a fridge that suddenly stops and makes you realize that you mistook its constant noise for silence.

Add more salt if necessary. Mix with radish, scallions, leak, dasima broth, and rice flour paste.

I can count the times I ate Korean food before my mid-twenties on the fingers of one hand. Even though I loved trying new dishes and the Korean cuisine was getting increasingly popular in Germany, I never set foot in a Korean restaurant. The first time I went back to Korea, I got terribly homesick for familiar food. I was overwhelmed and shaken by the sheer foreignness that engulfed me. I wandered through the maze of downtown Seoul and tried to process the flood of sensual impressions, breathing in the polluted, cool air of early spring. Sounds, colors, light, smells, everything was new and different. But in contrast to previous travels, I secretly expected some faint recognition, the traces of a long-lost memory, a certain sense of home. The city kept silent while my temples throbbed in its everlasting noise. Although I tasted a variety of local foods and liked many, I often ended up buying sandwiches, hamburgers, and familiar snacks at 7/11, small edible safety buoys I could cling to whilst drifting on unknown waters. In the countryside, the options were more limited. Unable to communicate verbally, I would simply point at something on the menu and hope that it wouldn't turn out to be one of the slick sea creatures awaiting their fate in the aquarium by the front door. It was in this way that I discovered and fell in love with kimchijeon, a love that lasts till today. Other times, I was served plates and bowls with undefinable contents that I struggled to finish. Clumsily clawing the metal chopsticks in my hand and trying not to give away my distaste, I prayed for the ground to open and swallow me, saving me from the curious glances and the food in front of me.

Despite the feeling of finally blending in (visually, at least), it happened only occasionally that people spoke to me in Korean. Too much of my appearance and behavior seemed to indicate my Western upbringing. I was reminded of that when I walked the Camino de Santiago half a decade later, an 800-kilometer-long pilgrimage across Spain, extraordinarily popular among Koreans. I felt like a traitor, hanging out only with what was most familiar to me: the kind of shaggy, indecisive, and deeply tanned traveler I always have felt drawn to. Despite my apparent disinterest, however, I constantly eyed the Korean pilgrims from a distance. Repeatedly, I got lost in daydreams about how one of the middle-aged women would turn out to be my mother, walking the ancient pilgrims' path in order to make peace with the baby she had given away when she was young. Is it her? I would ask myself sometimes, is it you? Like most of the Korean hikers, the women would cast me curious, friendly glances and I could see what they were thinking: She looks like one of us but clearly, she isn't.

Drain the cabbage, rinse it, and press out as much liquid as possible. Cover every leaf with chili paste and place in an airtight container. Keep it in a spot without direct daylight at room temperature for 1-2 days. Once the kimchi has started to produce liquid and bubbles, place the container in the fridge.

I waited for a life-changing, enlightening transformation during that first journey back to my birth country, this far-away place that bore so many mysteries and unanswered questions and was unwilling to give any easy answers. Instead, the transformation happened quietly, sneaking in without much fanfare. The most profound change, I believe, one that I was only able

to recognize much later, was that I no longer felt ashamed of being Korean. I am still far from embracing and fully accepting who I am but at least, I am no longer ashamed of my origin. One step on a long way.

Despite my mixed experiences with Korean food, I started to delve deeper into Korean cuisine after my return. I tried to figure out what I had eaten during my trip, looked up Korean restaurants in my city, and would feel a tiny bubble of joy burst inside my chest when I sat there fumbling with my chopsticks, shyly glancing at the Korean faces around me. For a short moment, I felt that sense of belonging that I had always been chasing, and that, as I know now, can only be situational, fragile, and fleeting.

Today, I am somewhat of a local kimchi expert, which is ironic considering the fact I made my first batch of kimchi less than two years ago. It all started with a Taiwanese friend of mine playing with her daughter's iron-on beads on a rainy afternoon to produce a row of humorous images. One of them read kimchi bitch and when I saw it, I laughed so much that she gave it to me as a present. I can't tell exactly what it was, but this silly little picture set off something inside of me, like a stone that had been on the brink of falling for a long time and only required a little nudge in order to push it over the edge. Whatever it was, I suddenly wanted to learn how to cook Korean food. I bought a cookbook by Young Mi Park-Snowden, the owner of Kimchi Princess—a trendy, bustling Korean restaurant in the heart of Berlin. And I set off to learn how to make my own kimchi. Half a year later, I started giving kimchi workshops, mainly due to a lucky coincidence. When I was introduced as German at the beginning of my first workshop, I worried for a moment that this would undermine my

credibility. Wouldn't people prefer if I was Korean? Was I Korean? There it was again, the gnawing feeling of somehow being not good enough. Or plainly wrong. Fake, false, a Faux-rean, as a friend of mine(also adopted from Korea) once put it.

In the end, all went well and the only thing the participants complained about was the spiciness of the kimchi—being used to the rather bland Scandinavian cuisine, some of them simply couldn't take it.

Bit by bit, I expanded my repertoire. I taught myself how to make stews, prepare different kind of noodles, and find the right soy sauce between the other 200 kinds in the Asia market. Some people may find my passion for Korean food curious and amusing, but for me, it is one of the few links with my Korean origin that is accessible and uncomplicated, a possibility to reclaim pieces of a heritage that I have been deprived of otherwise. The kimchi bitch stuck with me—the words are printed on an apron that I use for my workshops. I wear it over a black shirt that says in bold white letters: KOREANS DO IT BETTER. I feel almost invincible when I wear it.

Every adoptee must find their own way of coming to terms with their own history. Some move back to their birth country, learn the language, and integrate almost seamlessly. Others are entirely indifferent to their origin or simply decide not to engage with it. I suppose that most of us end up somewhere in between. I thought I was indifferent—it turned out I was everything but. Just like a jar of kimchi that is packed too tightly and then kept in an airtight container, there was simply too much pressure that had built up over time. When I opened the jar, it exploded right into my face and left a mess around me that proved to be

tiring and at times impossible to clean up—each time I thought I had scrubbed everything clean, I discovered yet another sticky red spot somewhere. At the end of the day, I long for the same thing that every adoptee longs for: to find peace, to make peace—with ourselves, our families, and our history. So I keep on cleaning up, and I keep on making kimchi, even though that creates more mess at times. And I try not to give up because I know that more than anything, good kimchi requires dedication and patience.

After 8-10 days, the kimchi is ready to enjoy.



## 필요시 소금을 추가할 것

### 입양, 가정 찾기, 김치 만드는 법 배우기에 대한 회고록

- Ann-Kathrin Moon (독일) -

#### [비건 김치]

약 1.3kg / 준비: 약 1시간 / 절이기: 약 8시간 / 발효: 8~10일

#### [재료]

- 단단한 배추 1개
- 찹쌀가루 5g
- 설탕 3 큰 술
- 다시마 20ml
- 무 1/4개 (약 250g)
- 대파 2개
- 리크(leek) 1/4개 (가운데 연녹색 부분)
- 배 1/4개 (또는 서양배 1개)
- 마늘 4쪽
- 생강 1조각 (약 5g)
- 고추가루 40g
- 간장 2 큰 술
- 비건 액젓 2 큰 술 (선택사항)
- 사과식초 1 큰 술
- 바다 소금

#### [만드는 방법]

배추의 겉잎을 제거한다. 길게 반으로 자른 후 배추를 가볍게 씻는다. 굵은 소금을 배추 이파리 사이사이에 뿌린다. 반으로 자른 배추를 큰 통에 담고, 물로 채운 다음, 물 속에 잠길 수 있도록 무거운 접시를 올려 놓고, 상온에 6~8시간 두어 절인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육로와 해상으로 가려면 최소 8시간이 걸린다. 신들의 섬, 제주도는 서해와 동중국해가 만나는 곳으로, 해발 1950미터의 화산인 한라산이 지배하고 있다. 제주 땅에 발을 딛는 순간, 200만 년된 용암과 현무암을 밟게 된다. 화산섬이 대개 그렇듯 시간을 초월하며 변화하는 물과 불, 땅과 하늘이 가장 깨끗하게 어우러진다.

고요한 청록색 바다는 하얀 모래와 잔잔한 놀이를 한다. 하지만 눈을 감고 모퉁이를 돌면, 검은 절벽에 격렬한 회색 파도를 일으키며 몸을 던지는 바닷물을 볼 수 있다. 두 달가량 지속되는 우기에는 찌는 듯한 뜨거운 공기가 가득하고, 축축한 옷이 땀에 젖은 피부에 달라붙으며, 하늘은 가차 없이 숨을 쉬어 낸다. 가을과 겨울에는 바람과 파도가 거칠고, 바다 냄새가 모든 곳에 스며든다. 해변을 걷다가 입술을 훑아 보면 자연의 짠맛을 느낄 수 있다. 이곳을 내 조상의 섬이라 믿고 싶다. 하지만 확실히 알 수는 없다. 물어 볼 사람이 없는 관계로.

내가 기억할 수 있는 한, 난 언제나 바다에 매력을 느꼈다. 독일 남쪽 끝에서 자란 나는 부드럽고 나무로 덮인 흑림(Black Forest)에 둘러싸여 살았고, 가장 가까운 바다는 차로 7시간을 달려야 나왔다. 그래도 바다의 푸른 광활함과 다가가면 같은 속도로 멀어지는 수평선을 품은 바다를 나는 평생 갈망해왔다. 이 갈망을 내가 섬에서 태어났다는 사실, 즉 내 출신과 연결 지은 적은 없었다. 나는 바다를 떠나 먼 곳에서 산 첫 세대일지도 모른다. 우리 어머니는 차분하고 유쾌하다가도 한 순간에 육해버리는 내 성미 때문에



나를 “우리 작은 화산”이라며 “네가 화산섬에서 태어나서 그런가 보구나”라고 농담을 하시곤 했다. 그럴 때면 나는 이를 악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는가? 어떤 때에는 성격, 취미, 재능 등 어머니와 내가 닮은 점을 언급하시며 “누가 봐도 넌 내 딸이구나!” 외치시고는 어머니도 어렸을 때 눈이 길게 찌어졌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는 말씀을 하신다. 오늘날까지도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는 과연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건지 당신 자신을 납득시키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다. 나중에야 제주도 여자들이 다혈질의 성미, 날카롭고 직설적인 말투, 불굴의 의지로 두려움의 대상이 되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는 정말 물보다 진한 것일까?

제주도는 전 세계에서 흔치 않은 반(半)모계 사회 중 하나다. 지금까지도 여전히 여자들은 아이고 어른이고 유교 전통의 가부장제에 따라 가장인 남성의 의지와 권위 아래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제주도에서는 여성이 가정의 주노동자로,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강인하고 용감한 해녀들은 바다에 목숨을 맡기고 전복, 소라, 문어, 성게, 멍게, 해조류, 조개, 모자반, 굴, 민달팽이 등을 잡기 위해 어둡고 깊은 물속으로 뛰어든다. 제주 해변을 따라 걷다 보면, 저 멀리 하얀 파도 사이로 떠다니는 작고 검은 머리들과 주황색 부표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세계 다른 곳들과 마찬가지로 예전의 생활 방식은 점점 사라지고 해녀의 수는 줄고 있다. 기업들은 더 많은 돈을 더 안전하고, 쉽고, 안정적으로 벌게끔 한다. 그럼에도 계속 물질을 하는 해녀들은 깊은 영적 유대감으로 바다와 연결되어 있으며, 역사와 필요, 헌신으로 엮여 있다. 바다의 진정한 여인들은 때가 되면 파도가 그들을 삼키기를 바란다. 그들은 자신의 몸의 다양한 부분으로 제주도를 탄생시킨 설문대할망의 후손이자, 자유와 덧없음에 대해 노래하는 친근한 세이렌이다. 나는 이 따금씩 밤에 저 멀리서 부르는 그들의 희미한 목소리를 들곤 한다.

참쌀가루에 물 20ml를 섞어 풀어준 후, 작은 냄비에 넣어 계속 저어가며 끓인다. 불을 끈 후 설탕 1 작은 술을 넣고 섞는다.

한국음식은 주로 맵지만, 음식에 설탕이나 감미료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알면 아마 놀랄 것이다. 김치를 한 입 맛보면, 강렬하고 다양한 풍미가 입 안을 감돈다. 불 같이 매운 고추와 발효된 배추의 조합을 힘들어하는 유럽인들이 많다(내가 참고한 레시피는 새우젓을 넣지 않지만, 좀 더 강렬한 맛을 원한다면 새우젓을 추가하면 된다.). 그런 김치에 달달한 배와 꽤 많은 양의 물엿과 설탕이 들어간다고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그녀는 겨우 22살이었다. 그녀가 지금의 내 나이였을 때, 나는 벌써 11살이었다. 그녀는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내 아버지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여성을 통제하고 처벌하기 위해 얼마나 얼마나 원시적인 방법을 동원했는지 모른다. 혼전 임신했다고 낙인을 찍고, 원치 않는 아이를 낳도록 강요하고, 원치 않는 아이인데도 낳지 않는다고 수치심을 주고, 선택의 여지 없이 낳은 아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말이다. 1980년대의 한국 사회는 남편이 없고 결혼하지 않은, 적절한 수단이나 미혼모를 용인하지 않았다. 그녀는 집을 떠난 젊은 여성이었고, 잠깐의 연애를 했다. 그녀가 아이를 가지자, 그는 사라졌다. 공식적인 이야기는 그렇다. 진짜 이야기는 훨씬 더 잔인할지도 모른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지만, 들을 때마다 화가 난다.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기 거부하는 그에게 화가 나고, 그와 같은 행동을 한 모든 남자에게 화가 난다. 남자들이 여전히 여자들의 운명, 신체, 아기, 미래를 결정하는 세상, 이처럼 가부장적이지만 문명화되었다고 주장하는 세상에 화가 난다. 우리와 같은 “잃어버린 아이들”의 어머니인 20만 명의 여자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 용서는 그들에게 구해야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 본 사람은 있을까?

달콤한 내 사랑.

내 사랑, 달콤함을 조금 쏟아줘.

요즘 우리는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다. 내가 자라온 마을, 그 그림 같지만 숨 막히는 산자락 밑 마을을 떠난 후, 우리 사이의 정서적 유대감은 희미해졌다. 그 이후로 이 도시, 저 나라로 열 몇 번 이사를 다녔지만, 그녀가 나를 찾아온 것은 단 한 번뿐이다. 그녀는 내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이제는 나도 더 이상 알아주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내가 생모를 찾았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는 걸 그녀에게 얘기하지 않았고, 내가 한 번 프리포즈를 거절한 후에 약혼한 것도 그녀는 모른다. 그녀도 과거로부터의 괴로움에 시달린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트라우마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된다고 한다. 우리는 조상들의 악몽을 물려받아, 몸속에 지니고 산다. 이를 마주하고 달래지 못한다면, 이 괴로움은 끝없이 울부짖는다. 수많은 트라우마를 달고 사는 두 여인의 고통을 물려받은 내가 그들의 고통 전부를 짊어줘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 않을까 싶다.

아무튼 그녀는 안전거리를 두고 모성애를 보여줄 수 있는 자신만의 희한한 방법을 찾았다. 바로 소포를 보내는 것이다. 내가 이사를 갈 때마다 바뀌는 주소는 그녀의 작은 주소록의 여러 페이지를 차지하지만, 내가 어디에 있던 소포를 받는다. 그것도 수십 개씩. 소포는 물건으로 가득 차 있다. 유용한 물건, 소중한 물건, 재밌는 물건, 무의미한 물건들. 소포의 모든 빈틈은 당분으로 채워진다. 사탕, 초콜릿, 하리보 젤리, 특별 간식, 린트 초콜릿 토끼, 초콜릿 산타, 꿀단지, 초코잼, 제과, 직접 구운 쿠키가 가득한 비닐팩, 말린 과일, 막대사탕 등 다양한 것들이 세심하게 포장되어 손편지와 함께 들어 있다. 그리고 포장지나 카드, 상자에는 스티커나 직접 그린 스마일이 꼭 있다. 그녀가 어렸을 때 울면서 위로를 받으러 엄마에게 가면, 엄마는 등을

둘러버렸다고 한다. 그래서 그녀는 무조건 미소를 짓고, 나는 끝없이 활기찬 웃음 뒤에 내 슬픔을 감춘다. 그녀나 나나 달콤한 것에서 위안을 얻는다. 비록 세상의 모든 설당을 다 합쳐도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어쩌면 우리는 서로 많이 다르지 않을지도 모른다.

달콤한 내 사랑.

당신을 사랑하는 이 사랑스러움을 난 믿을 수 없어.

무와 당근을 씻고 껍질을 벗긴 후, 성냥개비 크기로 썬다. 대파와 리크(큰 부추같이 생긴 채소)를 씻고, 사선으로 얇게 썬다.

나는 12살 때 처음으로 자해를 했다. 죽고 싶다고 결심했던 해였다. 내 유골은 섬에서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절벽에 묻히는 것으로 하였다. 난 죽지 않았지만 20년 동안 계속해서 내 몸에 상처를 냈고, 여전히 거의 매일 내 죽음에 대해 생각한다. 서서히 열리는 팔다리의 흉터는 각각 특정 순간의 기억과 이어진다. 대부분의 흉터들은 버려짐에 대한 공포로 흔들렸을 때와 연관된다. 잠을 못 자고, 외롭고, 극심하게 취해 있던 나에게 자해는 유일한 안도를 줬다. 손에 짤 수 있는 날카로운 물건이라면 무엇이든 사용했다. 가위, 칼, 면도날, 유리파편 등을 썼고, 심지어는 담배꽂초로 내 살을 태워 피부 녹는 냄새에 구역질을 하기도 했다. 통증은 감각을 마비시키면서도 새로운 활력을 줬다. 내 몸에서 피가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을 보는 것이 내가 살아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 같았다.

나는 우리가 비자발적으로 가입된 비밀결사단의 회원인 것처럼 다른 한국인 입양인을 알아볼 수 있다. 우선 외모를 보면, 얼굴과 몸매는 아시아인인데 그 사람이 풍기는 전반적인 느낌은 서양인, 그중에서도 백인 중산층 집안에서 자란 사람 같다. 하지만 그들이 뿜어내는 슬픔이야말로 한국인 입양인

을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요소이다. 멀리서는 느껴지지 않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모공에서 새어 나오는 탁하고 끈적한 슬픔과 분노 덩어리, 그리고 두 눈을 흐리게 만드는 명백히 황량한 공기를 느낄 수 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자기 자신과 상대를 알아본다. 첫 느낌인 호기심과 알아차림은 곧 거부와 불신으로 대체되어, 내 안의 가장 수치스럽고 연약한 부분을 꿰뚫어 보는 낯선 이는 나 또한 그것을 마주하게 하여 결국 그에게서 등을 돌리게 된다.

입양인들 중에는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이 많다. 이를 부인하는 사람은 진실로부터 눈을 감는 것일 뿐이다. 스웨덴의 경우, 입양된 청소년은 스웨덴에서 태어난 포래들에 비해 자살률이 4배가 더 높다. 입양인은 또한 약물 남용, 비행, 학대가 동반되는 인간관계에 얽힐 성향이 더 높다. 하지만 내가 도움을 받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면 주로 입양부모를 위한 심리적 도움이 대부분이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해 보지만, ‘그럼 우리는?’ 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내가 처음 심리적 도움을 구했던 시도들은 모두 소용이 없었다. 심리치료사들은 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보였다. 그들의 태도를 본 나는 도움을 받을 자격조차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확신으로 바뀌거나, 심지어 별 것도 아닌 일로 소란을 떠는 것이기 때문에 상담받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까지도 했다. 내 머릿속 목소리들은 “넌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어. 넌 고통받을 자격조차 없어. 넌 네가 가진 것들만으로 감사해 해야 해!”라고 끊임없이 말하곤 했다. 때로는 “바로 이게 네가 받아 마땅한 거야. 네가 부족하기 때문에 네 어머니도 널 버린 거 아니겠어?”라고 속삭이기도 했다. 십 수년이 지난 후, 나를 알아봐 준 심리치료를 찾게 되었다. 그녀는 내 손을 잡고 부드럽게 나를 이끌었다. 우리는 함께 내가 걸어온 먼 길, 그리고 앞으로 걸어야 할 길을 봤다. 작고 파란 꽃이 자라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배 껍질을 꺾고 심지를 제거한다. 생강과 마늘 껍질을 꺾고 다진다. 핸드블렌더로 배, 생강, 마늘, 고추가루, 간장, 액젓, 소금 반 큰 술, 설탕 두 큰 술, 사과 식초를 잘 섞어 부드러운 양념을 만든다.

전통적으로 김치 만들기는 공동체의 중요한 사회활동이다. 김치 만드는 방법은 어머니가 딸에게 또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전수하는 것으로, 아마도 거의 신성한 의식과 같은 느낌이 아닐까 상상해본다. 김치란 어머니 할머니가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맛난 그런 음식인 것 같다. 김치 만드는 과정을 뜻하는 “김장”은 가정이자 고향, 정체성, 유산이며, 한국인의 삶의 방식에 뿌리 깊게 새겨져 2013년에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가정, 정체성, 유산. 내게 이 개념들은 부재로 그 존재를 알게 한다. 가정이란 나에게 없는 곳이며, 유토피아나 신기루처럼 보이지만 다가갈 수 없는 것이다. 다가가서 잡으려 하면 사라지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정체성이란 내게 복잡하게 꼬여 있는 흥미로운 개념이면서도, 동시에 끊임 없이 남용된 개념이라, 정체성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피곤해진다. 그리고 유산? 정체성이 없다면 유산은 존재할 수도 없는 것이다. 캠브리지 사전에 의하면 유산이란 “특정 사회의 문화에 속하는 물질 및 비물질적 특징”이라고 한다. 외국 문화와 사람들, 그들의 언어, 관습, 신념 등에 관심을 갖고 매료된 나는 인류학을 공부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나에게 부족한 것을 가르쳐줄 것 같았다. 마치 다른 이를 보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나를 보게 됨을 의미하는 것처럼.

2002년 월드컵에서 독일이 한국을 상대로 경기를 했을 때, 나는 14살이었다. 마치 기적처럼 한국은 4강까지 진출했고, 한국이 월드컵에서 독일을 견어찰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이상하게 흥분이 됐다. 무엇을 기대할지 모르

는 상태로 나는 근처 마을에 가서 경기를 관람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뜨거운 한여름 더위에 커다란 스크린 앞에 모였다. 그 날 내가 입었던 상의는 연핑크의 반팔 주름 블라우스였다. “핑크색 옷이 특히 잘 어울리는 아이입니다.” 내 입양 문서에 쓰인 문구이다. 공식적 문서에 약간의 인간미를 넣어 보려는 알량한 시도였다. 긴장감 넘치는 경기였다. 끝이 날 것 같지 않던 첫 75분 동안 점수가 나지 않았다. 나를 둘러싼 땀내나는 무리는 독일팬 복장을 폴착장한 채로 플라스틱 컵에 든 맥주를 마시며 국가대표팀을 응원하거나 긴장한 듯 입술을 물어 뜯고 있었다. 독일팀 주장이 골대 안으로 공을 넣은 순간, 귀가 멀 것 같은 환호성이 들렸다. 햇빛 아래 터지는 맥주와 땀의 안개가 반짝이는 가운데 그들은 방방 뛰고, 노래하고 춤췄다. 나는 눈에 띄지 않게 바닥에 앉아 울었다. 내 가방 안 깊숙한 곳에는 1987년 봄 아버지가 나를 데려왔을 때 가져오신 태극기가 자기 역할을 할 중요한 순간을 헛되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 순간은 많은 입양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느낌의 전형적인 순간이었다. 군중 속에서 혼자된 느낌,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는 느낌, 무리에 속하지 않는 사람으로 튀는 느낌. 어린 시절 내게 무리에 섞인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우리 부모님은 타지 출신이어서 해당 지역 방언을 하지 못하셨고, 공동체 활동을 거의 하지 않으셨다. 게다가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을 어려워하는 아들과 한국에서 입양한 딸을 키우고 계셨다. 어떻게 되었을 것 같은가? 나는 유년시절과 청소년기 내내 조금이라도 아시아와 연관이 있는 사람이나 그 무엇보다도 거리를 두고 살았다. 아시아와 관련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내게 호감을 갖고 쳐다보기만 해도 나는 바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 혼자 있고 싶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냈다. 아시아인과 교류하는 것조차 나의 아시아성을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것처럼 느껴졌다. 꼬치꼬치 질문을 받는 것도, 나 자신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하는 것

도, 깊은 상처를 주는 농담을 웃어넘기는 것도 모두 진절머리가 났다. 난 그저 다른 사람들처럼 살고 싶을 뿐이었다. 내가 내 출신을 찾아보기를 원치 않는다는 걸 부모님은 이해하셨기에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내 얼굴과 너무 다른 얼굴들에 둘러싸여 자란 나는 자아인식이 몹시 왜곡되었다. 백인 얼굴을 보면 친숙함, 소속감 등이 연상되지만, 나는 진정으로 그 안에 속하지 못할 것이라는 깨달음으로 이어진다. 반대로 한국인 얼굴을 보면 매우 강한 이질성과 다름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볼 때 이런 모습을 본다는 것을 고통스럽게 인지하게 된다. 처음으로 한국 남자와 키스를 했을 때, 나는 끌림과 거부, 놀람이 뒤섞여 숨이 막혔다. 내가 아닌 또 다른 한국인의 얼굴이 내 얼굴과 너무 가까이 있으니 뭔가 잘못된, 거의 근친상간의 느낌을 받았다. 나는 숨을 헉 쉬고 한 발 물러섰다. 무슨 일인지 설명할 수도 없었다. 인류학자는 다른 이들을 보면서 자신을 인지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보면서 다른 이를 보기도 한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모든 입양인들은 자신의 외모가 주변 모든 사람들과 똑같다는 경험을 경이롭게 여긴다. 이는 인종이 다른 사람들에 둘러싸여 자란 개인들만 이해할 수 있는 감정이다. 나는 이전에 국제적인 코스모폴리탄 도시에 가봤다. 그런 곳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인류가 공존하기 때문에 아무도 출신을 묻지도 않고 어떤 외모를 가졌는지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는 내게 믿을 수 없는 해방감을 줬다. 하지만 서울의 길거리는 내게 완전히 다른 경험을 선사했다. 수백만의 각기 다른 얼굴과 특징들이 녹아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들”의 드넓은 바다를 이뤘다. 실제로 나와 얼굴이 닮든 닮지 않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전에는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각 사람들의 얼굴에서 내 모습을 봤다. 다른 여자들의 몸매와 얼굴을 응시하며 깊은 충격을

받았다. 내 다리 모양, 내 배의 굴곡, 내 피부 질감, 내 뺨의 윤곽, 피곤할 때의 내 얼굴... 이 모든 것은 말도 못하게 흔하고, 말도 못하게 한국적이었다. 돌연 더 이상 내가 잘못됐다고, 내가 이상하다고, 내가 다르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추하다고 느끼지 않게 됐다. 언제나 나와 함께 했던 내 외모에 대한 수치심을 떨쳐 냈고, 그 부재로 인해서야 그것이 내내 나와 함께 해왔음을 인지했다. 마치 냉장고의 나지막하게 웅웅거리는 소리가 갑자기 끊기면 그제야 끊임없는 소음을 침묵으로 착각했음을 알 듯.

필요시 소금을 추가한다. 무, 대파, 리크, 다시마 육수, 찹쌀풀을 섞는다.

20대 중반이 되기 전까지 한식을 먹어본 횟수는 한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이다.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는 것도 좋아하고, 독일에서 한국 음식의 인기가 높아지고도 있었지만, 난 한식당에 발을 들인 적도 없었다. 처음 한국에 갔을 때, 입에 익숙한 음식이 그리워 향수병에 시달렸다. 나를 집어삼킨 온전한 이질감에 압도되어 충격을 받았다. 서울 시내의 미로를 헤매며, 이른 봄의 오염된 찬 공기를 마시며, 모든 감각의 홍수를 처리하려고 애썼다. 소리, 색, 빛, 향 모든 것이 새롭고 달랐다. 하지만 이전에 다른 곳을 여행했을 때와는 달리, 오래전 잃어버린 기억이나 고향이라는 어렴풋한 느낌처럼 희미하게나마 알아볼 수 있는 느낌이 있기를 남몰래 바랐다. 도시의 끊임없는 소리에 내 관자놀이가 고동치는 동안에도 서울은 아무 말도 없었다. 현지 음식을 많이 먹기도 했지만, 다른 사람들도 많이들 그렇듯, 샌드위치나 햄버거, 익숙한 간식 등을 편의점에서 사 먹기도 했다. 이는 마치 미지의 바다를 표류하는 도중 붙잡을 수 있는 식용 안전부표와 같은 역할을 했다. 시골에 가면 선택지는 더 줄었다. 말로 소통할 수 없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메뉴판을 가리킨 후 그것이 부디 문밖 수조에서 자신의 운명을 기다리는 미끈거리는 바다생물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었다. 이렇게 나는 김치전을 알게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계속되는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어떤 때에는 도무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내용물이 담긴 접시와 그릇이 서빙되어 다 먹느라 힘들었던 적도 있었다. 서툴게 하는 금속 젓가락질과 입맛에 맞지 않음을 감추려 애쓰는 동안에도 난 땅이 열려서 나를 집어 삼켜,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나를 보는 시선과 내 앞의 음식으로부터 나를 살려주기를 바랐다.

드디어 다른 사람들 사이에 섞일 수 있다는(최소한 외적으로는) 느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내게 한국어를 하는 일은 드물었다. 내 외모와 행동이 서양에서 자랐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다. 5년 후, 800km에 걸쳐 스페인을 가로지르는-그리고 한국인들 사이에 매우 인기가 많은-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을 때에 이 생각이 다시 들었다. 당시 나는 평생 나에게 익숙했던 텃수룩하고, 우유부단하며, 햇볕에 많이 그을린 여행자와 가까이하며 배신자가 된 기분을 느꼈다. 겉으로는 관심 없는 척했지만, 나는 꾸준히 한국인 순례자들을 멀리서 지켜봤다. 나는 중년 여성들을 보며 혹시나 젊은 시절 보낼 수밖에 없었던 아기와 마음 속으로 화해를 하기 위해 고대 순례자의 길을 걷는 우리 엄마가 아닐까 하는 몽상에 자주 빠지곤 했다. “엄마일까?” 나에게 물어보곤 했다. “엄마, 엄마예요?” 대부분의 한국인 순례자와 마찬가지로, 그녀들은 나를 궁금해하는 우호적인 시선을 보내곤 했다. 그들은 분명 생각했을 것이다. “저 여자는 우리처럼 생겼지만 분명히 다르네.”

절인 배추를 건져서 행군 후, 눌러서 물기를 최대한 많이 뺀다. 배추 이파리 한 장 한 장 김치 양념을 바른 후, 밀폐용기에 담는다. 햇빛을 직접 받지 않는 상온에 하루이틀 정도 둔다. 김치에 물과 기포가 생기기 시작하면 김치통을 냉장고로 옮긴다.

내가 태어난 나라, 많은 수수께끼와 답이 없는 질문을 품은 곳이자 쉽게 해답을 내주지 않던 이 곳을 처음 방문했을 때 나는 인생을 바꿀 만한 깨달

음의 변화가 있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수선스럽지 않게, 조용하게 다가왔다. 가장 엄청난 변화는 한참 후에 인지하게 되었다. 바로 내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더 이상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난 아직도 나를 온전히 수용하고 받아들이기까지 갈 길이 멀지만, 최소한 이제는 내 출신이 부끄럽지 않다. 먼 길의 한 걸음이다.

한식에 대한 호불호 경험을 다 했지만, 한국에서 돌아온 후 한국 음식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하기 시작했다. 한국에 있는 동안 내가 뭘 먹었던 건지 알아보려 했고, 내가 살고 있는 도시의 한국 식당을 찾아 젓가락질을 서툴게 하면서 내 주변의 한국인들을 수줍게 힐끗 볼 때면 내 가슴 속에 작은 기쁨이 보글보글 올라왔다. 짧은 순간이나마, 내가 항상 좇았던, 속한다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비록 그 기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깨지기 쉬운 것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지만 말이다.

요즘 나는 어느 정도 이 지역 김치 전문가가 됐다. 사실 첫 김치를 만든 게 2년도 안 됐다는 걸 생각하면 아이러니하다. 어느 비 오는 날 오후, 다만인 친구가 딸과 함께 재밌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다리미로 붙이는 비즈를 갖고 노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 그때 만든 이미지 중 하나에 “김치 비치(kimchi bitch)”라고 쓰여 있었는데, 이걸 보는 순간 너무 많이 웃어서 내게 선물로 줬다. 꼭 짚어 말할 순 없지만, 이 우스꽝스러운 그림은 마치 오랫동안 절벽 끝에 있던 돌덩이를 한 번 툭 쳐서 아래로 떨어지게 하는 것처럼 내 안의 무언가를 건드렸다. 그게 뭐가 됐든, 난 갑자기 한식 만드는 법이 배우고 싶어졌다. 베를린 중심에 위치한 사람들이 많이 찾는 한식당 “김치공주” 대표 영미 박 스노든이 쓴 요리책을 샀다. 그리고 직접 김치를 만들어 먹기로 다짐했다. 반년이 지난 후, 우연한 기회에 김치 워크샵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워크샵 당시 담당자가 나를 독일인이라고 소개했을 때, 혹시

이게 내 신뢰도를 떨어뜨리지 않을까 순간 걱정했다. 사람들은 내가 한국인 이기를 바라지 않았을까? 나는 한국인인가? 하며. 다시 한번, 내가 충분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괴로운 감정이 들었다. 어쩌면 잘못된 사람일지도 모른다. 가짜, 거짓... 한국에서 입양된 한 친구의 표현마따나 짝퉁한국인(Faux-Korean)은 아닐까? 나의 걱정과는 달리 워크샵은 잘 진행됐고, 유일한 컴플레인인은 김치가 너무 맵다는 것이었다. 상대적으로 자극적이지 않은 스칸디나비아 음식에 익숙한 몇몇은 매운 맛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조금씩 레파토리를 늘려 갔다. 찌개 만드는 법을 독학했고, 다양한 국수를 만들어봤고, 아시아 마켓의 200가지 간장 중 용도에 맞는 간장을 고를 줄 알게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한식에 대한 내 열정을 특이하고 재밌다고 여길 수 있지만, 나에게 있어 한식은 내 출신지 한국에 쉽고 간단하게 엮이는 연결고리이며, 이것이 아니었다면 없었을 나의 유산을 되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김치 비치” 문구는 살아남았다. 나는 그 문구를 워크샵을 진행할 때 입는 앞치마에 박았다. 그 앞치마 아래에 입는 검정 셔츠에는 하얀 굵은꼴 글씨로 “한국인들이 더 잘한다”고 쓰여있다. 그 옷만 입으면 난 천하무적이 된다.

모든 입양인들은 자신의 과거를 받아들이는 각자 나름의 방식을 찾아야 한다. 어떤 이들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 살면서 언어를 배워 거의 토종처럼 어우러지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자신의 출신에 철저히 무관심하거나 일부러 관련 없이 살기도 한다. 아마 우리 중 대부분은 그 둘 사이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싶다. 난 내가 무관심하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정반대였다. 김치를 너무 꽉 채워 밀폐용기에 담은 김치통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나치게 많은 압력이 쌓였다. 결국 김치통을 열었을 때, 내 얼굴로 직방으로 터졌고, 내 주변이 모두 지저분해졌다. 그것을 치우는 건 지치고 때로는 불가능하기까



## Dear Eomma

- 김 난 이 (U.S.A) -

지 했다. 모두 깨끗하게 박박 닦았다고 생각할 때마다, 어딘가에 또 다른 끈  
적한 빨간 얼룩을 발견하곤 했다. 결국 나는 모든 입양인들이 갈망하는 그  
것-내 안의 평화를 찾고, 나 자신, 내 가족, 내 과거와 화해하기를 원했다.  
그러므로 나는 계속해서 닦을 것이며, 비록 더 지저분해질 때가 있을 지라  
도, 계속해서 김치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좋은 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헌  
신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무엇보다 잘 알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겠다.

8~10일 후, 김치를 맛있게 먹는다.

I think of you whenever I eat or bleed.

I'm sorry to mention such ghastly things as blood, but what else makes us so  
undeniably women? What else makes men so scared, and is blood really thicker  
than water?

I remember getting my period and coming home excited, because at the time all  
my middle school friends were getting theirs too, and their moms were all doing  
something special for them since they had "become a woman now." But when I told  
my (adoptive) mom, who insisted I update her while playing Tetris on the toilet, she  
just laughed and said: "Congratulations-now you get to deal with the pain for the  
rest of your life."

I'm sorry for mentioning her to you, I don't want to hurt you. It's just that I have  
no other point of reference, you know?

I guess you should also know that she passed away a few years ago, and that I  
didn't want to write this letter or find you or even talk of Korea until I had made



peace with the hope that she wouldn't mind.

I was scared to know you-another person I could disappoint, offend, frustrate. But every time I take a spoonful of some steamy, hot \*kimchi jjigae\* I can't help but imagine you, what you ate, if you talked to me before I was born. Isn't that where the taste buds lead anyways, to a place that no one acknowledges anymore, but everyone knows exists?

It seems the only ones who talk of life before birth are the scientists now. Besides food, such terms as 'microbiome' are the only way I can connect with you. Then again I suppose they're the same thing: the microbiome found in our gut is created from the bacteria ingested in our food. When I read that certain strains are going extinct, I gave myself full permission to eat more kimchi. I loved it as a child, but my adoptive mother(let's just call her 'L') couldn't stand the smell. She put her fingers on her nose and waved the other hand in the air in front of her face, the way that Marie Antoinette would have when saying 'Poo, poo'.

"Ugh, Lindsey, get that thing away. Ooh, so smelly, wow-go eat on that side of the room. Ugh, that stuff is \*strong\*....."

I will never forget that moment(and I know she didn't mean to hurt me), but it was the first time of many that I felt embarrassed and ashamed for who I was on the inside, in my gut, an unchangeable mix of DNA, not hers but yours. I'm not sure if I was in preschool or elementary school, but it was the last time I would eat kimchi until I was an adult.

During my office days whenever it rained I wanted to go to the Korean restaurant

for a bowl of their \*kimchi jjigae\* and \*pajeon\*. I felt this might be weird since I wanted it even on hot and humid days. I craved it so badly that sometimes I would go there during my lunch break, alone, because there's not many Asians let alone Koreans in Florida: and there were certainly none in the office I was working at: and they were definitely not interested in smelly Asian food.

It was always a sad and lonely affair but I found so much solace in it, so much comfort, in the heat of the red pepper so spicy it made my nose run. I felt like sometimes I wanted to cry for no reason, but I didn't have to because I was too distracted with the spice, and the sweet aftertaste made it so addicting.....

Later I found out, when I went to Korea, that this is a very "Korean" thing to do. Well not the nose running part, but the idea of fighting "fire with fire", and eating crispy \*pajeon\* on rainy days. The question, to the vexation of many, arose: "Just how 'Korean' am I?" A vain and futile question, to be sure.

One day I went to meet a group of other Korean adoptees for dinner at a Korean restaurant. Although everyone was kind and generous and open, it felt strange. I became aware that this was the limit of their interest in their Korean heritage, and that many of them have no desire to go back. When I teased the idea of finding you I was met with fervent nodding back and forth:

"No, never, I don't want to open that can of worms," one guy said, looking up and away to the football game on TV. The restaurant, the food-it wasn't a gateway door, as it was for me. Rather it was a memorial wall, a holiday, a way to sit down and mark the limits of one's Korean-ness. They'd go the restaurant and eat

\*samgyeopsal\*, \*pajeon\* and \*kimchi jjigae\* the way we were raised to eat nachos on Cinco de Mayo and corned beef on St. Patty's Day. And why shouldn't they? Hadn't I been the same?

The first time I went to a Korean restaurant I was dating a white guy. He was a good person, and if it weren't for him I probably would have dropped out from college to go on my "writing adventures", whatever that meant. I had never eaten \*bulgogi\* before, but I figured I would just eat it as presented: from separate dishes, bite by bite, with rice.

"What are you doing?!" my boyfriend asked in panic, gawking at my food.

"What do you mean?"

"You're supposed to wrap the meat and rice in the lettuce leaves! See, like this..... You didn't know that???"

I don't know why but I felt defensive, like a chicano being scolded by a gringo on how to eat a taco. It stuck with me again, that feeling: shame and guilt for not knowing, anger for being expected to in the first place.

A few years later I was eating dinner at a friend's house, a Taiwanese American family.

"Where did you learn to eat with chopsticks?" the dad asked, as I shoved another dumpling in my mouth.

"I don't know, I think maybe boarding school? I remember my Korean roommate gave me children's chopsticks to practice with....."

The truth is, my chopstick skills are atrocious, and I've never learned how to properly use them. I'm sorry, Eomma..... I will probably do many things that bother you, that make me pitiable in your eyes, and I'm sorry. I'm learning, you know.

I remember when my Chinese friend came over to my apartment in college. I had purchased my first rice cooker-not the nice Tiger or Zojirushi ones because I didn't know about those at the time-but some cheap one from Walmart, less than ten bucks. I was excited because I had been raised on One Minute Microwave rice, and this was the first time I could make "real" rice from "scratch". My friend watched me place it in the rice cooker, add water, flip the switch.....and then she screamed:

"What are you doing?! Aren't you going to rinse it???"

"What are you talking about? Rinse it? Why would I rinse it?"

"BECAUSE IT'S DIRTY!!!! YOU NEED TO RINSE ALL THE DIRT OUT FIRST!!!!!"

"What??? There's dirt in rice??? I never rinsed my rice before!"

I'm still so grateful to her for telling me. I suspect she has saved me from a

lifetime of awkward conversations.....and dirty rice.

“I’m sorry,” she said later. “I always forget you were raised American. When I look at you I just assume you grew up in an Asian family.”

In Korea people talk to me in Korean. “I’m so sorry!” they say, “You look just like my friend!”

I say it’s okay and it really is, I guess because they’re apologizing because they don’t want me to feel uncomfortable: and being Asian, being Korean, is more than the food to them: it’s part of both head and heart. It’s coming home.

L wanted to adopt because despite having her period every month, her body produced no eggs. To her, every time she bled it was a cruel reminder from God that she was barren, and she hated him for it. She hated him for many things, but probably hated my dad more, or at least he was an easier target.

“Why can’t you be happy for me?” I cried. “All my other friends’ moms said they’re a woman now, and they do something special and exciting. Why do you have to be like this?”

“Well what do you want me to say? You want me to lie to you? Lindsey, it’s painful to be a woman. From now on you’re going to have really bad cramps, and blood-lots of blood. There is nothing special about your period. Every woman gets it. It’s not fun. I’m trying to be realistic with you.”

Now that I am married and (not) trying to have children, whenever I bleed I sigh a breath of relief, because I’m not ready. I know I could take birth control, but I also tell myself that if it does happen, that I will be ready, because who is? We are married and stable and it wouldn’t be a problem. Then I remember that you might not be there, and that makes me sigh again: but the blood still flows with indifference.

I don’t mean to suggest that you won’t still be alive. I know that you will. It’s just that we haven’t met yet, and by now you probably think giving me up was for the better. What a petty, useless child! No wonder you never answered my first letter. Yet a part of me just can’t bring myself to raise a child without you, without her Korean grandmother, without the hearth of a home that is her identity. I will try my best to build a fire there, but if no one gathers round it would be like frost.

The adoption agency said my birth father ran away, left town, and basically left you and your family to deal with the problem (me) alone. They suggested not looking for him, just you. They assured me it’s quite common.

Eomma, if I can’t find you I don’t know if I can forgive everyone, if I can let go of my anger at the social forces in motion that have led to your situation, to me, to a baby unwelcome in what was only just becoming the “economic miracle” that it is now. Was my adoption the sacrifice that had to be made so that (half) the country I am returning to could climb out of a debt created by conflict between other countries, one of which adopted me as a citizen and can’t stop telling me how grateful I should feel?



## 친애하는 엄마에게

- 김 난 이 (미국) -

I am grateful. But why can't I be grateful without having to fully deny the ancestral scars that I carry as a result of sharing the same blood?

Eomma, know that I don't hate America. I am glad that you let me have a life here, grow up to learn English and attend college. I don't despise freedom or democracy. I know that there are genuinely good people out there, doing good things. I know that around the world most of us are just trying to do an honest day's work, take care of our family, and do the best that we can.....

Eomma, I just want to know that you're OK. Until I meet you, your face looks like every Korean woman's face, and every child I see is me. Until I hear your story, I can only hear your country's. I cannot comfort a nation, but I can comfort you. The sadness that flows in my veins also nourishes my womb, the place through which every spoonful I return. Eomma, until I find you, until I trace my fingers over the slope of your brow and the bridge of your nose, until I feel my bones in yours, how do I know that I am human? How can my heart be healed when I still carry the weight of your own? Eomma, how many hearts can I fit inside before mine bursts? Eomma.....

엄마에게

전 밥 먹을 때마다, 또 피가 날 때마다 당신을 생각해요.

피 같은 섬뜩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피만큼 우리가 여자임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드는 게 또 뭐가 있겠어요. 그것만큼 남자들을 겁에 질리게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리고 피는 정말 물보다 진할까요?

처음 생리하던 날을 기억해요. 신이 나서 집에 돌아왔죠. 왜냐하면 당시 중학교에 다니는 제 친구들이 모두 생리를 시작하던 무렵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럴 때면 개들 엄마들은 뭔가 특별한 걸 준비하곤 했어요. 왜냐하면 생리를 한다는 건 “이제 여자가 되었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그 소식을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테트리스를 하면서 나에게 말하라고 재촉했던 (양)어머니에게 전했을 때, 어머니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축하한다. 이제부터 남은 평생 동안 그 고통을 감수해야하는구나.”

양어머니 이야기를 꺼내서 죄송해요. 엄마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요. 그저 내 상황에서는 참고할 만한 다른 사람이 없을 뿐이에요.



양어머니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것도 아셔야 할 것 같네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쓰거나 당신을 찾거나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마저 미루어 온 거예요. 제 마음이 조금 진정되고 돌아가신 양어머니가 서운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할 때까지 말이에요.

엄마를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웠어요. 내가 실망시키고, 상처 입히고, 좌절하게 만들 수 있는 또 한 사람. 하지만 뜨끈하고 매운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을 때마다 당신을 상상하게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엄마가 뭘 먹었을까, 내가 엄마 뺏속에 있을 때 엄마는 내게 말을 건넸을까—하면서요. 입맛이라는 게 원래 무엇인가를 떠올리게 하지 않나요?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모두가 그 존재를 알고 있는 곳어요.

출생 이전의 삶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이제 과학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음식 외에는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 인체 내 미생물 생태계)같은 용어가 내가 엄마와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아마 그 둘은 같은 것인 지도 몰라요. 소화기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가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박테리아가 만들어내는 거래요. 어떤 종류는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다는 글을 읽었을 때, 저는 김치를 더 많이 먹어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완벽한 허락을 내렸어요. 어릴 때에는 김치를 너무 좋아했는데, 양어머니(‘L’이라고 부를게요)가 김치 냄새를 너무 싫어하셨어요. 마리 앙투아네트가 ‘푸, 푸’ 거렸던 것처럼, 한 손으로 코를 막고 다른 손으로 손사래를 치면서 말씀하시곤 했죠.

“어휴, 린지, 그것 좀 치워라. 어우, 냄새가 지독해, 와...방 저 쪽으로 가서 먹으렴. 어휴, 그거 진짜 독하네...”

그 순간은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나에게 상처주려고 하신 말은 아닌 걸

알고 있지만요). 여태껏 살아오면서 내 안에, 그러니까 내 내장 속에 있는, 바꿀 수 없는 유전자 조합 때문에 당황하고 부끄럽다고 느꼈던 수많은 순간 중 첫 번째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유전자는 양어머니의 것이 아닌 당신의 것이지요. 학교에 들어가기 전이었는지 초등학교 시절이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그 때가 김치를 먹은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회사에서 일할 땐 비만 오면 한국 식당에 김치찌개나 파전을 먹으러 가고 싶었어요. 덥고 습한 날 조차도 그런 음식들이 먹고 싶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어쩔 때는 그런 음식이 너무 심하게 당겨서 점심시간에 혼자 한국 식당에 가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플로리다에는 한국인은 물론이고 아시아인 조차 많이 없으니까. 직장에도 아시아인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동료 중 누구도 냄새 나는 아시아 음식에 관심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혼자 한국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 건 언제나 슬프고 외로운 일이었지만, 너무 매워서 콧물이 흐르게 만드는 고추가루의 매운 맛은 엄청난 위로와 평안을 주었어요. 가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울고 싶어지기도 했어요. 엄청나게 중독적인 매운 양념과 달착지근한 뒷맛에 흠뻑 실체로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지만요.

나중에 한국에 갔을 때, 그제서야 그게 굉장히 “한국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매운 걸 먹고 콧물이 나는 것 말고도요. “이열치열”의 개념이라든가 비가 오는 날엔 바삭바삭한 파전을 먹는다는가 하는 것들이요.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짜증을 안겨주는 질문이 떠올랐죠. “도대체 어떻게 난 이렇게 ‘한국적’ 인 걸까?” 하는 소용없고 헛된 그 질문이요.

어느 날 다른 한국 입양인들과 한국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모두 친절하고 관대하고 개방적이었지만, 뭔가 낯선 느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한국의 뿌리에 대해 갖고 있는 관심은 거기까지였고, 많은 사람들은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엄마를 찾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꺼냈을 때 돌아온 건, 세차게 고개를 흔드는 반응들이었죠.

“난 싫어, 절대로, 골칫거리를 만들고 싶지 않아.” 그 중 한 남자애가 텔레비전에서 중계 중이었던 축구 경기에 눈을 돌리면서 말했어요. 그들에게 한국 식당, 한국 음식이 한국으로 이어주는 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건 기념비나 명절 같은 것이자, 그들이 가진 한국성의 한계를 마주하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싱코 데 마요(Cinco de Mayo: 멕시코 기념일)에 나초를 먹고 성 파트리치오 축일(St. Patrick's Day: 아일랜드의 수호성인을 기리는 날)에 콘 비프를 먹으며 자라온 것처럼 한국 식당에서 삼겹살을 먹고 파전과 김치찌개를 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안될 이유가 있나요? 나도 똑같이 그래오지 않았나요?

내가 처음으로 한국 식당에 갔던 날, 나는 한 백인 남자애와 데이트 중이었어요.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작가가 되는 모험”을 하려고 대학도 때려쳤을지도 몰라요. 그전까지 난 한 번도 불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차려진 대로 먹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차려진 음식을 따로따로 한입씩 먹었어요.

“뭐하는 거야?!” 당황한 남자친구가 음식을 얼빠진 듯이 쳐다보면서 물었어요.

“뭐가?”

“고기랑 밥을 상추에 싸서 먹는 거야! 봐봐, 이렇게...몰랐어???”

왜인지는 모르지만 뭔가 방어적이 되더라구요. 타코 먹는 법에 대해서 라틴계 미국인한테 판지를 듣는 멕시코계 미국인마냥요. 그 기억 역시 잊혀질 것 같아요. 그 기분. 몰랐다는 부끄러움과 죄책감, 내가 당연히 처음부터 알고 있을 거라는 기대를 받을 때 느끼는 분함.

몇 년 뒤에 대만계 미국인 친구의 집에서 저녁을 먹은 적이 있어요.

“젓가락질 하는 법은 어디에서 배웠니?” 만두를 하나 더 입에 넣으려고 할 때 친구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보딩스쿨에서였나? 한국인 룸메이트가 연습용 유아용 젓가락을 줬었던 걸로 기억해요...”

사실 내 젓가락질은 형편없어요. 한 번도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배운 적이 없거든요. 미안해요, 엄마... 아마 엄마를 언짢게 하는 행동을 많이 할지도 몰라요. 엄마 눈에 비친 내 모습이 측은해 보일 거예요. 미안해요. 배워나가는 중이에요.

대학 때 중국 친구가 내가 살고 있던 아파트에 놀러왔던 것이 기억나네요. 그 당시에 내 인생 처음으로 전기밥솥을 샀거든요. ‘타이거’ 나 ‘조지루시’ 같은 근사한 브랜드는 아니었어요. 그 당시엔 그런 브랜드를 몰랐거든요. 그냥 월마트에서 10달러도 안 주고 저렴한 걸로 구입했었어요. 항상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1분만에 완성되는 밥만 먹고 자랐기 때문에 전기밥솥을 사고서는 너무 신이 났어요. 그제서야 내 인생 처음으로 생쌀부터 준비한

“제대로 된” 밥을 지어보게 된 거죠. 친구는 내가 쌀을 밥솥에 넣고 물을 부은 후 버튼을 누르는 걸 보다가...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뭐 하는 거야?! 쌀 안 행귀???”

“무슨 소리야? 행귀? 쌀을 왜 행귀?”

“쌀은 더러우니까!!!! 쌀에 있는 불순물을 먼저 씻어내야 돼!!!!!”

“뭐라고???” 쌀에 불순물이 있어???” 난 한 번도 쌀을 씻어본 적 없는데!”

난 아직도 그렇게 얘기해줬던 친구에게 고마워요. 내 평생 있었을 수도 있는 어색한 대화로부터 나를 구해준 거니까요...그리고 더러운 쌀로부터요.

“미안.” 나중에 친구가 말했어요. “너가 미국인으로 자랐다는 걸 항상 깜박해. 너를 보면 자연스럽게 아시아 가정에서 자랐을 거라 생각하게 되니까.”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제게 한국말로 말을 걸어요. “죄송해요!” 그 사람들이 말하죠. “제 친구랑 너무 닮았어요!”

나는 괜찮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진짜 괜찮거든요. 그 사람들은 아마 내가 불편하게 느끼지 않았으면 해서 사과하는 걸 거예요. 아시아 사람이라는 것, 한국인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음식 이상의 의미예요. 그건 머리와 가슴의 일부죠.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L이 입양을 원한 이유는 매달 생리를 하면서도 난자를 만들지 못하는 몸

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생리를 할 때마다 그건 L의 몸이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신의 가혹한 메시지와 같았죠. 그래서 L은 신을 아주 싫어했어요. 많은 이유로 신을 싫어했지만, 신보다 더 싫어한 건 우리 아버지였어요. 신보다 아버지가 더 공격하기 쉬운 상대였기 때문이었을 지도 몰라요.

“왜 그냥 기뻐해줄 수 없어요?” 내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다른 친구들의 엄마는 이제 여자가 되었다고 특별하고 신나는 것을 해주던데. 왜 이런 식으로 밖에 말을 못해요?”

“내가 무슨 말을 해주기를 바라니? 거짓말을 해주기를 바라니? 린지, 여자가 되는 건 고통스러운 거야. 지금부터 너는 매달 생리통을 겪을 거고 피를 흘릴거야. 아주 많이. 생리를 한다고 특별할 것 없어. 모든 여자들이 다 하는 거야. 현실적으로 말해주는 거란다.”

지금 나는 결혼을 했고 아이를 (안)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매번 생리를 할 때마다 안도의 한숨을 쉬어요. 왜냐하면 아직 준비가 안 되었거든요. 피임약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 임신이 된다면 그때는 준비가 되었거나 생각하며 안 먹고 있어요. 누군들 준비가 되어있겠어요? 우린 결혼을 했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니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러다가도 엄마가 내 옆에 없을 수도 있단 사실을 떠올려요. 그럼 다시 한숨을 쉬게 돼요. 하지만 내 마음을 모르는 피는 여전히 무심하게 흐를 뿐이에요.

엄마가 살아있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엄마가 살아있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그저 우리가 아직 만나지 못했을 뿐이죠. 지금쯤 엄마는 나를 포기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을 지도 몰라요. 얼마나 웅얼하고 쓸모 없는 아이인지! 내 첫번째 편지에 엄마가 답장을 하지 않은 것도 전혀 이

상할 것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 한 구석에서는 엄마 없이는 내가 아이를 키울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한국 할머니 없이 자라는 것은 아이의 정체성을 만드는 따뜻한 난로 없는 집에서 자라는 것과 같아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난로에 불을 지펴보겠지만, 아무도 그곳에 둘러앉지 않는다면 서리가 내린 것처럼 차가울 거예요.

입양 에이전시에서 내 친부는 도망을 갔다고 했어요. 그 동네를 떠났다고, 말하자면 엄마와 엄마의 가족에게 골칫덩어리(바로 저요)를 남겨두고 떠났다고요. 그들은 친부를 찾을 생각하지 말고, 엄마를 찾으라고 이야기했어요. 꽤 흔한 일이라고 하면서요.

엄마, 만약 엄마를 찾지 못한다면 모두를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강의 기적”을 만들기 위해 엄마를, 그리고 환영 받지 못한 아이인 나를 이런 상황으로 몰아온 사회적인 합의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분노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지 모르겠어요. 내가 입양된 것은 내가 돌아갈 그 (반쪽짜리) 나라가 다른 나라들(나를 시민으로 받아준 것에 감사해야만 한다고 끊임없이 되뇌이는 이 나라가 그 나라 중 하나이지요)과의 갈등으로 진 빛에서 벗어나기 위한 제물이었던 건가요?

저는 감사하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같은 피를 공유한 대가로 지니고 다니는 민족의 상흔을 완전히 부인하지 않으면서 감사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걸까요?

엄마, 제가 미국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엄마가 저를 이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줘서, 영어를 배우면서 자라고 대학에 갈 수 있게 해주어서 기뻐요. 저는 자유나 민주주의를 경멸하지 않아요. 정말 좋은

사람들,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세상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저 하루 동안 주어진 일을 하고, 가정을 돌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뿐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엄마, 저는 그냥 엄마가 괜찮은지 알고 싶어요. 엄마를 만나기 전까지는 저에게 엄마는 여느 한국 여자들의 얼굴과 다름 없을 것이고, 제가 마주치는 모든 아이가 저일 거예요. 엄마의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엄마의 나라가 간직한 이야기밖에 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한 나라를 위로할 수는 없지만, 엄마를 위로해드릴 수는 있어요. 제 핏줄에 흐르는 슬픔은 제 자궁에 양분을 공급해주고, 밥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이 저를 그 곳으로 돌려보내요. 엄마, 엄마를 찾기 전까지는, 엄마의 눈썹산과 콧대를 내 손가락으로 더듬어 보기 전까지는, 엄마의 뼈에서 내 뼈를 느끼기 전까지는, 내가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엄마의 심장 무게를 여전히 짊어지고 있는데 내 심장이 어떻게 치유될 수 있겠어요? 엄마, 내 심장이 터지기 전에 나는 얼마나 많은 심장을 내 안에 넣을 수 있을까요? 엄마...

수상소감



## 시 부문 / 대상

# “왜지”나무



황연 (중국)

진솔하고 기교 없는 글을 쓰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어쩐지 글이라 함은 설움이 폭풍으로 무너지고, 대지를 흔들고 우울에 범람하는 기억이 애처롭게 매달려야만 할 것 같아서 그동안 수많은 문단에 있지도 않은 허위를 그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가장 솔직한 말들을 나열했을 때에 이렇듯 커다란 영광을 주시는 것을 보니, 시를 쓸 때엔 꾸며내는 것이 없도록 해야 한다 말씀하시던 선생님이 오늘따라 선연합니다. 그리운 선생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 번 상기할 수 있도록 기회와 영광을 주신 재외동포재단 관계자분들과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노을이 산맥의 능선 위로 오래도록 걸어가는 요즘에 이토록 찬연한 경험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수상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 좋아하시던 고모들께 고맙습니다. 문단의 초입에서 서성이는 저를 투고의 과정까지 이끌어준 친구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번 공모전의 모든 영광을 타인이 중히 여기지 않는 것에도 늘 마음을 다하시며, 제게 강건함을 가르쳐주신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를 몇 겹의 세월이 흐르도록 한결같이 응원하시며, 그 성실함을 귀히 여겨주시는 어머니께 존경을 담아 바칩니다.

끝으로 유독 창백한 별 무리가 서글퍼지는 올해의 계절들에 세상 모든 분들께서 무탈하시고, 부디 안온하시기를 바랍니다.

## 시 부문 / 우수상

# 깜보자 꽃



서미숙 (인도네시아)

적도의 나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올해로 26년째 살고 있다. 고국을 떠나와 살고 있는 외로움과 그리움을 삼십여 년 전부터 글로 옮기기 시작했다. 문학에 기대어 위안을 얻으며 문학 덕분에 타국에서의 삶을 풍요롭게 채울 수 있었다. 산문 쓰기에 익숙했던 나의 창작 세계에서 ‘시’는 언제나 로망이었고 오르기 힘든 산이었다.

시에 대한 오랜 갈증이 있었고, 그로 인해 변민에 휩싸이고 있었는데, 이번 ‘재외동포문학상’ 수상 소식은 오랜 짝사랑에 대한 회답인 것 같아 너무 기쁘다. ‘시’라는 단단히 벽에 갇힌 내 상상력의 수인에게 한 줄기 빛으로 화답해 준 것이다. 짝사랑이 될 뻔했던 시의 세계에, 메마른 토양에 단비 내리듯 짝을 띄우게 해주신 심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외국에서 살다 보면 누구나 떠난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간직하고 있는가 보다. 그 절정의 그리움을 시의 세계에 도전하며 노력했던 시간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싶다. 그 어떤 문학상보다도 재외동포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재외동포문학상’을 받게 되었으니 말이다. 그것도 짝사랑만 하던 시 부문에 우수상을 받을 수 있어서 이제 더 이상 가슴이 허전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앞으로 시의 세계에 매료된 또 다른 내 자신을 만날 일만 남았으니까.

항상 내 문학의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 회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 시 부문 / 우수상

### 수국 여행



김백현 (미국)

모국어 사전에서조차 잊힌 ‘친척’이라는 겨레말 ‘아음’이 있지요. 시방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아음들입니다. 백년 천년 된 아음의 씨앗들이 외간 말 낄 속에서 소문처럼 아득히 소멸될까 봐, 모국어 사전 속에 짹짹 모여 오늘도 시를 쓰고 있습니다. 어찌 이곳 시애틀뿐이겠어요. 지구 방방곡곡엔 많고 많은 시인들이 있지요. 조국이 복 받은 것입니다.

말보다 글로써 겨레말을 쓴다는 것은 제2, 제3의 아음을 지키려는 지상 노력이므로, 많고 많은 겨레말 일꾼들이 두루 이 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상을 받는 일은 글 쓰는 데 용기를 주므로 큰 도움이 됩니다만, 자칫 허세를 안겨 줄 수도 있으므로, 글을 읽는 덴 방해가 되겠지요. 용기만을 고맙게 받겠습니다.

잉큼잉کم 뛰는 가슴으로 외 붓듯 가지 붓듯 정성을 다하여 모국어를 가꾸지요. 재외동포재단님과 심사위원님께 큰절을 드립니다.

## 시 부문 / 가작

### 오늘



김인옥 (호주)

코로나로 뒤죽박죽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우울한 분위기 속에서 청량한 기쁨을 전해 주었다며 많은 축하를 받았습니다. 특히 고무적인 것은 11년 전 그러니까 지금은 사회인이 된 작은아들이 제11회 재외동포 문학의 창에서 초등 부문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 감명 깊은 사실을 당선 전화를 받고 나흘이 지난 오늘에야 비로소 생각이 났습니다. 이미 보낸 수상 소감을 다시 썼습니다. 출발점이었던 아들이 역대 수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무엇을 써서 보낼까 고민하지는 않았습니다. 코로나를 둘러싼 예상치 못한 일상이 되어버린 오늘, 오늘의 단비를 한국의 노모께 받칩니다. 그래요 오늘은 정말 시 쓸 맛 나게 한 날입니다.

‘공모 기간 중에 Disability Supporter Course를 준비하느라 직면한 압력으로 많은 공을 들이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으며 또한 시를 쓰면서부터 때때로 느끼곤 했던 주눅도 회의도 부질없는 것이었구나’ 하는 방자한 자족의 기분마저도 들게 합니다. 열망이 있으니 악착같이 붙들고 있으니, 당선되었다는 것이 그저 놀랍고 고마울 뿐입니다. 어설픈 제 시를 선정해 주신 심사위원님들과 재외동포문학 관계자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족 한 만큼 열심히 쓰겠습니다.

## 시 부문 / 가작 우리 아버지



강정희 (독일)

아름다운 풍경을 머릿속에 그리며 내려오는 흔적을 가슴속에 남기면서 세월의 굵어진 등에 날개를 달아주는 그리움을 안고 사는 타향살이, 내 마음속 깊이 오래도록 웅크리고 있던 까마득한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면서 추억을 더듬어 쓴, 「우리 아버지」가 '재외동포문학상'에 당선되었다는 소식을 받고 기쁨이 온몸을 휘저었다. 팬데믹 COVID 19 전쟁이 전 세계를 긴장 상태에 놓이게 하고 고국의 긴 장마와 홍수로 서민들 밥그릇에 담긴 홍수 고심이 깊은 답답하고 우울한 요즘,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른다. 오늘따라 아버지가 몹시도 보고 싶다. 더없이 빛바랜 꿈 싸라기가 춤춤하게 빛나고 활짝 핀 마음의 꽃이 기지개를 켜는 한없이 기쁜 날에 눈가가 촉촉해진다.

아!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아가서는 잘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살아감은 분명 축복이다.

순수함을 간직한 오늘이면 좋겠다.

작은 것에 감사한 하루였으면 좋겠다.

촉촉한 사랑스러운 오늘, 선물이라 하겠다.

부족한 작품에 눈길을 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

## 시 부문 / 가작 가족상봉



박시드니 (덴마크)

2017년 9월 나는 버킷 리스트의 실현을 위해 먼 여행을 다녀왔다. 목적지까지 가는 데만 꼬박 나흘이 걸렸다. 친구의 차를 얻어 타고 집에서 기차역까지 나간 후, 기차를 타고 코펜하겐 공항에 도착해서는 카타르 에어를 타고 카타르의 도하 공항에 내려, 뉴질랜드의 오클랜드로 가는 비행기로 갈아탔다. 익일 새벽 세 시에 출발하는 비행기로 다시 갈아타기 위해, 오클랜드 공항 앞 호텔에서 몇 시간의 휴식을 취한 후, 피지 에어를 타고 피지 섬 나디 공항에 도착했다. 공항 내에서는 피지 전통 홀라 춤으로 여느 공항에서와는 전혀 다른, 색다른 환영의 인사를 받았다. 거기서 또 몇 시간을 더 기다린 후에야 남태평양의 섬나라인 통가 왕국의 바바우 섬으로 가는 비행기에 지친 몸을 실을 수가 있었다. 남극에서 크릴새우를 먹고 지내는 혹등고래들은 따뜻한 곳에서 새끼를 낳기 위해 일 년 중 7월에서 9월까지 석 달 동안 통가에서 머문다. 예전엔 고래잡이로 피바다가 되었던 곳이지만, 지금은 고래 수영을 위한 관광객이 전 세계에서 몰려든다. 고래 가족을 배려하기 위해 통가 정부에서는 관광선의 허가를 일정수로 제한하고 있고, 고래와 수영을 할 수 있는 인원도, 안전을 위한 고래 가이드 한 명 외에 한 번에 6명으로 제한한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나는 남태평양의 심해에서 꿈에 그리던 나의 고래 가족과 감명 깊은 상봉을 할 수 있었다.



## 단편소설 부문 / 대상

### 혜선의 집



김수연 (캐나다)

고국을 떠난 지 22년 만에 한국에서 몇 달을 지내고 있다. 캐나다에서 태어나고 자란 스물한 살의 아이가 한국에서 학교를 다녀보고 싶어 했기 때문이었다. 아이는 자신을 닮은 친구들과 함께 공부할 기대에 부풀어 있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대면 수업은 한 번도 하지 못했고, 학기는 싱겁게 끝나 버렸다. 나는 나대로 한국의 시간을 바빠 보내면서도 내내 아이에게 마음이 쓰였다. 한국은 낯설고, 친구는 하나도 없는데, 아이의 한국은 너무 쓸쓸하지 않을까.

어느 날 아이가 말했다. “엄마, 여기서 우리는 딱 반대잖아. 거기서 나는 바깥고, 친구도 많았고, 엄마는 늘 집에서 우리를 기다렸지. 이제 엄마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돼.” 아이가 많이 힘들구나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이는 말을 이었다. “그런데 말이야. 난 편의점에서 구운 달걀을 사고,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나쁘지 않아. 말 한마디 나눌 친구도 없지만 그냥 좋아. 거리만 걸어도 행복해.” 아이의 말에 여러 갈래의 마음이 스쳐 지나갔다. ‘이제야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싶기도 했다.

이민과 소설. 그게 무엇인지 진작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쓰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데, 막상 쓰다 보면 이것만 아니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 오랫동안 내게 소설은 그런 것이었다. 외로워서든, 쓸쓸해서든, 서러워서든, 이국에서 잊혀 가는 모국어의 불잡고 한 자 한 자 써내려가고 있는 많은 분들과 이 상을 나누고 싶다.

## 단편소설 부문 / 우수상

### 이본을 모르면서



양해숙 (독일)

코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찬바람이 시리던 한겨울, 길가에 자리한 낡은 서점에서 먼지를 뒤집어쓴 칼 용이 불쑥 말을 걸어옵니다.

Ich will lieber ganz sein als gut. 나는 선하기보다 온전해지고 싶다.

떨리는 마음으로 선함과 온전함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선함이란, 부모, 사회, 관습의 의지와 지도에 순응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나는 언제나 선하고자 했으나, 온전함이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신이 바랐던 나, 지금의 나. 이 둘의 거리는 얼마나 먼가. 떠도는 과녁일 뿐이라도, 신기루 같은 허상에 지나지 않더라도 찾아보고 싶다. 온전한 나를. 겹쟁이인 주제에 무모하게 소설을 쓰기 시작한 계기입니다.

저에게 바쁜 일상 중에도 애정과 관심으로 부족한 글을 읽어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행운이고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김종광 교수님, 엄마(박정옥 여사), 지원, 보람, 주현, 승희, 효정, 대범, 새롬 언제나 고마워요. 극성인 아내를 보듬어주는 자상한 남편 Daniel, danke und ich liebe dich. 졸작에 이런 큰 상을 주시다니, 한국 소설의 성실한 독자이자, 세상에 채색 한 붓을 더하는 작가가 되도록 절차탁마하라는 격려로 들겠습니다. 기회를 주신 재외동포재단과 심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단편소설 부문 / 우수상

### 달리는 마카우



황 소 라 (케냐)

이곳에서 지난 십수 년의 시간 동안 케냐에는 많은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종족 간, 정당 간의 폭력 사태, 에볼라 위협, 몇 건의 테러들……. 이제는 거의 무감할 정도로 담담히 이 땅의 사건들 속에 일상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이방인인 저와는 달리 이 삶 속에서 계속 달려가는 이들의 시선으로 한 번쯤은 함께 보고 싶었습니다. 이 글은 조심스레 맞잡아 보는 손과 같습니다. 2012년을 살아낸 마카우는 이후에도 대형 기업의 운수 시장 점령과 각종 재해를 거치며 각박해진 환경과 변화 속에 여전히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은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싸움 속에서 또 한 번 도전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각자의 터전에서 싸우고 있듯이 이곳은 이곳에서의 삶과 방법으로 함께 버텨내고 있습니다. 불안함 속에서 지금만큼 고국이 그리웠던 적이 있을까요. 와중에 이렇게 큰 격려를 받아 많이 기뻐했습니다. 낯설지도 모를 이들의 이름과 서툰게 써 내린 글을 읽어주셔서, 잠시 이 세계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답습니다.

## 단편소설 부문 /佳作

### 노를란드의 송이버섯



김 미 영 (스웨덴)

십오 년쯤 전에 가족과 함께 스웨덴 북쪽에 있는 노를란드의 한 도시로 자동차 여행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국도를 따라 최북단 도시를 향해 가는 길은 단조로운 풍경 속에 끝없이 지루하기만 했지만 어떤 일인지 그 지역이 다른 여러 나라의 아름다운 도시들보다 더욱 강한 인상으로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가끔씩 떠오르곤 했습니다. 소설을 쓰면서 노를란드의 원시적인 자연과 청량감을 다시 느끼고 만날 수 있어 기뻐했습니다. 제 소설, 「노를란드의 송이버섯」이 노를란드를 향해 가는 길만큼이나 긴장감 없고 지루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지루한 내용을 끝까지 읽어주시고 선택해 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좀 더 차분하게 검토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지만, 부족한 작품을 뽑아주신 덕분에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쓰고 발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신 재외동포재단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십 대에 갑자기 문학 활동을 시작한 나를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는 엄마(박옥순 여사)를 비롯한 한국의 가족에게 감사드립니다. 올해 60세인 언니도 늦지 않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어!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남편과 신승용, 신재용 항상 고마워. 몇 년 전 내게 숲속의 버섯을 안내해 준 옆집 아주머니 잉메르와 당선을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큰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 단편소설 부문 부문 / 가작

# 어시스턴트



황 모 과 (일본)

평일엔 일본어 모드로 살다 주말엔 한국어 모드로 돌입합니다. 밀린 팟캐스트를 듣고 한국 소설을 이북으로 읽고 한국 영화를 봅니다. 해외 생활 15년 차, 진짜 정서적 씬은 머릿속 언어 모드를 모국어로 복원시키고 나서야 시작됩니다.

약 2년 전부터 모국어로 소설 습작을 시작했습니다. 첫 장벽은 단어였습니다. 형태와 감성은 떠오르는데 아이코, 도무지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습다. 할 수 없이 먼저 일본어로 떠오른 단어를 일한사전으로 검색해 가며 글을 썼습니다. 올해 초 제4회 한국과학문학상 중단편 부문 대상에 당선되었습니다. 수상집 표제작 「모멘트 아케이드」와 단편 소설집 『밤의 얼굴들』은 모국어로 소설 쓰기에 도전한 재외 한국인의 분투기이기도 합니다. 해외에서 외국인으로 살았기에, 국적이 다양한 친구들을 만났기에 쓸 수 있었던 작품이 다수 수록되어 있습니다.

해외에서 모국어로 사고하고 읽고 쓰는 일은 보이지 않는 국경을 한 번 더 넘는 일 같습니다. 그렇게 넘어간 곳은 제가 기억하던 모국과는 다른 제3의 시공간일지도 모르지만요. 몸이 어디에 있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속지 주의적 가치에 묶이지 않고 노마드한 마인드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경을 뛰어넘는 가치를, 국경을 무너뜨리는 연대를, 국경과 상관없는 사랑을 언제까지나 내 어머니의 언어로 빚어내고 싶습니다.

※ 도쿄에서 만화가 어시스턴트로 8년간 일한 경력이 있지만 수상작 「어시스턴트」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허구임을 밝힙니다.

## 단편소설 부문 / 가작

# 내가 차버린 공



리 동 렬 (중국)

먼저, 재외동포재단에서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들의 한글 문학 창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실시한 2020년 <제22회 재외동포문학상 공모전>의 개최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글로 문학 창작을 한다는 것은 한글에 내재되어 전해 온 한민족의 사상이나 감정과 정서를 한글로 표현한다는 뜻으로, 비록 이런저런 연고로 세계 각 지에 흩어져 살고 있으나 우리는 한 뿌리에서 자란 백의민족의 후손임을 증명하고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문학 창작에 시간을 할애당한 문학인들에게는 어려운 세월을 이겨나가야 하는 생활고가 따를 수 있으나 문학이란 삶의 지주(支柱)가 있음으로 하여 모두가 뜻 깊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외동포재단의 한글 문학 창작 공모는 작가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장터를 마련해 주고 상호 소통의 플랫폼을 마련해 준 것이기에 더없이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되며, ‘재단’에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또, 이번에 미흡한 저의 소설을 가작으로 뽑아주신 심사위원님께도 고마움을 표하면서, 앞으로 더 훌륭한 한글 소설 창작을 통해 모든 이들의 기대에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체험수기 부문 / 대상

### 슬기로운 이방인 생활



김진아 (프랑스)

적을 둔다. 어딘가에 마음과 몸을 두고 그곳에 속한다는 의미로 사용될 것입니다. 항상 가족이, 친구가 그리고 한국이 그림습니다. 내가 나고 자란 곳, 그 공기가 견딜 수 없이 들이키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의 3분의 1을 아등바등 견뎌온 이곳이 나에게서는 더욱 적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처럼, 고향을 떠나 타지에 적을 두고 계신 모든 동포분들은 나름의 고충과 역경을 겪어 오면서도 곳곳이 살아오셨을 터입니다.

이번 체험수기는 모두 제가 겪었던 일들을 엮었습니다. 사실, 경애님의 성함을 사용해도 괜찮을지 많이 고민되었지만, 이 이름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어질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때 받은 그녀의 취향이 가득 묻어있는 책들은 고이 저의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작이 되어준 경애 님, 그리고 지금도 각자의 삶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계실 모든 한인분들께 응원과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모든 게 조심스러운 이 시기, 마음 놓고 행복한 시간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모자란 글이지만 읽어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다른 분들과 저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재외동포재단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의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기대조차 품지 않았던 큰 상을 받게 되어 아직도 믿기지 않지만, 앞으로의 가능성을 위해 주신 상이랑 생각하고 더욱 증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체험수기 부문 / 우수상

### 한국 햄버그



방종석 (아르헨티나)

6개월째로 접어든 자가 격리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에 재외동포 문학상 우수상에 뽑혔다는 낭보가 날아왔다. 먼저 기대하지 않았던 줄필에 좋은 평가의 점수를 주신 심사위원분과 동포재단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나에게 이 기간은 23년 이민 생활의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아직도 진행 중인 소중한 시간이다. 이민이라는 이름으로 지구 반대편을 떠나던 그날부터 지나온 세월을 스치듯 마주할 수 있었다. 그리고 복잡하듯이 가슴속에 기록되어 있던 노트 한 장 한 장을 다시 넘겨 볼 수 있었다.

이민이란 누구에게나 '더 잘 살기' 위한 환경의 바꿈이다. 그리고 큰 모험이며 도전이다. 한참 뒤에 돌아보면 얼마나 더 잘 살았는지는 몰라도 이민으로 인해 잃어버린 것들도 문득문득 떠오를 수도 있다. 결국은 지극히 객관적인 성공과 실패의 대차대조표를 정확하게 작성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된다. 내 기준으로는 절대 성공도 없고 절대 실패도 없다는 것이 특수한 환경에서 얻은 결론이다.

이 글은 '문학' 이라기보다 이야기다. 순탄하지만 않았던 이민 생활이라 사연이 많아서 쉬운 이야기거리를 주절주절 시간대 별로 하소연한 글일 뿐이다. 작은 바람이 있다면 유행병처럼 쉽게 '이민' 이야기를 하기 전에 충분한 이민 대차대조표를 잘 작성하는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체험수기 부문 / 우수상 

## 시베리아 찬바람속에서 11년 인생살이



리삼민 (중국)

내 생활 수기가 “재외동포문학상” 우수상에 뽑혔다는 소식을 듣고 설레는 마음을 견줄 수 없었다. 창문을 열면 보이는 건 첩첩산중이요, 들리는 건 새 소리뿐인 흑룡강 변강오지에서 태어나 휘청거리며 걸어온 70여 년 인생의 갈피에 깔린 고달팠던 생활의 한 토막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필을 들었는데 이처럼 묵직한 상을 받게 되다니, 이 시각 나의 마음 어찌 격동되지 않으랴.

‘생활은 곧 작품이다’라는 명언도 있듯이 내가 살아온 인생길을 돌이켜 보면 그야말로 험난한 가시덤불을 헤치고 나면 아찔한 벼랑이 앞을 가로막는 고달픈 삶이다. 여섯 살 때 황둥개에게 물려 하마터면 죽을 뻔했고, 그 후에 또 세 번 대수술을 하여 옷을 벗으면 온통 상처 자국이다. 초등학교 다닐 때 어머니와 두 형님이 도시락을 싸 들고 일하러 가다 보니 나는 점심때 집에 와서 돼지죽을 주고 물을 두 독 가득 길어 오고 돼지풀을 캐야 했다. 밤이면 또 새끼를 60미터 파야 했다. 국가 공무원 시험에 세 번이나 도전해 봤으나 여건의 미달로 하여 번번이 낙마했고 네 번 만에야 겨우 중학교 교사가 되었다. 개혁, 개방 후 더 잘 살아보려고 러시아로 건너가 시베리아 찬바람 속에서 장장 11년 철물 장사, 과일 도매, 채소 농장…… 닥치는 대로 일했다. 바로 이런 생활이 있었기에 나의 뼈는 남보다 굳세었고, 나는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체험하게 되었으며, 오늘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갖게 되었다. 철학자 파스칼은 “몸이 굵으면 그림자도 굵으니 어찌 그림은 굵은 것만 한탄하겠는가. 나 이외에는 아무도 나의 불행을 치료해 줄 사람이 없다”고 했다. 이제 나는 고회를 넘겼으니 언제 어느 때 나무처럼 넘어갈지도 모르고 있지만 숨지는 그 시각 까지 파스칼의 명언을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갈 것이다. 끝으로 보잘것 없는 나의 출작에 새 생명을 주신 재외동포재단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체험수기 부문 / 가작 

## 자아 정체성, 동포3세 이야기



차바실리 (카자흐스탄)

우선 제22회 재외동포문학상 공모전을 개최해 주신 재외동포재단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생각도 못했지만 제 스토리가 당선된 것은 매우 놀랍고,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책을 좋아합니다. 어린 시절에 읽을 줄 몰랐을 때 그림만 보거나, 읽어준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녔을 때는 문학을 포함한 인문 과목들을 좋아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카자흐스탄에서 발간하는 ‘고려일보’ 신문, 동포들을 대상으로 출판하는 책자와 잡지에 가끔씩 러시아어로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한국어로도 글을 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뭔가 있어서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유학 시절 때 책을 번역하고, 한-러 사전의 후반 작업에 참여했지만…….

올해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발생한 자가 격리로 집에만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재외동포재단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우연히 재외동포문학상 작품 공지사항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반드시 해 봐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체험 수기의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스토리를 쓰기로 결정한 이유는 카자흐스탄 동포들이 조국의 사랑과 자랑, 한국 사람들과 같은 뿌리와 피를 가지고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문학상 작품 공모전이 매년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모전으로 각각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는 시, 소설, 이야기를 통하여 자기 체험, 생각, 감정을 표현하고,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체험수기 부문 / 가작

# 나의 이름은 태양



류 모니 카 (미국)

발전 도상에 있던 모국을 떠나 세계 최고라는 곳에서 의학 수련을 받기 위해 도미한 후, 여러 가지 이유에서 미국을 내 나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국-내 아버지 어머니의 나라, 내가 태어난 나라-이 있고, 모국어와 한글이 있어 지구라는 땅에서 풍성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한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유산인지 모릅니다. 한글로 글을 쓸 수 있다는 특권을 우리 한국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을 떠나 있어도 7백 5십만이 넘는 한국의 피를 받은 한반도를 떠나 사는 지구인들은 한글을 쓰고, 배우고, 가르치고, 진흥하고 또 사랑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저의 글 '나의 이름은 태양'은 저와 저의 환자이었던 윤 태양에게 소중한 영혼의 유산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글은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님에게도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도착할 때까지 영적으로 함께해 주신 태곳적부터의 글을 통한 선배님들, 삶의 동반자들, 환자들, 입양아들, 고아들에게 앞으로도 함께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 체험수기 부문 / 가작

# 아이들과 독일에서 산다는 것



박 에 스테 (독일)

내 마음은 아직 스무 살 같은데 벌써 서른 중반을 훌쩍 넘어 마흔에 가까운 나이가 되었다. 내 나이의 사분의 일, 꼬박 10년은 아이를 넷이나 낳고 키우느라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그 와중에 나라까지 옮겨 살게 되면서 내가 느낀 정신없음의 총량은 갑절이 아닌 곱의 곱절이었다. 그래도 시간은 흘러 아이들이 엄마 손을 털 타게 되고, 낯선 언어로 적당히 소통할 수 있게 되면서 10년짜리 깜깜하고 긴 터널을 지나온 기분이 든다. 지금 나에게 위안이 되는 건 지나간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 시간은 과거로 돌릴 수 없으니 천만다행이라는 것.

힘들게 지나간 것은 그대로 놔둬야 하는데, 재외동포문학상에 출품할 글을 쓰기 위해 그 시간을 되짚어봐야 했다. 찬찬히 들여다보니 다 집어치우고 싶을 만큼 힘들 때도 있었지만 내가 이런 호사를 누리려도 되나 싶을 만큼 행복하고 좋을 때도 있었다. 행복했던 순간들은 주로 아이들 때문이었고, 힘들었던 순간들은 낯선 땅에서 내 자존감이 떨어질 때였다. 행복하다가 힘들었다가, 또 행복하다 또 힘들었다가. 위아래로 요동치며 굴곡을 만들었던 점들을 이어보니 분명한 것은 10년 전보다 내가 나아졌다는 것. 이것 또한 천만다행이다. 글로 되짚어본 지나간 시간들은 나를 천천히 인간답게 만드는, 나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 그 시간을 정리해 볼 수 있는 한 편의 글을 쓸 기회를 얻음에 감사하고, 또 수상작으로 선정되어 스스로 칭찬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김에 감사하다.

## 청소년 글짓기 부문 / 최우수상

중·고등 부문

### 가을비의 사랑법



김미혜 (중국)

수상 명단이 담긴 이메일을 받았을 때 이게 꿈이라면 제발 깨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벅찼습니다. 너무 두근거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릴 정도였습니다.

이상하게 어렸을 때부터 자존감이 낮았던 저는 늘상 “난 못해”란 마인드였습니다. 특히 대학 입시 시험이 일 년 남짓 남아 생각이 많아져 자존감이 지하 백 층까지 떨어진 와중에 날아온 이 희소식은 “괜찮아, 잘하고 있어”란 따스한 위로 한마디처럼 들려옵니다. 한숨은 삼키고 미소로 하루를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글로 써보았습니다. 사랑했고 슬퍼했고 원망했던 그 시절의 기억들을 하나하나 꺼내다 보니 더없이 불행하다고만 생각했었던 기억 조각들 사이사이에도 행복이 어려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각박한 세상이라도 따스함이 서려있다는 걸 가슴에 새기며 바른 마음가짐으로 모든 일에 임해야겠다는 다짐을 세우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마음을 토닥토닥 다독여 주는 글을 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위로를 줄 수 있는 글을 쓰는 꿈이 움실움실 자라났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직 많이 서툴고 부족하지만 언젠간 꿈이 이뤄지길 바라며 저 밤하늘 속 빛나는 별들처럼 반짝거리길 바라며 어렵듯이 보이는 길을 따라 씩씩하게 걸어가렵니다.

햇빛은 달콤하고 비는 상쾌하고 눈은 기분을 들뜨게 만드는 듯 모든 것에 감사의 마음을 품고 베풀며 살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청소년 글짓기 부문 / 우수상

중·고등 부문

### 아이단 + 라만 = 나



홍찬양 (아제르바이잔)

1학년서부터 다니고 있는 현지 공립학교라 많은 이야깃거리가 있는데 그중 가장 친한 아이단과 라만에 대한 이야기로 우수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두 친구에게 아직 아이단과 라만을 소재로 한국에서 주최하는 글짓기 대회에 응모 했다는 말을 못 했어요.

상을 못 받을 수도 있어서요. ㅎㅎ

이제 자랑스럽게 친구들에게 알리고 글짓기 내용도 읽어주며 절친들과 기쁨을 함께 하려고요.

재외동포문학상을 통해 저를 발견해 가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저 지금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 글짓기 부문 / 우수상

중·고등 부문

### 꿈꾸는 디아스포라



김 다 윤 (오스트리아)

안녕하세요! 오스트리아 비엔나 한글학교 김다운입니다.

2020년 재외동포문학상에서 좋은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글짓기를 하면서 스스로 저의 정체성을 바르게 정리하고 한인 디아스포라 2세로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로 모든 것이 달라진 2020년을 보내면서 재외동포문학상 응모를 통해 저에 대해 생각해 보고 무언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게 된 것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좋은 상을 받게 되어 스스로에게 큰 동기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작곡에 관심이 생겨 악기를 다루면서 곡을 만들며 알찬 방향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인 디아스포라 2세로서 지금 만드는 제 곡들에 한국의 대한 역사를 가사로 붙여 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곡을 쓰고 있습니다. 가사를 쓰기 위해서 한국의 역사를 스스로 공부하며 배우는 새로운 시간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외동포문학상이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좋은 자극과 도전들을 발판 삼아 미래를 더욱 구체적으로 그려나가는 자랑스러운 한인 디아스포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 청소년 글짓기 부문 / 장려상

중·고등 부문

### 주름살에 핀 웃음 꽃



유 다 은 (태국)

올 한해는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먼 이국땅에서 계신 분들의 고통과 불안함은 더 크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가족 역시 해마다 방문하는 한국행을 이번 여름방학 때는 포기해야했습니다. 87세가 되신 외할머니는 작년 이후로 부쩍 쇠약해 지시고 친할머니도 몸이 안좋다는 말씀에 엄마와 아빠는 직접 뵙지도 못하니 걱정이 더 커져갑니다. 그러나 양쪽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해외에 있는 우리 가족이 걱정이라며 전화드릴 때마다 걱정하지 말라 하시며 오히려 저희 가족 몸 조심하라고 당부에 또 당부를 거듭하십니다.

이번 글은 작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 외할머니를 추억하면서 쓴 글입니다. 비록 올 해는 외할머니를 뵙지 못했지만 글을 쓰면서 할머니의 포근함과 사랑을 다시 한 번 느낄수 있어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외할머니께 수상 소식과 함께 제가 쓴 글을 전화로 읽어드렸더니 아이처럼 기뻐하시며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강인한 분이셨는데 요즘 들어 목소리에 힘도 없으시고 기운이 없으신 거 같아 마음이 아팠는데 수상 소식을 들은 외할머니의 목소리는 생기가 넘치셨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내년에는 한국에서 가족들과 친척들을 뵙기를 소망해보며 해외에 계신 많은 분들이 화이팅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할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꼭 건강하셔야 해요.”

그리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희의 한글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치앙마이 한글학교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선생님들과 재외동포재단 관계자들분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 청소년 글짓기 부문 / 장려상

중 · 고등 부문

## 집은 내 마음 속에 있다



윤 에스더 (감비아)

이번에 재외동포문학상을 수상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캐나다에서 자라나고 서아프리카의 조그만 나라 감비아와 그 이웃 나라 세네갈에서 3년째 살아오고 있습니다. 17년 저의 삶 속에 경험한 다양한 배경들이 저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준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는 그것이 오히려 저에게 축복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이번 공모를 통해 글로 정리하고 나누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엄마가 처음 공모전에 대해 이야기하셨을 때, 저는 솔직히 지원할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을 받게 되니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제가 한 가지 더 깨달은 것은, 제가 속한 공동체는 단지 저의 학교, 교회, 그리고 이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재외한인동포 공동체의 한 일원이고 그 공동체의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경험들을 갖고 있지만, 한국인이란 공통점과 자긍심이 서로를 하나로 묶어준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었는데, 재외동포문학상 수상은 저에게 예기치 못한 기쁨을 가져다주었고, 이 힘든 시간을 오히려 잊지 못할 추억이자 제 삶의 소중한 기억으로 남게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청소년 글짓기 부문 / 장려상

중 · 고등 부문

## 내가 영어를 못해도 되는 이유



표 현규 (캐나다)

코로나19로 세계가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번에는 K-POP과 같은 정도로 K-방역이라는 단어가 세계인들에게 좋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점차 한국이라는 이름이 자랑스러운 단어가 되니 정말 뿌듯하다. 타민족 친구들은 한국 마스크가 세계에서 제일 좋다는 말도 하며 부러워했다. 그런데 제22회 재외동포문학상 수상 소식도 받게 되어 정말 기쁘고 다시 한국어를 잘 하는 내 자신이 너무 좋다.

코로나19로 인해 3월 봄방학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학교에 나가지 못했다. 9월부터 새 학년이 시작하는 캐나다에서 이제 다시 새 각오를 다지며 학교 갈 준비를 한다. 그 동안 K-POP 가수나 한국인 e-스포츠 선수, 그리고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뿐 나 자신은 주인공이나 화제의 주인이 되지 못했다. 이번에 문학상 수상을 해서 이제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내 이름을 당당하게 넣어서 얘기할 수 있게 되었다.

부모님도 수상 소식에 좋아하셨지만, 내가 쓴 글을 보고 걱정이라고 하신다. 하지만 내가 꿈꾸는 세상은 바로 한국어가 세계 주요 언어가 되는 것이다. 셰익스피어가 있기 전까지 영어는 잘 알려지지 않은 언어였다고 한다. 한국어도 점차 세계인들이 자주 쓰고 배우는 언어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열심히 영어도 공부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 또 많은 재외동포가 한국을 더 빛내기 위해 먼 나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했으면 좋겠다.

## 청소년 글짓기 부문 / 최우수상

초등 부문

## 별



신 울 (중국)

중국 칭다오 청운학교를 다니고 있는 신울입니다. 이 상을 받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이렇게 큰 대회에서 저의 부족한 글짓기 실력으로 이렇게 큰 상을 받을 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글쓰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좋은 경험으로 생각하고 참가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경험으로 시작했지만, 주제가 정해지고, 글을 조금씩 쓰면서 욕심이 생겼습니다. 글을 계속 쓰면서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좋은 내용의 글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 덕분에 이렇게 좋은 상을 탄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의 글의 주제는 저의 할머니를 생각하며 쓴 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와 자랐던 좋은 추억들이 저에게 영감을 주어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할머니께서 제 글을 읽어보시고 저에게 '우리 손주 잘 썼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민망함 그리고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가 제 글을 보고 우셨습니다. 어머니가 온 장면은 거의 처음 보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상을 받으니 할머니가 더욱더 그리워지네요. 더구나 코로나로 찾아볼 수도, 할머니께서 오실 수도 없어 가슴이 뻐어집니다. 빨리 이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가고 아픈 사람들이 없어지길 간절히 빌어봅니다. 저의 부족한 글을 높이 평가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영광을 가족과 함께합니다. 이번 수상을 통하여 글을 쓰는 것에 흥미를 더욱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여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제 자신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청소년 글짓기 부문 / 우수상

초등 부문

## 뼈약이의 탄생



박재윤 (케냐)

저는 제 글이 우수상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냥 재미있을 것 같아서 응모한 거죠. 엄마가 처음에 함께하자고 하셨을 때는 그리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도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에 있는 닭 '뼈약이'에 대해서 쓰기로 했어요. 그런데 제 글이 뽑혀서 너무 기뻐요.

사실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 제 가족 덕분이에요. 저희 아빠가 온도 조절기와 유정란을 구해 주지 않았다면 저는 뼈약이에 대해서 쓸 일이 없었겠죠. 만약 엄마가 부화 장치를 만들어주시지 않았다면 뼈약이는 모르는 존재가 되겠죠. 만약 준철 형아와 제가 전란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뼈약이는 탄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없었다면 이 글도 쓰지 않았을 테고 상도 없었을 테죠.

처음에 누가 보낸지 모르는 메일을 보고 엄마한테 보여 드렸는데, 제가 재외동포문학상을 받는다는 글이었어요. 저는 너무나 기뻐요. 제 글을 읽어주시고 뽑아주신 모두한테 감사드려요.

청소년 글짓기 부문 / 우수상 

초등 부문

## 아주 특별한 산책



장 하진 (미국)

저는 외할머니와 아주 특별한 사이입니다. 외할머니는 제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 집중해 주시고 항상 웃어주셔서 저는 외할머니 앞에서 요정이 된 듯한 기분이 듭니다. 항상 웃으며 제가 제일 듣고 싶은 말을 해주시니 할머니는 나의 든든한 서포터이면서 나도 할머니를 행복하게 해주는 존재라는 사실이 우리를 특별한 관계로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날의 특별했던 산책은 제 가슴속에 사진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글이 지난 2월에 천국으로 가신 외할머니께 바치는 글이 되어 저에게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할머니를 위해 쓴 이 글이 또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진 글이 되어 할머니도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를 제일 좋아하지만 ‘슬픔’이라는 느낌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절대 희망을 잃지 마.” 노란 꽃을 보면 ‘할머니’와 ‘희망’이 떠오릅니다. 글을 쓴다는 것도 힘든 일인데 글을 쓰면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나를 바꾼 글이기 때문에 이 글이 상을 받은 것에 대해 할머니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평범한 하루였지만 잊지 못할 그 순간을 글로 남기고, 작은 스케치 그림으로 할머니를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칭찬과 격려를 해주신 가족과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을 나누고 희망을 전하는 좋은 글을 더 많이 쓰고 싶도록 상을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청소년 글짓기 부문 / 장려상 

초등 부문

## 난 꿈이 있어



이윤서 (중국)

‘재외동포문학상’ 당선 소식은 저의 마음속 꿈 보따리에서 또 하나의 작은 꿈을 꺼낼 수 있는 용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태어나 두 가지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한국 사람임을 항상 기억하라는 부모님 말씀대로 학교에서는 중국 친구들과 다름없이 열심히 공부하고 주말에는 한글학교를 다니며 한글과 우리 역사를 배우며 한국 사람임을 잊지 않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두 가지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한글학교가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저는 한국 친구들과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한글학교가 재미있기도 했지만 그곳에 저의 꿈을 응원해 주시는 멋진 선생님들이 있었기에 더 행복했습니다. 숙제로 낸 일기장을 돌려받을 때면 ‘오늘은 선생님께서 어떤 댓글을 써주실까?’ 두근거리기도 합니다. 동시 쓰기를 좋아해 동시로 일기를 쓸 때면 선생님께서는 칭찬과 격려의 댓글로 저를 응원해 주셨고, 그 응원은 저에게 작가의 꿈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처음 한글을 배울 때 너무 어려워 울던 아이가 이젠 한인회 주최 ‘꿈나무 글짓기 대회’ 최우수상도 받고, ‘재외동포문학상’ 당선도 느끼며 동시, 동화 작가의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늘 열정과 사랑으로 응원해 주신 한글학교 선생님, 그리고 소중한 경험을 주신 ‘재외동포문학상’ 선생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꿈을 향해 열심히 공부하고, 나누며 배려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되겠습니다.

## 청소년 글짓기 부문 / 장려상

초등 부문

## 내 인생의 첫 술



김 동 현 (미국)

제가 상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행복함의 쇼크가 쿵 왔습니다.

‘내 인생의 첫 술’로 ‘내 인생의 첫 큰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1년 반 전, 할아버지께서 대장암에 걸리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충격이 생각납니다. 그 후 할아버지는 큰 수술과 열두 번의 항암 치료를 받으시고 지금은 아주 건강하십니다.

암을 용기 있게 이겨내신 제 이야기의 주인공, ‘나의 히어로 할아버지’께 큰 선물이 된 것 같습니다. 언제나 저를 서포트해 주시고, 제 인생의 첫 술을 가르쳐주신 아빠께 자랑스러움이 된 것 같습니다.

언제나 저를 이해해 주시는 멘토, 저의 멋진 글쓰기 선생님이신 엄마께서는 큰 기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6년 동안 저를 가르쳐주신 콜로라도 통합 한국학교 선생님들께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의 성취를 동기로, 앞으로 재미있는 작품들을 더 많이 쓰고 싶습니다.

창의적 글쓰기는 커뮤니케이션의 좋은 방법이며, 감정 표현의 훌륭한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특별하고 의미 있는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저는 감동이고 영광입니다!

즐겁게 글쓰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재외동포재단에 감사드립니다!

## 청소년 글짓기 부문 / 장려상

초등 부문

먹어봐요 김치를,  
함께 취요 K-Pop을~~

박 지 후 (뉴질랜드)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운 나라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박지후입니다.

재외동포문학상 수상자에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엄마께 전해 듣고 저의 기분은 날아갈 듯 기뻐했습니다. 정말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이 글짓기를 준비할 때 뉴질랜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안타깝게도 락다운 기간이어서 이 시간을 재외동포문학상 공모전에 참여하며 의미있게 보내는게 어떠한 가족의 권유로 시작하게 되어 학교 온라인 수업시간 외에 많은 시간을 공들여서 준비하였습니다.

재외동포문학상은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동포 청소년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수상은 기대도 안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소식을 두번째 락다운 때 듣게 되어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수상 소감을 쓰고 있는 이 순간도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도 권유해 주실 때 제가 상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르셨겠죠? 다시 한번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정성껏 쓴 글을 재미있게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뉴질랜드에서 빛나는 한국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양수기 부문 / 대상 

# Mother, Lost and Found



Hana Crisp (호주)

I am deeply honoured to receive this award. First, I wish to thank the Overseas Koreans Foundation for introducing the Adoption Memoir category this year, which was open to submissions written in English as well as in Korean. As a Korean adoptee, I, too, am proud to call myself an overseas Korean. Thank you for honouring the experiences of adoptees like myself, for sharing our stories—even when they challenge the fairy-tale narrative of adoption, and for recognising our community as an important part of the global Korean diaspora.

Second, I want to acknowledge the Korean adoptee writers, artists, and activists who came before me, who gave me the courage to find my voice as an adoptee and use it, and who paved the way for me to ultimately build a life in Korea. Thank you friends, onnis, and oppas. I am continually inspired by your courage and brilliance.

Finally, thank you Mee Joo, Katelyn, and Peter for encouraging me to write and for reading multiple drafts of this piece. Thank you to my Korean family for welcoming me back to my birth country and for accepting me as I am. And thank you Mum, Dad, and Odette for your eternal love and support: I am who I am because of you.

# 잃어버린 어머니와의 재회

이 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우선 올해 입양수기 부문을 신설해서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응모할 수 있게 해주신 재외동포재단에 감사합니다. 한국인 입양인으로서 저도 제 스스로를 재외동포라고 부를 수 있어서 자랑스럽습니다. 저와 같은 입양인들의 경험을 존중해주고, 우리 이야기를 들려준 것—심지어 이 이야기들이 입양에 대한 환상과는 매우 다름에도 불구하고—과 글로벌 코리안 디아스포라에서 입양인들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한국 입양동포 작가들과 예술인, 그리고 운동가 선배님들께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를 찾아 세상에 낼 수 있게 해주시고, 제가 가는 길을 미리 닦아 결국에는 한국어로 오게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들, 언니(onnis)들 그리고 오빠(oppas)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저는 당신들의 용기와 지혜에 매순간 영감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쓰게끔 힘을 주고 여러 장의 원고를 읽어주신 미주와 케이틀린 그리고 피터에게 감사합니다. 모국에서 저를 환영해주고 제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여준 제 한국가족들에게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는 엄마, 아빠, 오데뜨에게도 감사해요. 지금의 저는 당신들로 인해 존재해요.

감사합니다.



입양수기 부문 / 가작 

## Add More Salt If Necessary

a memoir of adoption, finding home,  
and learning to make kimchi



Ann-Kathrin Moon  
(독일)

I am extraordinarily honored and grateful for the opportunity to write down and share parts of my story. Thank you to the Overseas Koreans Foundation who included us adoptees into the group of overseas Koreans and gave us the chance to engage with our history in such a rewarding and inspiring way. I think that for most of us, the writing process has been one step on our way towards healing and forgiveness. Thank you to Anne and Kate, my two beautiful writer friends who encouraged me throughout the whole process and whose support and feedback was invaluable.

This memoir is dedicated to my two mothers. Neither of you is going to read these words but I want you to know that without you, I wouldn't be the person I am today. Thank you for giving me all your love and forgive me for not being a better daughter.

## 필요시 소금을 추가할 것

입양, 가정 찾기, 김치 만드는 법  
배우기에 대한 회고록

제 이야기를 공유할 기회가 있음에 매우 감사하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입양인들을 재외동포로 포함시켜주고, 각자의 역사를 보람 있고 용기 있는 방법으로 마주하게 해주신 재외동포재단에 감사합니다. 아마도 우리 대부분은 글을 쓰면서 치유와 용서의 길에 한 걸음을 내딛었을 것이라고 짐작해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저를 격려해주고 귀중한 피드백으로 지지해줬던 제 두 명의 작가 친구인 앤과 케이트에 감사합니다.

이 수기는 제 두 명의 어머니들에게 바칩니다. 두 분 다 이 글을 읽지는 못하시겠지만, 당신들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다는 것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당신들의 모든 사랑을 저에게 준 것에 감사하고 제가 더 좋은 딸이 되지 못한 것을 용서해주기를 바랍니다.

입양수기 부문 / 가작 

Dear Eomma



김 난 이 (미국)

My first year living in Korea has been busy but meaningful. When I first wrote this piece I felt the need to return to Korea was so strong that I left my life in the U.S. Reading this piece now feels so different, as my understanding of what it means to be Korean has grown and matured the longer I stay and learn. I feel honored to accept this prize for such a personal piece, and it is truly encouraging to know that my voice is heard. Thank you for the opportunity to share my story, and for acknowledging that adoptees too are part of the overseas Korean community. I hope others like me can feel less alone and less frustrated, and be encouraged in their journey to discovering for themselves what it means to come home.

## 친애하는 엄마에게

한국에서의 첫 해는 바빴지만 의미가 있었다. 이 작품을 처음 썼을 때는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욕구가 무척이나 강해서 미국에서의 나의 삶을 놔두고 와버릴 정도였다. 완성된 작품을 읽고 있자니 그때와는 또 다른 기분이다. 내가 한국에 머물면서 많은 것을 배울수록 한국인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더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이리라. 나의 개인적인 경험을 녹여 쓴 글이 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이고, 누군가 나의 목소리를 들어줬다는 사실에 힘이 난다. 나의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과, 입양동포들도 재외동포의 일부임을 인정해주신 것에 감사한 마음이다. 나와 같은 사람들이 부디 덜 고독하고 덜 답답하기를 바라며, 집에 돌아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찾는 인생의 여정에서 용기를 내기를 바란다.

제22회 재외동포문학상 수상작품집  
「2020 재외동포 문학의 창」

**발행처** 재외동포재단  
**발행일** 2020년 10월 30일  
**디자인** 편집 (주)프라임디엔피  
**표지 일러스트** 밝은사람들  
**교정/교열** 박은정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5 재외동포재단  
**홈페이지** <http://www.korean.net>

**ISBN** 979-11-85409-52-8

<비매품>

---

※ 이 책의 저작권은 재외동포재단에 있으며 이 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시려면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